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김준홍
공동연구원 | 정선아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II: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김준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정선아(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발 간 사 ■ ■ ■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반세기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세계사에 유례 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 OECD, G20 가입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정보산업의 확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과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문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의 대두,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의 진전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담당할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의 함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의 시민역량 증진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OECD에서 제안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연구를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검토하였고, 2009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가 세계 38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시민성·시민교육 연구(ICCS)의 조사결과 분석작업에 참여하여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다른나라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는 2011년에 시작된 ICCS 조사결과 분석의 2차년도 연구로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청소년 및 교육 부문에서 시민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22-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연구총괄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2-22-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12-22-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한국교육 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이종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협력 연구기관	한국교육 개발원	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국 문 초 록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미흡함을 민주주의의 위기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희소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공백을 메우기 위한 학문적 시도로서 국제비교의 시각에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미흡함과 그 원인진단 및 지원체계 개발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개인단위와 국가단위에서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인지 이론적 논의를 거쳐 실증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ICCS(2009) 조사에 참여한 38개 국가별로 개인단위에서 변인 간의 선형적 관계를 알아보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느 나라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중에서 오락적 이용은 전반적으로 민주시민역량과 부적 상관을, 정보적 이용은 민주시민역량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가족내부 사회 자본은 상당 부분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국가별로 국가단위에서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각국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가족내부 사회자본, 사회경제지표가 각각 민주시민역량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로 정보추구 동기의 이용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민주시민역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오락추구 동기의 이용(휴대폰·인터넷을 매체로 이용한 친구와의 채팅을 포함)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민주시민역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국가단위의 민주시민역량은 각국의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축적과 정적으로 상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토대를 두고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 개발방안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을 둘러싼 미디어환경과 가족체계를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와 연계하여 성찰하는 정책 아이디어의 확산이 필요하고 관련 정책융호연합이 형성되어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양한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이 고려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보추구 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보다 강조되고 오락추구 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적절하게 규율되도록 하는 청소년 미디어정책이 필요하다.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축적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혜택이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족지원정책이 요청된다.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구조는 청소년의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기타 청소년이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청소년에게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제공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 단편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한국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뒷받침되는 지원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핵심어: 민주시민역량, 청소년, 국제비교, 지원체계, 민주주의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ICCS(2009) 자료의 선행 국제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취약함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비교의 시각에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취약함과 그 원인진단 및 정책적 해결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 문제의식이자 출발점임.
- 본 연구는 개인단위와 국가단위에서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인지 이론적이고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규명하는 것이 연구 목적임. 나아가 본 연구는 국제 비교적 분석을 통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를 제시하는 실천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2. 연구방법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검증하고자 통계분석(다중회귀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음.
- 38개 국가별로 미시적 변인 간의 선형적 관계를 알아보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고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변인과 가족내부 사회자본 변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음.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변인의 패턴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국가유형을 도출하는 준거로 활용하였음.
- 38개 국가별로 거시적 변인간의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하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가단위의 거시적 민주시민역량과 거시적 변인인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가족내부 사회자본, 그리고 각국의 사회경제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음.

3. 주요결과

- 청소년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ICCS(2009) 조사자료 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국가인 38개국별로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및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변인의 군집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들을 분류하였음. 그 결과 국가들의 분류상의 상이성은 나타났으나, 독립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경우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38개 국가 간 변이가 크지 않았음.
- 어느 나라든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중에서 오락적 이용은 전반적으로 민주시민역량과 부적 상관을, 정보적 이용은 민주시민역량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고, 책임기는 오락물 중에서 예외적으로 민주시민역량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터넷 이용은 정보물인 경우에도 일부 민주시민역량과 부적 상관이 있음. 정보적 인터넷이용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양면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하게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 38개국별 다중회귀분석과 그 결과의 분류에 따르면, 가족내부 사회 자본은 상당 부분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기여함.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국내외 이슈에 관하여 대화적 소통을 자주할 때의 효과는 청소년 자녀의 민주시민역량의 증진을 가져옴. 단지 부모가 가족과 더불어 시간을 함께 보내는 편이라고 평가되는지 여부는 제한된 범위의 민주시민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특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음.
- 국가단위의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상관에 있어서는 미디어이용 동기에 따른 차별성과 동시에 미디어 종류에 따른 차별성이 함께 나타남. 대체로 큰 틀에서는 정보추구 동기의 이용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거시적 사회자본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오락추구 동기의 이용(휴대폰·인터넷을 대체로 이용한 친구와의 채팅을 포함)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거시적 사회자본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그렇지만 오락적 책임기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많아 그러한 경향에서 상당히 벗어남.
-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대체로 거시적 사회자본/민주시민역량을 저해하는 방향의 상관을 보였지만,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감소와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기에, 한편으로 민주시민역량의 증진과, 다른 한편으로 민주시민역량의 저해를 함의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해석됨. 이러한 양면성은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에도 적용될 수 있음.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도 대체로 거시적

사회자본/민주시민역량을 저해하는 방향의 상관을 보였지만,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감소와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기에, 한편으로 민주시민역량의 증진과, 다른 한편으로 민주시민역량의 저해를 함의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해석됨. 이처럼 인터넷은 오락추구 동기에 따르든 정보추구 동기에 따르든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관계가 이중적, 양면적임.

- 국가단위의 거시적 사회 자본은 명백히 각국의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축적과 상관되고 있음. 국가단위의 분석에서는 부모가 가정생활에 시간할애를 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으로 대표되는 거시적 사회자본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분석결과는 단순히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활용하여 시민교육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게 될 때 국가수준에서의 민주시민역량 증진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
- 본 연구결과는 거시적 사회자본/청소년의 집합적 민주시민역량이 개인수준을 넘어서 국가수준에서 긍정적 사회경제적 효과·효능을 가진다는 추론을 지지하여 지지 못함. 국가단위 거시적 변인들 중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 정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성인 문자해독 비율, 1인당 GDP, 인간개발지수, 공교육비지출은 각각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관계가 부적 방향임.

4.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 개발 방안

- 청소년을 둘러싼 미디어환경과 가족체계를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와 연계하여 성찰하는 정책 아이디어(policy idea)의 확산이 필요함. 제도권에서의 권력과 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근거를 구비한 관련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어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함.
-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강화를 염두에 둔다면, 다양한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이 고려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보추구 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보다 강조되고 오락추구 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적절하게 규율되도록 하는 청소년 미디어정책이 필요함.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규제정책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 청소년이 애용하는 미디어콘텐츠를 시민역량 강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오락적 콘텐츠와 정보적 콘텐츠의 결합). 미디어 이용규제와 바람직한 미디어콘텐츠의 활성화는 청소년의 미디어리터러시 증진과 맞물려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한국 청소년은 미디어리터러시를 가지게 됨으로써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부분별한 오락적 소비가 가지는 결과와 그 사회적 의미인 민주시민역량의 저해에 대응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민주시민역량이 취약한 한국 청소년 및 그중에서도 더욱 시민역량이 결핍된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족내부의 소통적, 과정적, 관계적 자본의 축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 가족 의제를 정치 및 정책 의제로 만드는 것이 긴요함. 향상된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혜택이 가족구성원, 특히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족정책이 요청됨.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은 기회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을 길러내기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이 제공하는 기회를 어떻게 연계하여 배치시킬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중요함.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구조는 청소년의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기타 청소년이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청소년에게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제공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결핍은 미래 민주주의의 위기라 할 수 있음. 이 문제는 한국의 시민교육의 위기를 넘어서서 국가와 정치체제의 장래에 관한 것이므로 단편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한국 청소년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사회적 투자가 충분하지 않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됨.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8
3. 연구의 범위	12
제2장 이론적 논의	17
1. 민주시민역량이란 무엇인가?	19
1) 개요	19
2) 민주시민역량과 사회자본	21
3) 신뢰와 참여의 민주시민역량	24
(1) 사회자본 약사(略史)	25
(2) 신뢰: 인식적 사회자본	26
(3) 참여: 구조적 사회자본	28
(4) 인식적·구조적 사회자본간 관계	30
2.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의 영향요인	30
1)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민주시민역량	31
(1)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신뢰	31
(2)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참여	33
2) 가족요인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36
3. 미시적 사회자본을 넘어서	38
4.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42
제3장 연구설계	45
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47
2. 주요 변인과 연구방법	49
3. 연구모형	51

제4장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의 영향요인: 국가별 실증분석	53
1. 문제제기	55
2. 연구방법	56
1) 분석자료	56
2) 측정변인	60
(1) 종속변인	60
(2) 독립변인	63
(3) 통제변인	64
3) 통계적 방법과 모형	65
3. 결과 및 해석	66
1)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신뢰와 사회정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	66
(1)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66
(2)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67
(3)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68
(4)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	69
(5)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	70
(6)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	71
(7) 해석	72
2)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신뢰와 사회정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	73
(1)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73
(2)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74
(3)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75
(4)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	76
(5)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	77
(6)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	78
(7) 해석	79
3)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신뢰와 사회정치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0
(1)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80

(2)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81
(3)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1
(4)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2
(5)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2
(6)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3
(7) 해석	83
4.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신뢰와 사회정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4
(1)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84
(2)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86
(3)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8
(4)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9
(5)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90
(6)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91
(7) 해석	93
4. 논의	94

제5장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국가단위 분석 97

1. 문제제기	99
2. 연구방법	100
1) 분석자료	100
2) 측정변인	101
3) 통계적 방법	101
3. 결과 및 해석	102
1) 민주시민역량의 국가 간 비교와 산점도	102
(1) 제도신뢰와 대인신뢰	102
(2) 전통적 참여의향(선거참여의향과 정파적 참여의향)	104

(3) 대안적·저항적 참여의향(합법적 참여의향과 불법적 참여의향)	106
(4) 해석	108
2) 미디어이용의 국가 간 비교와 산점도	109
(1) TV 등 영상미디어 이용	109
(2) 서적, 신문 등 인쇄미디어 이용	111
(3) 컴퓨터, 인터넷의 이용	113
(4) 휴대폰, 인터넷을 매개로 한 친구와의 채팅	115
(5) 해석	115
3)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국가 간 비교와 산점도	116
(1) 부모의 가정생활(가족에의 시간할애)	116
(2)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대화(커뮤니케이션)	118
(3) 해석	120
4)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120
(1) 미디어이용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120
(2) 가족내부 사회자본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122
(3) 사회경제적 지표와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123
(4) 해석	125
4. 논의	126
제6장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 개발	131
1. 서언	133
2. 정책 아이디어의 확산과 정책옹호연합	134
3. 청소년 미디어정책	135
4. 가족지원정책	138
5. 결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의 기회구조	140
제7장 결론: 다시 민주주의로	141
참 고 문 헌	147

부 록	167
[부록 1] 국가별 주요변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169
[부록 2] 국가별 다중회귀분석	170
[부록 3-1] 국가별 거시적 변인의 기술통계	208
[부록 3-2] 국가별 사회경제지표	214
[부록 4] ICCS(2009) 조사설문지(학생용 영문판)	215
 Abstract	 258

표 목 차

〈표 I-1〉 ICCS(2009) 38개 조사참여국	13
〈표 I-2〉 ICCS(2009)의 민주시민역량 개념적 구조와 본 연구의 범위	14
〈표 III-1〉 ICCS(2009) 조사대상 청소년 사례 수	48
〈표 III-2〉 주요 변인, 연구방법, 연구문제 및 가설	50
〈표 IV-1〉 ICCS(2009)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인별 특성 ...	56
〈표 IV-2〉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67
〈표 IV-3〉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68
〈표 IV-4〉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69
〈표 IV-5〉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70
〈표 IV-6〉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71
〈표 IV-7〉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72
〈표 IV-8〉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74
〈표 IV-9〉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75
〈표 IV-10〉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76
〈표 IV-11〉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77
〈표 IV-12〉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78
〈표 IV-13〉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79
〈표 IV-14〉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80

〈표 IV-15〉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81
〈표 IV-16〉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1
〈표 IV-17〉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2
〈표 IV-18〉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2
〈표 IV-19〉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3
〈표 IV-20〉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85
〈표 IV-21〉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87
〈표 IV-22〉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8
〈표 IV-23〉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89
〈표 IV-24〉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91
〈표 IV-25〉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92
〈표 V-1〉 미디어이용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122
〈표 V-2〉 가족내부 사회자본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123
〈표 V-3〉 사회경제지표와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124

그림 목차

【그림 I-1】 38개국 청소년의 불신과 참여에 따른 산점도	9
【그림 III-1】 연구모형	51
【그림 V-1】 제도신뢰	102
【그림 V-2】 대인신뢰	102
【그림 V-3】 38개국 청소년의 제도신뢰와 대인신뢰에 따른 산점도	103
【그림 V-4】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104
【그림 V-5】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104
【그림 V-6】 38개국 청소년의 전통적 선거참여와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따른 산점도	105
【그림 V-7】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106
【그림 V-8】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106
【그림 V-9】 38개국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과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따른 산점도	107
【그림 V-10】 오락추구동기-TV, 비디오, DVD	109
【그림 V-11】 정보추구동기-TV	109
【그림 V-12】 38개국 청소년의 영상미디어의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에 따른 산점도	110
【그림 V-13】 오락추구동기-책읽기	111
【그림 V-14】 정보추구동기-신문	111
【그림 V-15】 38개국 청소년의 인쇄미디어의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에 따른 산점도	112
【그림 V-16】 오락추구동기-컴퓨터, 인터넷	113
【그림 V-17】 정보추구동기-인터넷	113
【그림 V-18】 38개국 청소년의 인터넷 등의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에 따른 산점도	114
【그림 V-19】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	115

【그림 V-20】 아버지 가정생활	116
【그림 V-21】 어머니 가정생활	116
【그림 V-22】 부모의 가정생활(가족에의 시간할애)에 따른 산점도	117
【그림 V-23】 국내이슈 대화	118
【그림 V-24】 국제이슈 대화	118
【그림 V-25】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국내 이슈와 국제 이슈의 대화에 따른 산점도	11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국제비교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은 한국 청소년의 현실과 이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주요 원천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2009년에 이루어진 국제교육성취평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주관한 국제시민교육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urvey, 이하 ICCS)의 자료가 분석되어 2010년 출판되었다(Schulz, Ainley, Fraillon, Kerr, & Losito, 2010). 이러한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라는 제목의 공신력 있는 자료의 분석 보고서는 서베이의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대상국인 38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비교자료를 담고 있다.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모색하려 할 때 민주시민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 전반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청소년이 상대적 열위에 있는 시민역량의 하위요인들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며, 한국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검토 역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중학교 2학년들은 다른 나라의 같은 학년 청소년에 비하여 민주시민역량에 있어서 일정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한국 청소년의 강점은 지식영역의 시민적 역량 영역에서 두드러졌다(Schulz et al., 2010:75-79).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식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핀란드와 덴마크가 평균 576점으로 최고였고, 이어 한국은 평균 565점으로 38개국 중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¹⁾ 그리고 563점 이상을 득점하여 소위 level 3에 속한 청소년의 비율에 따라서는, 핀란드가 58%로 1위, 덴마크가 56%로

* 본장은 김준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국제 평균은 500점으로 하였다. 1위 핀란드의 점수의 표준편차는 2.4였고, 덴마크의 경우 표준편차는 3.6이었으며, 한국의 경우 표준편차는 1.9였다. 상위 3개국 중에서 덴마크가 시민지식 점수가 높으면서도 고득점군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나라였다.

2위, 그리고 한국이 54%로 3위를 차지하였다. 479점 이상을 득점하여 level 2 혹은 level 3에 속한 청소년의 비율에 따라서는 한국 청소년이 85%로서, 88%로 1위를 차지한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²⁾

지식영역 외에도 한국 청소년의 민주적 시민역량의 상대적 우위는 태도와 행동 영역의 많은 항목에서 발견된다. 상대적으로 한국 청소년은 민주주의적 가치(democratic value)를 반영하는 진술에 높은 동의 수준을 표명하였다(Schulz et al., 2010:89-90). 한국 청소년은 대체로 정부나 기업이 신문을 소유하는 것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의 정치사회적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시민이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모든 시민이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시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법이 있을 때 이에 저항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그러면서도 정치적 저항행동이 폭력을 수반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러한 반대 혹은 동의의 비율이 ICCS 조사에 참여한 38개국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었다.³⁾

투표참여와 같은 전통적 시민성/정치참여(conventional citizensh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도 한국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았다(Schulz et al., 2010:94). 투표참여, 정당참여, 자국의 역사이해,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이슈를 따라가기, 정부 관료에 대한 존경 표명, 정치적 토론 참여의 6항목의 응답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은 ICCS 국제평균 50점을 넘어서는 평균 53점이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통적 시민성뿐만 아니라 사회운동 관련 시민성(social-movement-related citizenship)의 중요성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ulz et al., 2010:96). 정의롭지 못한 법에 항거하는 평화적 방식의 저항, 지역사회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 참여, 인권증진 활동 참여, 환경보호 활동 참여의 4항목의 응답의 각국 평균을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은 ICCS 국제평균 50점을 넘어서는 평균 52점이었으며,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⁴⁾

그렇다면, 국제시민교육조사(ICCIS)의 분석결과 한국 청소년은 어떤 항목에서 민주시민역량의 취약성을 드러냈는가?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였다. 입법·사법·행정부와 경찰 및 정당을 포괄하는

2) 국제 평균은 58.3%이었다. 덴마크는 83%로서 핀란드와 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3) 예외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가 ICCS 38개국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은 항목이 있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부의 공적 직위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데 있어 한국 청소년은 평균 이하의 반대정도를 표명하였다.

4) 이 외에도 한국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동등인권(equal gender rights)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국제평균을 상회하였다(Schulz et al., 2010:98).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시민활동 참여, 향후 사회정치적 참여기대(expected participation) 혹은 참여의향, 정치적 효능감(internal political efficacy), 인종집단의 동등권리(equal right for ethnic/racial group)에 대한 인식, 이민자의 동등권리(equal right for immigrants)에 대한 인식 등에서였다.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볼 때 한국 청소년이 입법·사법·행정부와 경찰 및 정당을 포괄하는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 의해 언급되었으나(장근영, 박수익, 2011a:77-79) 아직 그러한 결과의 함의나 원인 분석 나아가 정책적 대응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사법부, 경찰, 정당, 의회(국회)에 대한 신뢰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을 때, 한국 청소년은 각 기관에 대한 신뢰항목인 6항목 점수를 평균한 결과 43점으로 ICCS 국제평균 50점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38개국 중에서 최하위이며, 심지어 45점으로 공동 36위를 차지한 라트비아, 폴란드와도 2점이라는 차이를 보여주었다(Schulz et al., 2010:106).

한국 청소년의 최저신뢰(the lowest trust) 경향은 신뢰 혹은 불신의 대상이 되는 기관 전반에 골고루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Schulz et al., 2010:108-109) 더욱 충격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평균 20점, 정당에 대한 신뢰는 평균 18점, 학교에 대한 신뢰는 평균 45점, 군대에 대한 신뢰는 평균 36점으로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매우 현저하게 최저수준이었고,⁵⁾ 것처럼 심하게 두드러진 차이는 아니었지만,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평균 51점,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는 평균 63점으로 국제 평균 수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 청소년의 불신이 국내 제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더욱 당혹하게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한국 청소년의 제도에 대한 신뢰, 이른바 제도신뢰(institutional trust)가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people in general)에 대한 신뢰, 소위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마저도 역시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 때문이다.⁶⁾ 국제비교에 따르면(Schulz et al., 2010:108-109), 한국 청소년의 대인신뢰는 평균 39점으로서 38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며, 이는 ICCS 평균과

5) 이는 ICCS 평균보다 무려 10% 포인트 이상 뒤진 수치이다.

6)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대인관계에서 대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적 신뢰에 의해 일정 부분 대체될 수 있고,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없다는 여러 연구들(Grootaert & Bastelater, 2001; Pichler & Wallace, 2007)을 고려할 때, 한국 청소년의 제도신뢰와 대인신뢰가 동반하여 최저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일 뿐만 아니라 국제평균보다 무려 10% 포인트 이상 뒤진 수치이다. 그리고 대인신뢰 수준에서 평균 47점을 보유함으로써 공동 35위를 차지한 사이프러스, 과테말라, 멕시코의 청소년과 무려 8점의 간격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및 대인신뢰 외에도 상대적으로 한국 청소년은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시민활동 참여에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우선 학교 안에서의 시민활동 관련 참여, 즉 학내 참여(civic activities in school)의 저조함이다. 2009년 ICCS 조사는 정규교과시간 외의 자발적 음악·드라마 활동 참여,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선거 참여, 학교운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 학생회 토론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선거 출마의 6가지 유형의 학내 참여를 질문하였는데, 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반장·학생회 임원 선거 참여 항목을 제외하고 5가지 유형의 학내 참여 비율에서 한국 청소년의 참여 경험 비율은 각각 38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Schulz et al., 2010:138-139).

정규교과시간 외의 자발적 음악·드라마 활동 참여 비율은 23%(38위),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 비율은 33%(32위), 학교운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 비율은 33%(26위), 학생회 토론 참여 비율은 26%(33위), 반장·학생회 임원 선거 출마 비율은 33%(29위)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자발적 음악·드라마 활동 참여,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 학생회 토론 참여의 비율에서는 ICCS 국제평균 참여비율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머지 두 항목인 학교운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와 반장·학생회 임원 선거 출마의 비율에서는 국제평균 참여비율과 비교할 때 10% 포인트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단지, 반장·학생회 임원 선거 참여 비율만이 76%(공동 16위)로서 국제평균 참여비율에 거의 근사하였다. 이러한 학내 활동 참여에 어떤 형태로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18%에 달해 38개국 비참여율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하였고, ICCS 국제평균 비참여율인 7% 대비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civic activities outside of school)의 경우, 국제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는 학내 참여의 경우보다 더욱 현저하였다.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청소년단체 참여, 환경단체 참여, 인권옹호 단체 참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단체 참여, 기부를 위한 단체 참여, 문화단체 참여,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캠페인 참여의 비율로 나타난 각 7가지 유형의 학교 밖 시민참여에서 한국 청소년은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시민참여 활동을 전혀 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에서는 38개국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하였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의 환경단체 참여 비율은 5%(37위), 인권옹호 단체 참여 비율은 2%(37위),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단체 참여 비율은 18%(34위), 기부를 위한 단체 참여 비율은

8%(38위), 문화단체 참여 비율은 2%(공동 37위), 그리고 캠페인 참여 비율은 10%(공동 36위)로서 각각 ICCS 국제평균 참여비율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정당이나 노동조합 관련 청소년단체 참여율은 4%(공동 35위)로서 그나마 국제평균 참여비율과 비교할 때 10% 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학교 밖 시민활동에 어떤 형태로든 전혀 참여한 바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74%에 달해 38개국 비참여율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하였고, ICCS 국제평균 비참여율인 35% 대비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향후 미래 성인기에 있을 사회정치적 참여기대(참여의향) 수준에서도 한국 청소년은 시민역량의 취약함을 나타내었다. 우선 성인기로 이행 이후 실천 가능한 투표참여를 포함한 전통적 방식의 선거참여 의향⁷⁾에서 한국 청소년은 평균 49점(공동 22위)을 기록함으로써 ICCS 국제평균 50점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Schulz et al., 2010:144). 그리고 성인기로 이행 이후 합법적인 저항적 사회정치참여 의향⁸⁾에서 한국 청소년은 평균 45점(최하위)을 기록함으로써 ICCS 국제평균 50점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평균보다 3% 포인트 이상의 커다란 간격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또한 성인기로 이행 이후 합법적이지 않은(illegal) 저항적 사회정치참여 의향⁹⁾에서 한국 청소년은 평균 49점(공동 21위)을 기록함으로써 ICCS 국제평균 50점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¹⁰⁾

이처럼 한국 청소년의 학교 안팎에서의 시민활동 참여율의 저조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도래할 성인기의 다양한 사회정치적 시민참여 의향, 곧 선거참여 및 저항적 참여의 기대수준 혹은 의향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 한국 청소년은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참여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미래의 성인기의 민주시민역량을 성공적으로 배양·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참여활동을 통한 역량개발에 소홀하면서도 얼마든지 나중에, 예컨대, 대학에 입학한 이후처럼 원하는 학업성취를 이룬 다음에, 못 다한 여러

7) 지방선거에서 투표참여, 국가적 선거에서 투표참여, 그리고 투표 전에 후보에 관한 정보구득 등 세 가지 종류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을 물었다.

8) 신문사에 편지보내기, 개인의견을 표현하는 배지를 달거나 티셔츠 입기, 선출직 공무원 접촉하기, 평화적 집회 참여하기, 진정서 서명 모으기, 상품불매하기 등 6가지 종류의 합법적 방식의 저항적·대안적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을 물었다.

9) 벽에 항의표어 스프레이 페인팅하기, 도로의 교통 봉쇄하기, 공공건물 점거하기 등 세 가지 종류의 비합법적 방식의 저항적·대안적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을 물었다.

10)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합법적이지 않은 저항적 사회정치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민주시민역량의 강점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11) 이는 한국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내 참여의 가치평가(value of participation at school) 면에서 38개국 중에서 공동 최하위(공동 36위)로 나타난 점을 통해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Schulz et al., 2010:136).

가지 사회정치적 참여활동을 향상시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예상처럼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정치적 영역에서의 참여를 청소년기를 마치고 성인기로, 혹은 후기 청소년기로 유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청소년기에 다양한 시민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참여가 유예되기는커녕 실제로는 후속 참여의 의향이 줄게 됨으로써 사실상 참여를 보는 안목과 참여 기회가 봉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강점과 취약함 전반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비교의 시각에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취약함과 그 원인진단 및 정책적 해결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 문제의식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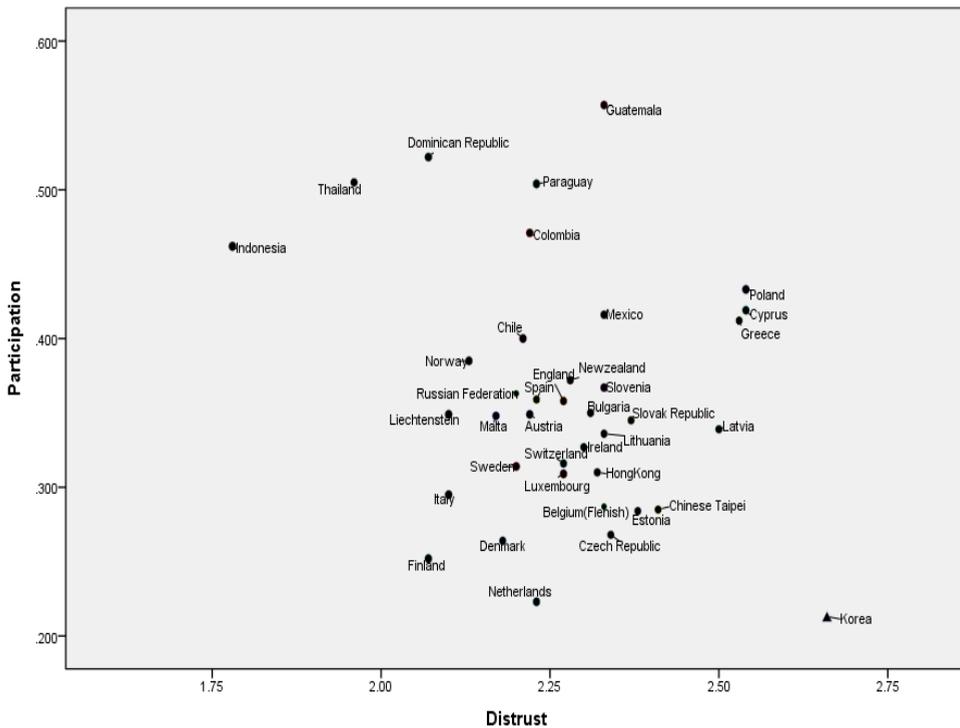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출발하여 ICCS(2009)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국제적 수준에서 ICCS(2009) 참가국인 38개의 개별 국가별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다. 이 경우 개별 국가(군) 내에서 개인단위의 주요 변인을 청소년 개인의 민주시민역량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게 된다. 둘째,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여 국가별로 산출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평균값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다. 이는 국가단위의 주요 변인을 국가별 민주시민역량 평균값과의 관련성 안에서 분석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이 국제 비교적 안목에서의 분석을 거친 후 한국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역량의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게 된다.

12)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약점은 정치적 효능감, 인종집단의 동등권리에 대한 인식, 이민자의 동등권리에 대한 인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Schulz et al., 2010:100, 102, 119). 한국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은 38개국 중에서 공동 27위를 차지했으며, 국제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였다. 인종집단의 동등권리에 대한 지지적 태도는 공동 19위로서, 역시 국제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였다. 이민자의 동등권리에 대한 지지적 태도는 공동 20위로서, 마찬가지로 국제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민주시민역량 요소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정치적 효능감은 앞서 언급한 인식적·심리적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인신뢰와 실천적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시민적 참여, 혹은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을 설명하는 하나의 인자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본격적으로 다문화주의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혼란과 논쟁이 있다고 보아, 인종집단 혹은 이민자의 동등권리에 대한 태도 면에서는 본 연구가 직접 다루지 않고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 청소년에게 특히 취약한 민주시민역량의 하부요인으로 판명된 신뢰와 참여행동에 주목할 것이다. 다음 그림은 38개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ICCS 자료에서 각 나라별 불신(distrust) 수준(제도 및 사람에 대한 불신 평균)과 참여수준을 평면에 나타낸 산점도(scatter plot)이다. 참여는 종축에서 완전 비참여(0)부터 완전 참여(1)까지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으며,¹³⁾ 불신은 횡축에서 완전신뢰(1)부터 완전불신(4)까지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¹⁴⁾



【그림 1-1】 38개국 청소년의 불신과 참여에 따른 산점도

13) 정규교과시간 외의 자발적 음악·드라마 활동 참여,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선거 참여, 학교운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 학생회 토론 참여, 반장·학생회 임원 선거 출마의 6가지 학내 참여 유형과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청소년단체 참여, 환경단체 참여, 인권옹호 단체 참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단체 참여, 기부를 위한 단체 참여, 문화단체 참여,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캠페인 참여의 비율로 나타낸 각 7가지 학교 밖 참여 유형을 고려한 13가지 참여 유형의 각 가중치를 동일하게 하여 각 나라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지수화하였다.

14)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부, 경찰, 정당, 의회, 미디어, 군대, 학교, UN에 대한 신뢰와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각 가중치를 동일하게 하여 각 나라가 1에서 4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지수화하였다.

세계 청소년을 대표하는 38개국 표본의 분포에서 한국 청소년 표본은 불신수준이 2.66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참여 수준이 0.212로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8개국 청소년 표본을 상이한 군집형태로 묶어 낸다고 하더라도 한국 청소년이 다른 어떤 나라와도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 보이기 어려우며, 독특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청소년의 신뢰와 참여의 민주시민역량 측면에서 한국은 단순히 최하위권 국가가 아니라 최하위 국가군 중에서도 최하위였다. 이처럼 본 연구가 시종일관 주목하는 것은 국제 비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그와 같은 한국 청소년의 최저신뢰와 최저참여의 현상에 대한 원인규명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이 국가단위에서이든 개인단위에서이든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범주이다. 하나는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변인이며, 다른 하나는 가족 변인이다.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은 민주시민역량의 하위요소인 제도 및 대인신뢰와 사회정치적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기기에 충분한 선행문헌과 이론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청소년을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 특별한 이용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미디어로 포화된 환경(media-saturated environment)에 급격히 노출되고 있다(Livingstone, 2002).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은 계속하여 증가추세이고, 다양화·개인화되어 가고 있다(Van den Beemt, Akkermant, & Simonst, 2011).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잠재력은 현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Fleming & Thorson, 2008). 우리는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을 단일한 소비행동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소비행동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미디어의 종류나 이용 동기 등에 따라서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을 상세하게 고찰하고 이의 차별적 영향을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TV, 책, 신문, 인터넷 등과 같이 이용되는 미디어의 종류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주요 영향요인일 수 있으며(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2005), 같은 종류의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이용 동기가 예컨대 정보추구나 혹은 오락·기분전환이냐에 따라 청소년의 시민역량에 차별화된 효과를 미칠 수 있다(최영, 박성현, 2011; Fleming, Thorson, & Peng, 2005).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기존 미디어의 이용을 배우며 여기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미디어이용 경험을 추구하는 등 학습과 도전을 포함한 일련의 사회화 과정, 매체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점차로 변화하는 민주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되어 간다(McHale, Dotterer, & Kim, 2009).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사결정에 시민의 선호를 반영(Goodin, 2004)하고 시민의

궁극적 권력을 행사(Ringen, 2007)하기 위해서도 미디어의 이용과 비판적 이해에 관한 청소년의 역량은 중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Amadeo, Torney-Purta, & Barber, 2004).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변인은 바로 가족요인이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 교과목 중심의 학교교육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가족내부의 소통과 관계가 시민교육의 기회 혹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은 점차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족의 내부적 요인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Lichter, Cornwell, & Eggebeen, 1993). 더욱이 한국의 가족이 최근 가족구조와 규모, 가족관계와 역할, 구성원 간 응집력 약화와 같은 변화를 유래 없이 급격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김미숙, 2006; 김승권, 1998; 김승권, 2009; 서선희, 2003)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족의 속성이 청소년의 삶의 다양한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정책적 함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가족변화를 고려한다면, 가족요인이 청소년 자녀의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과 그 함의는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가족의 변화는 가족에 내재해 있는 주요 역량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외생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족에 내재하는 주요 역량에는 가족의 재정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있고, 그 외에도 사회자본으로 대변되는 관계적 역량이 있다(Ahn & Ostrom, 2008; Helliwell & Putnam, 2004).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가족의 관계 안에 내재하는 자원의 총체로서 인식되며,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건강한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된다(Coleman, 1988; Leonard, 2005). 본 연구는 각국 청소년과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가족내부 사회자본(social capital within the family)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족내부 사회자본 중에서 구조적 요인보다는 소통적·과정적 요인을 중시할 것이다. 물론 가족내부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구조적 자본의 구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곧 청소년의 부모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적어도 대안적 양육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설령 청소년의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내부의 사회자본의 양상은 동일하지 않으며,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축적이 용이해지거나 어려워지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Harpham, 2002; Israel, Beaulieu, & Hartless, 2001). 그 이유는 소통적·과정적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양상이 가족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의 학교 숙제를 봐 주지 않거나 자녀의 성취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적 사회자본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소통적 가족내부 사회자본 축적이 어려워진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더불어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지 여부,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얼마만큼 국내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한 대화나 국제 이슈에 대한 대화를 하는지 그 빈도를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지표로 사용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역할을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주요 성과인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바라보며, 보다 깊은 이론적 논의와 국제비교분석 등을 거쳐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국제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단위와 개인단위에서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변인과 가족내부 사회자본 변인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인지 이론적이고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규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국제 비교적 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민주시민역량이 취약한 영역에서 한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개발정책을 도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석 자료인 ICCS 자료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에 ICCS 조사가 기반하고 있는 시민교육 연구(Civic Education Study, 이하 CIVED)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¹⁵⁾ 교육이 미래세대의 민주적 시민역량을 개발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시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구의 일환이 CIVED이다. 국제교육성취평가회의(IEA)는 1999년에 28개국의 시민의식 수준을 비교하는 CIVED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1년에 그 분석결과를 국제비교 보고서로 발간(Torney-Purta et al., 2001)하였다.¹⁶⁾

IEA는 CIVED를 기반으로 하되, 더욱 정교한 조사체계와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ICCS 조사를

15) 참고로, CIVED와 비슷한 시기부터 OECD의 핵심역량 정의 및 선별(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이하 DeSeCo)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역시 참고할 수 있는 국제비교 조사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OECD의 DeSeCo는 세계 12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 등)의 참여하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간에 걸쳐 추진되어 핵심역량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비교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DeSeCo 프로젝트는 핵심역량을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의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Rychen & Salganik, 2001, 2002, 2003).

16) CIVED가 제시한 시민교육의 핵심영역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인식, 국가정체성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유대와 다양성 포용에 대한 인식이다. 그 측정 문항의 유형으로 지식의 측정, 시민적 혹은 정치적 내용을 담은 미디어를 해석하는 기술의 측정,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의 측정, 태도의 측정, 현재 혹은 미래 기대되는 정치에 대한 참여의 측정 등 다섯 가지가 있다(Baldi et al., 2001).

진행하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2009년에 세계 38개국의 청소년(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7월에 그 국제비교 결과를 발표하였다(Schulz et al., 2010).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에 참여한 국가는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중남미의 38개국이고, 한국은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아시아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은 ICCS의 공동주관기관으로서 2009년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결과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 예정된 제2차 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및 조사도구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1 ICCS(2009) 38개 조사참여국

구분 (참여국 수)	조사 참여국가
아시아 (5)	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 (26)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러시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오세아니아 (1)	뉴질랜드
중남미 (6)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합계 (38)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국제비교자료의 지리적, 공간적 범위는 위의 세계 38개국에 한정된다. 시간적 범위는 ICCS의 최초 자료구득 시점인 2009이며,¹⁷⁾ 인적 범위는 조사대상 세계 38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중학교 2학년생들)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인적 범위를 이와 같이 한정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시종일관 주목하고 관심을 두는 변인은 한국 청소년이 취약성을 보이는 민주시민역량의 범주를 구성하는 변인들이다. 이것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구성한다. 언급한 것처럼, ICCS(2009) 조사를 토대로 하는 선행연구(Schulz et al., 2010)의 재조명을 통하여 알 수 있었듯이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시민교육 산출물의 취약함에 주목하는데, 특히 한국 청소년의 저신뢰와 참여의 저조함에 관심을 두고 이를 내용적 범위로 한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ICCS가 순차적 연구조사를 통하여 검토하는 각국의 공교육을 통한 시민교육의 이행 정도, 다시 말해서

17) 본 연구의 일부 분석에서 사용한 국가별 거시적 변인(성인 문자해독률, 1인당 GDP, 인간개발지수, 공교육비 지출액, 투표율)은 ICCS(2009) 자료가 아닌 공개된 이차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거시적 변인들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에 제한되지 않지만 그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다. 이에 관하여 제5장의 연구방법에서 후술한다.

정치, 제도, 인권, 젠더평등, 다양성, 환경 등의 주제에 대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이해, 태도, 관점, 활동 등에 관하여 접근하는 연차적 연구의 일부분이라고 본 연구를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ICCS에서는 시민역량을 크게 인지 영역(cognitive domain)¹⁸⁾과 정의·행동 영역(affective-behavioral domain)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지식과 추론·분석력을, 후자는 가치·신념, 태도, 행동의도, 실제행동으로 구성된다.¹⁹⁾ 내용영역은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의 네 가지이다(Schulz et al., 2010). 다음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와 한국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지원체계 개발 관련하여 음영이 있는 시민역량 영역을 주목할 것이다. 청소년의 신뢰와 참여 요인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2 ICCS(2009)의 민주시민역량 개념적 구조와 본 연구의 범위

		내용영역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
인지 영역	지식	- 시민의 역할 - 시민의 권리	- 평등 - 자유	- 의사결정 - 영향력 행사	- 시민의 자아상
	추론과 분석	- 시민의 책임 - 시민의 기회와 능력	- 사회통합	- 공동체 참여	- 시민 유대감
정의·행동영역		가치/신념	태도	(미래) 행동의도	실제행동
		- 민주주의적 가치/신념 - 시민적 가치/신념	- 자신, 타인, 기관, 정책에 대한 태도	- 투표참여 의사 - 의견표현 의사 - 정치적 항의	- 학생활동참여 - 지역공동체 활동참여 - 교내 시민활동 참여

본 연구보다 먼저 ICCS(2009)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태준과 이영민(2011)은 민주시민역량을 설문문항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들은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12항목),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특정행동의 중요성 인

18) ICCS(2009) 평가도구의 인지영역(지식, 논증·분석)은 학생들이 시민과 시민권 관련 지식에 있어 복잡한 인지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현실 세계의 시민 행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중 우선, 인지영역 1(지식)은 학생들이 그들이 속한 민주시민사회에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이미 학습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지영역 1은 학생들이 지식을 표현하는 데 요구되는 민주시민과 시민권 관련 정보 능력에 관한 것인 반면, 인지영역 2(논증 및 분석)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자질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고 이와 함께 전략적 해법과 결과의 계획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포함하여 측정한다(김태준 외, 2010).

19) 조사항목은 인지영역이 80문항, 정의·행동영역이 121문항이며, 여기에는 모든 국가에 공통되는 기본문항과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는 선택문항이 있다.

식' (12항목), '인지영역점수' 그리고 '미래투표의지' 등 크게 보아 네 가지 종류의 종속변인을 가지고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대치시켰다. 특히 성별과 국적에 따른 차이 분석 및 다수준 분석에서는 인지영역 점수와 미래투표의지만을 종속변인에 포함시켰다. 장근영과 박수익(2011a, 2011b)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련 지표를 기초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간접 추산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하위영역은 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관리로 구분되었다. 관계지향성 영역은 2개의 척도(봉사활동을 할 의사와 일반화된 신뢰)에 대한 긍정적 응답자 비율, 사회적 협력 영역은 학교 밖 공동체 활동 참여를 묻는 문항 중에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단체와 기부단체에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응답자 비율,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영역은 ICCS(2009) 조사에서 산출한 시민성 지식 점수를 사용했다. 이러한 연구가 보여주는 바대로 주요 지표를 산출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토대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역량 개념을 사회자본이론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해부하고 양 개념의 공통분모와 차이를 변별해 내는 것이 요청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실증적 자료의 구축을 위한 시민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관한 국제수준 비교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시민역량의 국제비교 연구는 2009년의 IEA의 ICCS 조사 참여가 유일한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을 알 수 있는 국제비교자료는 희소하고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본 연구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위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취약한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1. 민주시민역량이란 무엇인가?
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에의 영향요인
3. 미시적 사회자본을 넘어서
4.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제 2 장 이론적 논의*

1. 민주시민역량이란 무엇인가?

1) 개요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국제적 비교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데 주된 학술적 목표가 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조성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개발하는 데 정책적·실무적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청되고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역량에의 영향요인들을 국제 비교적 시각에서 검토해야 하고, 이렇게 검토되어 식별된 주요 영향요인들을 한국의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설계 시에 중재요인(仲裁要因)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우선 시민역량(civic competencies) 또는 민주시민역량(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이라고 하는 개념적 구성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역량을 사전적(辭典的)으로 정의하면 ‘시민사회에 소속된 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과 능력’이라 할 수 있다(김준홍, 2012e:163). 그런데 시민사회는 역사적 개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적 자질과 능력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제약과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따라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의 양과 질은 차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시민적 역량이 무엇인지, 또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심층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시민역량은 다차원적 개념(김준홍, 2012e)으로서 지식(knowledge)과 기능(skill), 성향

* 본장은 김준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이동엽(고려대학교)이 집필하였음 .

(disposition)과 동기(motivation), 행동적 영역(behavioral domain)을 포괄한다(Audigier, 2000; Checkoway, 2001; Dahlgren, 2006). 이처럼 민주시민역량은 다차원적이면서도 전인격적인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논의할 때에는 행동적 영역(행동의도와 행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것은 성인기의 다차원적 민주시민역량은 아동·청소년기의 행동적 영역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곧 참여적 실천(participatory practice)의 함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시민역량은 다양한 참여적 실천을 통해 학습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Checkoway & Gutierrez, 2006).

위와 같이 민주시민역량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대해서 통상 보편적으로 합의된 완벽한 유형분류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역량 개념을 측정하는 매우 많은 방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절하게 한정·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을 대표하는 학자들과 실무기들은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대한 실증적 자료의 구축을 위한 개념의 타당성 제고와 측정도구 개발에 노력해 왔다. 청소년 시민역량의 국제조사에 관한 간단한 연혁을 살펴면서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개념의 측정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적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국제비교 조사의 대표적 선례가 있다면, 우선 OECD의 핵심역량 정의 및 선별(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이하 DeSeCo) 프로젝트이다. 기본적으로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인지적·비인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특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의 복잡한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의 개념은 요구 지향적(demand-oriented) 또는 기능적 접근을 따른다. 이러한 접근은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한 요구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량 개념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DeSeCo 프로젝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개인의 내적 속성과 능력이다(Rychen & Salganik, 2003). 이는 역량의 개념을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원(능력, 성향 등)의 의미를 가진 내적 정신적 구조(internal mental structure)로 접근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역량은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적 정신적 구조를 넘어서서 이를 행동으로 활성화하고 조율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총체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요구에 대하여 개인이 활용하는 지식, 인지적 능력, 가치관, 태도, 감정, 동기 등으로 역량을 개념화하되 실천과 행동의 효과적 성취를 포괄함으로써 역량에 대한 총체적·역동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다음의 선례는 국제교육성취평가협의회(IEA)가 1996년부터 수행해 온 시민교육연구(Civic

Education Study, 이하 CIVED)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개인은 가정,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공식적·비공식적 커뮤니티), 제도와 가치(교육, 경제, 종교, 정치, 국제정치, 사회참여 등)와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CIVED는 이러한 생태체계의 맥락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향상시키는 시민교육을 위하여 시민지식, 시민적·정치적 내용을 담은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 정부 등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 등 시민적 태도, 현재의 사회정치적 시민참여 및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참여 등을 민주시민역량의 주요 하위영역으로 제시하였다(Baldi et al., 2001).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제공한 ICCS(2009)는 CIVED의 연장선 상에서 민주시민역량에 접근한다. ICCS(2009)에서는 학교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제도, 인권, 다양성, 환경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 태도, 관점, 활동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시민교육의 성과물인 민주시민역량을 이해하고 있다. ICCS에서는 민주시민역량을 인지영역과 정의행동 영역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지식 및 추론분석력의 하위요소로 측정하고, 후자는 가치 및 신념, 태도, 행동의도, 행동 등의 하위요소로 측정한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공히 그 구체적 측정의 영역은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 원리, 시민참여, 시민정체성의 네 가지이다(Schulz et al., 2010).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에 관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학술적 논의와 실제 국제조사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개념은 다차원성을 가지면서도 그 하부요인들 간에 유기적 연계가 있다고 전제된다. 그런데 본 연구는, 서론에서도 이미 언급한대로,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하부요인 중에서 신뢰와 참여행동에 주목하고 이에 한정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와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국제시민교육조사의 분석(Schulz et al., 2010) 결과 한국 청소년은 그와 같은 신뢰와 참여행동의 항목에서 민주시민역량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사법·행정부와 경찰 및 정당을 포괄하는 다양한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일반적 사람에 대한 신뢰,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시민활동 참여, 향후 사회정치적 참여기대/의향과 같은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하부변인에 주목하고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며, 이러한 한국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부요인의 국가별 차이와 청소년 개인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2) 민주시민역량과 사회자본

청소년의 신뢰는 민주시민역량의 인식적 차원을 대표하며, 청소년의 참여행동은 민주시민역량의

실천적 차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식차원의 민주시민역량인 신뢰와 실천차원의 민주시민역량인 참여행동이 후술하게 될 소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두 가지 핵심(Uphoff, 1999)인 인식적 사회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과 구조적 사회자본(structural social capital)과 각각 상당 부분 유사개념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민주시민역량과 사회자본 간의 개념적 유사성에 대한 언급이 일부 있었지만(장근영, 박수익, 2011a), 아직 양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큰 틀에서 살펴볼 때, 민주시민역량 개념은 사회자본 개념과 중복된 개념적 구성물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차이보다는 개념적 근접성·유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김준홍, 2012e). 그것은 개인 수준에서 규정된 사회자본에 학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Bogard, Sheinheit and Clarke(2008)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관계망에 내재한 자원을 자산 내지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별 시민의 역량으로 접근한다. Portes(1998)도 개인의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에 내재하는 자원들을 심리적·행동적 차원의 투자 혹은 위험감수를 통하여 일종의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개인의 역량 자체로 이해하였다. Ravanera와 Rajulton(2010)도 마찬가지로 견지에서 현대 민주주의 정체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참여를 통하여 형성되고 증강되는 개인의 사회자본을 민주시민역량으로 이론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양 개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시민역량과 사회자본이 동일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알기 위하여 우리는 민주시민역량 개념에 어떠한 부정적 함의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반면, 사회자본 개념은 많은 경우에 긍정적 측면에서의 효과, 함의 등이 함축되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 및 함의를 전달하고 있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사회적 관계망(네트워크)과 그 관계망의 주요 속성인 집단규범, 공유가치, 신뢰, 호혜성 등인데, 이러한 속성은 특정 집단 안에서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집단이나 사회전체적인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역기능을 한다고 평가될 수 있고 부정적 여파를 산출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대표적 사회자본 이론가의 저술인 Coleman(1988, 1990)을 따르자면, 사회적 관계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의 속성인 집단규범, 공유가치, 제도신뢰, 대인간 호혜성 등이 그러한 관계망의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협력적 상호작용을 어떤 경우에는 촉진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방해하기도 한다. 최근 많은 사회자본 이론가들이 이와 유사한 점들을 지적해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Rutten, Westlund and Boekema(2010)은 사회적 관계망마다 그 속성이 같지 않고 심지어 관계망의 속성이

그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관계망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용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사회자본의 결핍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부정적 사회자본(negative social capital)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에 내재하거나 그 속성인 집단규범, 공유가치, 제도신뢰, 대인간 호혜성 등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인식적 토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는 사회적 이익을 생산한다고 파악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경우에는 연결망 안팎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불이익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민주시민역량 개념에는 그러한 부정적 의미나 효과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시민역량을 ‘민주적’ 시민역량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김준홍, 2012e). 이 지점, 곧 시민역량이 한정적 형용사인 ‘민주적(민주주의적)’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되는 지점에서 민주시민역량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며, 왜 양 개념이 더욱 상호 근사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개념으로부터 부정적 사회자본 영역이 소거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²⁰⁾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역량 혹은 민주시민역량이 무엇인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선(先)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논의할 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 비민주적 체제에서의 청소년 시민역량도 개념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취급하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는 상당히 다르다. 물론 민주주의 정체체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에서도 때로 비민주적 관습과 행태들에 의해 시민권과 시민역량, 나아가 청소년 시민교육 등이 오염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에서는 다시 민주주의로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청소년의 시민역량과 시민활동을 위한 대전제일뿐만 아니라 지원체계의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논의와 해석의 준거점을 제공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시민역량강화를 둘러싼 구체적 방향정립을 모색하기 위한 각종 토론이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이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김용찬, 2007; 조상식, 2009).²¹⁾

20) 부수적으로, 시민역량을 ‘민주적’ 시민역량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시민역량의 지적·인지적 차원의 토대를 명확하게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마디로 시민역량을 구성하는 지식과 논증(추론)·분석의 요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이다. 사회자본을 미시적으로 접근할 때 민주시민역량 개념에 근접하게 되고, 특히 사회자본에서 부정적 사회자본을 소개할 때 더욱 민주시민역량 개념에 더욱 근사하게 된다. 게다가 부정적 사회자본 개념을 소개한 후에 남게 되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회자본에 민주주의 이해를 요체로 하는 관련 지식과 논증 및 분석 역량의 차원을 더하게 될 때 비로소 사회자본은 민주시민역량에 가장 부합하는 개념적 구성물로 된다. 하지만 시민역량을 구성하는 지식과 추론의 영역은 사회자본보다는 인적 자본(Becker, 1964)과 깊이 상관된다고 볼 수 있다(Coleman, 1988; Scoppa & Ponzio, 2008).

3) 신뢰와 참여의 민주시민역량

앞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국제비교의 결과, 신뢰(인식차원의 민주시민역량)와 참여(행동차원의 민주시민역량)의 결핍으로 대표되는 한국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취약함은 본 연구의 배경이자 출발점이다. 그리고 국제비교의 방식과 맥락에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취약함의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데 신뢰와 참여는 사회자본의 골간을 형성하는 핵심인자로 여겨지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Adam & Roncevic, 2003). 통상 사회자본에서 언급되는 것 중에서 부정적 사회자본을 소거하고, 동시에 민주시민역량에서 정의·행동적 영역을 그대로 둔 채 시민지식과 추리·논증영역을 소거하게 되면, 민주시민역량과 사회자본 양 개념이 매우 근사하게 된다고 보며, 이것은 민주시민역량을 사회자본으로 이론화하는 문헌의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Bogard et al., 2008; Portes, 1998; Ravanera & Rajulton, 2010; 김준홍, 2012e). 더욱이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이 특히 취약한 민주시민역량 항목인 신뢰(제도 및 대인신뢰)와 사회정치적 시민참여(전통적 참여 및 대안적·저항적 시민참여) 영역을 다루게 되는데, 이 역량들은 소위 인식적 사회자본 및 구조적 사회자본의 요체를 형성하게 된다. 인식적, 구조적 사회자본에 관하여 상세히 후술하기 전, 먼저 사회자본 개념의 간략한 약사를 서술하기로 한다.

21) 본 연구에서 자세히 취급하지는 않지만, ICCS(2009)의 인지영역에 민주주의의 시민권력론·자유보장론에 토대를 둔 측 정문항들이 상당 부분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효율성에 대한 물음(CI2BCM1), 민주주의를 심각 하게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물음(CI109M1),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정치참여와 공적 논쟁에 대한 물음(CI110M1, CI119M1, CI2PDO1),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물음(CI115M1), 민주주의적 공공정책에 대한 물음(CI2BPM1)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정치철학자 Stein Ringen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제들과 연관된다. 그는 시민들이 안정 된 제도적 방식에 의해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궁극적 통제력(ultimate control of collective decisions)을 발휘하게 될 때 그 정체는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며(Ringen, 2007:25),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권력구조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공공정책을 중시한다(Ringen, 2006, 2007). 또한 ICCS(2009)의 인지영역에 민주주의의 시민선호론·정의론에 토대를 둔 측정 문항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시민의 투표권행사(선호반영)에 대한 물음(CI101M1, CI129M1, CI2FDM1 등), 민주주의와 정의의 상충에 대한 물음(CI2SRM2, CI2SRM3) 등이 그것이다. 이는 정치철학자 Robert Goodin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주제들이다(Goodin, 1992, 2004). Goodin은 민주주의가 단지 시민들의 선호에 대한 불편부당한 응답을 요청(민주주의의 필요조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선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을 요청 (민주주의의 충분조건)하는 체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논증한다(Goodin, 2004).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 개념이 불편부당성 개념을 통하여 정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그 외에도 ICCS(2009)에서는 헌법적 원칙, 자유시장경제, 사회보장제도, 노동 조합, 부정부패, 국제기구, 미디어, 환경이슈, 다문화주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수준과 논증역량을 측정하나 중국에서는 Ringen과 Goodin의 민주주의론과 정치철학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ICCS(2009)의 인지영역이 지식과 논증·분석의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정도를 평가·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곧 지적·인지적 차원의 시민역량은 -정의적·행동적 차원의 시민역량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기본 전제와 토대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Stein Ringen과 Robert Goodin의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 관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탐색의 일환으로 수행된 김준홍(2012a)을 토대로 설명되었음을 밝힌다.

(1) 사회자본 약사(略史)

사회자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으며(Gootaert & Bastelater, 2001), 서구에서도 기껏해야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자본의 개념처럼 일천한 역사 속에서 최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회과학의 키워드로 자리 잡은 개념은 많지 않을 것이다. 20세기 사회자본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은 Jane Jacobs와 Pierre Bourdieu라고 할 수 있다. 도시사회학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Jane Jacobs가 현대 미국 도시의 근린관계를 연구했을 때 이 개념을 사용(Jacobs, 1961, 1969, 1984)하였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Pierre Bourdieu는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개념을 발전시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Bourdieu, 1986). 그에 의하면, 사회자본이란 ‘지속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대표적으로 이들의 기여를 통하여 사회자본 연구는 서구에서 199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고, J. Coleman, R. Burt, R. Putnam, A. Portes 등 많은 연구자들이 이 개념을 사용한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반면 어떤 학자들은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의성과 모호함을 문제 삼았다. 사회자본 개념이 정초하고 있는 안정된 준거점이 있느냐의 문제로 학문적 논쟁이 있어왔다(Farr, 2004; Mondak, 1998; Woolcock, 1988). 다양한 학문적 전통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사회자본의 개념의 태동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념의 명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따라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적하는 바는 근본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자본의 개념은 최근 들어 보다 명쾌하게 이론적·조작적으로 정의되면서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이론적 틀과 준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사회자본의 유형론이나 분류체계는 과거보다 한층 더 다양화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공적 차원과 사적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최영, 박성현, 2011). 신뢰라고 하더라도 공적 제도나 공인에 대한 신뢰와 평소 가깝게 지내는 가족, 지인들에 대한 사적 신뢰가 있을 수 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공적, 사적 참여의 차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사회자본을 인식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Almedom, 2005; Harpham, 2002; Stone, 2001). 이에 관하여 후술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 사회자본은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미시적 사회자본을 넘어서는 보다 거시적 사회자본 논의에 대해서도 후술한다.

(2) 신뢰: 인식적 사회자본

인식적 사회자본은 구조적 사회자본과 달리 주관적이고도 비가시적 요소들을 포괄한다. 신뢰, 바람직한 태도와 규범, 공유된 가치, 호혜성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신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제도와 사람에 대한 신뢰는 공적, 사적 차원을 아우르고, 개인단위로 측정되는 미시적 속성을 가지며, 네트워크 활동의 구조적 요소보다는 인식적, 심리적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의 일종인 신뢰자본(trust capital)(Harisalo & Miettinen, 1997)은 공공재나 도덕재(moral goods)로 인식되고 있다.

신뢰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신뢰를 구성하는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와 제도신뢰(institutional trust)는 사회자본이론의 근간이 되는 핵심 개념이다(Brehm & Rahn, 1997; Cook & Gronke, 2001). 통상적으로 대인신뢰는 '사회적 거래관계에서 타자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 이다(Dasgupta, 2010; 박통희, 원숙연, 2000). 어떤 개인이 어떤 타자의 속성과 행위 및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 일정 정도 낙관적 기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 타자가 그 개인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그 개인은 그 타자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김준홍, 2012e). 그러므로 위험을 감수하는 모종의 경향성이 대인신뢰이다. 대인간 상호신뢰는 협력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이며, 사회자본의 근간을 이룬다. 후술할 구조적 사회자본을 결사체, 활동, 관계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 네트워크는 이에 연루된 사람들을 신뢰 등 심리적 역량을 통해서 공동체에 결속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심리적 역량은 개인의 인식적 특성 혹은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이를 넘어서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데, 특히 대인신뢰 네트워크의 구조적 사회자본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의 호혜적 관계에 결속시켜 주는 소위 사회적 접착제(social glue)의 역할을 한다(김준홍, 2012e). 이는 신뢰의 시민역량이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며, 미래의 집단적 행동(collective action)과 공공선을 산출해 내기 때문이다. 이동원, 정갑영, 박준, 채승병과 한준(2009)에 따르면, 신뢰의 수준이 높은 사회적 관계에서 호혜규범이 위반되지 않고 통용된다.

신뢰자본 개념은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을 가지고 있다(원숙연, 2001). 무엇보다도 신뢰자본의 범주에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곧 대인신뢰 외에도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 곧 제도신뢰가 있다고 일정 부분 합의된다(이근수, 송건섭, 2007; 박영신, 김의철, 2006). 다시 말해서 신뢰자본이 가지는 사회문화 의존적 독특성이 있고 그와 아울러 동일한 사회문화권 안에서도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 신뢰의 심리적 역량을 보편적 지표로 산출해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적어도 대인 신뢰와 제도 신뢰만큼은 명확하게 상호구분하고 있다(Brehm & Rahn, 1997; 박희봉, 이희창, 김동욱, 김철수, 박병래, 2003). 대인신뢰는 신뢰라고 하는 심리적 역량의 토대이자 근간이라는 점에서(박희봉, 이희창, 2011; 원숙연, 2001:64), 제도신뢰는 공적 권위와 의사결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기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각기 독자적 영역이 인정되고 있다(Cook & Gronke, 2001).

한편 우리가 통상 신뢰라고 하는 것을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stic trust)와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전자는 일차적 유대관계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나 사회집단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신뢰이다. 반면, 후자는 사회전반의 보편적인 특성을 지시해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일반적 타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하게 Fukuyama(1995)는 사회의 이타적 정신을 중요시하였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후술할 구조적 사회자본이 비공식적인 것과 공식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면, 인식적 사회자본의 일종인 신뢰 역시 특수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신뢰자본을 포함하는 시민역량과 사회자본 논의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는 학자들(Acar, 2011; Fahmy, 2006)은 대체로 이러한 청소년의 품성과 역량(agency)이 여러 가지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량의 발휘를 통하여 청소년의 고유 권리행사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중시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규제와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보다는 청소년 역량개발에 관한 적극적 관점을 가지는 경우 청소년의 활동 진흥과 신뢰자본의 축적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Holland, 2009).

이러한 적극적 관점 하에서 ICCS(2009)는 각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신뢰를 측정하고 있다. 일반화된 신뢰의 대상은 정부, 법원, 정당, 국회, 미디어, 학교, 국제기구 등 다양하며, 마지막으로 일반대중에 대한 신뢰 정도도 묻고 있다(예컨대 [부록 4] 학생용 설문문항 31번).²²⁾ 앞의 신뢰를 기관에 대한 신뢰(제도신뢰)라고 하고, 뒤의 신뢰를 사람에 대한 신뢰(대인신뢰)라고 부를 수 있다. ICCS(2009)가 일차적 유대관계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나 사회집단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신뢰인 특수화된 신뢰를 묻지 않는 것은 이 조사가 토대로 삼는 민주적 시민역량과 시민교육의

22) ICCS(2009)는 일반화된 신뢰 외에도 인식적 사회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을 측정한다. 대표적으로 참여의 중요성 인식(예컨대 [부록 4] 학생용 설문문항 25번),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예컨대 [부록 4] 학생용 설문문항 26번), 기타 시민권에 대한 의견을 통해 나타난 규범과 가치의 표현(예컨대 [부록 4] 학생용 설문문항 24번) 등이다. 그 외에도 애국심과 국민주의 등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시민정체성(civil identity) 영역과 양성평등과 인종간 평등(토착민과 이주민간의 평등 포함) 차원에서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견해 표명이 있다. 이것들은 전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인식적 사회자본/시민역량에 포함된다(Checkoway, 2001; Dahlgren, 2006).

모형이 일차적, 비공식적 결속을 산출하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역량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ICCS(2009)가 토대로 삼는 CIVED의 시민교육연구 모형이 공식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기초를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ICCS(2009)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인식적·심리적 역량의 정도는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안에 연루된 청소년을 공동체의 호혜적 관계에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참여: 구조적 사회자본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자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취급되어 온 인식적 사회자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 취급하는 구조적 사회자본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회적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공식적 네트워크 외에도 비교적 친숙한 이웃들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포함시킬 수 있다. 환언하자면, 구조적 사회자본에 다가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식적 사회자본(formal social capital) 접근법과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 사회자본(informal social capital) 접근법이다(Pichler & Wallace, 2007).

공식적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종종 토론의 대상이 되어 온 주제는 시민의 공적, 공식적 참여에 대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각종 결사체에의 시민참여는 공식적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 부분으로 여겨졌다.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이 사회정치단체와 다양한 결사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증강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많은 경우 그러한 참여 자체가 일종의 사회자본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자본 개념의 핵심에는 각종 공식적 자발적 결사체에의 멤버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공적, 공식적 영역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시민의 참여활동이야말로 번성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필수적이다(Putnam, 2000).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측정할 때에 이와 같은 일종의 공식적 차원의 구조적 사회자본(네트워크, 멤버십, 참여 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응답자들에게 질문하게 된다. ICCS(2009)의 조사설문에서도 학생들의 참여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안 참여(예컨대 [부록 4] 학생용 설문문항 19번)와 더불어 학교밖 참여(예컨대 [부록 4] 학생용 설문문항 18번)의 경험에 대해 물었다. 학교안팎에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이 서로 차별화되지 않고 비교적 동등한 참여적 실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양 참여경험의 본질과 그 효능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김준홍, 2012e:165). 물론 이는 향후 검증과 규명이 필요한 주제일 것이다. 대체로

학교안 참여는 투표 등 학내 의사결정, 다양한 토의와 토론, 임원 입후보와 선거운동 과정 참여, 다양한 공식적 방과 후 활동 등에의 참여 등이다. 학교밖 참여는 정당 참여를 비롯한 정치 참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인권단체 등 자발적 결사체와 옹호집단에서의 참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두 종류의 참여는 공히 공식적 사회자본의 증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학교안과 학교밖의 공식적 참여경험을 통하지 않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다소 비공식적 사교가 있는데,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이것을 비공식적 사회자본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러한 비공식적 결속과 유대는 구조적 사회자본의 일종이긴 하지만 ICCS(2009) 조사의 설문항목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비공식적 사회자본 연구는 주로 사회네트워크이론가들(social network theorists)의 연구대상이었다. 사회네트워크이론가들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결속과 유대(Burt, 2005; Lin, 2001)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합리선택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게 되면 기대한 보상을 얻게 된다는 전제가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네트워크이론가들에게 정서적 유대와 우정이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Crow, 2004). 특히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전통적 결속이 약화되거나 심지어 사라져버린 분절화된 근대사회에서 우정은 사회적 응집력의 기본적인 형태로 간주되곤 한다.

기존 조사 연구들에서 청소년의 비공식적 사교(informal sociability)는 ICCS(2009)와 마찬가지로 공식적 참여활동보다 다소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이 참여적 실천을 통해 시민교육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분야는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에는 공식적 사회정치참여 외에도 종교적, 오락적, 사교적 성격의 비공식적, 사적 참여까지 매우 광범위하다(Hall, 2002:23). 또한 공식적 사회참여와 비공식적 사회참여의 기준도 상당히 모호해졌다. 비교적 덜 공식적 상황에서의 타자와의 상호작용 역시 일반화된 상호성(generalized reciprocity)을 증진하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의 비공식적 참여활동 역시 민주시민역량의 증대한 하부요인으로 여겨져야 한다.

23) 비공식적 사회자본의 측정 누락은 ICCS(2009)가 토대로 삼는 CIVED의 시민교육연구 모형이 공식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기초를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ICCS(2009)가 특수화된 신뢰와 비공식적 구조적 사회자본을 논의할 주요 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각에 따라 논쟁의 여지는 있다. 공식적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사회자본이 증강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결속, 유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논쟁을 촉발시킨다. 공식적 민주주의 체제와 관행이 잘 작동하기 위해 일차적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적 결속과 정서적 유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향후 청소년의 비공식적 사회자본을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후속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인식적 · 구조적 사회자본간 관계

인식적 사회자본과 구조적 사회자본(비공식적 · 공식적 사회자본)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는 사회정치적 참여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독립변인으로 다루어졌다(Dermody & Hanmer-Lloyd, 2004). 인식적 사회자본과 비공식적 · 공식적 사회자본은 개념적으로 구별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느 하나를 결핍하고 있으면서 다른 하나를 충족할 수는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Grootaert & Bastelater, 2001:3). 일례로 공식적 사회자본은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지지를 신장시키며, 이를 통하여 호혜적 사회규범과 신뢰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된다(Pichler & Wallace, 2007:424). 신뢰는 구조적 사회자본 곧 공식적 · 비공식적 참여와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 및 증강될 수 있다. 한편 신뢰 또는 신뢰의 결핍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기대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 제도들이 신뢰 또는 그 결핍의 영향을 받고 지탱되거나 혹은 불안정해지기도 한다.

반면, 이와 같은 보완적 연계는 자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Portes(1998)에 따르면, 비공식적, 일차적 관계에서 나오는 유대와 네트워크는 편파성(cronyism)때문에 공식적 참여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에서든 공식적 조직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비공식적 참여는 그 공백을 메우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Pichler & Wallace, 2007). 이와 유사하게, 공식적 조직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호 신뢰의 관계가 지속할 수 있다(Grootaert & Bastelater, 2001). 심지어 경제적 성과 면에서 신뢰와 호혜적 규범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반면, 시민사회의 공식적 수평적 네트워크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와 신뢰가 상반된 효과를 미치는 경우도 발견된다(Knack & Keeper, 1997).

2.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의 영향요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역량은 가족, 이웃, 지역사회, 학교 등의 네트워크(연결망)에 내재하는 자원의 총체인 사회자본 그 자체로서 이의 함양은 청소년의 인지적 · 심리사회적 발달에 크게 기여한다(Coleman, 1988).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은 미래의 시민이자 노동자(citizen-worker of the future)인 청소년의 교육성취, 다양한 역량개발, 건강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다

(Edwards, Franklin, & Holland, 2003; Eriksson, Hochwalder, & Sellstrom, 2011; Kovacheva, 2005; Leonard, 2005; Winter, 2000). 본 연구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의 영향요인이자 중재변인으로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미디어이용과 가족요인에 주목하여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검증을 전개할 것이다.

1)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민주시민역량

오늘날의 청소년은 과거와 달리 미디어로 포화된 환경에서 살면서 다매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Livingstone, 2002; Van den Beemt, Akkermant, & Simonst, 2011). 이와 같은 유래가 없는 상황은 한국의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이다(강진숙, 최경진, 장성준, 2011; 심재웅, 조의진, 2009).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면서도 다양화·개인화되어가는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해 내야 하는 학술적 작업이 요구된다(Fleming & Thorson, 2008). 이러한 작업은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긴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식영역과 실천영역의 민주시민역량에의 영향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미디어환경에서 특별한 소비자인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에 주목할 것이다. 다음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을 민주시민역량의 하위요소인 제도 및 대인신뢰와 사회정치적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기기에 충분할 정도의 선행문헌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1)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신뢰

미디어이용은 청소년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나 심리사회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eaudoin, 2007). 예컨대 청소년의 모바일 폰 이용은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나은영, 2005). 미디어이용은 인지·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영향 받기 쉬운 인구집단인 청소년에게 심리사회적 영향을 미쳐 이들의 사회자본/민주시민역량의 인식지표 수준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에 있어 미디어의 종류나 이용 동기에 따라 제도 및 대인신뢰(인식차원의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V, 신문, 인터넷 등과 같이 청소년이 이용하는 미디어의 종류는 분명 청소년의 신뢰수준에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윤미선, 이종혁, 2012; 이준웅 외, 2005). 청소년이 이용하는 매체의 종류별로

상이하고 차별화된 콘텐츠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들 미디어가 종류별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를 수 있으며, 이들 미디어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하위집단 등이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일한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기요인이 청소년의 신뢰수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소라, 김은미, 나은영, 2007). 같은 종류의 미디어라 하더라도 정보추구, 기분전환 등의 이용 동기 혹은 이용 목적에 따라 애용하는 콘텐츠가 다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제도 및 대인신뢰에 상이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이혜인, 배영, 2011; 최영, 박성현, 2011).

일단의 학자들이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이 매체종류와 이용 동기의 측면에서 신뢰와의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최윤정(2008)은 미디어이용과 신뢰자본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 관계를 대인커뮤니케이션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향이 특히 강한 집단이 바로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미디어이용과 신뢰의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이들의 소통과 대인관계를 함께 고찰한 것은 적절하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대인 및 제도신뢰 수준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을 탐색하고 검증한다는 것(김은희, 이종혁, 2010) 자체가 이미 학계에 청소년 미디어이용과 신뢰 간에 일정한 연계성이 존재한다는 합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선행문헌에서 부족한 연구공백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미디어의 종류와 미디어의 이용 동기에 대한 전체적 고려에 있다.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중에서 TV, 서적, 신문, 인터넷 등을 단순히 이용하는 소비행동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최근 선호하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여 친구와 즐기는 채팅(잡담)과 같은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 행동 혹은 미디어에 의하여 매개된 커뮤니케이션(mediated communication) 경험이 청소년의 신뢰, 나아가 후술할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도 희소하다.

최근의 주목할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신뢰를 서로 관계 지우려 하면서도 신뢰가 미디어이용의 효과를 조절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미디어효과는 신뢰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미디어효과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것이 이러한 정향성을 가진 연구가 해소하기 원하는 연구문제이다. 선행문헌에 신뢰 중에서도 제도신뢰가 가지는 조절변인 역할에 대한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Avery(2009)는 뉴스미디어의 정치신뢰에 대한 효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치신뢰 수준에 의해 조절된다고 설명하였다. 기존 정치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신문열독이 후속 정치신뢰를 더욱 높이고 TV뉴스 시청은 후속 정치신뢰를 더욱 낮추게 된다는 식의 설명이다. 여기에서 종이신문과 TV로 각각 대표되는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에

의 노출 효과 차이를 비교분석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자의 기존의 정치신뢰가 조절변인으로 작동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²⁴⁾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신뢰의 관계는 이처럼 다양한 연구 문제로서 접근될 수 있다. 그런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신뢰가 어떤 종류의 신뢰냐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연구는 신뢰의 다차원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신뢰자본 중에서도 공적 권위나 기관에 대한 신뢰(Flexon, Lurigio, & Greenleaf, 2009), 사람에 대한 대인신뢰,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온라인 네트워크 신뢰 등이 있다. 신뢰라고 부를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은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제도신뢰는 학자들에 의해 시민 교육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는 결코 대인신뢰와 온라인 네트워크 신뢰로써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의 인식적 시민역량이다(Quandt, 2012). 이러한 여러 유형의 신뢰자본이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38개국의 국제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에서 규명하여 한국의 청소년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지향점 중 하나이다.

(2)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참여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이 애용하거나 노출되는 미디어의 콘텐츠나 메시지가 그 수용자들에게 필경 크든 작든 모종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미디어의 콘텐츠나 메시지가 개별 수용자에게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성인보다도 미래의 시민으로 준비과정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Valkenburg, 2004; 김동일 외, 2012). 이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미디어 혹은 매체의 영향이란 습관적이든 의도적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경우든 사람들은 때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욕구를 충족하고 때로 단지 이를 하나의 자극으로 수용·반응하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이 중에서 발달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미숙하거나 예민한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영향의 크기와 질이 심대해지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청소년 이용자가 일반 성인 이용자에 비하여 미디어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 사회정치적 참여의 촉진 혹은 저해의 효과도 차별화될 수 있으며, 이 점은 선행연구(박소라, 2008; 이준웅 외, 2005; 이혜인, 배영, 2011; 최영, 박성현, 2011)에서 적절하고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하였다.

24) 신뢰에 대한 예측이 아닌, 사회정치적 참여를 예측하는 경우에 유사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뉴스 미디어이용의 참여행동에 대한 효과가 다른 주요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즉 조절된다는 논의가 있었다(Hardy & Scheufele, 2005; Scheufele, 2002). 이 연구들에서 조절변인은 수용자들의 대인간 토론이나 잡담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의 양이나 빈도였다.

미디어 콘텐츠나 전달하는 메시지가 수용자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가하는 모종의 효과가 있으며, 그러한 효과는 수용자의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 매개되거나 조절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중에서 발달단계라는 요인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신뢰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미디어의 종류별로 사회정치적 참여에의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정책적 견지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청소년 집단 안에서의 차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영상미디어(TV, 비디오, DVD 등)와 인쇄미디어(책, 종이신문 등)를 구분하여 청소년의 사회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 종류의 미디어의 영향이 각각 어떻게 평균적으로 청소년집단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공백이 있는 부분이며, 기존 연구에서는 책읽기와 같은 형태의 미디어이용이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와 같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가 함께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공백을 인지하면서 영상미디어와 인쇄미디어 등 매체종류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사회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청소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영상미디어 혹은 인쇄미디어의 콘텐츠나 메시지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 하위 집단이 따로 있을 수 있다(김준홍, 2012c). 이것이 입증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정책은 청소년집단에 대한 세분화 문제와 연계되어 형성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옹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청소년의 취약한 민주시민역량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제언하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질문과 문제의식은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동기나 목적도 사회정치적 참여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 주제 분야에서 기존 문헌은 다양한 미디어이용 동기를 포괄하여 분석하지 못한 공백을 남겼다. 예를 들어, 민지현(2008)과 같은 일부 연구는 미디어이용 동기 중에서 오락추구에 관심을 두었고, 다른 일부 연구들(Campbell & Kwak, 2010; Rojas, Shah, & Friedland, 2011)은 정보추구에 관심을 가졌기에 동기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살피는 데에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다매체와 다양한 이용 동기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더라도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미디어이용의 오락추구 동기와 정보추구동기가 가지는 상반된 효과를 시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국내외에서 공히 청소년의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사회정치적 참여에 대체로 부정적 효과를,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준홍, 2012c; Beaudoin, Thorson, & Hong, 2006). 선행문헌의 추가적 연구의 공백은,

앞에서 청소년 미디어이용과 신뢰자본 간 관계를 논의하면서 언급한 것과 유사하게, 청소년의 친구와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혹은 미디어에 의하여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주제를 다루지 못한 것에 있다.

김준홍(2012c:73)이 언급한대로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나 그 의향을 논할 때 다양한 유형 및 방식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참여의 차이를 명백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다. 미디어이용에 의해 일정 부분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되는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는 단일하지 않으며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실질의 핵심요소이지만, 주로 많은 문헌이 주목한 참여는 투표와 같은 전통적 정치참여였다. 선거상황에서 유권자로서 투표참여 및 후보자 정보수집 등과 같은 참여행동은 전통적이면서도 선거와 관련된(traditional electoral) 참여에 속한다. 게다가 전통적 정치참여 중에서도 선거 캠페인에서 특정 정당을 지원한다든지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참여를 이른바 전통적·정파적(traditional partisan) 참여라고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 선거의 맥락(traditional electoral context)에서도 전통적·선거참여와 전통적·정파적 참여는 상호 구분된다(Schulz et al., 2010).

아울러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맥락에서도 사회적 정치적 활동이 있다(윤성이, 2009; Moy, Torres, Tanaka, & McCluskey, 2005). 이러한 사회정치참여 활동은 주로 대안적, 저항적인 방식의 사회정치적 시민참여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도 두 가지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비폭력집회 및 항의가두행진 참여나 상품 불매운동 등과 같은 합법적 저항(legal protest)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점거나 농성 혹은 교통방해와 같은 불법적 저항(illegal protest)이다(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불법적 저항 혹은 불법적 저항의 의향은 민주시민역량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참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더라도 전통적, 대안적 방식의 사회정치참여, 다시 말해서, 선거 혹은 선거와는 대체로 무관한 사회정치참여 나아가 합법 및 불법적 저항적 참여 전반을 아우르며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준홍, 2012c; 민영, 노성중, 2011; 이숙중, 유희정, 2010; 최홍석, 2001).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사회에서 시민 혹은 미래시민으로서의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참여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정치적 참여(전통적 선거참여, 전통적·정파적 참여, 저항적·합법적 참여, 저항적·불법적 참여)로 차별화되며(Schulz et al., 2010), 이 네 가지 유형의 참여에 미치는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의 영향도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후술할 가족내부 사회자본과 청소년의 참여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족요인과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민주시민사회에서 청소년의 시민역량이 개발되도록 교육적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하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을 길러내기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이 제공하는 공간을 어떻게 상호 협조적으로 형성·배치시킬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민주적 소양과 시민적 역량을 개발·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 수립은 학교, 지역사회, 가족의 청소년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일과 맞물려 있다. 그런데 이들 지원체제와 환경적 조건 중에서 가족/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Lichter, Cornwell, & Eggebeen, 1993).²⁵⁾ 특히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내부의 여러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강대현, 2009).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체제로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청소년 자녀의 시민역량의 증진과 관련하여 가족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청소년 자녀의 시민역량을 형성하고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족의 역량·자산·자본(김준홍, 2012e)은 몇 가지 하부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설명될 수 있다(Ahn & Ostrom, 2008; Coleman, 1988; Helliwell & Putnam, 2004). 첫째, 가족의 부, 자산, 소득과 같은 경제적·물적 조건을 의미하는 가족내부 재정자본(financial capital within family), 둘째, 통상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해 대리 측정되는 가족내부 인적 자본(human capital within family), 셋째, 후술하는 가족내부 사회자본(social capital within family)이 청소년의 가족배경(family background)을 구성한다.

현대 한국 가족의 급격한 변화, 특히 가족내부 소통과 대화의 결핍으로 인한 가족응집력의 약화 경향으로 인하여 특히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학술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대체로 사회자본의 이론가들은 개인수준이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와 구조 안에 배태되어 있는 자본(Lin, 2001)으로 사회자본을 규정하곤 하였지만, Coleman(1988)을 필두로 이른 바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가치와 효용 등에 주목하여 이를 발전시킨 독특한 학문적 전통이 있다(Kovacheva, 2005; Leonard, 2005). 사회적 관계에 내재하는 자원의 총체, 이러한 자원을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 혹은 그러한 전환의 결과로 발생하는 혜택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는

25) 청소년은 단지 피동적으로 학교, 지역사회, 가족 환경에 노출되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그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일종의 역량(agency)을 가지고 학교, 지역사회, 가족의 네트워크의 주요 원천을 제공한다(Seaman & Sweetling, 2004). 청소년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함의는 심대하다. 청소년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모, 교사, 여타 성인들은 상호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결망이 주는 심리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Furstenberg, 2005).

것에 있어서는 가족내부의(within family) 사회자본이든 이를 넘어서는(beyond family) 사회자본이든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내재하는 자원의 총체이자 이러한 자원을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족구성원 개인 혹은 가족의 역량으로 파악되었으며, 청소년의 다방면의 성취와 건강한 발달이 가능하기 위한 필수요인으로 인식되었다(Coleman, 1988, 1990).

그렇다면,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내재하는 자원의 총체이자 역량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측정될 수 있을까? 곧 가족내부 사회자본을 규정하고 측정하는 방식(Coleman, 1988; Harpham, 2002; Israel et al., 2001; Sandefur, Meier, & Hernandez, 1999)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고 체계화하면,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구조, 인식, 과정(소통)의 차원으로 나누어 규정, 측정될 수 있다.

먼저, 구조의 차원은 청소년의 부모의 존재 여부나 그에 갈음하는 대안적 양육자의 존재 여부이다. 이들의 전부 혹은 일부의 부재는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족내부 구조적 사회자본의 결핍을 가져온다. 다음으로, 인식의 차원은 가족구성원 간,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신뢰와 바람직한 기대 수준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부족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상실하고 또래문화에 몰입하는 경우 가족내부 인식적 사회자본의 결핍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과정 혹은 소통의 차원은 가족구성원 간,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접촉²⁶⁾, 소통, 대화의 양과 질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회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시간이나 빈도, 이를 위하여 쏟는 노력·관심의 정도를 통해 가족내부 과정적·소통적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구조나 인식의 차원에서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축적, 구비되어 있다고 해도 가족내부 소통적 사회자본이 결핍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가족이 보유하는 자본에는 가족내부 인적 자본이 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해 대리 측정되는 가족내부 인적 자본은 청소년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Coleman(1988)에 따르면,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가족내부 인적 자본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²⁷⁾ 그리고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단지 학업성취에

26) 선행연구(Anving & Sellaerg, 2010; Beardsworth & Keil, 1990; Hammons & Fiese, 2011; McLean, 2002)에서 주목한 자녀와 부모가 서로 모이는 정규가족식사시의 접촉의 빈도와 질이 가족내부 소통적, 과정적 사회자본 형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27) Coleman(1988, 1990)은 가족내부 사회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내부 인적 자본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가족내부 인적 자본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보완성(complementarity)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민교육성과로서의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가족내부 인적 자본과 사회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아직 국내외에서 검증되거나 조명 받지 못하였다. 향후 관련 연구가 요청된다. 이러한 연구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도 주목할

만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최종덕, 2007) 시민교육성과로서의 민주시민역량(청소년의 인식적·구조적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국제비교 연구로서 가족요인 중에서도 특히 가족내부 사회자본에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최근 관측되는 한국의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생활주기, 가족행동, 가족문제 등을 아우르는 주요 변화(김승권, 2003; 김혜영, 2001, 2008; 신영화, 2005; 안호용, 김흥주, 2000; 정광조, 1996; 정진경, 2001)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어느 문화권이든 가족의 변화는 가족에 내재해 있는 주요 역량, 특히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요인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의 경우에 더욱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국제수준에서 청소년과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인 ICCS(2009)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가족을 넘어서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beyond the family)으로서의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인식적·구조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비교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에 토대하되, 주로 가족내부 과정적·소통적 사회자본이 청소년 자녀의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검증하고자 한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더불어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지 여부, 그리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되, 얼마만큼의 빈도로 국내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한 대화나 국제 이슈에 대한 대화를 하는지를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지표로 사용하여 이것들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은 ICCS(2009) 38개국별로 청소년 개인단위의 미시적 수준과 각국을 대표하는 자료를 사용한 거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3. 미시적 사회자본을 넘어서

사회자본 개념을 통하여 이론적 틀과 준거점을 모색하다고 하더라도 그 용법은 동일하지 않으며 분석수준 혹은 분석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본 연구를 지탱하는 선행문헌은 사회자본을 민주시민역량에 매우 근사한 것으로 접근하면서 청소년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거시적 분석단위를 취하는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공동체의 사회적 에너지(social energy)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Walker & Wilkes, 2000).

필요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전더사회화로 인하여 민주시민역량이나 사회자본 양상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문헌(Balswick & Averitt, 1977; Caiazza & Gault, 2006; Morrow, 2006)에 토대를 둔다.

사회자본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논의들은 관측 및 분석의 단위·수준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기도 한다. 앞에서 사회자본은 개인이 멤버십을 획득하고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형태(구조적 사회자본)로, 그리고 그러한 멤버십을 가진 개인의 신뢰와 규범 및 가치의 형태(인식적 사회자본)로 관측되고 설명되는데, 이 때 우리는 사회자본이 개인 단위의 미시적 수준(micro-level)에서 다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미시적 사회자본은 지금까지 논의한 민주시민역량으로서의 사회자본 이론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집합적 특성이나 네트워크 구조의 속성이 개인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추긴다는 인식, 대표적으로 시민사회의 결사체에의 참여적 행위와 정치적 단체에의 참여적 행위가 배태되도록 하는 사회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이 차지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때로 사회자본은 지역적 차원의 중범위 수준(mezzo-level)에서 관찰 및 분석되기도 하며(Bebbington & Carroll, 2000; Kay, 2005), 제도적·정치적 환경의 산출물 형태로 거시적 수준(macro-level)에서 논의되기도 한다(Grootaert & Bastelater, 2001; North, 1990; Olson, 1982). 이 입장은 공동체나 사회 전체의 정치문화나 조직의 속성을 사회자본으로 파악하는 거시적 접근법을 취한다.²⁸⁾ 이러한 거시적 접근법은 개인수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조직 수준에서의 신뢰, 호혜, 공동의 약속과 규범을 중요시한다.

앞서 사회자본에 대한 미시적 접근법은 개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자본을 개인과 개인간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원에 초점을 두고 그 자원을 자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었고, 이를 개인수준에서 관측된 민주적 시민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 전통은 사회자본을 개인이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 규정(Lin, 2001)하거나, 네트워크에 소속된 덕분에 희소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개인의 역량 그 자체로 규정(Portes, 1998)하는 데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네트워크 안에서 특정 개인이 어떠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영향력 있는 집단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자본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Burt, 2005).

이처럼 사회자본의 미시적 접근법에서는 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상대적으로 자원동원 측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가의 문제를 주로 취급하게 되는 고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우수집단과 취약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다. 반면 거시적 차원의 연구는 사회자본을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 같은 특질들

28) 개인 수준을 넘어서는 집합적(collective) 차원에서 민주시민역량의 개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경우 개인의 심리적·인식적 시민역량으로서의 인식적 사회자본과 분석수준에서 다르다- 로 규정하면서, 그 사회의 전통이 신뢰나 협동과 같은 호혜성에 기반한 가치나 관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문제 삼는 경향이 강하다.

Robert Putnam은 사회자본에 대한 현대적 논쟁과 토론에서 거시적 사회자본 개념을 대중화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²⁹⁾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혜택을 분석하는 학자들과는 다르게, Putnam(1995, 2000)은 사회적 관계를 실체화하여 사회자본을 집합적인 사회가 가진 자본으로 서술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다. 대표적으로 Putnam, Leonardi and Nanefi(1993)는 사회자본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조나 협동을 용이하게 하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과 같은 사회구조상의 특질’로 정의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는 특질은 가장 규모가 작으면서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이 되는 가족에 적용 -이것이 Coleman(1988)의 이른 바 가족내부 사회자본이다- 할 수 있고, 나아가 더욱 규모가 큰 국가 단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은 1970년에 출범한 이탈리아의 지방정부들의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경제성장이나 정책효과에 있어서 남북 간의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집합적 수준에서의 시민참여의식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Putnam의 사회자본 접근법에서 사회자본 개념은 주로 네트워크, 규범, 신뢰 개념으로 요약되었고, 사회자본과 밀접한 주요 개념으로 ‘지역사회(community)’가 등장하였다. 물질·인적 자본 등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은 개인과 집단의 미래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순기능은 반드시 경제적인 생산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Putnam, 2000). 이는 사회자본이 한 사회의 사회적 상호작용들의 양과 질을 형성하는 제도, 관계, 규범들의 총체로서 사회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지속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소위 사회적 접착제 혹은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이다(Field, Schuller, & Baron, 2000).

만약 우리가 ICCS(2009)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단위에서 측정된 사회자본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게 된다면, 필경 사회자본을 거시적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유의할 점은 국가별로 측정되어 산출된 사회자본이란 다름 아닌 각국에서 청소년 개인들의 자기보고한(self-reported) 사회자본의 평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29) Putnam은 유명한 「Bowling Alone」이란 책에서 미국인의 행동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TV시청률의 증가가 사회구성원 간 고립정도의 증가는 물론 사회적 참여의 감소를 촉진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구성원 간의 고립은 범죄 발생률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복지의 감소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포츠클럽 활동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의 참여는 구성원간의 고립을 감소시키고 결국 집합적 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을 형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Putnam, 2000).

구성원들에게 사회자본에 대한 지각(perceived social capital)을 물을 수도 있고, 시민역량으로서의 사회자본을 개념화하더라도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이를 측정할 수도 있다. 개인수준을 넘어서 집합적 분석단위 수준에서도 사회자본과 역량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승빈, 이승중, 2005; 정광호, 2010; 조대현, 김재현, 2007).

집합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역량, 곧 거시적 사회자본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역과 국가단위에서 일종의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⁰⁾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물들과 연결 짓는다. 중범위적·거시적 사회자본의 증강, 곧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신뢰(특히 정부신뢰)와 사회참여와 협력적 행위의 증가는 효율적 정부 운영과 생산적 효율성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Brehm & Rahn, 1997).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사회에는 경제적 유익이 있다고 한다. 서구사회에서도 의미심장한 주장 하나는 국가의 산업정책이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특질과 연관된다는 것이다(Fukuyama, 1995). 집합행동의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미흡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이 되기도 하며, 특히 사회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된다(Fedderke, De Kadt, & Luiz, 1999).

이를 검증한 Knack과 Keeper(1997)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데, 시민사회의 신뢰와 규범이 높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소득의 평등한 분포가 관측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 외에도,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거래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왔다. 경제적 성장의 후퇴는 상당 부분 상호적 신뢰관계의 부재나 결핍에 의해 설명되었다(Arrow, 1972). 상대적으로 고신뢰사회(higher-trust societies) 안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은 경제적 교환관계에서 착취를 당할까봐 문서작업, 소송준비, 기타 자기보호적 행동들을 사전에 취할 필요를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이며, 결국 그러한 사회 안에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 혁신,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lague, 1993).

고신뢰사회에서 경제적 성과 역시 높다는 주장과 관측은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특히 공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축적을 위해서도 순기능을 한다는 발견과도 연관된다(Galor & Zeira, 1993). 사회자본과 인적 자본이 반드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되레 저신뢰사회에서는 혈연이나 인맥에 의해 고용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고신뢰사회에는 학력이나 자격증과 같은 요인이 고용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Knack & Keeper,

30) 미시적 사회자본의 형성과 증강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준다(Harpham, Grant, & Thomas, 2002; Helliwell, 2001; Kawachi, Kennedy, Lochner, & Prothrow-Stith, 1997; Knack, 1992).

1997). 이와 같이 사회자본은 개인수준뿐만 아니라 집합적 수준에서 긍정적 사회경제적 효과·효능을 가진다는 선행문헌의 분석과 보고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향후 한국에서 개인단위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는 근거들이다. 국가단위에서 측정된 국가별 거시적 사회자본 변인이 국가별 거시적 변인인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과의 상관성 측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거시적 사회자본과 국가의 주요 사회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가 분석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분석틀과 방법은 후술될 것이다.

4.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와 추론의 토대 위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우선 제시한다.

- 연구문제 1: ICCS(2009) 조사대상국 38개 국가별로 청소년의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미디어의 종류별로 민주시민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ICCS(2009) 조사대상국 38개 국가별로 청소년의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미디어의 종류별로 민주시민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ICCS(2009) 조사대상국 38개 국가별로 청소년의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은 민주시민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가설 1: ICCS(2009) 조사대상국 38개 국가별로 청소년이 속한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그 종류별로 민주시민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은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의 네 가지 하부변인들을 포괄한다(이미 언급한대로,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은 민주시민역량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행동 대신에 성인기에 기대되는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의도)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는 이유 및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많은 나라에서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는 관습적·현실적 제약에 직면하며 청소년기는 다양한 전통적, 저항적 참여행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연령집단으로 간주된다. 특히 ICCS(2009)의 조사대상자들이 평균적으로 중학교 2학년생들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ICCS(2009)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는 학교 안과 밖에서의 참여행동으로 제한되었으며, 이 변인들은 측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일정 기간에서의 참여경험을 묻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팎의 참여행동은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없었다. 즉 학교 안팎의 참여행동이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보다 선행변인이었기에 인과적 해석의 문제 발생에 직면하였다는 의미이다. 셋째, 성인기의 사회정치적 참여행동은 청소년기의 참여행동의도에 의해 잘 설명·예측될 수 있다. 다른 많은 행동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사회적, 정치적 참여행동은 그 의향 혹은 의도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De Cannière, De Pelsmacker, & Geuens, 2009). 심지어 참여의향은 실제 참여행동의 대리변인(proxy)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Turchik & Gidycz, 2012). 이러한 현실적, 자료적, 이론적 이유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실제 참여행동을 대신하여 성인기의 참여에 대한 기대/의향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것이다.

위 연구문제 1, 2, 3과 연구가설 1은 국가별로 ICCS(2009)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 개인수준의 독립변인들(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과 미시적 민주시민역량 간의 관계성을 탐색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별로 측정되고 산출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미디어이용, 가족내부 사회자본, 사회경제적 지표(성인 문자해독 비율, 1인당 GDP, 인간개발지수, 교육비 공공지출, 투표율)를 활용하여 거시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할 것이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연구문제이다.

- 연구문제 4: 국가단위 분석에서 청소년의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미디어의 종류별로 민주시민역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국가단위 분석에서 청소년의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미디어의 종류별로 민주시민역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6: 국가단위 분석에서 청소년의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은 민주시민역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7: 국가단위 분석에서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그 종류별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8: 국가단위 분석에서 각 사회경제지표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위 연구문제 4, 5, 6, 7에서 거시적 민주시민역량과 주요 거시적 변인 간의 관계 검증을 상관관계 분석 형태의 연구문제로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변인들 간의 연계성과 관련된 설명이 주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선행문헌의 근거와 추론 위에서 성립하였다. 동일한 주제 분야에서 국가단위 분석을 다룬 선행연구가 매우 희소하였고, 거시적 사회자본을 직접 다룬 연구들의 경우에 미디어이용, 가족내부 사회자본 등 주요 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거나 실증분석을 시도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연구문제 8의 경우도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 민주시민역량과 국가수준의 사회경제지표 관계를 고찰한 연구 논문과 보고서가 희소하여 연구문제 형태로 제시하였다. 첨언하건대, 연구문제 4, 5, 6, 7, 8의 해소를 위해서도 청소년의 실제 사회정치적 참여행동 대신에 성인기의 사회정치적 참여기대 혹은 의향의 국가별 평균값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제 3 장

연구 설계

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2. 주요 변인과 연구방법
3. 연구모형

제 3 장

연구 설계*

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존 2011년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I)’의 후속연구로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국제적 비교의 차원에서 그 현황과 실태를 선행연구보다 더욱 면밀히 알아보고,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조성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개발하는데 근거가 되는 학술적·과학적 성과를 산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ICCS(2009) 조사 자료이다. ICCS 조사대상은 학생 이외에도 학교와 학교장, 그리고 교사를 포함한다. 38개국 총 140,650명의 학교청소년 외에도 5,215개 학교와 학교장, 그리고 60,588명의 교사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IEA의 주도하에³¹⁾ 실무책임자인 NRC(National Research Coordinator)의 회의를 4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각국을 위한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남반구 국가들은 2008년 하반기 12월까지 조사 자료를 구득하였고, 북반구 국가들은 이듬해 4월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조사 자료의 획득에는 국가별로 다소의 시차가 존재한다. 각국별로 구득한 자료는 남반구 국가들의 경우 2009년 2월까지, 북반구 국가들의 경우 2009년 6월까지 IEA로 송부되었다. 한국은 2009년 5,254명의 학교청소년, 150개 중학교와 학교장, 2,340명의 교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³²⁾ 다음 <표 Ⅲ-1>은 38개 국가와 성별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사례 수를 표기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표집 총 사례 수의 남녀 성비가 다소 불균등한 나라였다.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하고 참가국들은 대개 5천명 내외의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본장은 김준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31) 호주의 ACER(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영국의 NFER(The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이탈리아의 LPS(Laboratorio di Pedagogia Sperimentale)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ICCS(2009)의 전체 조사연구를 주관하였다(김태준 외, 2010). IEA의 ICCS(2009) 이후 5년 후인 2014년에 제2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32) 장근영과 박수익(2011a:74)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지역과 도시화 정도를 유층변인으로 하여 유층화된 2단계 군집표집법(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으로써 표집하였다. 유층 구성 후 학교규모를 고려, 확률표집하였고, 확률표집으로 추출된 학교에서 한 학급을 확률표집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중학교 및 학교장, 교사, 학생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표 III -1 ICCS(2009) 조사대상 청소년 사례 수

	합계	%	남학생	%	여학생	%
Austria	3385	2.4	1553	2.3	1637	2.3
Bulgaria	3257	2.3	1590	2.3	1642	2.3
Chile	5192	3.7	2510	3.6	2651	3.8
Chinese Taipei	5167	3.7	2670	3.9	2474	3.5
Colombia	6204	4.4	2877	4.2	3315	4.7
Cyprus	3194	2.3	1548	2.2	1540	2.2
Czech Republic	4630	3.3	2492	3.6	2128	3.0
Denmark	4508	3.2	2092	3.0	2271	3.2
Dominican Republic	4589	3.3	2053	3.0	2482	3.5
Estonia	2743	2.0	1345	1.9	1380	2.0
Finland	3307	2.4	1604	2.3	1692	2.4
Greece	3153	2.2	1538	2.2	1606	2.3
Guatemala	4002	2.8	2035	2.9	1955	2.8
Hong Kong	2902	2.1	1414	2.0	1376	2.0
Indonesia	5068	3.6	2365	3.4	2650	3.8
Ireland	3355	2.4	1720	2.5	1626	2.3
Italy	3366	2.4	1740	2.5	1612	2.3
Korea	5254	3.7	2968	4.3	2275	3.2
Latvia	2761	2.0	1329	1.9	1412	2.0
Liechtenstein	357	0.3	181	0.3	172	0.2
Lithuania	3902	2.8	1974	2.9	1918	2.7
Luxembourg	4852	3.4	2318	3.4	2477	3.5
Malta	2143	1.5	1126	1.6	1011	1.4
Mexico	6576	4.7	3142	4.6	3429	4.9
Netherlands	1964	1.4	901	1.3	1030	1.5
New Zealand	3979	2.8	1982	2.9	1950	2.8
Norway	3013	2.1	1458	2.1	1502	2.1
Paraguay	3399	2.4	1627	2.4	1771	2.5
Poland	3249	2.3	1605	2.3	1633	2.3
Russian Federation	4295	3.1	2144	3.1	2148	3.1
Slovak Republic	2970	2.1	1473	2.1	1493	2.1
Slovenia	3070	2.2	1528	2.2	1517	2.2
Spain	3309	2.4	1619	2.3	1663	2.4

	합계	%	남학생	%	여학생	%
Sweden	3464	2.5	1707	2.5	1716	2.4
Switzerland	2924	2.1	1450	2.1	1454	2.1
Thailand	5263	3.7	2433	3.5	2812	4.0
England	2916	2.1	1388	2.0	1496	2.1
Belgium (Flemish)	2968	2.1	1486	2.2	1465	2.1
합계	140650	100	68985	100	70381	100

2. 주요 변인과 연구방법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서 사용될 변인에는 38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개인 단위에서 측정된 미시적 변인과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시변인이 있다. 이러한 변인들의 측정방법 및 계산방식에 관하여 해당 장(제4장과 제5장)의 측정변인의 설명에서 상세히 다룬다.

38개 국가별로 미시적 변인 간의 선형적 관계를 알아보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며,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고서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변인과 가족내부 사회자본 변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변인의 패턴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국가유형을 도출하는 준거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앞의 제2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1, 2, 3을 해소하고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며, 제4장에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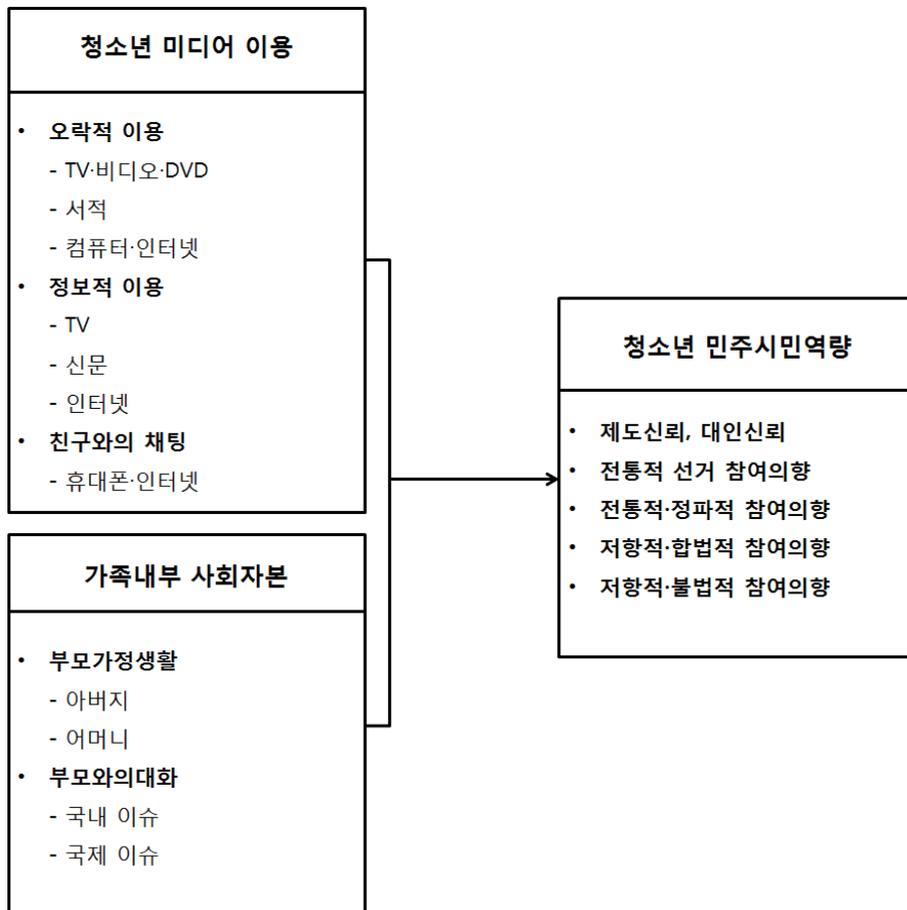
38개 국가별로 구득된 국가자료를 활용하여 거시적 변인 간의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하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국가단위의 거시적 민주시민역량과 거시적 변인인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가족내부 사회자본, 그리고 각국의 사회경제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게 된다. 이러한 통계적 검증은 앞의 제2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4, 5, 6, 7, 8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제5장에서 다룬다.

표 III-2 주요 변인, 연구방법, 연구문제 및 가설

변인 분류	분석 단위	결과변인	설명변인	통계적 방법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변인측정 기술
미시적 변인	개인	<p>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신뢰, 대인신뢰, -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p>청소년의 미디어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비디오· DVD · 서적 · 컴퓨터· 인터넷 - 정보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 신문 · 인터넷 - 친구와의 채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인터넷 <p>가족내부 사회자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 어머니 - 부모와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이슈 · 국제 이슈 	다중 회귀 분석	연구문제 1,2,3 연구가설 1	제4장 제2절
거시적 변인	국가	<p>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신뢰, 대인신뢰, -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p>청소년의 미디어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락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비디오· DVD · 서적 · 컴퓨터· 인터넷 - 정보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 신문 · 인터넷 - 친구와의 채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인터넷 <p>가족내부 사회자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 어머니 - 부모와의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이슈 · 국제 이슈 <p>각국 사회경제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문자해독 비율 · 1인당 GDP · 인간개발지수 · 교육비 공공지출 · 투표율 	상관 관계 분석	연구문제 4,5,6,7,8	제5장 제2절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설계를 반영하는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Ⅲ-1>과 같다. 모형 제시의 간명성을 위해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통제변인)은 생략되었다. 아래 연구모형은 특히 미시적 변인 간의 선형적 관계를 알아보는 다중회귀분석을 나타낸 모형이다. 거시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되는 경우 더더욱 인과성 해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아울러 거시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될 때, 각국의 사회경제지표까지 고려하게 된다.



【그림 Ⅲ-1】 연구모형

제 4 장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의 영향요인: 국가별 실증분석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3. 결과 및 해석
4. 논의

제 4 장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영향요인: 국가별 실증분석*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시종일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함양은 이웃, 지역사회, 학교 등의 연결망에 내재하는 자원의 총체인 사회자본 그 자체로서 청소년의 인지적·심리사회적 발달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소년기의 민주시민역량은 청소년의 교육성취, 건강 및 행복 증진 등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의 영역에 속해 있다(Eriksson et al., 2011; Leonard, 2005).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되게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영향요인 이자 중재변인으로서 미디어이용과 가족요인에 주목하여 이론적 논의를 앞에서 전개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그 타당성을 실증적 검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국제적 수준에서 ICCS(2009) 참가국인 38개의 개별 국가별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다. 이 경우 개별 국가 내에서 개인단위의 주요 변인인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을 청소년 개인의 민주시민역량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하게 된다.

이론적 논의에서 고찰한대로 청소년 개인의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청소년 개인의 민주시민역량의 하위요소인 제도 및 대인신뢰와 사회정치적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기기에 충분한 선행문헌과 이론의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역할을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주요 성과(청소년 민주시민역량)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바라보며, 국제수준에서 국가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국가유형을 도출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을 알 수 있는 국제비교자료 분석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본 연구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청소년의 위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취약한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 본장은 김준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분석에서 활용하는 ICCS(2009) 자료는 민주시민사회에서 시민 혹은 미래시민으로서의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을 유형별(전통적 선거참여, 전통적·정파적 참여, 저항적·합법적 참여, 저항적·불법적 참여)로 알 수 있게 하여 더욱 유용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장의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ICCS(2009) 자료이다. 분석은 조사대상자인 전 세계 38개국을 대표하는 전체 140,6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및 가족내부 사회자본과 민주시민 역량의 연계성을 국가별로 파악하되 개인수준의 변인 간 관계를 다중회귀분석모형의 검증과 분석으로써 접근하였기에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별로 청소년 표본집단의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 38개 국가의 조사대상자 전체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별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표 IV-1>에서 제시하였다.

표 IV-1 ICCS(2009)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인별 특성

변인	구분	N	%
나이	만12세	490	0.3
	만13세	38416	27.3
	만14세	73367	52.2
	만15세	21105	15.0
	만16세	3421	2.4
	만17세	1024	0.7
	무응답	2827	2.0
성별	남학생	68985	49.0
	여학생	70381	50.0
	무응답	1284	0.9

변인	구분	N	%
소장도서	0~10권	16694	11.9
	11~25권	27373	19.5
	26~100권	44544	31.7
	101~200권	24736	17.6
	201~500권	16316	11.6
	501권 이상	9471	6.7
	무응답	1516	1.1
기대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1120	0.8
	중학교 졸업	7846	5.6
	고등학교 졸업	33166	23.6
	전문대학 졸업	23125	16.4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72791	51.8
	무응답	2602	1.8
부친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퇴	5120	3.6
	초등학교 졸업	10892	7.7
	중학교 졸업	20351	14.5
	고등학교 졸업	46879	33.3
	전문대학 졸업	21003	14.9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27928	19.9
	무응답	8477	6.0
모친교육수준	초등학교 중퇴	6096	4.3
	초등학교 졸업	11516	8.2
	중학교 졸업	20080	14.3
	고등학교 졸업	48335	34.4
	전문대학 졸업	20989	14.9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28234	20.1
	무응답	5400	3.8
합계		140650	100.0

분류	변인	구분	N	%
오락추구 미디어 이용	TV 비디오 DVD	전혀 하지 않음	7483	5.3
		30분미만	20549	14.6
		약30~60분	41144	29.3
		약1시간~2시간	42384	30.1
		2시간이상	25836	18.4
		무응답	3254	2.3
	서적	전혀 하지 않음	36942	26.3
		30분미만	51572	36.7
		약30~60분	29541	21.0
		약1시간~2시간	11947	8.5
		2시간이상	6321	4.5
		무응답	4327	3.1
	컴퓨터 인터넷	전혀 하지 않음	19119	13.6
		30분미만	22686	16.1
		약30~60분	29450	20.9
		약1시간~2시간	31463	22.4
		2시간이상	33754	24.0
		무응답	4178	3.0
정보추구 미디어 이용	TV	전혀 하지 않음	20379	14.5
		최소 한 달에 한번	22654	16.1
		최소 일주일에 한번	38647	27.5
		거의 매일 혹은 매일	56268	40.0
		무응답	2702	1.9
	신문	전혀 하지 않음	47211	33.6
		최소 한 달에 한번	31308	22.3
		최소 일주일에 한번	37523	26.7
		거의 매일 혹은 매일	21493	15.3
		무응답	3115	2.2

분류	변인	구분	N	%
	인터넷	전혀 하지 않음	64088	45.6
		최소 한 달에 한번	33186	23.6
		최소 일주일에 한번	25244	17.9
		거의 매일 혹은 매일	14559	10.4
		무응답	3573	2.5
친구와 채팅	휴대폰 인터넷	전혀 하지 않음	21297	15.1
		30분미만	40269	28.6
		약30분~60분	27089	19.3
		약1시간~2시간	21210	15.1
		2시간이상	27043	19.2
		무응답	3742	2.7
가족내부 사회자본	아버지 가정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내지 않는다	38486	27.4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낸다	94971	67.5
		무응답	7193	5.1
	어머니 가정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내지 않는다	12111	8.6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낸다	121583	86.4
		무응답	6956	4.9
	국내이슈 대화	전혀 하지 않음	67156	47.7
		최소 한 달에 한번	36544	26.0
		최소 일주일에 한번	22828	16.2
		거의 매일 혹은 매일	11136	7.9
		무응답	2986	2.1
	국제이슈 대화	전혀 하지 않음	36138	25.7
최소 한 달에 한번		45987	32.7	
최소 일주일에 한번		38510	27.4	
거의 매일 혹은 매일		16672	11.9	
무응답		3343	2.4	
합계			140650	100.0

변인	구분	N	%
제도신뢰 (10항목평균)	전혀 신뢰하지 않음 < 제도신뢰 < 조금 신뢰	9921	7.1
	조금 신뢰 < 제도신뢰 < 어느 정도 신뢰	81749	58.1
	어느 정도 신뢰 < 제도신뢰 < 매우 신뢰	48980	34.8
대인신뢰	전혀 신뢰하지 않음	10017	7.1
	조금 신뢰함	47552	33.8
	어느 정도 신뢰함	58422	41.5
	매우 신뢰함	18767	13.3
	무응답	5892	4.2
전통적 선거 참여의향 (3항목평균)	확실히 참여 않음 < 전통 선거 참여의향 범주 < 아마도 참여 않음	7672	5.5
	아마도 참여 않음 < 전통 선거 참여의향 범주 < 아마도 참여	27708	19.7
	아마도 참여 < 전통 선거 참여의향 범주 < 확실히 참여	105270	74.8
전통적 정파적 참여의향 (4항목평균)	확실히 참여 않음 < 전통 정파 참여의향 범주 < 아마도 참여 않음	41204	29.3
	아마도 참여 않음 < 전통 정파 참여의향 범주 < 아마도 참여	77304	55.0
	아마도 참여 < 전통 정파 참여의향 범주 < 확실히 참여	22142	15.7
저항적 합법적 참여의향 (6항목평균)	확실히 참여 않음 < 합법적 저항의향 < 아마도 참여 않음	18022	12.8
	아마도 참여 않음 < 합법적 저항의향 < 아마도 참여	84669	60.2
	아마도 참여 < 합법적 저항의향 < 확실히 참여	37959	27.0
저항적 불법적 참여의향 (3항목평균)	확실히 참여 않음 < 불법적 저항의향 < 아마도 참여 않음	71540	50.9
	아마도 참여 않음 < 불법적 저항의향 < 아마도 참여	50491	35.9
	아마도 참여 < 불법적 저항의향 < 확실히 참여	18619	13.2
합계		140650	100.0

2) 측정변인

(1) 종속변인

본 장의 분석을 위하여 측정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은 청소년의 신뢰(제도신뢰 및 대인신뢰의 두 변인)와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정치참여의향, 저항적·합법

적 참여의향,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의 네 변인)이다.

공적 제도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Almedom, 2005; Ravanera & Rajulton, 2010)는 ‘귀하는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공적 제도를 구성하는 기관의 종류로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정부, 법원, 경찰, 정당, 국회, 미디어, 군대, 학교, 국제연합의 10가지를 학생들에게 열거해 제시하였으며, 매우 신뢰함(1), 어느 정도 신뢰함(2), 조금 신뢰함(3), 전혀 신뢰하지 않음(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고 각 지표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제도신뢰라고 명명하였다.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값(Cronbach's α)은 국가별로 가장 작게는 .786(리투아니아)에서 가장 크게는 .893(스웨덴)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제도신뢰 변인의 38개 국가별 신뢰도계수는 [부록 1]을 참조할 수 있다. 대인신뢰(Mangum, 2011)는 ‘귀하는 일반대중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라는 단일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매우 신뢰함(1), 어느 정도 신뢰함(2), 조금 신뢰함(3), 전혀 신뢰하지 않음(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그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행 후 실천 가능한 형태로서 기대되는 사회정치적 참여는 전통적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로서의 참여와 선거 시의 정파적 참여 그리고 대안적 혹은 저항적 참여가 있을 수 있다(민영, 노성중, 2011; Moy et al., 2005). 대안적·저항적 참여에도 세분화하여 들어가면 합법적 방식과 불법적 방식의 참여가 있다(Schulz et al., 2010). 사회정치적 참여행동은 그 의향, 기대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며, 그러한 참여의향 및 기대는 참여행동의 대리변인으로 간주된다(De Cannière et al., 2009; Turchik & Gidycz, 201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정치적 참여행동을 성인기에 기대·의도되는 참여의향으로써 대리적으로 측정하였다(김준홍, 2012c).

전통적 선거참여의 측정을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투표참여, 국가적 선거에서 투표참여, 그리고 투표 전에 후보에 관한 정보구득의 세 가지 종류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에 관하여 청소년에게 물었다.

‘귀하가 성인이 되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 항목들에 얼마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응답은 확실히 참여(1), 아마도 참여(2), 아마도 참여 않음(3), 확실히 참여 않음(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고 각 지표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값(Cronbach's α)은 국가별로 가장 작게는 .694(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게는 .902(칠레)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변인의 38개 국가별 신뢰도계수는 [부록 1]을 참조할 수 있다.

전통적·정파적 정치참여의 측정을 위하여 선거 캠페인 동안 후보자나 정당을 돕기, 정당 참여하기,

노동조합 참여하기,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의 네 가지 종류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을 물었다.

‘귀하가 성인이 되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 항목들에 얼마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응답은 확실히 참여(1), 아마도 참여(2), 아마도 참여 않음(3), 확실히 참여 않음(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고 각 지표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값(Cronbach's α)은 국가별로 가장 작게는 .692(덴마크)에서 가장 크게는 .859(과테말라)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변인의 38개 국가별 신뢰도계수는 [부록 1]을 참조할 수 있다.

저항적·합법적 참여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문사에 편지보내기, 개인의견을 표현하는 배지를 달거나 티셔츠 입기, 선출직 공무원 접촉하기, 평화적 집회 참여하기, 진정서 서명 모으기, 상품불매하기의 여섯 가지 종류의 합법적 방식의 저항적·대안적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을 물었다. ‘귀하가 성인이 되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 항목들에 얼마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응답은 확실히 참여(1), 아마도 참여(2), 아마도 참여 않음(3), 확실히 참여 않음(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고 각 지표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값(Cronbach's α)은 국가별로 가장 작게는 .704(그리스)에서 가장 크게는 .855(한국)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변인의 38개 국가별 신뢰도계수는 [부록 1]을 참조할 수 있다.

끝으로 벽에 항의표어 스프레이 페인팅하기, 도로의 교통 봉쇄하기, 공공건물 점거하기의 세 가지 종류의 비합법적 방식의 저항적·대안적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을 물었다. 이는 ‘귀하가 성인이 되면,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 항목들에 얼마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응답은 확실히 참여(1), 아마도 참여(2), 아마도 참여 않음(3), 확실히 참여 않음(4)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고 각 지표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측정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 값(Cronbach's α)은 국가별로 가장 작게는 .681(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게는 .908(홍콩)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저항적·비합법적 참여의향 변인의 38개 국가별 신뢰도계수는 [부록 1]을 참조할 수 있다.

(2) 독립변인

①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변인은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미디어이용 유형별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오락추구 동기 미디어이용이고 두 번째는 정보추구 동기 미디어이용이다(강내원, 2008; 이해인, 배영, 2011; 최영, 박성현, 2011). 두 번째 범주로서 각 이용 동기 안에서도 TV, 책,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의 종류도 고려하였다(이준웅 외, 2005). 세 번째는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김은희, 이종혁, 2010)으로서 대체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의 오락추구 동기 이용의 유형이지만, 친구와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핵심으로 한다.

오락추구 동기 미디어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귀하는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라고 청소년에게 질문하고 텔레비전/비디오/DVD 시청, 독서하기, 컴퓨터/인터넷 이용의 세 가지 매체영역에서 이용시간(duration)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혀 하지 않음(1), 30분 미만(2), 약 30분~60분(3), 약 1시간~2시간(4), 2시간 이상(5)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오락추구 동기 미디어이용은 세 문항이 내적 일치도가 높지 않아 미디어별로 개별문항을 사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정보추구 동기 미디어이용(빈도)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귀하는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합니까?’ 라는 질문을 청소년에게 던지고, 국가적·국제적 뉴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텔레비전 시청, 국가적·국제적 뉴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신문읽기, 국가적·국제적 뉴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한 인터넷 이용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미디어이용을 측정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하지 않음(1), 최소 한달에 한번(2), 최소 일주일에 한번(3), 거의 매일 혹은 매일(4)로 나누었다. 정보추구 동기 미디어이용의 세 문항은 내적 일치도가 높지 않아 각각 개별문항을 사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김은희, 이종혁, 2010; 나은영, 2005)을 측정하기 위하여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귀하는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라고 청소년에게 질문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전화나 인터넷 채팅(잡담) 하기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의 한 가지 유형이지만, 친구와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과는 차별화된다. 학생들의 대답을 전혀 하지 않음(1), 30분 미만(2), 약 30분~60분(3), 약 1시간~2시간(4), 2시간 이상(5)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② 가족내부 사회자본

가족내부 사회자본 변인의 첫 번째 하위변인으로서, 부친과 모친이 각각 청소년 자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여부를 측정하였다(Bassani, 2006).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이 부친/모친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낸다고 대답하였으면, 예(1),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아니오(0)라고 코딩하였다. 그리고 이를 각각 아버지의 가정생활, 어머니의 가정생활이라고 명명하였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Crosnoe, 2004). 그리고 특히 가정 안에서의 소통적 사회자본의 축적,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정치적·국제적 이슈에 관한 부모와 자녀 간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청소년에게 ‘귀하는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두 가지 활동, 첫째, 국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와의 이야기, 둘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부모와의 이야기 빈도를 대답하게 하였다. 응답의 선택지로서 전혀 하지 않음(1), 최소 한달에 한번(2), 최소 일주일에 한번(3), 거의 매일 혹은 매일(4)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부모와의 국내이슈 커뮤니케이션(대화)과 국제이슈 커뮤니케이션(대화)이라고 명명하였다.

(3) 통제변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인 연령, 성별³³⁾, 가정의 소장도서(권수), 학생의 기대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이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가정의 소장도서 권수는 부모의 교육수준(Israel et al., 2001)과 더불어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족내부 인적 자본의 대리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정의 소장도서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응답자에게 질문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개 40권의 책이 책꽂이 한 칸에 꽂힙니다. 잡지, 신문, 만화책이나 교과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가 진술을 추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응답 범주를 0-10권(1), 11-25권(2), 25-100권(3), 101-200권(4), 201-500권(5), 501권 이상(6)으로 나누었다.

33) 성별은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인이라는 점을 넘어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설명변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회자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최근 문헌의 보고(Balswick & Avertt, 1977; Caiazza & Gault, 2006; Morrow, 2006)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가지는 기대교육수준의 측정을 위하여 ‘최종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닐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라고 청소년에게 질문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1), 전문대학 졸업(2),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3), 중학교 졸업(4), 중학교 중퇴(5)로 세분하여 유목을 제시한 후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후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기대교육수준이라 명명하고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부친 및 모친의 교육수준의 측정을 위하여 ‘귀하의 아버지(혹은 남성보호자)/어머니(혹은 여성보호자)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라고 청소년에게 질문하였다. 그에 대한 응답을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1), 전문대학 졸업(2), 고등학교(인문계/실업계) 졸업(3), 중학교 졸업(4), 초등학교 졸업(5), 초등학교 중퇴(6)로 세분하였다. 응답 후 순서를 역으로 코딩하여 부모 교육수준(최종 학력)이라 명명하고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3) 통계적 방법과 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연구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양적 자료인 ICCS(2009)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하고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38개의 각국별 여섯 개의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다중회귀분석이 실행되었으므로, 모두 228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중회귀분석에서 나타난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독립변인별로 국가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개별국가별로 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이같이 분류한 것은 전 세계 청소년의 표본이나 국가군의 표본에 대한 분석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다중회귀분석에서 검정통계량은 표본 크기의 함수이므로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실질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어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 이러한 1종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대체로 표본 크기가 엇비슷한 개별 국가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한 것이다(한국교육심리학회 편, 2000).

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주요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고,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도 검토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통계적 가설검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값인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을 10%로 설정하여 국가들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 IBM SPSS 20 version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1)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신뢰와 사회정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매체별로 민주시민역량 변인(신뢰와 사회정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이를 연구문제 1로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각각과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 간의 상관성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실시한 ICCS(2009) 조사대상국인 38개국의 대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각 종속변인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1)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TV, 비디오, DVD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8개 국가(A, C, D, F 유형)에서 청소년의 제도신뢰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2개국(체코, 슬로바키아)에서만 TV 등 영상매체 이용의 제도신뢰 증진효과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오락적 독서는 38개국 중에서 21개 국가(A, B, C, E, G 유형)에서 청소년의 제도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어느 나라에서도 오락적 독서의 제도신뢰 감소효과는 없었다.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24개 국가(A, B, D, E, H 유형)에서 청소년의 제도신뢰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의 제도신뢰 증진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쇄매체로서의 책을 오락추구동기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상대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청소년의 TV, 비디오, DVD 등 영상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오락추구동기의 이용은 인식영역의 민주시민 역량인 제도신뢰 저하와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2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종류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I유형
TV, 비디오, DVD	-(sig)	+(sig)	-(sig)	-(sig)		-(sig)			
서적	+(sig)	+(sig)	+(sig)		+(sig)		+(sig)		
컴퓨터, 인터넷	-(sig)	-(sig)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칠레, 과테말라, 멕시코

B유형: 체코, 슬로바키아

C유형: 대만, 콜롬비아

D유형: 인도네시아

E유형: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벨기에, 슬로베니아, 스페인

F유형: 도미니카, 스웨덴

G유형: 핀란드, 이탈리아

H유형: 홍콩, **한국**, 아일랜드, 폴란드, 러시아, 태국

I 유형: 오스트리아,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영국

(2)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TV, 비디오, DVD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6개 국가(A, B, E 유형)에서 청소년의 대인신뢰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2개국(칠레, 에스토니아)에서만 TV 등 영상매체 이용의 대인신뢰 증진효과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오락적 독서는 38개국 중에서 11개 국가(A, B, D, F 유형)에서 청소년의 대인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어느 나라에서도 오락적 독서의 대인신뢰 감소효과는 없었다.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11개 국가(A, C, D, G 유형)에서 청소년의 대인신뢰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리히텐슈타인에서만 컴퓨터, 인터넷 이용의 대인신뢰 증진효과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인쇄매체로서의 책을 오락추구동기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의 TV, 비디오, DVD 등 영상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오락추구동기의 이용은 인식영역의 민주시민역량인 대인신뢰 저하와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3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I유형	J유형
TV, 비디오, DVD	-(sig)	-(sig)	+(sig)		-(sig)				
서적	+(sig)	+(sig)		+(sig)		+(sig)			
컴퓨터, 인터넷	-(sig)		-(sig)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과테말라

B유형: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C유형: 칠레, 에스토니아

D유형: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위스

E유형: 도미니카, 스웨덴, 벨기에

F유형: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파라과이, 슬로바키아

G유형: 오스트리아, 대만,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I 유형: 리히텐슈타인

J유형: 체코, 덴마크, 그리스, 홍콩,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태국, 영국

(3)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TV, 비디오, DVD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11개 국가(A, C, D, J 유형)에서 청소년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단지 2개국(리히텐슈타인, 태국)에서만 TV 등 영상매체 이용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증진효과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오락적 독서는 38개국 중에서 20개 국가(A, B, C, E, G 유형)에서 청소년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말타에서만 TV 등 영상매체 이용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감소효과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18개 국가(A, D, E, H 유형)에서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어느 나라에서도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증진효과는 없었다.

인쇄매체로서의 책을 오락추구동기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많은 국가에서 TV, 비디오, DVD 등 영상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오락추구동기의 이용은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저하와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4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유형	J유형	K유형
TV, 비디오, DVD	-(sig)	+(sig)	-(sig)	-(sig)		+(sig)				-(sig)	
서적	+(sig)	+(sig)	+(sig)		+(sig)		+(sig)		-(sig)		
컴퓨터, 인터넷	-(sig)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룩셈부르크

B유형: 리히텐슈타인

C유형: 칠레, 대만, 슬로베니아, 스위스, 벨기에

D유형: 오스트리아, 핀란드, 폴란드, 스웨덴

E유형: 불가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F유형: 태국

G유형: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H유형: 과테말라, 홍콩,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유형: 말타

J유형: **한국**

K유형: 덴마크, 도미니카, 노르웨이, 파라과이, 영국

(4)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TV, 비디오, DVD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20개 국가(A, B, C, E 유형)에서 청소년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증진효과는 없었다.

오락적 독서는 38개국 중에서 A유형의 3개 국가에서만 청소년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B, D, F 유형의 5개 국가에서는 정반대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22개 국가(A, B, C, D, G 유형)에서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증진효과는 없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TV, 비디오, DVD 등 영상미디어, 인쇄매체인 책, 그리고 인터넷 등 미디어의 오락추구동기의 이용은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하와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5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TV, 비디오, DVD	-(sig)	-(sig)	-(sig)		-(sig)			
서적	+(sig)	-(sig)		-(sig)		-(sig)		
컴퓨터, 인터넷	-(sig)	-(sig)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콜롬비아, 과테말라, **한국**

B유형: 멕시코, 스위스

C유형: 불가리아, 칠레, 핀란드,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태국, 영국, 벨기에

D유형: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E유형: 대만,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F유형: 말타

G유형: 체코, 홍콩, 뉴질랜드,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H유형: 사이프러스,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파라과이, 스웨덴

(5)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TV, 비디오, DVD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20개 국가(A, B, C 유형)에서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오락적 독서는 38개국 중에서 34개 국가(A, B, D, E, F 유형)에서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21개 국가(A, C, D, G 유형)에서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단지 파라과이에서만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증진효과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인쇄매체로서의 책을 오락추구동기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많은 국가에서 TV, 비디오, DVD 등 영상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오락추구동기의 이용은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저하와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6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TV, 비디오, DVD	-(sig)	-(sig)	-(sig)					
서적	+(sig)	+(sig)		+(sig)	+(sig)	+(sig)		
컴퓨터, 인터넷	-(sig)		-(sig)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대만, 콜롬비아, 핀란드, 홍콩,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러시아

B유형: 덴마크,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벨기에

C유형: 도미니카, 태국

D유형: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한국**, 라트비아, 네덜란드, 스웨덴

E유형: 파라과이

F유형: 칠레,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페인

G유형: 말타

H유형: 리히텐슈타인

(6)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TV, 비디오, DVD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12개 국가(A, B 유형)에서 청소년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만 TV 등의 오락적 이용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감소효과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오락적 독서는 38개국 중에서 27개 국가(A, B, D, F 유형)에서 청소년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7개 국가(A, D, G 유형)에서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인도네시아, 한국, 리투아니아에서만 컴퓨터,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감소효과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인쇄매체로서의 책을 오락추구동기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많은 국가에서 TV, 비디오, DVD 등 영상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오락추구동기의 이용은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증가와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7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I유형	
TV, 비디오, DVD	+(sig)	+(sig)	-(sig)					-(sig)		
서적	-(sig)	-(sig)		-(sig)		-(sig)				
컴퓨터, 인터넷	+(sig)		-(sig)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칠레,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B유형: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말타, 스페인, 스웨덴

C유형: 인도네시아

D유형: 대만, 러시아 슬로베니아

E유형: **한국**, 리투아니아

F유형: 불가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 벨기에

G유형: 그리스

H유형: 태국

I유형: 콜롬비아, 도미니카, 과테말라, 홍콩, 파라과이, 폴란드

(7) 해석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1이 제시된 바가 있었다.

- 연구문제 1: ICCS(2009) 조사대상국 38개 국가별로 청소년의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미디어의 종류별로 민주시민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8개 국가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각각과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나서 유형별로 분류 및 정리한 결과,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제외한 다섯 가지 종속변인의 설명에 있어서 비교적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TV·비디오·DVD와 같은 영상매체와 컴퓨터·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다섯 가지 종속변인에 부정적 영향을, 오락적 책읽기는 이 중 네 가지 종속변인(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제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설명하는 경우, 정반대의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TV·비디오·DVD와 같은 영상매체와 컴퓨터·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정적 영향을, 오락적

책읽기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민주시민사회에서의 시민역량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별 상이성은 있었지만, TV·비디오·DVD와 컴퓨터·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전반적으로 부적 영향을, 오락적 책읽기는 전반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한 변인 및 국가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만을 고려한다면, 국가별 상이성의 정도는 매우 작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써 연구문제 1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신뢰와 사회정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매체별로 민주시민역량 변인(신뢰와 사회정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이를 연구문제 2로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각각과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 간의 상관성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실시한 ICCS(2009) 조사대상국인 38개국의 대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각 종속변인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1)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뉴스정보추구)은 매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전체에서 청소년의 제도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다.

뉴스정보를 얻기 위한 신문읽기는 38개국 중에서 21개 국가(A, C 유형)에서 청소년의 제도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추구동기의 제도신뢰 감소효과는 없었다.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25개 국가(A, B 유형)에서 청소년의 제도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어느 나라에서도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의 제도신뢰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다수 국가에서 TV, 신문, 인터넷의 정보추구동기의 이용은 인식영역의 민주시민역량인 제도신뢰 증진과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8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TV	+(sig)	+(sig)	+(sig)	+(sig)
신문	+(sig)		+(sig)	
인터넷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그리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태국

B유형: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말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C유형: 대만, 핀란드,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폴란드, 스웨덴

D유형: 덴마크, 홍콩, **한국**,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2)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뉴스정보추구)은 대체로 매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9개 국가(A, B, C, E 유형)에서 청소년의 대인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다.

뉴스정보를 얻기 위한 신문읽기는 38개국 중에서 10개 국가(B, D, F 유형)에서 청소년의 대인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이프러스에서만 정반대의 효과가 관측되었다.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12개 국가(A, C, D, G 유형)에서 청소년의 대인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의 제도신뢰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TV, 신문, 인터넷의 정보추구동기의 이용은 인식영역의 민주시민역량인 대인신뢰 증진과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9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종류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TV		+(sig)	+(sig)	+(sig)		+(sig)		
신문		-(sig)	+(sig)		+(sig)		+(sig)		
인터넷		+(sig)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사이프러스

B유형: 폴란드

C유형: **한국**

D유형: 오스트리아, 칠레, 콜롬비아

E유형: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리투아니아, 스웨덴, 영국

F유형: 불가리아,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G유형: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태국

H유형: 대만, 도미니카, 과테말라, 홍콩,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슬로베니아, 벨기에

(3)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뉴스정보추구)은 매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36개 국가(A, B, C, E 유형)에서 청소년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일부 예외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체코, 리히텐슈타인)가 있었다.

뉴스정보를 얻기 위한 신문읽기는 38개국 중에서 28개 국가(A, B, D, F 유형)에서 청소년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신문의 정보적 이용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28개 국가(A, C, D 유형)에서 청소년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다수 국가에서 TV, 신문, 인터넷의 정보추구동기의 이용은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증진과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10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TV		+(sig)	+(sig)	+(sig)		+(sig)
신문		+(sig)	+(sig)		+(sig)		+(sig)
인터넷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대만,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홍콩,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벨기에

B유형: 사이프러스, 핀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C유형: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도미니카, 한국,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영국

D유형: 체코

E유형: 그리스, 파라과이

F유형: 리히텐슈타인

(4)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뉴스정보추구)은 대체로 매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17개국(A, B, C 유형)에서 청소년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여기에는 일부 예외로서 정반대의 효과를 보인 경우(홍콩)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D, F, G, H 유형)가 있었다.

뉴스정보를 얻기 위한 신문읽기는 38개국 중에서 21개국(A, B, D, F 유형)에서 청소년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반면 나머지 17개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신문의 정보적 이용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34개국(A, C, D, E, G 유형)에서 청소년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TV, 신문, 인터넷의 정보추구동기의 이용은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증진과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11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TV	+(sig)	+(sig)	+(sig)		-(sig)			
신문	+(sig)	+(sig)		+(sig)		+(sig)		
인터넷	+(sig)		+(sig)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B유형: 도미니카

C유형: 오스트리아, 과테말라,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 벨기에

D유형: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E유형: 홍콩

F유형: 대만, 말타

G유형: 불가리아,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태국

H유형: 리히텐슈타인

(5)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뉴스정보추구)은 대체로 매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27개국(A, C, E 유형)에서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여기에는 일부 예외로서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낸 경우(태국)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D, F 유형)가 있었다.

뉴스정보를 얻기 위한 신문읽기는 38개국 중에서 29개국(A, D 유형)에서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반면 나머지 9개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신문의 정보적 이용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37개국(A, B, C, D, F 유형)에서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다수 국가에서 TV, 신문, 인터넷의 정보추구동기의 이용은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증진과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12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TV	+(sig)	-(sig)	+(sig)		+(sig)		
신문	+(sig)			+(sig)			
인터넷	+(sig)	+(sig)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불가리아, 칠레, 대만,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과테말라, 아일랜드, **한국**, 라트비아, 말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B유형: 태국

C유형: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D유형: 체코,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홍콩,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E유형: 핀란드

F유형: 리히텐슈타인

(6)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뉴스정보추구)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25개 국가(A, C, E, G, H 유형)에서 청소년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일부 예외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B, F, I, J 유형)가 있었다(한국 포함).

뉴스정보를 얻기 위한 신문읽기는 38개국 중에서 단지 5개 국가(A, B, D, F 유형)에서 청소년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일부 예외로서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낸 경우(과테말라)와 한국 등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E, G, H, I, J 유형)가 있었다.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38개국 중에서 11개 국가(A, B, G, I 유형)에서 청소년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홍콩, 핀란드에서는 정반대의 효과, 곧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TV, 신문, 인터넷의 정보추구동기의 이용은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과 상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TV와 신문의 정보적 이용은 부적 상관을,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13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I유형	J유형
TV	-(sig)		-(sig)	-(sig)	-(sig)		-(sig)	-(sig)		
신문	-(sig)	-(sig)	+(sig)	-(sig)		-(sig)				
인터넷	+(sig)	+(sig)			-(sig)	-(sig)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노르웨이, 태국

B유형: 과테말라

C유형: 덴마크

D유형: 러시아

E유형: 체코, 홍콩

F유형: 핀란드

G유형: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H유형: 칠레, 대만,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I유형: 파라과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J유형: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도미니카,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7) 해석

이론적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2가 제시된 바가 있었다.

- 연구문제 2: ICCS(2009) 조사대상국 38개 국가별로 청소년의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미디어의 종류별로 민주시민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8개국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각각과 뉴스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 및 정리한 결과,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제외한 다섯 가지 종속변인의 설명에 있어서 비교적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TV와 같은 영상매체, 신문,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다섯 가지 종속변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설명하는 경우, TV와 신문의 정보적 이용은 정반대의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의 이용은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보적 인터넷 이용은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설명하는 경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민주시민사회에서의 시민역량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상이성은 있었지만, TV, 신문,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변인의 경우(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설령 정보적 이용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의 이용은 민주시민역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한 변인 및 국가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만을 고려한다면, 국가별 상이성의 정도는 매우 작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써 연구문제 2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3)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신뢰와 사회정치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친구와의 채팅은 미디어이용이면서도 대인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앞서 분석한 단순한 미디어이용과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휴대폰·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친구와의 채팅이 민주시민역량 변인(신뢰와 사회정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이를 연구문제 3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각각과 휴대폰·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친구와의 채팅 간의 상관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실시한 ICCS(2009) 조사대상국인 38개국의 대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각 종속변인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1)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은 많은 나라들에서(A유형의 16개국), 제도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표 IV-14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휴대폰, 인터넷 채팅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칠레, 대만,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B유형: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체코,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그리스,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말타, 파라과이, 과테말라, 멕시코, 홍콩, **한국**, 네덜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태국

(2) 휴대폰 · 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친구와의 휴대폰 · 인터넷 채팅은 대인신뢰에 한편으로 긍정적 효과를(A유형의 9개국), 다른 한편으로(B유형의 2개국)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보다 많이 나타났다.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표 IV-15 휴대폰 · 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휴대폰, 인터넷 채팅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칠레, 대만, 사이프러스, 과테말라, 홍콩,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B유형: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C유형: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라트비아, 체코,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그리스, 뉴질랜드, 파라과이, **한국**, 네덜란드, 러시아, 불가리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웨덴, 태국, 벨기에

(3) 휴대폰 · 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친구와의 휴대폰 · 인터넷 채팅은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한편으로 긍정적 효과를(A유형의 2개국), 다른 한편으로(B유형의 15개국) 부정적 효과(한국 포함)를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부정적 효과가 지배적이었다.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표 IV-16 휴대폰 · 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휴대폰, 인터넷 채팅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이탈리아, 말타

B유형: 칠레, 대만, 콜롬비아, 덴마크, 아일랜드, **한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C유형: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도미니카, 핀란드, 홍콩,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파라과이,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태국

(4)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은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한편으로 긍정적 효과를(A유형의 19개국) 가지고 있었다(한국 포함).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콜롬비아).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지배적이었다.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표 IV-17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휴대폰, 인터넷 채팅	+(sig)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홍콩,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태국, 벨기에

B유형: 콜롬비아

C유형: 칠레, 대만, 도미니카, 리히텐슈타인, 파라과이, 러시아, 스페인,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 체코, 그리스, 불가리아, 과테말라,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5)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은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긍정적 효과를(A유형의 18개국) 가지고 있었다(한국 포함).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표 IV-18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휴대폰, 인터넷 채팅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스웨덴, 태국, 도미니카, 핀란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말타, 칠레, **한국**, 체코, 그리스

B유형: 오스트리아, 대만,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홍콩,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영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파라과이, 스위스, 인도네시아

(6)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A유형의 34개국)에서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은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5개 국가들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표 IV-19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종류 \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휴대폰, 인터넷 채팅	+(sig)	

Note: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A유형: 칠레, 대만, 콜롬비아, 덴마크, 아일랜드, **한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 사이프러스,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홍콩, 네덜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태국

B유형: 도미니카, 리히텐슈타인, 파라과이, 말타

(7) 해석

이론적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3이 제시된 바가 있었다.

- 연구문제 3: ICCS(2009) 조사대상국 38개 국가별로 청소년의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은 민주시민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8개국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각각과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 및 정리하였다. 그 결과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은 제도신뢰에는 부적 영향, 대인신뢰에는 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전통적 참여의향 중에서도 선거참여의향에는 부적 영향, 정파적 참여의향에는 정적 영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저항적 참여의향에는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든 공히 정적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38개 국가별 분석에서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은 제도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을 낮추고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강하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역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들 세 가지 주요 변인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영향을 고려할 때, 대인신뢰,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대한 정적 효과의 가치는 반감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별 상이성은 있겠지만,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은 민주시민사회에서의 시민역량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고 해석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한 국가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만을 고려한다면, 국가별 상이성의 정도는 매우 작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써 연구문제 3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4)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신뢰와 사회정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민주시민역량 변인(신뢰와 사회정치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한 연구가설 1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각각과 가족내부 사회자본 간의 상관성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실시한 ICCS(2009) 조사대상국인 38개국의 대상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각 종속변인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1)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제도신뢰 증진효과가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A, C, E, F, G, H, I, L, Q 유형(19개국)에서 청소년의 제도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이의 예외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B, D, J, K, M, N, O, P, R 유형)가 있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아버지의 가정생활의 제도신뢰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A, B, C, D, F, J, K, L, P 유형(29개국)에서 청소년의 제도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9개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어느 나라에서도 어머니의 가정생활의 제도신뢰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내 이슈 대화는 A, C, D, E, I, K, N 유형(11개국)에서 제도신뢰의 증진효과가 나타났다(한국 포함). 반면 상대국 소수인 3개국 B, G, M 유형에서는 되레 제도신뢰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그 나머지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제 이슈 대화는 A, B, D, E, F, G, H 유형(28개국)에서 제도신뢰의 증진효과가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 10개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반면 어떤 나라에서도 제도신뢰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다수 국가에서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제도신뢰 증진과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20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I유형
아버지 가정생활	+(sig)		+(sig)		+(sig)	+(sig)	+(sig)	+(sig)	+(sig)
어머니 가정생활	+(sig)	+(sig)	+(sig)	+(sig)		+(sig)			
국내이슈 대화	+(sig)	-(sig)	+(sig)	+(sig)	+(sig)		-(sig)		+(sig)
국제이슈 대화	+(sig)	+(sig)		+(sig)	+(sig)	+(sig)	+(sig)	+(sig)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가유형								
	J유형	K유형	L유형	M유형	N유형	O유형	P유형	Q유형	R유형
아버지 가정생활			+(sig)					+(sig)	
어머니 가정생활	+(sig)	+(sig)	+(sig)				+(sig)		
국내이슈 대화		+(sig)		-(sig)	+(sig)				
국제이슈 대화	+(sig)			+(sig)	+(sig)	+(sig)			

Note: 1.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2. 말타와 스페인은 부모의 국내, 국제 이슈 대화 변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제공하였음.

A유형: 폴란드

B유형: 그리스

C유형: 스웨덴

D유형: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E유형: 체코, **한국**, 파라과이

F유형: 아일랜드

G유형: 이탈리아

H유형: 불가리아, 칠레, 대만, 핀란드, 인도네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I유형: 스위스

J유형: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K유형: 오스트리아

L유형: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M유형: 라트비아

N유형: 과테말라, 말타

O유형: 홍콩, 스페인, 태국, 영국, 벨기에, 사이프러스
 P유형: 도미니카, 리히텐슈타인
 Q유형: 러시아
 R유형: 룩셈부르크

(2)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대인신뢰 증진효과가 일부 나라들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자 간에 아무런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욱 많았고, 심지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양자 간에 부적 상관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D, E, K, F 유형의 9개국에서 청소년의 대인신뢰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한국 포함한 29개국으로서 훨씬 많았다. 어느 나라에서도 아버지의 가정생활의 대인신뢰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B, C, G 유형의 5개국에서 청소년의 대인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반면 32개국에서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어머니의 가정생활의 대인신뢰 감소효과가 발견되었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내 이슈 대화는 핀란드, 벨기에, 슬로베니아의 3개국에서 대인신뢰의 감소효과가, 덴마크에서 대인신뢰의 증진효과가 나타났다. 그 나머지 34개 국가에서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제 이슈 대화는 B, D, J, H 유형(11개국)에서 대인신뢰의 증진효과가 나타났다. 그 나머지 27개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한국 포함). 반면 어떤 나라에서도 대인신뢰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대인신뢰 증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관되고 있지 않았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서만 정적이거나 부적 상관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부적 상관은 극히 드문 경우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표 IV-21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대인신뢰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K유형
아버지 가정생활				+(sig)	+(sig)	+(sig)
어머니 가정생활	-(sig)	+(sig)	+(sig)			
국내이슈 대화			-(sig)		+(sig)	-(sig)
국제이슈 대화		+(sig)		+(sig)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가유형				
	J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I유형
아버지 가정생활		+(sig)			
어머니 가정생활			+(sig)		
국내이슈 대화	-(sig)				
국제이슈 대화	+(sig)			+(sig)	

Note: 1.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2. 말타와 스페인은 부모의 국내, 국제 이슈 대화 변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제공하였음.

A유형: 노르웨이

B유형: 뉴질랜드

C유형: 핀란드

D유형: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E유형: 덴마크

K유형: 벨기에

J유형: 슬로베니아

F유형: 칠레, 체코, 아일랜드, 라트비아

G유형: 오스트리아, **한국**, 폴란드

H유형: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

I유형: 대만, 도미니카, 그리스, 홍콩,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타, 파라과이,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태국, 영국, 사이프러스

(3)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증진효과가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A, D, H 유형(11개국)에서 청소년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C, E, F, G, I, J 유형)가 있었다(한국 포함). 오직 도미니카에서만 아버지의 가정생활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감소효과가 발견되었다.

어머니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A, C, F 유형(11개국)에서 청소년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포함). 반면 나머지 27개국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어머니의 가정생활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내 이슈 대화는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37개국에서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의 증진을 가져왔다(한국 포함).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제 이슈 대화는 A, B, C, D, E, G 유형의 25개국에서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의 증진효과가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많은 국가에서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증진과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22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I유형	J유형
아버지 가정생활	+(sig)	-(sig)		+(sig)				+(sig)		
어머니 가정생활	+(sig)		+(sig)			+(sig)				+(sig)
국내이슈 대화	+(sig)									
국제이슈 대화	+(sig)	+(sig)	+(sig)	+(sig)	+(sig)		+(sig)			

Note: 1.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2. 말타와 스페인은 부모의 국내, 국제 이슈 대화 변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제공하였음.

A유형: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B유형: 도미니카

C유형: 불가리아, 덴마크, **한국**, 스웨덴

D유형: 칠레, 체코, 홍콩,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E유형: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F유형: 오스트리아, 대만, 그리스

G유형: 러시아, 슬로베니아, 태국, 벨기에

H유형: 이탈리아

I유형: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말타, 파라과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J유형: 리히텐슈타인

(4)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특히 국내 및 국제이슈를 두고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대화는 각국 청소년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A, D, F 유형(6개국)에서 청소년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E, G 유형(3개국)에서 증가시키는 효과(한국 포함)를 가져왔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2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B, H 유형(3개국)에서 청소년의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을 낮추는 효과를, A, C 유형(2개국)에서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33개국으로 가장 많았다(한국 포함).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내 이슈 대화는 한국 등 4개국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의 증진을 가져왔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제 이슈 대화는 A, B, C, D, G, I, K 유형의 24개국에서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의 증진효과가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가족내부 사회자본, 특히 국내 및 국제이슈를 두고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대화는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증진과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23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국가유형 \ 가족내부 사회자본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아버지 가정생활	-(sig)			-(sig)	+(sig)	-(sig)	+(sig)
어머니 가정생활	+(sig)	-(sig)	+(sig)				
국내이슈 대화	+(sig)	+(sig)	+(sig)	+(sig)	+(sig)	+(sig)	
국제이슈 대화	+(sig)	+(sig)	+(sig)	+(sig)			+(sig)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가유형					
	H유형	I유형	J유형	K유형	L유형	M유형
아버지 가정생활					-(sig)	
어머니 가정생활	-(sig)					
국내이슈 대화	+(sig)	+(sig)	+(sig)			
국제이슈 대화		+(sig)		+(sig)		

Note: 1.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2. 말타와 스페인은 부모의 국내, 국제 이슈 대화 변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제공하였음.

A유형: 아일랜드

B유형: 룩셈부르크, 러시아

C유형: 태국

D유형: 노르웨이, 스웨덴

E유형: 멕시코, 스위스

F유형: 덴마크, 이탈리아

G유형: **한국**

H유형: 네덜란드

I유형: 칠레, 대만, 콜롬비아, 체코, 핀란드, 그리스, 과테말라, 홍콩,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벨기에

J유형: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말타, 파라과이

K유형: 라트비아

L유형: 도미니카

M유형: 리히텐슈타인

(5)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특히 국내 및 국제이슈를 두고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대화는 각국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A, B 유형(4개국)에서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E 유형(한국)에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33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A, C 유형(3개국)에서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35개국으로 가장 많았다(한국 포함).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내 이슈 대화는 한국 등 5개국을 제외한 33개국에서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의 증진을 가져왔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제 이슈 대화는 A, B, C, D, E, F, G 유형의 34개국에서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의 증진효과가 나타났다(한국 포함). 그 나머지 4개국에서만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가족내부 사회자본, 특히 국내 및 국제이슈를 두고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대화는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증진과 상관되어 있었다.

표 IV-24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H유형	I유형	
아버지 가정생활	-(sig)	-(sig)			+(sig)					
어머니 가정생활	+(sig)		+(sig)							
국내이슈 대화	+(sig)	+(sig)	+(sig)				+(sig)	+(sig)		
국제이슈 대화	+(sig)									

Note: 1.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2. 말타와 스페인은 부모의 국내, 국제 이슈 대화 변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제공하였음.

A유형: 오스트리아,

B유형: 덴마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C유형: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D유형: 네덜란드

E유형: **한국**

F유형: 에스토니아, 벨기에

G유형: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도미니카, 핀란드, 그리스, 과테말라, 홍콩,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파라과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영국, 체코

H유형: 대만, 라트비아, 말타

I유형: 리히텐슈타인

(6)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각국 청소년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C, D, F, H 유형(7개국)에서 청소년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A 유형(라트비아)에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30개국으로 가장 많았다(한국 포함). 어머니의 가정생활은 38개국 중에서 A, B, C, I 유형(9개국)에서 청소년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2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한국 포함).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내 이슈 대화는 A, F, K 유형의 4개국(증진효과)과 에스토니아(감소효과)를 제외한 33개국에서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한국 포함).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국제 이슈 대화는 B, E, G 유형의 3개국(증진효과)과 D, J 유형의 5개국(감소효과)을 제외한 30개국에서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과 상관되고 있지 않았다.

표 IV-25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가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	F유형
아버지 가정생활	+(sig)		-(sig)	-(sig)		-(sig)
어머니 가정생활	-(sig)	-(sig)	-(sig)			
국내이슈 대화	+(sig)				-(sig)	+(sig)
국제이슈 대화		+(sig)		-(sig)	+(sig)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가유형					
	G유형	H유형	I유형	J유형	K유형	L유형
아버지 가정생활		-(sig)				
어머니 가정생활			-(sig)			
국내이슈 대화					+(sig)	
국제이슈 대화	+(sig)			-(sig)		

Note: 1. 위의 표에서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2. 말타와 스페인은 부모의 국내, 국제 이슈 대화 변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제공하였음.

A유형: 라트비아

B유형: 인도네시아

C유형: 스웨덴, 영국

D유형: 이탈리아

E유형: 에스토니아

F유형: 뉴질랜드

G유형: 홍콩

H유형: 칠레, 핀란드, 네덜란드

I유형: 덴마크, 그리스,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위스

J유형: 대만, 콜롬비아, 사이프러스, 폴란드

K유형: 파라과이, 태국

L유형: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도미니카, 과테말라, 아일랜드, **한국**,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벨기에

(7) 해석

이론적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1이 제시된 바가 있었다.

- 연구가설 1: ICCS(2009) 조사대상국 38개 국가별로 청소년이 속한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그 종류별로 민주시민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8개국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각각과 가족내부 사회자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 및 정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생활 변인(가족과 더불어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여부)보다는 국내·국제 이슈를 놓고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빈도가 각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을 설명하는 경우에 두드러졌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국내외(사회정치적) 이슈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자주할 때의 효과는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과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의 증진뿐만 아니라 제도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의 증진도 있었다. 다만, 부모와 자녀 간 대화가 대인신뢰,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의 나라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부모가 가족과 더불어 시간을 함께 보내는 편이라고 평가되는지 여부는 더욱 제한된 종속변인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제도신뢰와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의 증진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나머지 네 가지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의 나라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로써 연구가설 1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청소년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ICCS(2009) 조사자료 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국가인 38개국별로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및 가족내부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여섯 가지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변인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들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국가들의 분류상의 상이성은 나타났으나, 독립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경우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38개 국가 간 변이가 크지 않았다.

TV·비디오·DVD와 컴퓨터·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전반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오락적 책임기는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오락추구 동기의 이용 안에서도 독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매체별 이용효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TV, 신문,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전반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효과는 양면적이었다.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을 높여 민주시민역량에 부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정보추구 동기의 이용 중 인터넷은 특수한 매체였다.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은 한편으로 민주시민역량에 긍정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동일한 뉴스정보 추구 목적의 미디어이용 범주 안에서도 미디어별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매체이용 동기가 오락추구 혹은 정보추구에 따라 큰 틀에서의 민주시민역량에의 영향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한 동기/목적 하의 미디어이용이라 하더라도 미디어 종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을 감안해야 한다.³⁴⁾ 청소년들의 미디어이용과 민주시민역량 간 관계에 있어서 38개 국가들 간의 변이가 작은 편이었으며, 또한 한국의 특수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어느 나라이든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중에서 오락적 이용은 전반적으로 민주시민역량과 부적 상관을, 정보적 이용은 민주시민역량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고, 책임기는 오락물 중에서 예외적으로 민주시민역량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의 이용은 정보물인 경우에도 일부 민주시민역량과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많은 나라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이 전반적 추세에서 벗어나 특수하게 보여준 결과를 언급한다면, 예외적으로 오락적 인터넷이용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

34) videomalaise 가설이라 하는 것이 있다. 1970년대 정치학자 Michael Robinson이 TV의 정치 보도가 TV에 대한 시민의 의존 심화와 맞물려 냉소주의, 무관심, 불신 등을 유발했다고 보는 가설이다(Bennett, Rhine, Flickinger & Bennett, 1999). 좀 더 넓게 본다면, 미디어의 효과로 인하여 전반적 정치신뢰가 저하되었다는 것이다(이른 바 media malaise 가설). 본 연구결과도 단지 부분적으로만 이 가설을 지지해 준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디어이용은 다양해졌고 미디어의 사회정치적 효과라 할 수 있는 요인들도 단일하지 않다.

향 감소효과가 나타난 나라 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보적 인터넷이용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양면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하게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이 부정 영향을 미치는 제도신뢰와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이 민주시민역량의 요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친구와의 휴대폰·인터넷 채팅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저항적 참여의향이 불법적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역량을 저해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국가별 상이성의 정도는 매우 작은 수준에 불과했고,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채팅 시 사용하는 미디어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는 차이를 문항설계 상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38개국별 다중회귀분석과 그 결과의 분류에 따르면,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상당 부분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 기여한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국내외 이슈에 관하여 대화적 소통을 자주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민주시민역량이 증진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단지 부모가 가족과 더불어 시간을 함께 보내는 편이라고 평가되는지 여부는 제한된 범위의 민주시민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특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38개 국가별 청소년의 분석에서 대체로 예측한 방향성을 지지하여 주었고 국가 간 변이가 매우 작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토대와 모형이 국경과 문화권을 넘어서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의의 외에도 중요한 실천적·정책적 의의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정책과 가족지원정책에 있어서 지향해야 하는 권고와 가이드라인이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일관성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5 장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국가단위 분석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3. 결과 및 해석
4. 논의

제 5 장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국가단위 분석*

1. 문제제기

사회자본의 분석단위에 대한 논의들을 통하여 사회자본이 집합적 시민역량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파악되기도 한다는 점(Grootaert & Bastelater, 2001)을 설명한 바 있다.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혜택을 보상받는다든 시기와 다소 다르게, 사회적 관계를 실체화하여 사회자본을 집합적인 사회가 가진 특질·속성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Putnam, 1995, 2000; Putnam et al., 1993).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민주시민역량 개념과 측정에 접근하여 ICCS(2009) 자료를 활용, 국가단위의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

ICCS(2009) 조사대상국별로 청소년 개인응답을 합산·평균 계산하여 산출된 청소년의 제도신뢰 및 대인신뢰, 전통적 사회정치참여(선거참여, 정파적 정치참여) 의향 및 대안적·저항적 사회정치참여(합법적 참여, 불법적 참여) 의향을 거시적 사회자본으로 규정하겠다(예외적으로, 불법적 참여의향은 거시적 사회자본 혹은 민주시민역량에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거시적 수준에서 측정·산출된 이들 국가별 민주시민역량이 마찬가지로 ICCS(2009) 자료에서 측정·산출된 거시적 수준 변인인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과 각각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산출된 거시적 사회자본/민주시민역량은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청소년 개인에게 자원·혜택을 제공해 주는 사회구조의 어떤 속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각국의 주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물들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단위 거시적 사회자본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역량이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거시적 집합적 수준에서도 긍정적 사회경제적 효과·효능을 가진다는 선행문헌의 보고(Brehm & Rahn, 1997; Clague, 1993; Fedderke et al., 1999; Fukuyama, 1995; Knack & Keeper, 1997)를 염두에 둘 때 이 같은 국제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본장은 김준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장의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는 ICCS(2009) 자료와 기타 이차자료이다. ICCS(2009) 자료를 활용하여 각 개별국가에 속한 청소년의 응답으로부터 국제수준에서 국가별 거시적 사회자본과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및 가족내부 사회자본 등 주요 변인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구체적 측정 및 계산에 관하여는 측정변인의 설명 시 후술하겠다.

국가별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상관성이 검증될 각국의 사회경제적 지표는 기존 이차자료를 활용하였다. ICCS(2009) 조사대상국인 38개국의 성인 문자해독 비율은 대체로 만 15세 이상 성인 중에서 문맹이 아닌 사람들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2009년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09)를 참조(<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하여 구득하였다(2007년의 통계자료 사용).

1인당 GDP도 2009년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09)를 참조(<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하여 구득하였다(2007년의 통계자료 사용).

각국의 인간개발지수³⁵⁾는 2007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09)를 참조(<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하여 구득하였다.

각국의 공교육비지출은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금액의 퍼센티지로 산출되었다. 곧 GDP의 일정 퍼센트로서의 공교육비지출은 저명한 CIA World Factbook의 웹사이트(<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에서 제공하고 있는 1999년에서 200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³⁶⁾

ICCS(2009) 조사대상국인 38개 국가의 투표율 자료는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국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이하 IDEA)의 웹사이트(<http://www.idea.int/vt/>)에서 구득하였다. 2004년~2009년 기간에 행해진 민주선거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산정하였다.

35)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각국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기대수명 등의 사회경제, 보건, 교육 지표를 조사해 이를 사용하여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36) ICCS(2009) 조사대상국 중에서 리히텐슈타인의 공교육비지출은 자료의 미비로 구득할 수 없었다.

2) 측정변인

국가별 거시적 사회자본,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가족내부 사회자본 변인은 ICCS(2009) 조사 자료의 개인수준의 응답을 국가별로 합산하고 평균값을 계산하여 산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진 각 변인의 측정에 관하여는 앞의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본 연구를 위해서 38개 국가별로 각 변인에 대하여 국가별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부록 3-1]과 [부록 3-2] 참조).

국가별로 산출된 거시적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제도신뢰 및 대인신뢰 그리고 전통적 참여(선거참여, 정당적 정치참여) 의향 및 대안적·저항적 참여(합법적 참여, 불법적 참여) 의향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성하는 10개 지표를 합산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개인의 제도신뢰라고 명명한 후 이 값을 국가별로 합산하고 평균을 구하여 국가단위의 제도신뢰 값을 산출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인신뢰와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각 매체별 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국가별 산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방법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 사용된 청소년 개인수준의 변인인 소장서적의 권수, 청소년의 기대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 합산하고 평균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ICCS(2009)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역시 [부록 3-1]에 제시하였다.³⁷⁾ 반면 각국의 성인문자해독 비율, 1인당 GDP, 인간개발지수, 공교육비 지출, 투표율의 경우 상이한 자료원에서 별도로 구득하였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ICCS(2009) 자료에서 산출되거나 이차자료로부터 구득된 38개국을 대표하는 변인 값의 기술통계를 제시한 것이 [부록 3-1]과 [부록 3-2]이다.

3) 통계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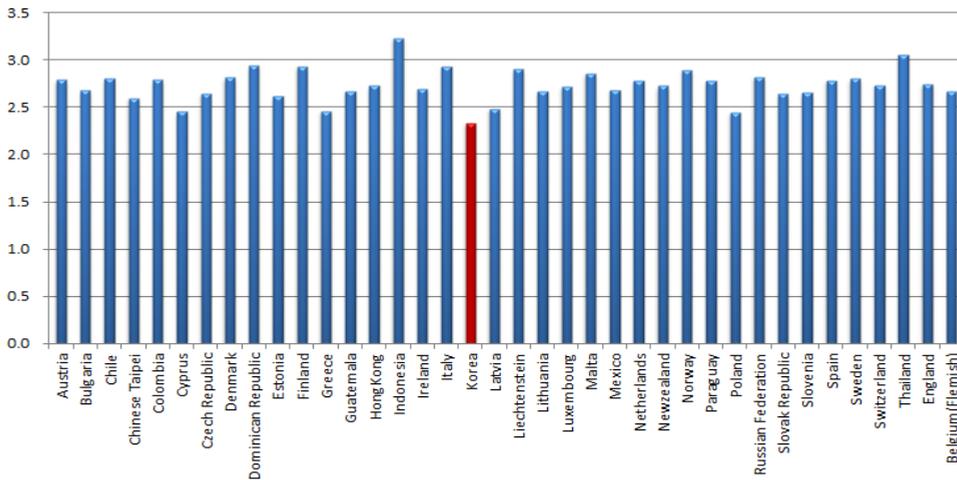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추론을 토대로 하여 각국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거시적 양적 자료에 대한 경험적·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별로 국가 간 비교를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산점도(및 상관분석)를 통하여 상술했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4, 5, 6, 7, 8)를 풀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인 가설검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값인 유의수준을 10%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통계패키지 IBM SPSS 20 version을 사용하였다.

37) 이 변인들을 본 장의 분석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소장서적 권수, 청소년의 기대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에서 한국은 평균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38개 국가 중에서 청소년의 기대교육수준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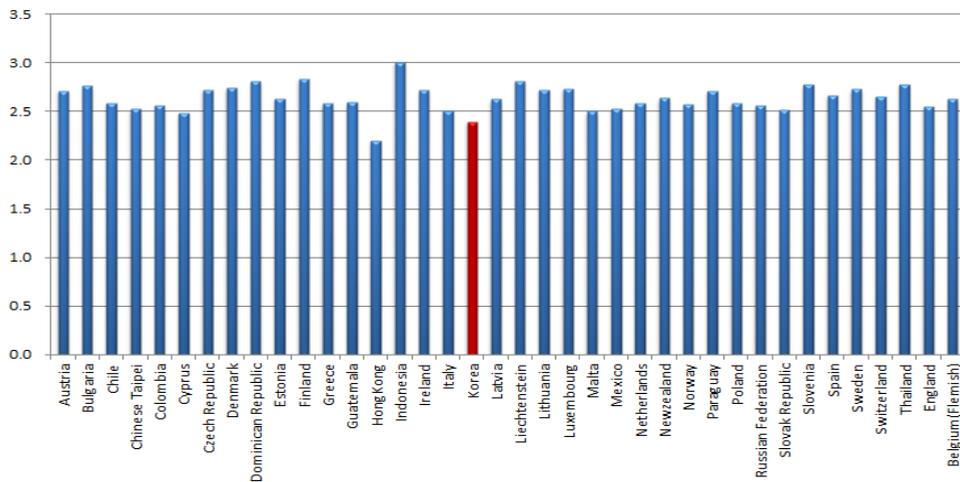
3. 결과 및 해석

1) 민주시민역량의 국가 간 비교와 산점도

(1) 제도신뢰와 대인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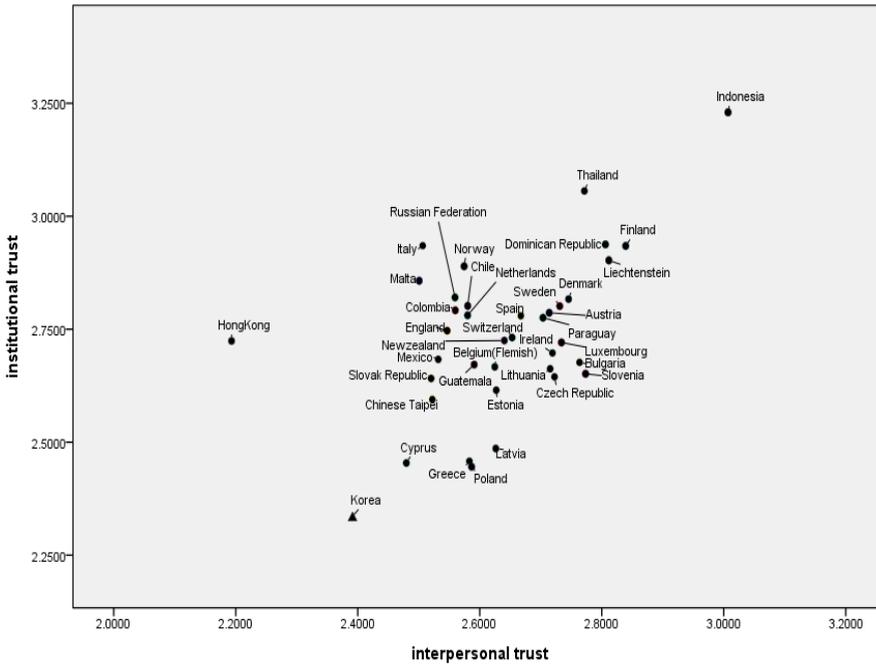
【그림 V-1】 제도신뢰



【그림 V-2】 대인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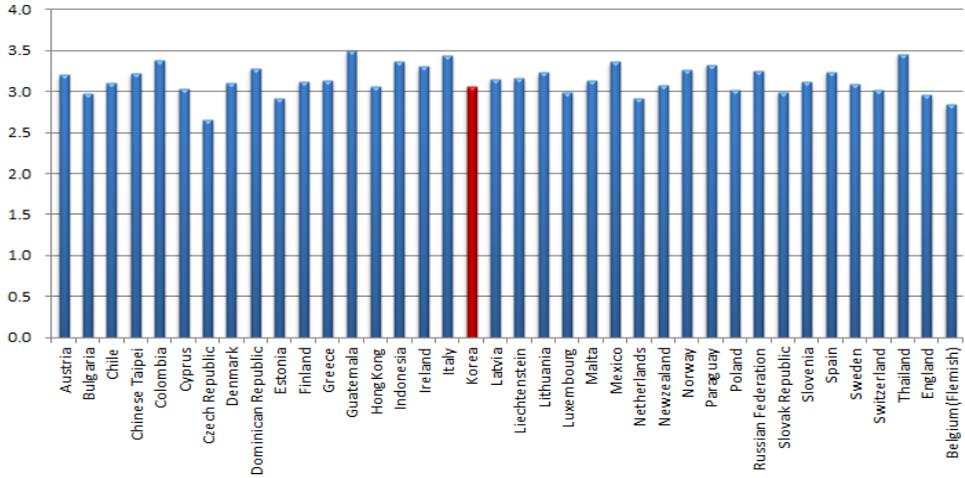
앞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의 제도 및 대인신뢰의 수준은 38개 국가 중에서 각각 38위와 37위를 차지하고 있다([부록 3-1] 참조). 전 세계 평균은 각각 2.74와 2.64이다.

국제 수준에서 청소년의 제도신뢰와 대인신뢰 간에는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38개국에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양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값은 .508이었다($p=.001$).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구성하는 인식차원의 요인인 제도신뢰와 대인신뢰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각국의 분포로부터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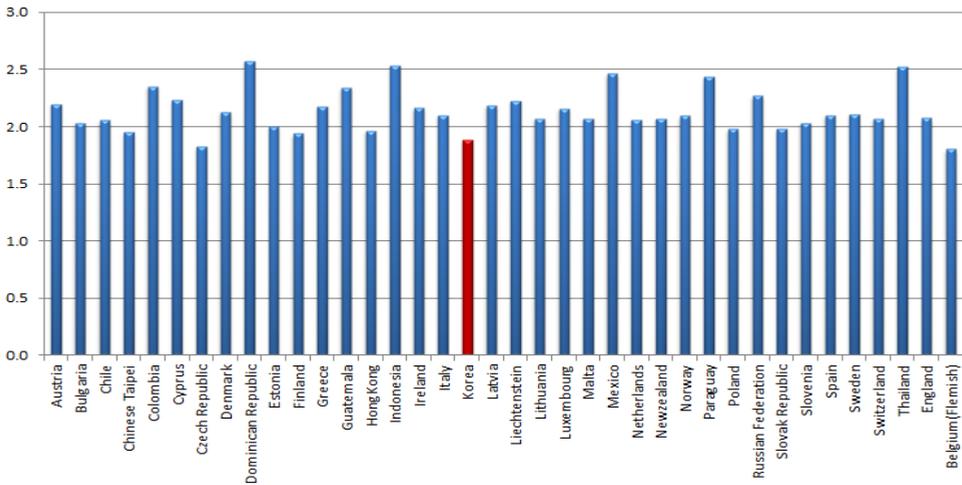


【그림 V-3】 38개국 청소년의 제도신뢰와 대인신뢰에 따른 산점도

(2) 전통적 참여의향(선거참여의향과 정파적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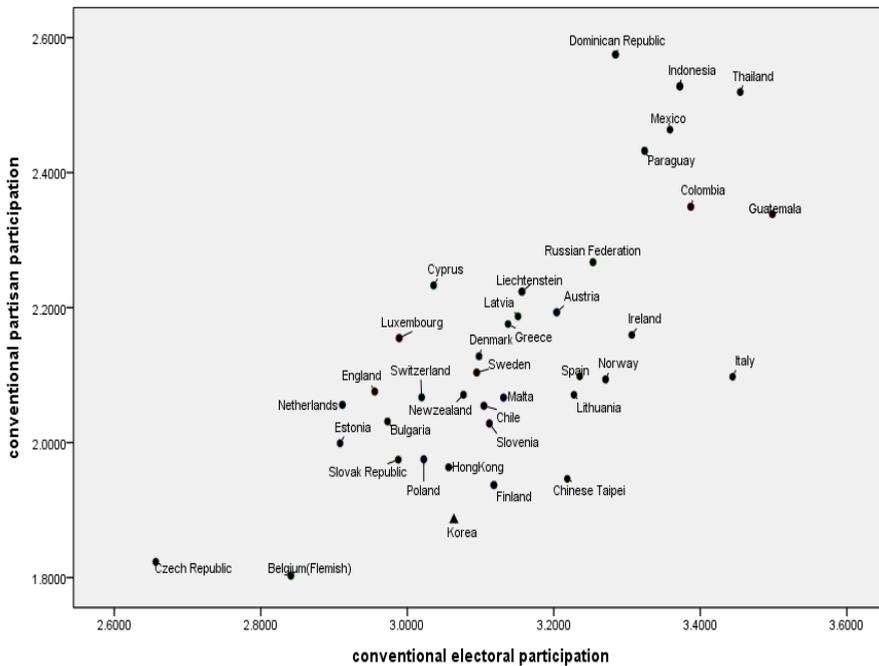
【그림 V-4】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그림 V-5】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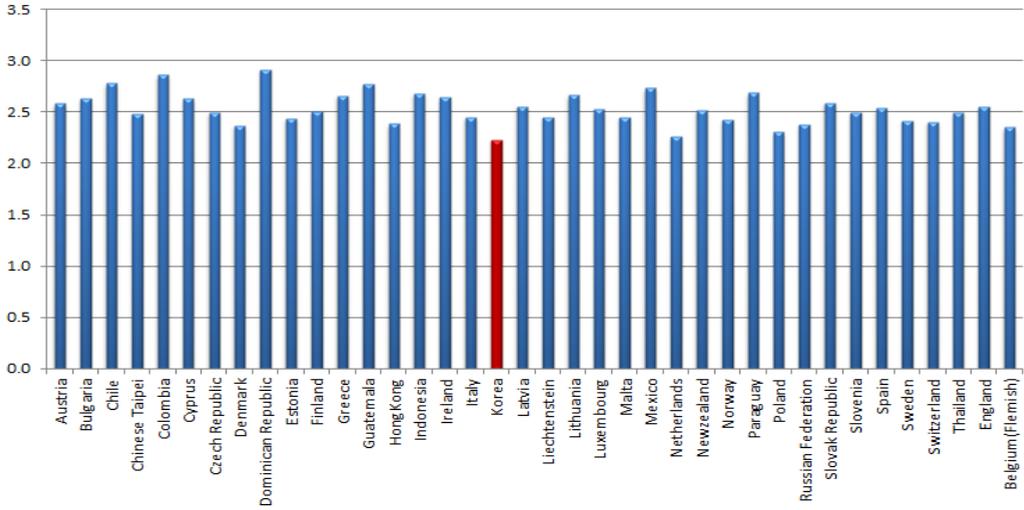
앞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및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은 평균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부록 3-1] 참조). 전 세계 청소년의 평균은 각각 3.16과 2.15였다.

국제 수준에서 청소년의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및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간에는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38개국에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양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값은 .729이었다($p < .001$). 모든 국가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보다는 전통적 선거참여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평균적 경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보다는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쪽으로 더욱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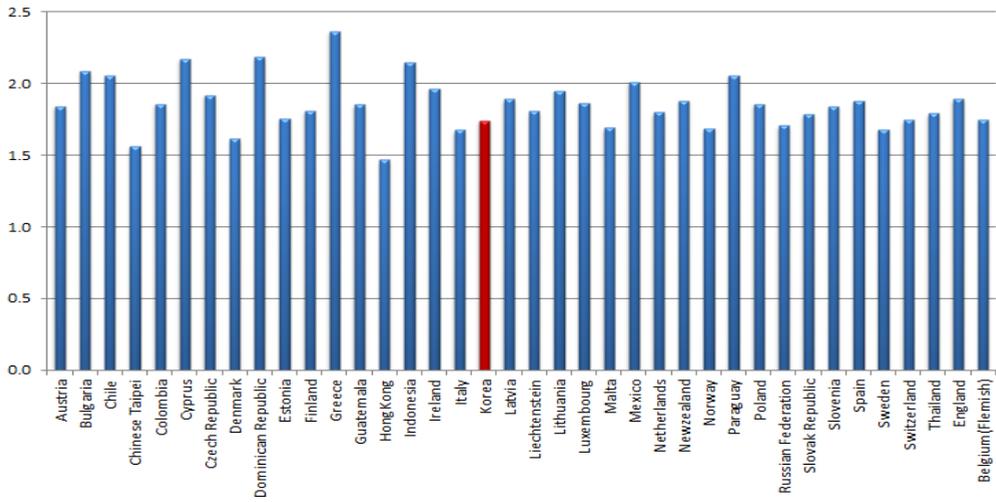


【그림 V-6】 38개국 청소년의 전통적 선거참여와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에 따른 산점도

(3) 대안적 · 저항적 참여의향(합법적 참여의향과 불법적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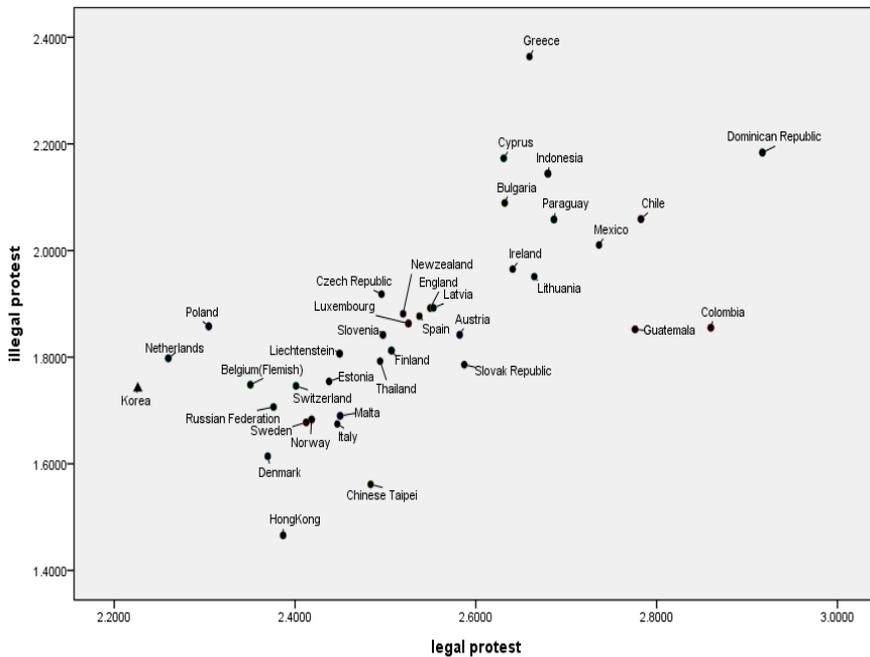
【그림 V-7】 저항적 · 합법적 참여의향



【그림 V-8】 저항적 · 불법적 참여의향

앞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및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은 평균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부록 3-1] 참조). 전 세계 청소년의 평균은 각각 2.55와 1.87이었다. 한국 청소년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은 1.74로서 상대적으로 국제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다.

국제 수준에서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및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간에는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38개국에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양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값은 .669이었다($p < .001$). 모든 국가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비하여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한국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경우 평균적 경향과 비교할 때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보다는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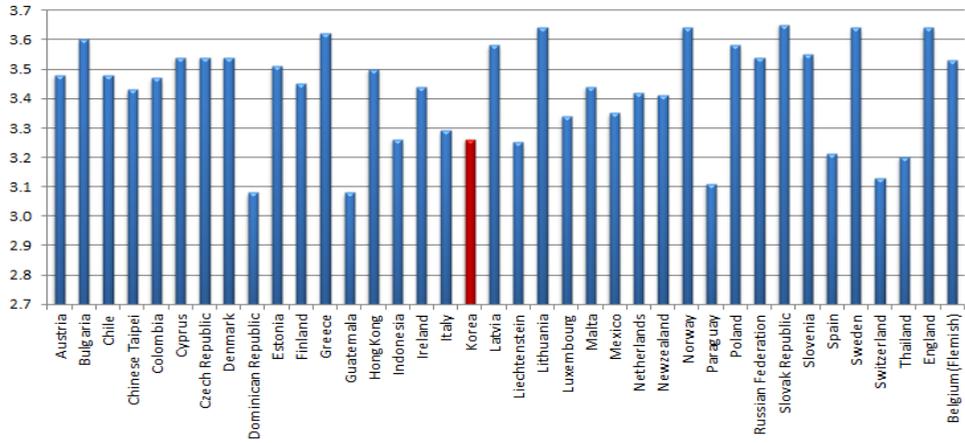
【그림 V-9】 38개국 청소년의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과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에 따른 산점도

(4)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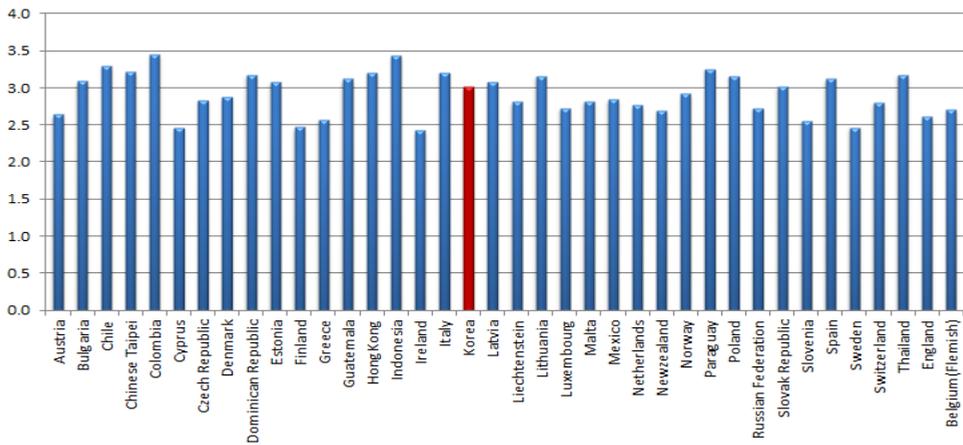
앞의 국제 비교적 시각에서 제시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서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취약성 양상을 보다 상세하게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첫째, 한국 청소년은 제도신뢰와 대인신뢰에 있어서 모두 취약하다. 이 두 가지 신뢰변인은 정의 상관을 가지는 경향이 관측되며, 한국 청소년의 신뢰자본을 증진하려면 양자의 유기적 연관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한국 청소년은 전통적 참여의향 중에서 투표와 같은 선거참여의향이 정당지지나 입후보와 같은 정파적 참여의향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러한 편향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졌다. 이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은 전통적 선거상황에서 최소한의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 의향에는 비교적 최소한의 관심이 있으나,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 참여의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 청소년은 합법적 저항보다는 불법적 저항에의 의향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다. 이것은 한국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전반적 취약성 양상 안에서 특기할만하고 우려할만한 세부 사항이다.

2) 미디어이용의 국가 간 비교와 산점도

(1) TV 등 영상미디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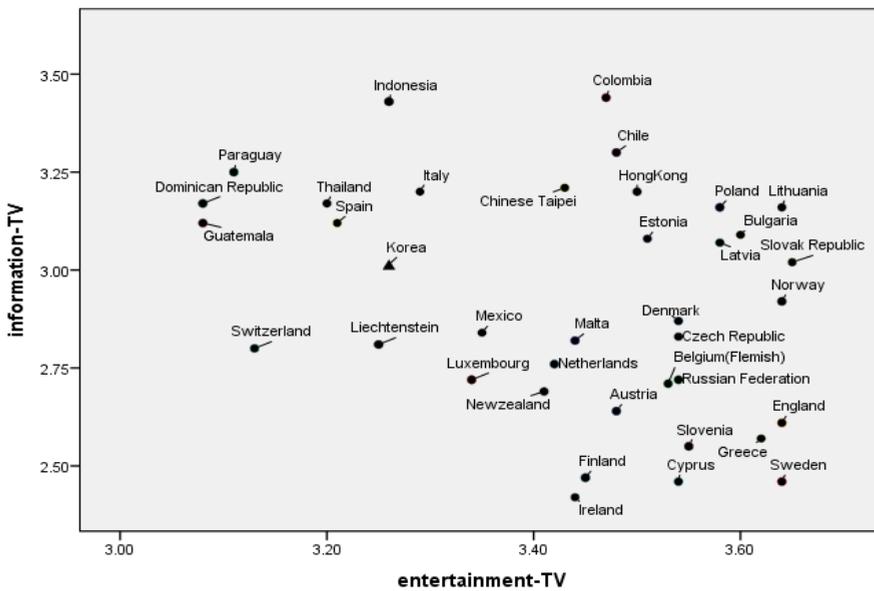
【그림 V-10】 오락추구동기-TV, 비디오, DVD



【그림 V-11】 정보추구동기-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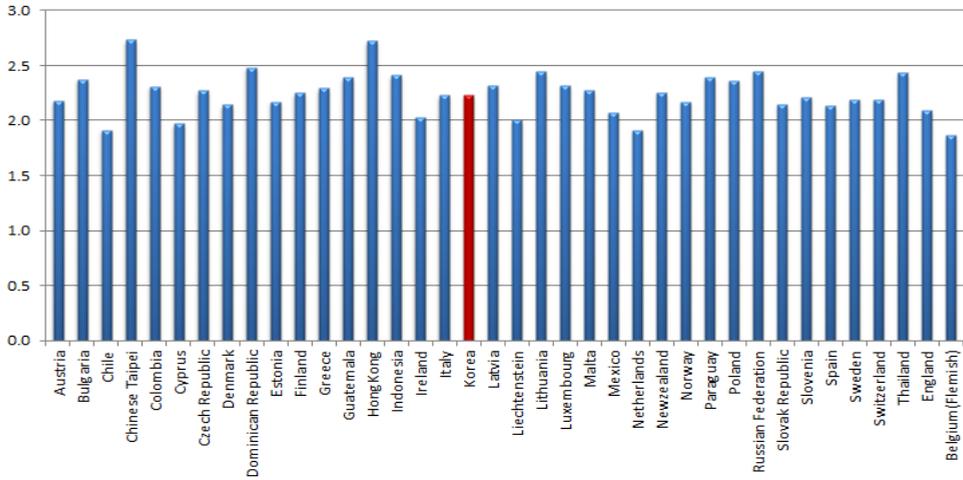
앞의 그래프는 한국 청소년의 오락적 목적의 TV 등 영상미디어 이용은 전 세계 평균보다 다소 낮은 반면, TV의 정보적 목적의 이용은 전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부록 3-1] 참조). 전 세계 청소년의 평균은 각각 3.43과 2.95이었다. 이와 같은 미디어 이용에서 한국청소년은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국제 수준에서 청소년의 오락적 목적의 TV 등 영상미디어 이용과 TV의 정보적 목적의 이용 간에는 부적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38개국에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양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값은 -0.330 이었다($p=0.043$). 국가단위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TV와 같은 영상미디어의 정보적 이용의 증가는 그것의 오락적 이용의 감소와 상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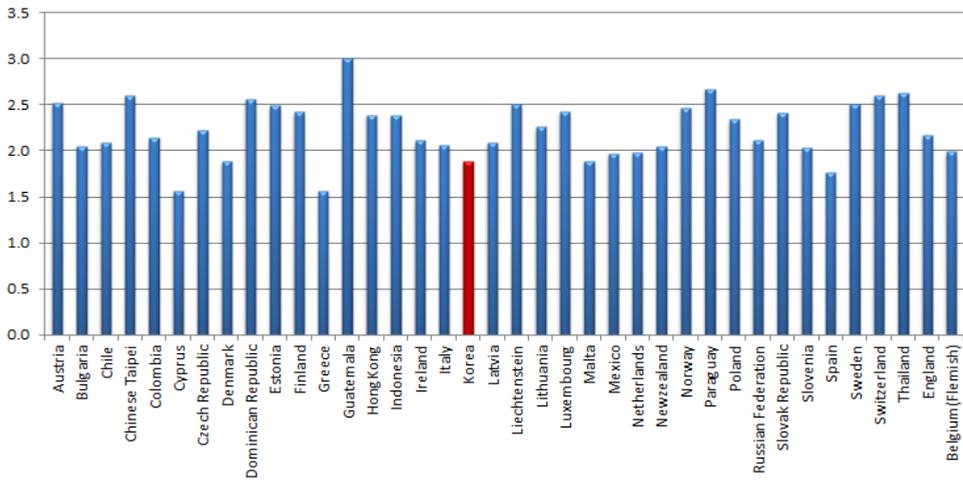


【그림 V-12】 38개국 청소년의 영상미디어의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에 따른 산점도

(2) 서적, 신문 등 인쇄미디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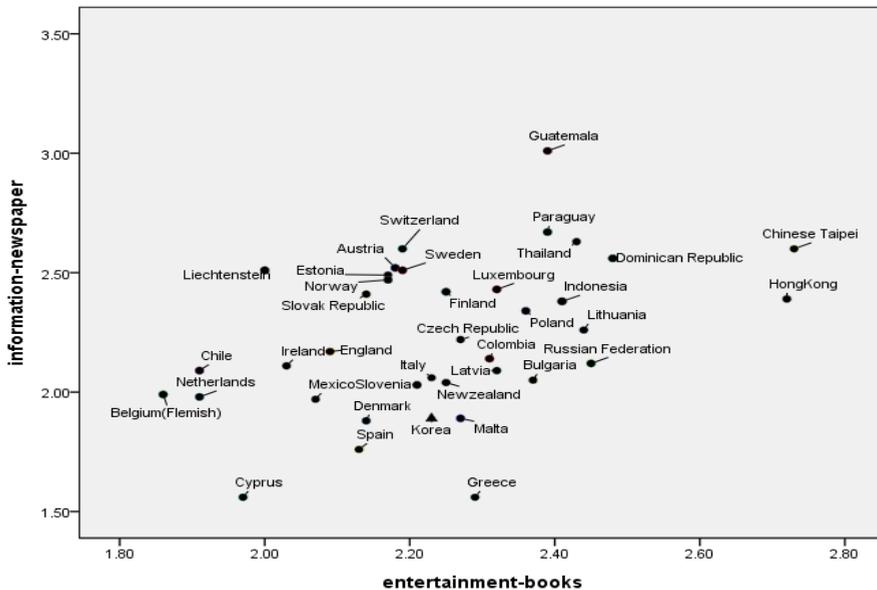
【그림 V-13】 오락추구동기-책읽기



【그림 V-14】 정보추구동기-신문

앞의 그래프는 한국 청소년의 오락적 목적의 독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다소 낮은 반면, 정보적 목적의 신문읽기는 전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부록 3-1] 참조). 전 세계 청소년의 평균은 각각 2.26과 2.24이었다. 이와 같은 인쇄미디어 이용 중에서 신문열독의 상대적 저조함은 한국청소년의 특이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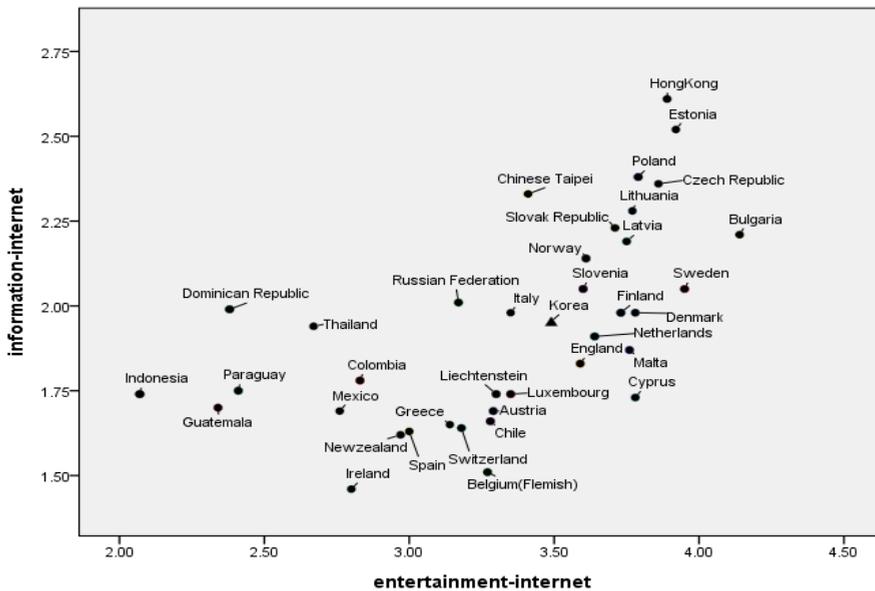
국제 수준에서 청소년의 오락적 목적의 인쇄미디어 이용(독서)과 정보적 목적의 인쇄미디어의 이용(신문열독) 간에는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38개국에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양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값은 .415이었다($p=.010$). 국가단위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인쇄미디어 이용 안에서는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 간에 정적 상관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영상미디어 이용 중에서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 간 부적 상관과 상이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림 V-15】 38개국 청소년의 인쇄미디어의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에 따른 산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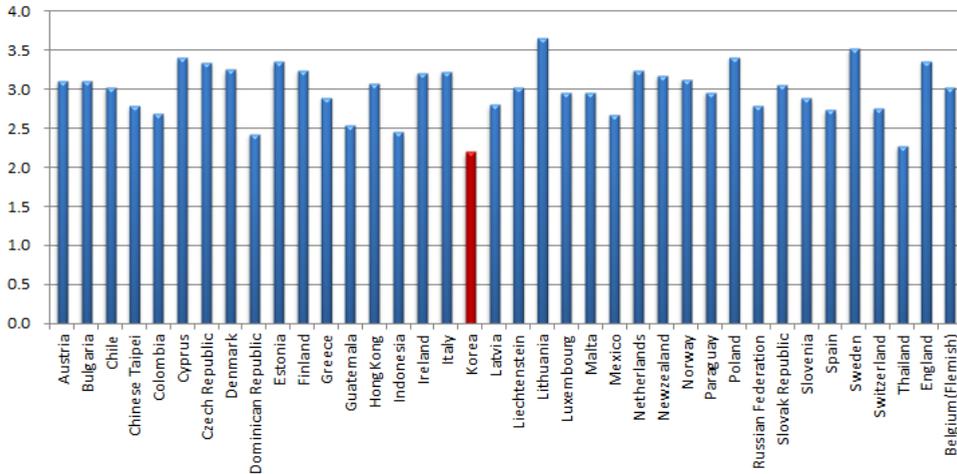
앞의 그래프는 한국 청소년의 오락적 목적의 컴퓨터·인터넷 이용은 전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고, 정보적 목적의 인터넷 이용도 전 세계 평균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부록 3-1] 참조). 전 세계 청소년의 평균은 각각 3.28과 1.93이었다. 수치만으로 본다면, 한국 청소년의 컴퓨터, 인터넷 이용은 오락적이든 정보적이든 특이하거나 두드러진 양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 수준에서 청소년의 오락적 목적의 인쇄미디어 이용(독서)과 정보적 목적의 인쇄미디어의 이용(신문열독) 간에는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38개국에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양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값은 .598이었다($p < .001$). 국가단위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컴퓨터·인터넷 이용 안에서는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 간에 정적 상관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쇄미디어 이용 안에서 발견되었던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 간에 정적 상관의 양상과 흡사하다.



【그림 V-18】 38개국 청소년의 인터넷 등의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에 따른 산점도

(4) 휴대폰, 인터넷을 매개로 한 친구와의 채팅



【그림 V-19】 휴대폰 · 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

위의 그래프는 한국 청소년의 휴대폰, 인터넷을 매개로 한 친구와의 채팅은 전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부록 3-1] 참조). 전 세계 청소년의 평균은 2.94이었다. ICCS(2009)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휴대폰, 인터넷을 매개로 한 친구와의 채팅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

(5)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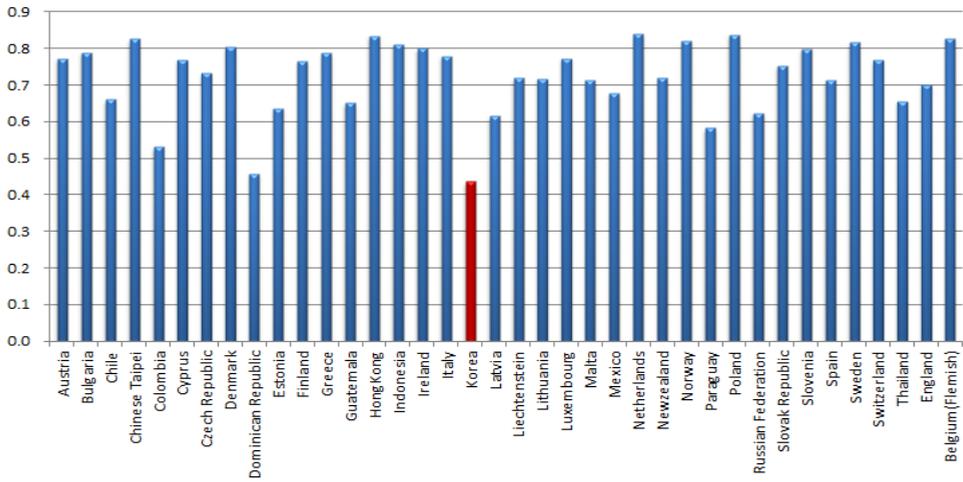
앞의 국제 비교적 시각에서 제시한 각국의 청소년의 특정 미디어의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 간의 상관은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나 가설의 범위에 들어오지는 않았었다.³⁸⁾ 별도로 진행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서 TV 등 영상미디어를 제외하고 인쇄미디어와 인터넷 등은 그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쇄미디어의 경우, 비록 오락추구 동기의 책임기와 정보추구 동기의 신문 간의 관계 분석이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³⁹⁾ 인터넷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38) 본 연구의 직접적 연구문제는 아니나, 미디어이용을 구성하는 6가지의 하위변인 간에 일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에 대한 보다 심층적 해석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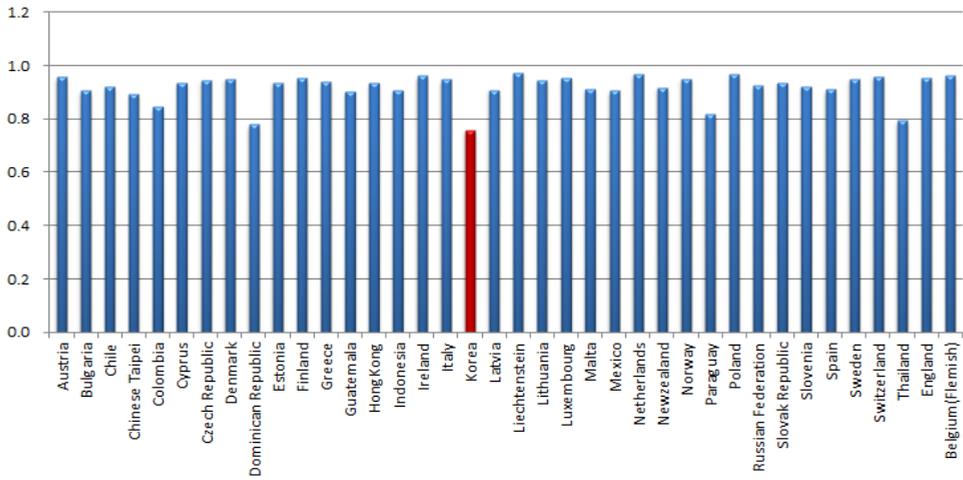
39) 한국 청소년이 특히 신문열독에 있어서 국제수준에 상당히 미달하는데, 이는 서적과 같은 인쇄미디어 활용의 저하와 연

3)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국가 간 비교와 산점도

(1) 부모의 가정생활(가족에의 시간할애)



【그림 V-20】 아버지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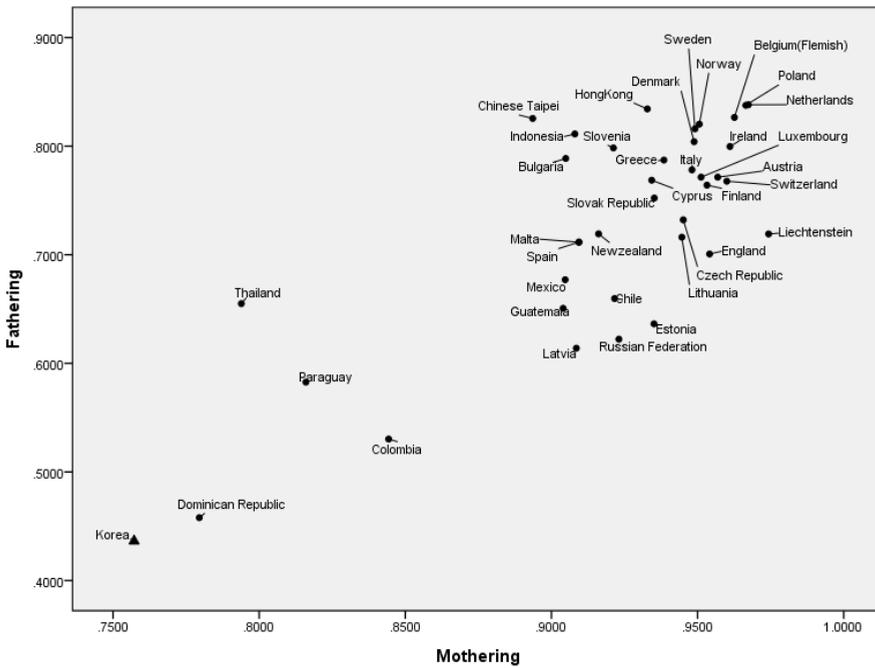


【그림 V-21】 어머니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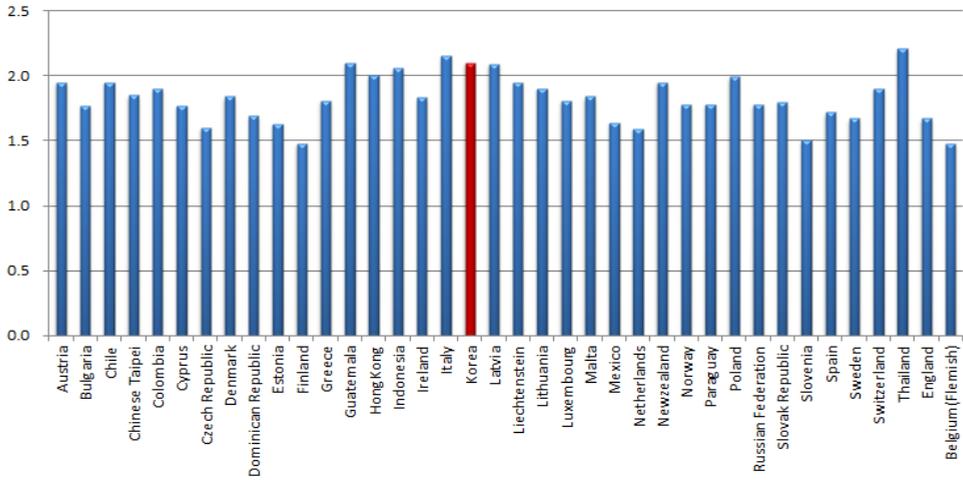
계되어 있을 수 있다.

앞의 그래프에서 한국의 경우 부모의 가정생활에의 시간할애에 관하여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어머니의 경우 75.7%, 아버지의 경우 43.6%로서 각 비율에 있어 38개의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공히 최저 수준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3-1] 참조). 전 세계 청소년의 평균은 각각 91.8%와 72.4%이었다. 이처럼 한국 사례는 매우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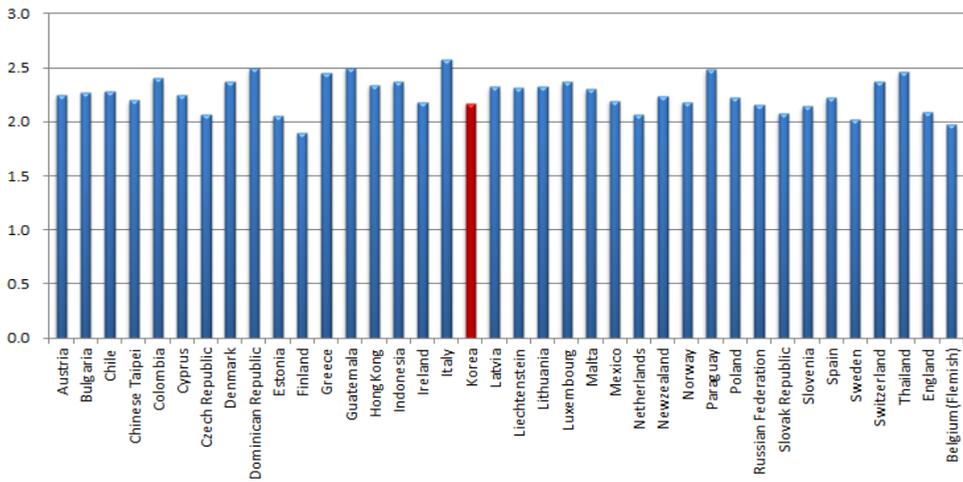
국제 수준에서 아버지의 가정생활과 어머니의 가정생활 간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38개국에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양 변인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값은 .784였다($p < .001$).



(2)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대화(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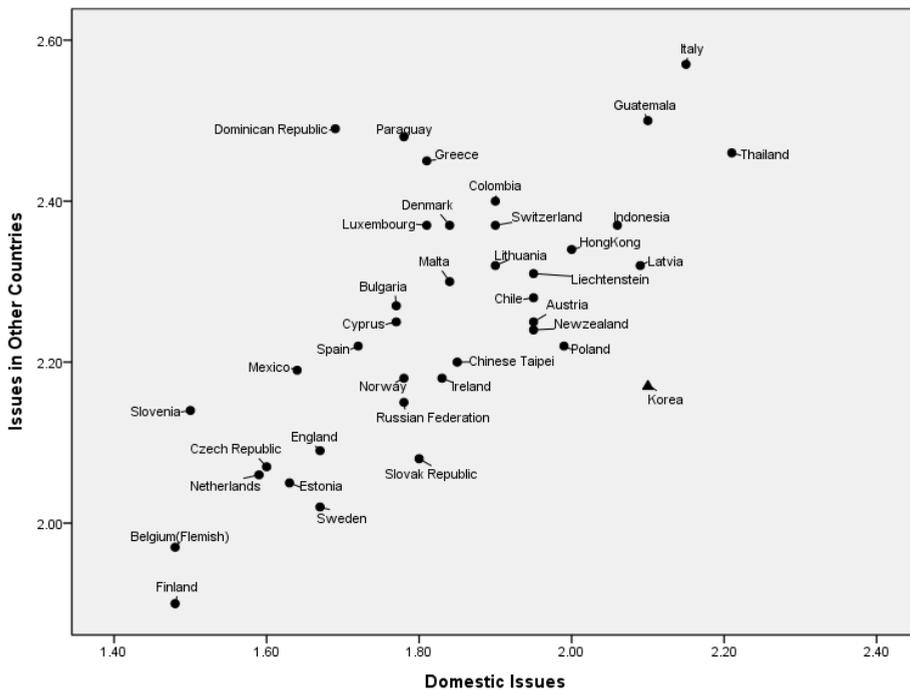
【그림 V-23】 국내이슈 대화



【그림 V-24】 국제이슈 대화

한국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와 동거하면서 돌봄의 기회를 가지는 데 있어서 비교적 제한된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그래프에서 국내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한 자녀와의 대화에서 비교국가들을 포함한 38개국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2.10을 나타내었고, 다른 나라의 이슈에 관한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비록 평균값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17을 나타내었다([부록 3-1] 참조). 전 세계 청소년의 평균은 각각 1.83과 2.25이었다.

각국에 고유한 점들의 분포를 가능하게 한 국내 이슈 대화와 국제 이슈 대화 간에는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부모와 청소년 간의 국내 이슈의 대화와 국제 이슈의 대화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 값은 .679였다($p < .001$).⁴⁰⁾



【그림 V-25】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국내 이슈와 국제 이슈의 대화에 따른 산점도

40) 한국은 국제이슈에 관한 대화가 국내이슈에 관한 대화보다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37개국을 분석하면 Pearson 적률상관계수는 .725였다($p < .001$).

(3) 해석

앞의 국제 비교적 시각에서 제시한 각국의 가족내부 사회자본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의 검증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 해결 혹은 연구가설의 검증과는 차별화되는 독립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별도로 진행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서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구성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에의 시간할애는 어머니의 가정생활에의 시간할애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한국은 이 두 지표에서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한국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국내 및 국제이슈를 둘러싼 대화적 소통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연구문제 4, 5, 6, 7, 8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시적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친구와의 채팅을 포함) 변인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연구문제 4, 5, 6), 둘째, 거시적 사회자본이 가족내부 사회자본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연구문제 7), 셋째, 국가별 거시적 사회자본이 사회경제적 지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연구문제 8)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행하고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1) 미디어이용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표 V-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단위 거시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미디어이용 변인들 중 일부가 국가수준의 거시적 사회자본(민주시민역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청소년의 오락추구의 미디어이용 수준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거시적 사회자본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락추구 독서 변인과의 상관은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음). 이처럼 국가단위 상관분석에서 청소년의 오락추구 미디어이용(독서 제외)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부적 상관이 지배적인 현상이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오락추구의 영상매체 이용(TV, 비디오, DVD)은 제도신뢰($r=-.345$; $p=.008$), 전통적 선거참여 의향($r=-.474$; $p=.003$),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r=-.515$; $p=.001$) 각각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오락추구의 컴퓨터·인터넷 이용은 제도신뢰($r=-.421$; $p=.008$), 대인신뢰

($r=-.307$; $p=.061$)뿐만 아니라 전통적 선거참여 의향($r=-.676$; $p<.001$),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r=-.751$; $p<.001$),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r=-.542$; $p<.001$),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r=-.382$; $p=.018$) 각각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오락추구의 미디어이용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부적 관계는 책임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오히려 오락추구의 독서는 대체적으로 거시적 사회자본 변인과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전통적 선거참여의향($r=.311$; $p=.058$)과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었다.

국가단위 상관분석에서 청소년의 뉴스정보추구 미디어이용(인터넷이용 제외)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정적 상관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현상이었으나, 그 중 일부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정보추구의 TV이용은 전통적 선거참여 의향($r=.365$; $p=.024$),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r=.280$; $p=.089$)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보추구의 신문읽기는 제도 신뢰($r=.343$; $p=.035$)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유의성 검토와는 별개로 정보추구의 미디어이용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대체로 거시적 사회자본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인터넷은 그 예외였다. 정보추구의 인터넷이용은 모든 거시적 사회자본 변인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유형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보추구의 인터넷 이용은 전통적 선거참여 의향($r=-.283$; $p=.085$),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r=-.353$; $p=.030$),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r=-.298$; $p=.069$),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r=-.395$; $p=.014$)과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휴대폰·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친구와의 채팅의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상관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오락적 미디어이용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친구와의 채팅은 전통적 선거참여 의향($r=-.480$; $p=.002$),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r=-.493$; $p=.002$) 각각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표 V-1 미디어이용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I	J	K	L	
제도신뢰(A)	1												
대인신뢰(B)	.508**	1											
전통적 선거참여(C)	.427**	.116	1										
전통적·정파적 참여(D)	.477**	.345*	.729***	1									
저항적·합법적 참여(E)	.178	.257	.458**	.608***	1								
저항적·불법적 참여(F)	-.080	.378*	.088	.444**	.669***	1							
오락-TV·비디오·DVD(G)	-.345*	-.200	-.474**	-.515**	-.214	-.090	1						
오락-서적(H)	.065	-.077	.311 †	.187	.113	-.159	-.148	1					
오락-컴퓨터·인터넷(I)	-.421**	-.307 †	-.676***	-.751***	-.542***	-.382*	.727***	-.124	1				
정보-TV(J)	.203	-.076	.365*	.265	.280 †	-.023	-.330*	.460**	-.300 †	1			
정보-신문(K)	.343*	.251	.258	.229	.120	-.269	-.382*	.415**	-.276 †	.296 †	1		
정보-인터넷(L)	-.191	-.243	-.283 †	-.353*	-.298 †	-.395*	.401*	.524**	.598***	.308 †	.224	1	
채팅-휴대폰·인터넷(M)	-.171	-.035	-.480**	-.493**	-.221	-.101	.646***	-.283 †	.654***	-.387*	-.145	.273 †	1

Note: † p<.10 *p<.05 **p<.01 ***p<.001

(2) 가족내부 사회자본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표 V-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단위에서 산출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가족내부 사회자본 변인들 중 일부가 국가수준의 거시적 사회자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가정생활 비율은 거시적 사회자본과 대체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신뢰 변인과의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음), 국내 및 국제 이슈에 관한 대화는 대체로 거시적 사회자본 전반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체로 부모의 가정생활 비율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거시적 사회자본 수준은 낮았고,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국내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해 대화하거나 해외 나라들 안에서 일어나는 국제 이슈에 관해 대화하는 빈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거시적 사회자본 수준은 높았다.

이 중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것은 아버지의 가정생활 비율의 전통적 선거참여 의향과의 상관관계($r=-.277$; $p=.093$),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과의 상관관계($r=-.392$; $p=.015$),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과의 상관관계($r=-.368$; $p=.023$)로서 각각 부적 상관관계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정생활 비율도 위와 같은 거시적 사회자본(사회정치적 참여의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전통적 선거참여 의향과의 상관관계($r=-.397$; $p=.014$),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과의 상관관계($r=-.453$; $p=.004$),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과의 상관관계($r=-.302$; $p=.065$)로서 아버지의 가정생활 비율의 경우보다 상관성이 대체로 크게 나타났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국내 이슈에 관한 대화는 전통적 선거참여 의향($r=.505$; $p=.001$),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r=.299$; $p=.068$)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국제 이슈에 관한 대화는 전통적 선거참여 의향($r=.608$; $p<.001$),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r=.609$; $p<.001$),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r=.429$; $p=.007$)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상관성 측면에서 국내이슈 대화보다는 국제이슈 대화의 상관계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 가족내부 사회자본과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I	J
제도신뢰(A)	1									
대인신뢰(B)	.508**	1								
전통적 선거참여(C)	.427**	.116	1							
전통적·정파적 참여(D)	.477**	.345*	.729***	1						
저항적·합법적 참여(E)	.178	.257	.458**	.608***	1					
저항적·불법적 참여(F)	-.080	.378*	.088	.444**	.669***	1				
부친 가정생활 비율(G)	.072	.069	-.277 †	-.392*	-.368*	-.211	1			
모친 가정생활 비율(H)	-.031	.033	-.397*	-.453**	-.302 †	-.177	.784***	1		
국내이슈 대화(I)	.073	-.167	.505**	.299 †	.049	-.085	-.202	-.289 †	1	
국제이슈 대화(J)	.206	.018	.608***	.609***	.429**	.250	-.268	-.380*	.679***	1

Note: † $p<.10$ * $p<.05$ ** $p<.01$ *** $p<.001$

(3) 사회경제적 지표와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표 V-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단위 거시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성인 문자해독 비율, 1인당 GDP, 인간개발지수, 공교육비지출은 각각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관계가 부적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자해독 비율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것은 전통적 선거참여 의향과의 상관관계($r=-.523$; $p=.001$),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과의 상관관계($r=-.502$; $p=.001$),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과의 상관관계($r=-.505$; $p=.001$)로서 각각 부적 상관관계였다. 1인당 GDP도 위와 같은 거시적 사회자본(사회정치적 참여의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과의 부적 상관관계($r=-.338$; $p=.038$),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과의 부적 상관관계($r=-.375$;

p=.020), 그리고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과의 부적 상관관계($r=-.315$; $p=.054$)가 발견되었다. 인간개발지수도 각 영역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전통적 선거참여의향과의 부적 상관관계($r=-.491$; $p=.002$)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과의 부적 상관관계($r=-.673$; $p<.001$),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과의 부적 상관관계($r=-.578$; $p<.001$), 그리고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과의 부적 상관관계($r=-.378$; $p=.019$)를 나타내었다. 공교육비 지출은 두 영역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과의 부적 상관관계($r=-.289$; $p=.083$),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과의 부적 상관관계($r=-.429$; $p=.008$)가 나타났다. 반면, 각국의 투표율은 사회정치적 참여의향과는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도신뢰($r=.354$; $p=.029$) 및 대인신뢰($r=.281$; $p=.088$)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사회경제지표 중에서도 교육, 경제, 복지 등을 대변하는 지표들은 거시적 사회자본 변인(사회정치적 참여의향)과 대체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전통적 정치참여를 대리하는 변인인 투표율은 거시적 사회자본 변인(신뢰자본)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표 V-3 사회경제지표와 거시적 사회자본 간의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I	J	K
제도신뢰(A)	1										
대인신뢰(B)	.508**	1									
전통적 선거참여(C)	.427**	.116	1								
전통적·정파적 참여(D)	.477**	.345*	.729***	1							
저항적·합법적 참여(E)	.178	.257	.458**	.608***	1						
저항적·불법적 참여(F)	-.080	.378*	.088	.444**	.669***	1					
성인문자해독비율(G)	-.157	.068	-.523**	-.502**	-.505**	-.142	1				
1인당 GDP (H)	.009	-.025	-.254	-.338*	-.375*	-.315†	.396*	1			
인간개발지수(I)	-.243	-.228	-.491**	-.673***	-.578***	-.378*	.681***	.716***	1		
공교육비지출(J)	-.069	.075	-.265	-.289†	-.429**	-.274	.488**	.447***	.568**	1	
투표율 (K)	.354*	.281†	-.059	.057	-.143	.062	.140	.337*	.257	.218	1

Note: † $p<.10$ * $p<.05$ ** $p<.01$ *** $p<.001$

(4) 해석

이론적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4, 5, 6, 7, 8이 제시된 바가 있었다.

- 연구문제 4: 국가단위 분석에서 청소년의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미디어의 종류별로 민주시민역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국가단위 분석에서 청소년의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은 미디어의 종류별로 민주시민역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6: 국가단위 분석에서 청소년의 휴대폰·인터넷을 통한 친구와의 채팅은 민주시민역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7: 국가단위 분석에서 가족내부 사회자본은 그 종류별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8: 국가단위 분석에서 각 사회경제지표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국가단위의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상관에 있어서는 미디어이용 동기에 따른 차별성과 동시에 미디어 종류에 따른 차별성이 함께 나타났다. 대체로 큰 틀에서는 정보추구 동기의 이용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거시적 사회자본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오락추구 동기의 이용(휴대폰·인터넷을 매체로 이용하는 친구와의 채팅을 포함)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거시적 사회자본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오락적 책임지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많아 그러한 경향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인터넷의 오락적 이용은 대체로 거시적 사회자본/민주시민역량을 저해하는 방향의 상관을 보였지만,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감소와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기에, 한편으로 민주시민역량의 증진과, 다른 한편으로 민주시민역량의 저해를 함의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해석되었다(청소년의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감소를 민주시민역량의 증진으로 간주하는 한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양면성은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인터넷의 정보적 이용도 대체로 거시적 사회자본/민주시민역량을 저해하는 방향의 상관을 보였지만,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감소와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기에, 한편으로 민주시민역량의 증진과, 다른 한편으로 민주시민역량의 저해를 함의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해석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은 오락추구 동기에 따르든 정보추구 동기에 따르든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관계가 이중적, 양면적이었다. 이는 물론 저항적·불법적 사회정치참여의향을 민주시민역량에 역행하

는 지표로 바라볼 때의 해석이다. 인터넷의 경우 미디어이용 동기(오락추구, 정보추구)보다는 미디어 자체의 특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는 같은 종류의 미디어라 하더라도 이용 동기에 따라 상관관계의 부호가 바뀌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TV의 경우와는 분명 다르다. TV는 미디어 자체의 특성보다 이용 동기에 따라 민주시민역량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매체이다. 물론 국가수준이든 개인수준이든 미디어효과에 관한 인과론적 해석은 주의를 요하며, 향후 보다 엄밀한 연구설계의 시행을 통해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연구문제 4, 5, 6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국가단위의 거시적 사회자본은 명백히 각국의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축적과 상관되고 있었다. 국가단위의 분석에서는 부모가 가정생활에 시간할애를 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으로 대표되는 거시적 사회자본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는 단순히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활용하여 시민교육 관련된 커뮤니케이션(국내외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한 대화)을 도모하게 될 때 국가수준에서의 민주시민역량 증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본 상관분석에서 인과적 해석은 마찬가지로 제한적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연구문제 7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는 거시적 사회자본, 곧 청소년의 집합적 민주시민역량이 개인수준을 넘어서 국가수준에서 긍정적 사회경제적 효과·효능을 가진다는 추론을 지지하여 주지 못하였다. 국가단위 거시적 변인들 중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 정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성인 문자해독 비율, 1인당 GDP, 인간개발지수, 공교육비지출은 각각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관계가 부적 상관의 방향이었다. 이것은 청소년의 시민역량으로서의 거시적, 국가수준 사회자본이 국가수준의 인적 자본과 상충(trade-off)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는 후술한다. 이로써 연구문제 8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본장은 ICCS(2009) 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미디어이용, 가족내부 사회자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 국가 수준에서 여러 지표들과 특징적으로 상관되고 있었다.

그러한 특징들을 변별해 내면서 향후 제안하게 될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 개발방안을 위한 기초적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은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특히 다차원적 신뢰 차원에서 최저신뢰의 심리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한국 청소년의 공적 권위와 제도 전반 나아가 인간성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개발에 있어서 청소년 하위문화를 포괄하는 심층적 문화적 저변을 다루지 않고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 청소년의 불신과 낮은 수준의 참여 행동이 문화적으로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전략이 없이 단지 프로그램과 정책의 제시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설령 청소년의 불신이 뿌리 깊은 문화로 고착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한국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공공 부문이나 정치적 공적 과정에 대한 최저신뢰 경향성은 성인기가 도래했을 때 실천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다방면의 사회정치적 참여의향 수준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파악된다. 그러한 효과에는 선거상황에서의 투표나 투표행위를 하기 위한 정보구득 행동과 같은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의무 이행의도를 낮추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효과에는 선거상황에서 민주시민으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고 시민의 권력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 행동의도인 정당지지도 입후보와 같은 정파적 참여의향도 더욱 심각한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측면이 발견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참여적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한국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합법적 저항행동 의도보다는 불법적 저항행동 의도가 다른 나라 청소년들의 평균적 경향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한국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위험요인, 위기상황의 실태와 현황을 잘 보여 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게 ICCS(2009) 자료를 신뢰와 참여의 민주시민역량 변인별로 상세하게 분석한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체의 미래에 대한 위기의 전망을 그려준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로 그려지는 미래 한국의 모습에 걸맞지 않게 미래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역량과 준법의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는 한국의 시민교육의 위기이자 도전을 넘어서서 국가와 정치체제의 장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게 체계적,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단편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결코 이 문제해결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셋째,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미디어이용에 주목하는 것도 이 문제의 총체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가족내부 사회자본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본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단위의 거시적 사회자본과의 상관에 있어서 미디어이용 동기와 미디어종류에 따른 차별성이 함께 나타난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략히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정보추구 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보다 강조되고 오락추구 동기의 미디어이용(휴대폰·인터넷을 매체로 이용한 친구와의 채팅을 포함)이 적절하게 규율되는 미디어규제 및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증진 방안이 주요 청소년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적 시민의 소양과 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한국 청소년에게 특히 책임지는 신문열독과 함께 권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컨대 한국의 독서진흥 및 도서관정책은 청소년의 시민역량 지원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새롭게 진단되고 형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이용하는 각 매체별 특징을 파악하고 미디어규제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그러한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청소년 미디어이용에 주목하는 정책적 제언을 수용하고 실행할 때, 매체별 특성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며, 본장에서 제시한 오락적 이용과 정보적 이용 간의 미디어별 상관분석 결과는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인쇄미디어와 인터넷 등과 달리, TV 등 영상매체는 오락동기의 이용이 정보추구동기의 이용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규제 및 리터러시 전략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장의 분석결과가 말해 주는 것처럼, 한국의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과 국내 및 국제적 사회정치적 사안 관련하여 일정 부분 대화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녀의 시민역량에 관한 부모의 적극적 노력이 요망된다.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개발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의 관련 주제와 이슈에 관한 소통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단지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시민교육성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여 시민교육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게 될 때 민주시민역량 증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식, 곧 가정에서의 시민교육을 위하여 투입되는 시간의 양보다는 대화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지식이 청소년정책 및 시민교육을 위한 공공정책의 분석가들과 실무자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실제 가정에서 시민교육의 모범적 전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모와 여타 양육자들에게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적절하게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의 해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 국가수준의 인적 자본과 반비례할 수 있음을 적시하였다. 비교적 단기의 일정 기간이나 특정 시점에서 청소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교육 및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공공정책으로서의 청소년 정책을 형성·집행하게 될 때 그 구체적 프로그램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 하에서 청소년의 특정 역량을 선별적으로 강화(인적 자본 혹은 민주시민역량의 증진)하려는 목적과 방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성과(인적 자본의 증대와 민주시민역량의 증진)는 많은 경우 불일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거시적 사회자본과 국가의 주요 사회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지만, 이는 청소년기에 축적된 국가별 거시적 사회자본이 주요 사회경제지표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 긍정적 영향의 존재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는 될 수 없다. 보다 장기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인 간 인과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조명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상관분석은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6 장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 개발

1. 서언
2. 정책 아이디어의 확산과 정책옹호연합
3. 청소년 미디어정책
4. 가족지원정책
5. 결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의 기회구조

제 6 장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 개발*

1. 서언

민주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개발하는 사회적 노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주시민역량의 하부영역을 변별하고 이에 집중하는 사회적 투자 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은 변성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항상 가다듬어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에 걸맞은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모습을 갖추고자 그 현황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아울러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취약함의 구체적 양상을 발견하였다.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상세한 논의에 앞서 본 연구가 지향한 분석과 탐색의 방향성에 관하여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인식(신뢰)과 실천(참여)의 사회자본 차원에서 민주시민역량이 매우 미흡하였고, 그 역량의 부족은 일정 부분 미디어와 가족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나머지 37개 국가도 거의 마찬가지였지만, 한국 청소년 대상의 분석에서 민주시민역량은 상당 부분 미디어와 가족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본 연구가 지향한 두 가지 방향의 분석은 그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위하여 상호 차별화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분석(제5장)은 국제비교의 틀 안에서 한국 청소년의 평균적, 전반적 민주시민역량 위기를 전달해 준다. 곧 전 세계를 대표하는 38개국의 청소년 중에서 한국의 청소년은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리고 그 역량의 취약함은 미디어이용 특성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결핍과 연관되어 보였다. 반면, 두 번째 분석(제4장)은 한국 청소년들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청소년이 민주시민역량 측면에서 위기청소년(youth-at-risk)인지 분석·진단한 것이다. 국제적, 평균적으로 민주시민역량이 취약한 한국 청소년 중에서도 대체로 미디어를

* 본장은 김준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정선아(숙명여자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오락추구목적으로 더 이용하고 정보추구목적으로 덜 이용하는 청소년, 그리고 소통적 사회자본이 덜 축적되어 있는 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이 상대적으로 더욱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간 비교분석과 국가내 분석의 결과에서 공히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특성과 가족의 내부적 사회자본 축적 정도가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시민역량 수준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판명되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만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토대(제2장)와 분석모형(제3장)이 한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경과 문화권을 넘어서는 일정한 타당도와 적실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에 축적된 사회자본 혹은 가족의 소통적 역량의 개선 및 증진은 한국 청소년 전반의 민주시민역량 증진과 더불어 특히 한국 청소년 중에서도 민주시민역량이 취약한 청소년의 발달을 위해 공히 도모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회적 노력은 청소년을 위한 관련 미디어정책과 가족지원정책의 가이드라인의 실천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거중심의 청소년정책(evidence-based youth policy)을 위하여 본장에서는 관련 청소년정책을 추동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지식에 기초한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책 아이디어의 확산과 정책옹호연합

청소년을 둘러싼 미디어환경과 가족체계를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와 연계하여 성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policy idea)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본 연구의 성과물이 가지는 시민교육적, 공공정책적 의의를 민주주의의 증진 및 이와 연관된 청소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활용하려 하는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이 형성(Sabatier, 1988; Sabatier & Jenkins-Smith, 1988; Sabatier & Jenkins-Smith, 1993)되어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의 옹호연합이 특정 정책 목표를 성취하려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연합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속성의 하나는 제도권에서의 권력(institutional strength)이며, 다른 하나는 논리적으로 완결된 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근거(coherent policy rationale)이다(Kwon, 2007). 한국에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저조함을 우려하고 청소년의 신뢰와 참여의 결핍을 미래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식하면서 시민역량의 증진을 청소년정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정책옹호연합이 권력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청소년의 시민교육을 주로 학교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하는 성향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이 학교교육의 틀과 장을 벗어나서 더욱 유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개방적이지 않은 성인들이 많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비할 수 없이 높은 교육열이 학업성취와 대학입시의 성공을 지향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시민교육의 성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가족의 소통적 역량과 역시 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관련 요인을 민주주의의 미래와 연계하여 성찰하는 가치/신념체계(Weible, 2006)의 공유⁴¹⁾ 집단을 유효하게 결집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3. 청소년 미디어정책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강화를 염두에 둔다면, 다양한 매체가 가지는 특수성이 고려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보추구 동기의 미디어이용이 보다 강조되고 오락추구 동기의 미디어이용이 적절하게 규율되도록 하는 청소년 미디어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에 대한 규제정책과 미디어교육정책(대표적으로 청소년의 미디어리터러시 증진) 등이 있겠다. 한국 청소년을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보호하고자 실행되는 여성가족부의 섯다운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는 청소년의 오락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 중 하나인데,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관련 산업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구에서는 청소년 등에게 폭력적 게임물을 판매·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주정부의 입법과 정책에 대하여 주의회의 거부 혹은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다(장준오 외, 2012:251-252). 한국정부의 섯다운제와 쿨링오프제는 청소년이 애용하는 일부 매체의 오락적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논란과 반발에 직면하게 되므로 예기치 않게 규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추구동기의 미디어이용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목적의 달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겠다. 그리고 이 정책들은 주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의 부분적 활용에만 청소년 미디어이용 규제가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의 미디어이용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이 애용하는 오락물의 콘텐츠를 일정 수준 이상 접하지

41) 정책응호연합이 공유하는 가치/신념체계는 계층적이다. 최상위수준의 신념인 규범적 핵심신념(normative deep core belief)은 근본적 규범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기조로서의 정책핵심신념(policy core beliefs)과 행정적·입법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이차적·도구적 신념(secondary/instrumental aspects beliefs)이 형성된다. 정책응호연합의 분석들과 이들이 공유하는 가치 및 신념체계에 관하여는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탐색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인 김준홍(2012b:111-114)을 참조할 수 있다.

못하도록 제한하는 현행의 정책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오락추구적 미디어이용은 민주시민역량의 감소를, 정보추구적 미디어이용은 민주시민역량의 증진을 가져온다면,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한국 청소년의 정보추구적 미디어이용을 권장, 유도하고 오락추구적 미디어이용이 적절하게 규율되도록 하려면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교육(Dahl & Newkirk, 2010; Park & Biddix, 2008)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청소년이 애용하는 미디어콘텐츠를 시민역량 강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오락추구 동기로써 소비할 때 이용하는 오락적 콘텐츠가 정보적 콘텐츠와 결합(Walldéen & Soronen, 2004)되어 제공될 수 있다면,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환경의 지원체제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김준홍, 2012c).

이러한 전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 전반의 성인과 청소년들의 공동노력에 의해 가능할 것이며(심영섭·김동규, 2012; 안정임, 2004; 황용석, 2006), 특히 그 중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왕성한 활동이 매체환경 변화의 동인(changing agent)으로서 필수 불가결하다. 한국 청소년의 제도 전반과 인간성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거니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 하위문화를 포괄하는 심층적 문화적 저변을 다루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현대 청소년과 여타 사회구성원의 삶에 깊숙이 스며있는 매체환경이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주도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불신과 낮은 수준의 참여 행동이 문화적으로 배태되어 있다면, 이러한 매체환경에 노출되고 영향 받는 현대 한국인들의 삶과 행태에 대한 더욱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현대의 민주주의적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수준 높은 토론이 요망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청소년이 소비하는 오락적 콘텐츠와 의도적으로 고안된 정보적 콘텐츠와의 결합적 제공이 과연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의 매체환경을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도 심도 있는 토론이 요청된다. 하지만 적어도 현존하는 오락적 미디어콘텐츠에 진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민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나아가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불신을 치유하는 설득적 내용 등으로 보충(김준홍, 2012c:88)하여 대체로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오락물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한 시민교육 성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의 증진과 참여의 신장을 도모하고 전반적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오락적 콘텐츠와 정보적 콘텐츠의 결합은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인 edutainment 콘텐츠의 활성화를 통하여 가능해 질 수 있다.

edutainment는 EE(Entertainment-Education)라고 불리기도 하는데(Aziz & Salvesen, 2008), 아동·청소년이 애용하는 게임물에도 많이 활용된다(Laghos, 2010). 앞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의 게임의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방식의 미디어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게임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되 게임의 오락적 콘텐츠와 결합한 교육적 콘텐츠가 제공되는 양과 질에 따라 그 규제완화의 정도를 조율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미디어이용규제와 미디어콘텐츠 평가제의 통합적 접근법의 한 사례이다. 미디어이용 규제와 미디어콘텐츠 평가에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Zeedyk & Wallace, 2003), 따라서 여러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다양한 실험적 정책들을 가동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 중에서도 어떤 하부집단이 이러한 다양한 실험적 전략에 의해 민주시민역량의 하부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선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정책연구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미디어 이용규제와 바람직한 미디어콘텐츠의 활성화는 청소년의 미디어리터러시 증진과 맞물려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미디어의 콘텐츠나 메시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수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의도를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변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장준오 외, 2012:253-254)을 포함하는 개념인 미디어리터러시가 청소년에게 충분히 구비된다면 미디어이용 규제의 기본 취지와 한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매체환경에서 오락적, 정보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의 사회경제적 함의 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은 이러한 식별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부분별한 오락적 소비가 가지는 결과와 그 사회적 의미인 민주시민역량의 저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쩌면 미디어로 충만한 세상에서 미디어리터러시가 민주시민역량의 핵심 구성요인일 수 있다. 미디어가 가지는 권력,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역량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감소의 위기를 공여하는 양 측면을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전문가들과 양육의 책임을 맡은 성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도 발달단계에 걸맞은 관련 지식과 문제의식을 갖추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시민역량의 성과와 관련하여 각 매체가 가지는 특수한 속성과 매체를 이용하는 동기와 목적이 가지는 사회정치적 함의를 청소년이 알 수 있게 하려면, 과열된 학업성취 의도와 단순한 오락을 위한 미디어이용 행태를 지양하고 청소년 스스로의 미디어이용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미디어교육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감안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미디어교육자는 단지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받아 이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의 미디어이용과 민주시민역량 간의 연계성, 그리고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대한 섬세하면서도 비평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질수록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미디어교육자는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채팅과 같이 가벼운 잡담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청소년이 모바일 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채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심리사회적 함의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교육자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청소년 커뮤니케이션이 양질의 시민교육 콘텐츠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경로에 대해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에 반드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차원이 부가되어야 한다. 민주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자본의 근간인 신뢰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시민교육의 차원과 목적에서 강하게 역설하는 이론가와 실천가는 있지만(김한규, 2009; 이재분, 현주, 조성인, 2003; 최은수, 1997), 이를 미디어리터러시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연구와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청소년은 미디어환경에 의해 단지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이한규, 2011) 미디어를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ooryamoorthy, 2011; Kral, 2011)는 점에서 청소년의 미디어리터러시 증진은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환경의 지원체계 개발에서 필수적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4. 가족지원정책

가족내부의 소통적 역량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번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한 국가 안에서도 민주시민역량이 취약한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족내부의 소통적, 과정적, 관계적 자본의 축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청소년 자녀와 동거하면서 돌봄의 기회를 가지는 데에 있어 상대적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시민교육을 위한 국내외 이슈를 놓고 자녀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들은 평균적으로 가족내부 소통 역량의 지표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가족역량의 부족은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의 가족 중에서도 내부적 소통적 사회자본이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가족의 경우, 그에 속해 있는 청소년 자녀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족 의제, 특히 가족내부의 사회자본의 위기에 따른 가족 및 청소년 복지 및 역량의 저하 경향성의 이슈는 매우 과소한 정도로 정치 및 정책 의제로 되어 있다. 투표율로 대변되는 정치적 관심이 가족 이슈에 머무르고 이를 둘러싸고 사회적 토론과 정책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한국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을 나타내어 왔다. 한국의 가족역량과 가족복지 이슈에 관련된 투표참여 및 여타 사회정치적 참여의 부족함은 한국 가족내부의 사회자본의 상대적 저조함과 일정 부분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족 이슈를 정치 및 정책 의제로 만드는 것, 이를 통하여(그리고

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시민역량 이슈를 정치 및 정책 의제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제화는 앞에서 언급한 가족내부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를 옹호하는 정책옹호연합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한국의 가족과 그 구성원에 주는 외생적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내부 사회자본, 즉 가족내부 소통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은 현대 사회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투쟁의 산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성취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비교할 때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뒤따라오지 못했으며, 그렇게 얻어진 사회경제적 발전이란, 다름 아닌, 가족과 그 구성원, 특히 가족의 역량의 저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 자녀의 삶의 질을 희생하고서 얻어진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걸맞은 가족 복지 및 역량지원이 확보될 수는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향상된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혜택이 가족구성원, 특히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족정책이 요청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역량의 결핍은 곧 그가 속해 있는 가족역량의 부족이나 역기능적 가족내부 상호작용 및 커뮤니케이션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서정아, 조흥식, 2010). 그리고 가족지원정책은 그러한 가족이 뿌리를 내리고 정주하는 지역사회의 연결망을 통해서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술하듯이 가족지원정책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생활공간과 기회의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유념할 점은, 가족내부의 사회자본의 형성과 증진을 목표로 하는 가족지원정책이 오로지 청소년 자녀의 시민교육 성과로만 연결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내부 사회자본 증진은 청소년을 위한 여타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가족내부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소통적 사회자본의 결핍이 가족을 넘어서서 사회적 접촉제라 일컫는 신뢰와 민주주의의 번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회정치적 참여 각각을 저해하는 역기능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결핍이 야기할 수 있는 여타의 결과를 우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결핍은 한국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의 결핍은 상관되어 있어 보인다(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De Silva et al., 2005; Hosen, Solovey-Hosen, & Stern, 2003; Huebner, Laughlin, Ash, & Gilman, 1998; Jagodzinski, 2010; Stevens, Lupton, Mujtaba, & Feinstein, 2007). 가족내부 사회자본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지원정책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증진을 비롯한 주요 청소년정책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5. 결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의 기회구조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은 기회의 구조를 형성하면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을 길러내기 위하여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이 제공하는 기회를 어떻게 연계하여 배치시킬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예컨대 청소년의 시민역량을 증진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 환경적 지원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미디어 자체에 대한 규제 외에도 학교, 지역사회, 가족의 청소년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과제가 함께 맞물려 있다. 가족내부 사회자본을 형성 및 증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개발로서의 가족지원정책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족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생활공간과 기회의 구조의 활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김준홍(2012d)은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주목하면서도 도서관이라는 지역사회의 생활공간을 가족의 소통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구조의 제공으로 받아들였다. 도서관은 그 안팎에서 시민적 공동체 참여를 권장하는 시민교육정책의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 자녀가 속해 있는 가족이 참여하도록 개방함으로써 그 결과 가족내부의 소통적, 과정적 사회자본 증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구조는 설령 동일한 것처럼 보여도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청소년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그 기회구조의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Domínguez & Watkins, 2003; Guiso, Sapienza, & Zingales, 2004). 미디어이용 양상이나 가족의 내적 역량이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에 그러한 기회구조가 가지는 개인적, 사회경제적 가치는 배가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의 발달적 가치는 더 높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밖에 있거나 학교에 머물러 있더라도 부적응과 위험요인들을 경험하는 위기청소년(윤명희, 장아름, 2008; 이상현, 윤명성, 2007;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의 경우 시민교육의 성과와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구조는 청소년의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기타 청소년이 처해 있는 조건 등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개별 청소년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제공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7 장

.....

결론: 다시 민주주의로

제 7 장

결론: 다시 민주주의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토대이자 기본 전제가 민주주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결핍은 미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절차적, 참여적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의 저하와 결핍이면서도 그러한 역량의 부족은 민주주의의 토대와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한국의 시민교육의 위기 및 도전을 넘어서서 국가와 정치체제의 장래에 관한 것이며 단편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앞의 장에서 제시한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정책과 가족지원정책을 요체로 하는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 개발 전략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성찰 없이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같음하여 본 연구의 주제 분야인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의 저조함과 관련한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정치철학자 Stein Ringen을 언급하였는데, 그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하는 다차원적 지표에 관심을 보였다(Ringen, 2006, 2007). 발달단계에 있으면서 미래의 시민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시민역량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성과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의 미흡은 한국 민주주의 정체의 일종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체제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들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공공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은 특히 중시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강조한 청소년 미디어정책과 가족지원정책도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형성되고 실행될 때 한국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의 성격을 명확하게 띠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이론가인 Robert Goodin이 말한 대로 민주주의는 시민의 선호를 정치적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고안된 정체이다(Goodin, 1992, 2004). 민주주의

* 본장은 김준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정체에서 시민선호는 주기적 선거에서 투표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반영되지만, 항시 이루어지는 시민의 다양한 참여적 활동들에 의하여 또한 반영되고 결집된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청소년이 학교 안팎의 주요 이슈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면서 각종 활동과 회합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와 자유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한국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시민적 참여와 그 의향의 결집은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위기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민주시민사회의 역량 있는 주체로 성장하려면 다양한 사회정치적, 시민적 참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선호영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가동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미디어환경의 개선과 미디어리터러시의 증진, 나아가 가족의 역량 지원정책도 그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궁극적 통제(Ringen, 2006, 2007)의 관점에서 또는 시민선호의 궁극적 반영(Goodin, 1992, 2004)의 관점에서 이해하든 혹은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든, 우리는 민주주의가 가지는 불확실성(uncertaint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민주주의는 불확실성이 제도화된 것이다. 민주주의 정체는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이 궁극적 통제 권력을 발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지만(Ringen, 2007), 실제 권력투쟁에서 관철된 시민 의사 혹은 시민 이익이 어떤 내용으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맡겨져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정체는 시민의 선호에 대해 불편부당하고도 긍정적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정된 제도적 방식으로 이해되지만(Goodin, 2004), 현실의 정치적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의 시민선호가 최종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민주주의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를 불확실성의 제도화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민주주의 정체에서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주의적 과정은 알려져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결과는 불확실하다. Przeworsky(1991)의 설명을 종합하자면, 정치세력들은 선거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의미와 승리와 패배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승리할지 패배할지 알지 못한다. 환언하면, 어떤 결과들이 발생할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한다. 각 정치세력에게 언제나 결과는 미지수이며, 불확실하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한 뒤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 흡사 주사위를 던지는 체제와 같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의 제도화로서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결과가 사전(事前)에 결정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정체에서 그 누구도

정치적 과정을 거쳐 발생된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전에 개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Przeworsky, 1991). 어떤 정치세력도 민주주의의 결과 발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제도화된 민주주의 정체에서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패배할 수도 있어야 하고, 설령 패배하더라도 다시 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는 권리, 다시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불확실성의 제도화라면, 그러한 제도 안에서 비록 선거경쟁에서 패배한 정치세력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순응하고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적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Przeworsky, 1991). 이러한 순응과 참여의 근거에는 민주주의적 제도에 대한 제 정치세력의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역량은 신뢰하는 자의 합리적 선택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체 안에서의 패배가 비민주적 대안이 제시하는 어떤 미래보다 패배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준다는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시종일관 문제 삼은 것처럼 한국 청소년이 제도와 공적 권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특징 지워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는 불확실성의 제도화로 이해될 수 있고, 그 제도에 대한 정치세력의 자발적 순응(자기이익을 따르는 전략적 순응)을 이끌어낸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특정 조건 하에서 정치세력이 심지어 패배의 결과마저도 즉각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자면, 한국 청소년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신뢰의 결핍 현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제도의 불확실성 안에 지속적으로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수긍하게 되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이러한 합의에 관하여 공감할 수 있는 기회구조 제공으로서의 사회적 투자가 충분하게 될 때 신뢰의 부족은 메워지고 민주주의의 전망도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원체계 개발을 위한 대전제일 뿐만 아니라 관련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논의와 해석의 근거 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내원 (2008). 시민의 매체 이용과 사회적 신뢰: 매체 이용량 및 패턴을 중심으로. **언론과학 연구**, 8(3), 5-44.
- 강대현 (2009). 시민교육과 학교 개혁: 시민교육과 학교 개혁. **사회과교육**, 48(2), 79-93.
- 강진숙, 최경진, 장성준 (2011). 청소년의 TV중독 예방을 위한 미디어교육 방안 연구: 미디어중독 전문가 및 교사와의 FGI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4), 35-67.
- 김동일, 이윤희, 이주영, 김명찬, 금창민, 남지은 외 (2012). 미디어 이용 대체·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71-88.
- 김미숙 (2006, 5월호). 한국가족 어디까지 왔나?: 가족위기 대 재구조화 논쟁. **보건복지포럼**, 5-19.
- 김승권 (1998, 3월호). 최근 출산행태 및 가족주기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7-17.
- 김승권 (2003, 5월호). 한국 가족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21.
- 김승권 (2009, 5월호). 통합·예방·맞춤형 가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보건복지포럼**, 5-17.
- 김용찬 (2007).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7(2), 61-78.
- 김은희, 이종혁 (2010). 대인커뮤니케이션 유형별 대중매체 이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비교: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조절변인으로. **한국언론학보**, 54(6), 5-27.
- 김준홍 (2012a). 민주주의의 조세순응 효과. **한국행정학보**, 46(2), 115-136.
- 김준홍 (2012b).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방송통신융합가치의 영향과 그 문화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 26(2), 107-125.

- 김준홍 (2012c).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이 사회정치적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교육수준의 조절효과. **미디어와 교육**, 2(2), 69-95.
- 김준홍 (2012d). 청소년 민주시민역량에 미치는 도서관이용의 영향: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정책의 함의. **제49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7-28.
- 김준홍 (2012e).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과 언어 환경이 욕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4), 159-188.
- 김태준, 이영민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연구보고 11-R2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장혜승, 반재천, 조영하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참여** (연구보고 RR 2010-1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한규 (2009). 한국 상황과 민주 시민교육(정치교육): 필요성과 과제. **한국학논집**, 38, 291-312.
- 김혜영 (2001). 한국 대학생의 가족주의 변화: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2(1), 79-105.
- 김혜영 (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 55-94.
- 나은영 (2005). 청소년의 이동전화 애착 이용, 효과지각 및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2002·2004년 서울·수도권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6), 198-232.
- 민영, 노성중 (201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참여. **한국언론학보**, 55(4), 284-308.
- 민지현 (2008). 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와 신체변형욕구에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과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9, 45-78.
- 박소라 (2008). 이민 2세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정체성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2(6), 237-257.
- 박소라, 김은미, 나은영 (2007).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유형화 및 유형별 친구관계의 특성.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2, 39-81.
-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박희봉, 이희창 (2011). 신뢰와 정부경쟁력: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분석. **한국정책학회**

- 보, 20(2), 289-318.
- 박희봉, 이희창, 김동욱, 김철수, 박병래 (2003).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한국정책학회보**, 12(3), 199-225.
- 박통희, 원숙연 (2000). 조직구성원간 신뢰와 “연줄” : 사회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2), 101-120.
- 서선희 (2003). 한국 사회에서 ‘가족중심주의’의 의미와 그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93-101.
- 서정아, 조홍식 (2010).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10-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신영화 (2005). 한국 가족과 가족문제의 변화. **지역발전연구**, 5(1), 121-137.
- 심영섭, 김동규 (2012).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거버넌스 이론의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8, 242-261.
- 심재용, 조의진 (2009). 다매체·다채널 미디어 환경에서 바람직한 청소년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0(1), 79-118.
- 안정임 (2004). 미디어 교육과 공영 방송의 역할.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5(2), 45-66.
- 안호용, 김홍주 (2000).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3, 89-132.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원숙연 (2001). 신뢰의 개념적·경험적 다차원성: 신뢰연구에 갖는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10(3), 63-85.
- 윤명희, 장아름 (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49-66.
- 윤미선, 이종혁 (2012). 소셜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매개모델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2), 5-43.
- 윤성이 (2009).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 특성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1), 315-334.
- 이곤수, 송건섭 (2007).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1(1), 133-152.

- 이동원, 정갑영, 박준, 채승병, 한준 (2009).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상현, 윤명성 (2007).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4(1), 89-118.
- 이숙중, 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 이재분, 현주, 조성인 (2003). 초등학교 시민교육의 실제와 개선방향: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0**(1), 323-345.
-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대중 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 연계망 활동 및 정치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9**(3),
234-261.
- 이한규 (2011).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모델. **한독사회과학논총**, **21**(4), 3-26.
- 이혜인, 배영 (2011).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자본: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이용정도가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와 사회**, **21**, 35-71.
- 임승빈, 이승중 (2005). 지방정부 역량과 자치구의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서울시 12개
자치구간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19**(3): 3-26.
- 장근영, 박수억 (2011a).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1-R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박수억 (2011b).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연구보고 11-R2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준오 외 (2012). **청소년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
구총서 12-03-05 연구총서 12-CB-02).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광조 (1996).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7**, 163-179.
- 정광호 (2010).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역량의 연관성 탐색: 재정역량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
가학회보**, **20**(4): 333-374.
- 정진경 (2001). 한국 가족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과제. **사회과학연구**, **18**(2), 293-313.

- 조대현, 김재현 (2007). 사회적 자본을 통한 국가수준의 역량개발 가능성 탐색: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인력개발연구**, 9(2): 105-122.
- 조상식 (2009). 민주시민교육의 교육 이론적 지평. **교육사상연구**, 23(1), 209-228.
- 최영, 박성현 (2011).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2), 241-276.
- 최윤정 (2008). 대중 매체 이용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 검증. **한국언론학보**, 52(3), 374-395.
- 최은수 (1997). 학교교육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연구: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 연구**, 7(4), 19-41.
- 최종덕 (2007).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39(4), 135-161.
- 최홍석 (2001). 기초자치단체의 시민 정치참여 연구. **지방정부연구**, 5(3), 87-105.
-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 황용석 (2006). 인터넷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 분석. **한국학연구**, 25, 7-43.
- Acar, E. (2011).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academic success: A narrative synthesis. *Education Research and Reviews*, 6(6), 456-461.
- Adam, F., & Roncevic, B. (2003). Social capital: Recent debates and research trends. *Social Science Information*, 42(2), 155-183.
- Ahn, T. K., & Ostrom, E. (2008).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action. In D. Castiglione et al.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pp. 70-10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lmedom, A. M. (2005).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An interdisciplinary review of primary evidence. *Social Science & Medicine*, 61(5), 943-964.
- Amadeo, J., Torney-Purta, J., & Barber, C. H. (2004). *Attention to media and trust in media sources: Analysis of data from the IEA civic education study*. The Center for Information & Research on Civic Learning & Engagement.
- Anving, T., & Sellerberg, A. M. (2010). Family meals and parents' challenges. *Food Culture & Society*, 13(2), 201-214.
- Arrow, K. (1972). Gifts and exchang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4),

- 343–362.
- Audigier, F. (2000). Project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Basic concepts and core competencies for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Avery, J. M. (2009). Videomalaise or virtuous circle?: The influence of new media on political trust.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4(4), 410–433.
- Aziz, L., & Salvesen, V. L. (2008). Voice out: An Entertainment–Education approach? *Visual Anthropology*, 21(3), 217–230.
- Baldi, S., Perie, M., Skidmore, D., Greenberg, E., Hahn, C., & Nelson, D. (2001, Sum). What democracy means to ninth–graders: U.S.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IEA civic education study. *Education Statistics Quarterly*, 3(2), 89–96.
- Balswick, J., & Avertt, C. P. (1977). Differences in expressiveness: Gender,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perceived parental expressiveness as contributing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1), 121–127.
- Bassani, C. (2006). A test of social capital theory outside of the American context: Family and school social capital and youth's main scores in Canad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5(6), 380–403.
- Beardsworth, A., & Keil, T. (1990). Putting the menu on the agenda. *Sociology*, 24(1), 139–151.
- Beaudoin, C. E. (2007). The impact of news use and social capital on youth wellbeing: An aggregate–leve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8), 947–965.
- Beaudoin, C. E., Thorson, E., & Hong, T. (2006). Promoting youth health by social empowerment: A media campaign targeting social capital. *Health Communication*, 19(2), 175–182.
- Bebbington, A. J., & Carroll, T. F. (2000). *Induced social capital and federations*

- of rural poor*.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19. Washington, D. C.: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World Bank.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nett, S. E., Rhine, S. L., Flickinger, R. S., & Bennett, L. L. M. (1999). "Video Malaise" revisited: Public trust in the media and government.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4(4), 8–23.
- Bogard, C. J., Steinheit, I., & Clarke, R. P. (2008). Information they can trust: Increasing youth voter turnout at th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1(3), 541–546.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D.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Burt, R. (2005).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iazza, A., & Gault, B. (2006). Acting from the heart: Values, social capital, and women's involvement in interfaith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B. O'Neill, & E. Gidengil (Eds.), *Gender and Social Capital* (pp. 99–126). New York: Routledge.
- Campbell, S. W., & Kwak, N. (2010).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geographically differentiated usage patterns. *New Media & Society*, 12(3), 435–451.
- Checkoway, B. (2001). Renewing the civil mission of the American research university.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2(2), 125–147.
- Checkoway, B. N., & Gutierrez, L. M. (2006). Youth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hange: An introduction.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4(1–2), 1–9.
- CIA World Factbook. The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 of GDP 1999–2006 from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print_2206.html
- Clague, C. (1993). Rule obedience, organizational loyalty,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49(2), 393–414.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k, T. E., & Gronke, P. (2001, April). *The dimensions of institutional trusts: How distinct is public confidence in the media?* Chicago: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Crosnoe, R. (2004). Social capital and the interplay of families and schoo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267–280.
- Crow, G. (2004). Social networks and social exclusion: An overview of the debate. In C. Phillipson, G. Aallan, & D. Morgan (Eds.), *Social networks and social exclusion: Sociological and policy perspectives*. Aldershot UK and Burlington USA: Ashgate.
- Dahl, I. H., & Newkirk, C. (2010). Understanding news literacy: A youth media perspective. *Youth Media Reporter*, 3, 48–50.
- Dahlgren, P. (2006). Doing citizenship: The cultural origins of civic agency in the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9(3), 267–286.
- Dasgupta, P. (2010). Social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Analytics. In E. Ostrom, & T. K. Ahn (Eds.), *Foundations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 De Cannière, M. H., De Pelsmacker, P., & Geuens, M. (2009). Relationship qualit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al intentions and purchase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2(9), 82–92.
- Dermody, J., & Hanmer-Lloyd, S. (2004). Segmenting youth voting behaviour

- through trusting–distrusting relationships: A conceptu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9(3), 202–217.
- De Silva, M. J. et al. (2005). Social capital and mental illnes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9(8), 619–627.
- Domínguez, S., & Watkins, C. (2003). Creating networks for survival and mobility: Social capital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American low–income mothers. *Social Problems*, 50(1), 111–135.
- Edwards, R., Franklin, J., & Holland, J. (2003). *Families and social capital: Exploring the issues*. London: Families & Social Capital ESRC Research Group.
- Eriksson, U., Hochwälder, J., & Sellström, E. (2011). Perceptions of community trust and safety: Consequences for children's well–being in rural and urban contexts. *Acta Pædiatrica*, 100(10), 1373–1378.
- Fahmy, E. (2006). Social capital and civic action: A study of youth in the United Kingdom. *Nordic Journal of Youth Research*, 14(2), 101–118.
- Farr, J. (2004). Social capital: A conceptual history. *Political Theory*, 32(1), 6–33.
- Fedderke, J., De Kadt, R., & Luiz, J. (1999). Economic growth and social capital: A critical reflection. *Theory and Society*, 28(5), 709–745.
- Field, J., Schuller, T., & Baron, S. (2000).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revisited. In S. Baron, J. Field, & T. Schuller (Eds.),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s* (pp. 243–26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leming, K., & Thorson, E. (2008). Assessing the role of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in learning from local news media about sources of social capital.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1(4), 398–419.
- Fleming, K., Thorson, E., & Peng, Z. (2005). Associational membership as a source of social capital: Its links to use of local newspape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ntertainment media and volunteering. *Mass Communication & Society*, 8(3), 219–240.

- Flexon, J. L., Lurigio, A. J., & Greenleaf, R. G. (2009). Exploring the dimension of trust in the police among Chicago juvenil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2), 180–189.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 Furstenberg, F. F. (2005). Banking on families: How families generate and distribute social capital.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7(4), 809–821.
- Galor, O., & Zeira, J. (1993).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1), 35–52.
- Goodin, R. E. (1992). *Motivating political morality*. Cambridge &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Goodin, R. E. (2004). Democracy, justice and impartiality. In K. Dowding, R. E. Goodin, & C. Pateman (Eds.), *Justice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otaert, B., & Bastelater, T. V. (2001).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A synthesis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ocial capital initiative.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24*.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Guiso, L., Sapienza, P., & Zingales, L. (2004).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financial develop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4(3), 526–556.
- Hall, P. (2002).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In R. D. Putnam (Ed.),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pp. 21–57). Oxford university press.
- Hammons, A. J., & Fiese, B. H. (2011). Is frequency of shared family meals related to the nutrition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127(6), e1565–1574.
- Hardy, B. W., & Scheufele, D. A. (2005). Examining differential gains from internet use: Comparing the moderating role of talk and online interac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55(1), 71–84.

- Harisalo, R., & Miettinen, E. (1997). *Trust capital: The third force of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Tampere, Dept. of Administrative Science.
- Harpham, T. (2002). *Measuring the social capital of children*. Young Lives/An International Study of Childhood Poverty.
- Harpham, T., Grant, E., & Thomas, E.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 within health surveys: Key issues. *Health Policy and Planning*, 17(1), 106–111.
- Helliwell, J. (2001).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Kentucky.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Holland, J. (2009). Young people and social capital: Uses and abuses? *Nordic Journal of Youth Research*, 17(4), 331–350.
- Hosen, R., Solovey-Hosen, D., & Stern, L.(2003). Education and capital development: Capital as durable person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s on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Education*, 123(3), 496–513.
- Huebner, E. S., Laughlin, J. E., Ash, C., & Gilman, R. (1998). Further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6(2), 118–134.
- Human Development Report. Adult literacy rate, both sexes (% aged 15 and above) from <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101406.html>
- Human Development Report. GDP per capita (2005 PPP \$) from <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20206.html>
- Human Development Report. Human Development Index (HDI) value from <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103106.html>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Voter turn-out from <http://www.idea.int/uid/fieldview.cfm?field=221>

- Israel, G. D., Beaulieu, L. J., & Hartless, G. (2001).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educational achievement. *Rural Sociology*, 66(1), 43–68.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Jacobs, J. (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 Jacobs, J. (1984). *Cities and wealth of nations*. New York: Random House.
- Jagodzinski, W.(2010).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re there differences between Asia and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1), 85–104.
- Kawachi, I., Kennedy, B. P., Lochner, K., & Prothrow–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1491–1498.
- Kay, A. (2005). Social capital,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1(2), 160–173.
- Knack, S. (1992). Civic norms, social sanctions, and voter turnout. *Rationality and Society*, 4(2), 133–156.
- Knack, S., & Keep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Kovacheva, S. (2005). The role of family social capital in young people's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Bulgaria. *Sociologija*, 46(3), 211–226.
- Kral, I. (2011). Youth media as cultural practice: Remote indigenous youth speaking out loud. *Australian Aboriginal Studies*, 1, 4–16.
- Kwon, H. J. (2007). Advocacy coalition and health politics in Korea.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1(2), 148–161.
- Laghos, A. (2010). Multimedia games for elementary/primary school education and entertainment.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69, 77–81.

- Leonard, M. (2005). Children, childhood and social capital: Exploring the links. *Sociology*, 39(4), 605–622.
- Lichter, D. T., Cornwell, G. T., & Eggebeen, D. J. (1993). Harvesting human capital: Family structure and education among rural youth. *Rural Sociology*, 58(1), 53–75.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vingstone, S. (2002). *Young people and new media: Childhood and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Sage Publications.
- Mangum, M. (2011). Explaining political trust among African Americans: Examining demographic, media, and social capital and social network effects. *The Social Science Journal*, 48(4), 589–596.
- McHale, S. M., Dotterer, A., & Kim, J. Y. (2009).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media and youth develop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8), 1186–1203.
- McLean, S. L. (2002). Patriotism, generational change, and the politics of sacrifice. In S. L. McLean et al. (Eds.),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s on community and "Bowling Alone"* (pp. 147–166). New York &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2.
- Mondak, J. J. (1998). Editor' s introduction, special issue on psychological issues to social capital. *Political Psychology*, 19(3), 433–439.
- Morrow V. (2006). Conceptualizing social capital in relation to children and young people: Is it different for girls? In B. O'Neill, & E. Gidengil (Eds.), *Gender and social capital* (pp. 127–150). New York: Routledge.
- Moy, P., Torres, M., Tanaka, K., & McCluskey, M. R. (2005). Knowledge or trust?: Investigating linkages between media reliance and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2(1), 59–86.
- North, D.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son, M.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Yale University Press.
- Park, H. W., & Biddix, J. P. (2008). Digital media education for Korean youth.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40(2), 104–111.
- Pichler, F., & Wallace, C. (2007). Pattern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capital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2), 423–434.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rzeworsky, A.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 Leonardi R., & Naneffi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8(4), 664–683.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new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Quandt, T. (2012). What's left of trust in a network society? An evolutionary model and critical discussion of trust and societal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7(1), 7–21.
- Ravanera, Z. R., & Rajulton, F. (2010). Measuring social capital and its differentials by family struc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1), 63–89.
- Ringen, S. (2006). *The possibility of politics: A study i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New Brunswick &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Ringen, S. (2007). *What democracy is for? On freedom and moral governm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jas, H., Shah, D. V., & Friedland, L. A. (2011). A communicative approach to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munication*, 61(4), 689–712.
- Rutten, R., Westlund, H., & Boekema, F. (2010). The spatial dimension of social capital. *European Planning Studies*, 18(6), 863–871.

- Rychen, D. S., & Salganik, L. H. (Eds.). (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Ashland, OH, US: Hogrefe & Huber Publishers.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2).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s (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Strategy paper*. Neuchatel, Switzerland: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 Rychen, D. S., & Salganik, L. H. (Eds.).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Ashland, OH, US: Hogrefe & Huber Publishers.
- Sabatier, P. A. (1988). An advocacy coalition model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 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 129–168.
- Sabatier, P. A. & Jenkins-Smith, H. (1988). Symposium editors' introduction. *Policy Sciences*, 21, 123–127.
- Sabatier, P. A. & Jenkins-Smith, H. (1993).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Boulder: Westview Press.
- Sandefur, G., Meier, A., & Hernandez, P. (1999). *Families, social capital and educational continu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Working Paper, no.99-19.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ersity of Wisconsin.
- Scheufele, D. A. (2002). Examining differential gains from mass media and their implications for participatory behavior. *Communication Research*, 29(1), 46–65.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thirty-eight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Scoppa, V., & Ponzo, M. (2008). An empirical study of happiness in Italy. *The Berkeley Electronic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8(1), 1–21.
- Seaman, P., & Sweeting, H. (2004). Assisting young people's access to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families: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Youth Studies*, 7(2), 173–190.

- Sooryamoorthy, R. (2011). Communication, youth, social change and. *International Sociology*, 26(5), 604–612.
- Stevens, P., Lupton, R., Mujtaba, T., & Feinstein, L. (2007). *The development and impact of young people's social capital in secondary schools*. Centre for Research on the Wider Benefits of Learning, Research Report No. 24.
- Stone, W. (2001). Measuring social capital: Towards a theoretically informed measurement framework for researching social capital in family and community lif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4, 1–38.
- Torney–Purta, J., & Vermeer, S. (2004). *Developing citizenship competencies from kindergarten through grade 12: A background paper for policymakers and educators*. Denver: National Center for Learning and Citizenship.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 (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Turchik, J. A., & Gidycz, C. A. (2012). Exploring the intention–behavior relationship in the prediction of sexual risk behaviors: Can it be strengthened? *Journal of Sex Research*, 49(1), 50–60.
- Uphoff, N. (1999).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P. Dasgupta, & I.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World Bank.
- Valkenburg, P. M. (2004). *Children's responses to the screen: A media psychological approac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Van den Beemt, A., Akkermant, S., & Simonst, P. R. J. (2011). Patterns of interactive media use among contemporary youth.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7(2), 103–118.
- Walker, P., & Wilkes, I. (2000). *Prove it! Measuring the effect of neighborhood renewal on local people*. London: New Economics Foundation.

- Walldéen, S., & Soronen, A. (2004). *Edutainment: From television and computers to digital television*. Tutkimusraportteja Working Papers 2.
- Weible, C. M. (2006).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pproach to stakeholder analysis: Understanding the political context of California marine protected area polic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7, 95–117.
- Winter I. (2000). *Towards a theorized understanding of family life and social capital*.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Working Paper 21.
- Woolcock, M. (198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 Zeedyk, M. S., & Wallace, L. (2003). Tackling children' s road safety through edutainment: An evaluation of effectiveness. *Health Education Research*, 18(4), 493–505.



부
부

부 록

[부록 1] 국가별 주요변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

		제도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1	Austria	0.820	0.767	0.761	0.753	0.834
2	Bulgaria	0.860	0.834	0.817	0.785	0.801
3	Chile	0.843	0.902	0.829	0.794	0.776
4	Chinese Taipei	0.861	0.855	0.801	0.820	0.897
5	Colombia	0.851	0.781	0.828	0.731	0.822
6	Cyprus	0.863	0.791	0.809	0.785	0.804
7	Czech Republic	0.824	0.865	0.806	0.800	0.845
8	Denmark	0.854	0.789	0.692	0.776	0.878
9	Dominican Republic	0.855	0.722	0.817	0.757	0.785
10	Estonia	0.797	0.811	0.799	0.744	0.816
11	Finland	0.873	0.828	0.788	0.819	0.866
12	Greece	0.848	0.792	0.696	0.704	0.779
13	Guatemala	0.847	0.725	0.859	0.754	0.795
14	Hong Kong	0.848	0.890	0.832	0.817	0.908
15	Indonesia	0.800	0.694	0.754	0.732	0.681
16	Ireland	0.818	0.838	0.774	0.818	0.828
17	Italy	0.802	0.815	0.807	0.746	0.764
18	Korea	0.831	0.798	0.824	0.855	0.844
19	Latvia	0.793	0.809	0.775	0.745	0.823
20	Liechtenstein	0.856	0.779	0.730	0.757	0.888
21	Lithuania	0.786	0.797	0.814	0.776	0.816
22	Luxembourg	0.842	0.832	0.808	0.792	0.846
23	Malta	0.801	0.703	0.798	0.770	0.827
24	Mexico	0.849	0.772	0.843	0.766	0.832
25	Netherlands	0.839	0.835	0.776	0.797	0.860
26	New Zealand	0.853	0.823	0.843	0.844	0.843
27	Norway	0.848	0.869	0.781	0.829	0.856
28	Paraguay	0.814	0.732	0.765	0.759	0.733
29	Poland	0.851	0.799	0.774	0.811	0.851
30	Russian Federation	0.814	0.819	0.839	0.766	0.776
31	Slovak Republic	0.828	0.835	0.800	0.790	0.832
32	Slovenia	0.865	0.831	0.772	0.782	0.836
33	Spain	0.829	0.830	0.810	0.760	0.826
34	Sweden	0.893	0.857	0.784	0.822	0.872
35	Switzerland	0.835	0.859	0.794	0.765	0.843
36	Thailand	0.828	0.817	0.830	0.824	0.899
37	England	0.839	0.868	0.843	0.833	0.837
38	Belgium(Flemish)	0.828	0.777	0.817	0.788	0.862
	전체	0.849	0.821	0.816	0.788	0.832

Note : Liechtenstein은 상설군대를 두고 있지 않아, 제도신뢰 중 군대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계산함.

[부록 2] 국가별 다중회귀분석

Austri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7	.009	-.015	.439	-.021	.014	-.029	.146	-.028	.012	-.043	.018
서적	.005	.009	.012	.547	.006	.014	.010	.643	.014	.011	.024	.216
컴퓨터, 인터넷	-.012	.009	-.027	.203	-.027	.014	-.041	.052	-.024	.011	-.043	.03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6	.010	.097	.000	.021	.016	.030	.180	.071	.013	.112	.000
신문	.008	.010	.017	.422	.036	.015	.052	.015	.045	.012	.074	.000
인터넷	.019	.011	.034	.093	.037	.018	.043	.035	.027	.014	.035	.058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3	.009	-.033	.125	.008	.013	.013	.552	.017	.011	.031	.114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8	.024	.014	.462	-.032	.037	-.016	.385	.005	.029	.003	.862
모친 가정생활	.162	.052	.058	.002	.169	.080	.040	.035	.180	.064	.049	.005
국내이슈 대화	.019	.012	.037	.099	-.005	.018	-.007	.767	.089	.014	.130	.000
국제이슈 대화	.005	.012	.009	.659	.004	.018	.004	.836	.013	.015	.018	.368
통제변인												
나이	-.031	.019	-.031	.103	-.069	.029	-.045	.019	-.045	.024	-.034	.058
성별	-.022	.022	-.021	.316	-.040	.034	-.025	.235	-.058	.027	-.041	.033
소장도서	-.015	.008	-.039	.065	.008	.012	.015	.499	.058	.010	.117	.000
기대교육수준	-.009	.011	-.017	.420	-.040	.016	-.050	.015	.042	.013	.061	.001
부친교육수준	-.004	.013	-.007	.754	.020	.019	.023	.307	.019	.015	.025	.232
모친교육수준	-.001	.012	-.001	.948	.010	.019	.012	.596	.041	.015	.055	.007
상수	3.046	.301			3.489	.461			2.748	.371		
F(df)	5.415***(17)				3.149***(17)				31.268***(17)			
R ² (adjusted R ²)	.031(.026)				.019(.013)				.158(.153)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6	.012	-.026	.175	-.008	.011	-.013	.470	.039	.015	.050	.008
서적	-.027	.011	-.049	.016	.033	.010	.064	.001	-.046	.014	-.067	.001
컴퓨터, 인터넷	-.029	.011	-.054	.010	-.023	.010	-.044	.026	-.004	.014	-.005	.798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8	.013	.045	.036	.041	.012	.072	.001	-.009	.016	-.011	.589
신문	.014	.012	.023	.262	.008	.011	.014	.493	-.008	.015	-.010	.617
인터넷	.051	.014	.070	.000	.064	.013	.093	.000	.054	.018	.059	.003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36	.011	.070	.001	.014	.010	.029	.147	.090	.013	.141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7	.030	.005	.802	-.048	.027	-.031	.079	.001	.037	.001	.968
모친 가정생활	.051	.065	.014	.438	.107	.060	.032	.075	-.099	.081	-.022	.221
국내이슈 대화	.065	.015	.098	.000	.064	.013	.103	.000	-.023	.018	-.027	.203
국제이슈 대화	.002	.015	.003	.884	.049	.014	.073	.000	-.014	.018	-.015	.465
통제변인												
나이	.082	.024	.064	.001	.050	.022	.042	.022	.083	.030	.052	.005
성별	-.195	.027	-.145	.000	.021	.025	.017	.404	-.356	.034	-.211	.000
소장도서	.004	.010	.008	.700	.038	.009	.084	.000	.021	.012	.034	.097
기대교육수준	-.036	.013	-.054	.008	.019	.012	.030	.121	-.063	.017	-.075	.000
부친교육수준	.004	.016	.005	.821	.020	.014	.029	.168	.022	.019	.024	.267
모친교육수준	.010	.015	.014	.507	.038	.014	.057	.006	-.021	.019	-.023	.273
상수	.864	.377			.926	.345			.704	.466		
F(df)	11.238***(17)				22.693***(17)				17.339***(17)			
R ² (adjusted R ²)	.063(.057)				.120(.114)				.094(.089)			

Bulgari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9	.010	-.018	.339	-.005	.015	-.006	.735	.003	.013	.004	.820
서적	.051	.010	.100	.000	.039	.016	.051	.014	.028	.014	.039	.050
컴퓨터, 인터넷	-.022	.010	-.047	.026	-.026	.015	-.037	.081	-.047	.013	-.074	.00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4	.011	.045	.025	.009	.016	.012	.570	.084	.015	.115	.000
신문	.014	.011	.025	.226	.050	.017	.061	.003	.030	.015	.040	.048
인터넷	.044	.010	.087	.000	.020	.016	.027	.196	.032	.014	.046	.02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3	.009	-.029	.145	.020	.013	.031	.130	.005	.012	.009	.651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93	.029	.062	.001	.146	.044	.065	.001	.021	.040	.010	.592
모친 가정생활	.001	.040	.000	.983	-.039	.061	-.013	.523	.127	.055	.045	.021
국내이슈 대화	-.011	.012	-.018	.365	-.021	.018	-.024	.251	.081	.016	.100	.000
국제이슈 대화	.031	.011	.055	.007	.029	.017	.034	.097	.031	.016	.039	.049
통제변인												
나이	-.001	.024	-.001	.951	.025	.036	.013	.487	.013	.033	.007	.687
성별	-.004	.023	-.003	.857	-.160	.035	-.091	.000	.071	.031	.044	.022
소장도서	-.037	.009	-.091	.000	-.001	.013	-.001	.958	.002	.012	.004	.865
기대교육수준	-.005	.012	-.008	.685	-.024	.018	-.028	.187	.075	.016	.095	.000
부친교육수준	-.004	.013	-.007	.777	.023	.020	.029	.259	.029	.018	.040	.104
모친교육수준	-.058	.013	-.119	.000	-.045	.019	-.061	.019	-.013	.017	-.019	.444
상수	2.764	.366			2.306	.558			1.804	.499		
F(df)	12.091***(17)				4.326***(17)				15.657***(17)			
R ² (adjusted R ²)	.068(.063)				.026(.020)				.087(.081)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3	.011	-.040	.034	-.007	.010	-.014	.466	-.015	.014	-.021	.265
서적	.000	.012	.000	.998	.019	.011	.035	.077	-.062	.015	-.087	.000
컴퓨터, 인터넷	-.037	.011	-.068	.001	-.033	.010	-.068	.001	-.013	.014	-.020	.342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01	.012	.002	.917	.042	.011	.077	.000	-.022	.015	-.029	.148
신문	.014	.013	.022	.270	.031	.011	.055	.006	.006	.016	.008	.696
인터넷	.046	.012	.078	.000	.042	.010	.082	.000	.021	.015	.029	.154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2	.010	.024	.229	.018	.009	.040	.046	.069	.012	.115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4	.034	-.002	.907	-.021	.030	-.014	.475	.002	.041	.001	.953
모친 가정생활	-.052	.047	-.022	.264	.043	.041	.020	.291	-.036	.057	-.013	.523
국내이슈 대화	.078	.014	.115	.000	.045	.012	.075	.000	.017	.017	.020	.322
국제이슈 대화	.005	.013	.008	.700	.021	.012	.036	.076	-.024	.016	-.030	.142
통제변인												
나이	.018	.028	.012	.516	-.001	.024	-.001	.976	-.029	.034	-.016	.386
성별	-.066	.026	-.049	.013	-.025	.023	-.021	.289	-.236	.032	-.144	.000
소장도서	-.044	.010	-.094	.000	.042	.009	.100	.000	.028	.012	.048	.026
기대교육수준	-.016	.014	-.024	.249	.025	.012	.042	.041	-.022	.017	-.027	.187
부친교육수준	.010	.015	.016	.510	.015	.013	.028	.259	.005	.019	.006	.809
모친교육수준	-.062	.015	-.109	.000	-.024	.013	-.048	.063	-.030	.018	-.043	.097
상수	2.133	.426			2.099	.375			2.805	.520		
F(df)	11.227***(17)				12.961***(17)				7.435***(17)			
R ² (adjusted R ²)	.064(.058)				.073(.067)				.043(.037)			

Chile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7	.007	-.035	.018	.022	.011	.029	.052	-.025	.012	-.029	.043
서적	.024	.009	.042	.007	-.002	.014	-.003	.873	.030	.014	.031	.041
컴퓨터, 인터넷	-.024	.007	-.062	.001	-.025	.011	-.042	.023	-.017	.012	-.025	.157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9	.009	.052	.001	-.010	.013	-.012	.448	.097	.014	.103	.000
신문	.015	.008	.030	.060	.035	.013	.044	.006	.009	.014	.010	.498
인터넷	.032	.010	.053	.001	.047	.015	.051	.002	.040	.016	.039	.012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4	.007	-.036	.044	.026	.011	.042	.019	-.022	.012	-.033	.056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47	.018	.039	.008	.073	.028	.040	.009	.100	.029	.049	.001
모친 가정생활	-.004	.032	-.002	.897	-.032	.049	-.010	.512	-.025	.052	-.007	.640
국내이슈 대화	.008	.009	.016	.339	-.001	.014	-.001	.934	.096	.015	.109	.000
국제이슈 대화	.044	.009	.081	.000	.014	.014	.017	.336	.066	.015	.072	.000
통제변인												
나이	-.047	.014	-.050	.001	-.009	.022	-.006	.681	-.034	.023	-.021	.148
성별	-.038	.017	-.034	.025	-.071	.026	-.042	.007	.014	.028	.007	.614
소장도서	-.025	.007	-.054	.001	-.016	.012	-.022	.182	.004	.012	.006	.726
기대교육수준	.009	.010	.013	.388	-.037	.016	-.038	.017	.060	.017	.055	.000
부친교육수준	.000	.009	.001	.965	.010	.014	.014	.482	.049	.014	.063	.001
모친교육수준	-.005	.009	-.011	.582	.000	.014	.000	.994	.023	.015	.029	.122
상수	3.358	.214			2.650	.335			2.506	.357		
F(df)	12,354***(17)				3,238***(17)				25,613***(17)			
R ² (adjusted R ²)	.044(.040)				.012(.008)				.087(.083)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8	.010	-.041	.006	-.002	.009	-.003	.832	.022	.011	.029	.045
서적	.010	.012	.014	.387	.066	.010	.099	.000	-.032	.013	-.038	.014
컴퓨터, 인터넷	-.024	.010	-.045	.013	-.013	.008	-.027	.134	.024	.011	.042	.022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1	.012	.014	.350	.057	.010	.085	.000	-.037	.013	-.044	.004
신문	.005	.011	.007	.673	.019	.010	.030	.052	-.009	.012	-.012	.450
인터넷	.061	.013	.074	.000	.048	.011	.066	.000	-.001	.014	-.001	.956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2	.010	.003	.848	.020	.008	.042	.017	.043	.010	.075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20	.024	-.012	.421	-.033	.021	-.023	.116	-.063	.026	-.036	.016
모친 가정생활	.014	.043	.005	.742	.030	.037	.012	.426	-.028	.047	-.009	.550
국내이슈 대화	.082	.012	.116	.000	.039	.010	.062	.000	.019	.013	.025	.134
국제이슈 대화	.029	.013	.039	.021	.053	.011	.080	.000	-.005	.014	-.006	.706
통제변인												
나이	.038	.019	.030	.046	.010	.017	.009	.557	.031	.021	.022	.133
성별	-.079	.023	-.052	.001	.049	.020	.036	.015	-.170	.025	-.103	.000
소장도서	-.004	.010	-.006	.732	.011	.009	.020	.214	-.026	.011	-.038	.021
기대교육수준	-.016	.014	-.018	.238	.047	.012	.060	.000	-.053	.015	-.056	.000
부친교육수준	-.020	.012	-.031	.102	-.003	.010	-.005	.794	-.030	.013	-.044	.022
모친교육수준	-.023	.012	-.037	.055	-.004	.010	-.006	.738	-.037	.013	-.053	.006
상수	1.522	.294			1.811	.253			2.112	.319		
F(df)	11,737***(17)				23,666***(17)				12,370***(17)			
R ² (adjusted R ²)	.042(.038)				.081(.077)				.044(.040)			

Chinese Taipei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9	.007	-.043	.007	.002	.010	.002	.883	-.040	.009	-.066	.000
서적	.014	.007	.032	.037	.014	.010	.022	.161	.049	.009	.078	.000
컴퓨터, 인터넷	.007	.007	.020	.310	-.027	.011	-.050	.012	-.009	.009	-.017	.347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0	.009	.072	.000	.011	.014	.013	.438	.077	.012	.099	.000
신문	.020	.008	.043	.008	.004	.012	.006	.729	.026	.010	.040	.009
인터넷	.004	.007	.009	.585	.007	.011	.011	.506	.025	.010	.038	.012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11	.007	-.030	.099	.039	.010	.071	.000	-.020	.009	-.039	.023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51	.020	.036	.013	.001	.031	.000	.977	.042	.027	.021	.118
모친 가정생활	.026	.025	.015	.304	.055	.038	.022	.145	.064	.033	.027	.054
국내이슈 대화	-.005	.009	-.009	.573	.008	.013	.010	.547	.090	.012	.122	.000
국제이슈 대화	.021	.009	.041	.015	.000	.013	.000	.989	.015	.011	.021	.200
통제변인												
나이	-.008	.023	-.005	.731	.000	.035	.000	.989	.014	.031	.006	.647
성별	-.018	.015	-.017	.240	.047	.023	.031	.038	.001	.020	.001	.967
소장도서	-.004	.006	-.011	.502	-.001	.009	-.002	.899	.020	.008	.039	.011
기대교육수준	.009	.009	.015	.341	-.041	.014	-.046	.004	.116	.012	.139	.000
부친교육수준	.027	.008	.060	.001	.032	.012	.047	.010	.011	.011	.017	.330
모친교육수준	-.019	.009	-.038	.035	-.026	.013	-.036	.049	.002	.012	.004	.832
상수	2.409	.335			2.443	.505			1.942	.441		
F(df)	7.711***(17)				2.680***(17)				45.519***(17)			
R ² (adjusted R ²)	.026(.023)				.009(.006)				.137(.134)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34	.008	-.063	.000	-.031	.008	-.059	.000	.000	.009	.000	.990
서적	-.003	.008	-.005	.721	.041	.008	.074	.000	-.042	.009	-.069	.000
컴퓨터, 인터넷	.011	.009	.024	.214	-.018	.009	-.041	.034	.017	.010	.034	.077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2	.011	-.017	.279	.020	.011	.028	.075	-.025	.012	-.032	.046
신문	.018	.009	.031	.055	.026	.009	.045	.005	.014	.010	.021	.186
인터넷	.004	.009	.006	.681	.041	.009	.071	.000	-.006	.010	-.010	.541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06	.008	.014	.445	.009	.008	.021	.245	.028	.009	.055	.002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8	.025	.022	.122	.003	.025	.002	.889	-.031	.028	-.016	.270
모친 가정생활	-.036	.031	-.017	.245	.030	.030	.014	.322	.029	.034	.012	.400
국내이슈 대화	.066	.011	.101	.000	.055	.011	.084	.000	.004	.012	.005	.762
국제이슈 대화	.029	.011	.045	.007	.014	.011	.022	.186	-.027	.012	-.038	.023
통제변인												
나이	-.070	.028	-.035	.013	.001	.028	.001	.966	.007	.032	.003	.825
성별	-.202	.018	-.161	.000	-.170	.018	-.135	.000	-.211	.020	-.149	.000
소장도서	-.004	.007	-.008	.637	.022	.007	.047	.004	-.001	.008	-.002	.899
기대교육수준	-.009	.012	-.012	.455	.012	.011	.017	.282	-.081	.013	-.097	.000
부친교육수준	-.020	.010	-.036	.049	-.001	.010	-.002	.890	-.001	.011	-.002	.924
모친교육수준	.006	.011	.010	.565	-.010	.011	-.016	.346	-.010	.012	-.015	.388
상수	2.986	.407			2.114	.406			1.964	.454		
F(df)	14.416***(17)				20.242***(17)				19.641***(17)			
R ² (adjusted R ²)	.048(.045)				.066(.063)				.064(.061)			

Colombi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3	.006	-.028	.043	-.020	.010	-.028	.050	-.011	.007	-.022	.114
서적	.020	.008	.037	.009	.024	.012	.029	.046	.015	.009	.026	.079
컴퓨터, 인터넷	-.006	.007	-.015	.433	.002	.011	.003	.864	-.002	.008	-.004	.823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5	.008	.059	.000	.015	.013	.017	.250	.065	.010	.096	.000
신문	.033	.007	.065	.000	.030	.012	.038	.011	.007	.008	.012	.393
인터넷	.050	.008	.088	.000	.034	.013	.039	.009	.040	.009	.063	.000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27	.007	-.073	.000	-.006	.011	-.010	.590	-.015	.008	-.035	.063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9	.015	.017	.213	.024	.025	.014	.332	.006	.017	.005	.712
모친 가정생활	.035	.021	.023	.100	.034	.034	.014	.320	-.026	.024	-.015	.291
국내이슈 대화	.028	.008	.053	.000	.004	.013	.005	.730	.054	.009	.091	.000
국제이슈 대화	.030	.008	.057	.000	.038	.013	.046	.003	.001	.009	.002	.919
통제변인												
나이	-.016	.008	-.030	.033	.015	.012	.017	.229	-.015	.009	-.025	.082
성별	-.110	.015	-.101	.000	-.104	.025	-.061	.000	-.002	.017	-.002	.903
소장도서	-.023	.007	-.047	.002	-.015	.012	-.019	.211	.008	.008	.015	.326
기대교육수준	-.020	.009	-.029	.032	-.032	.015	-.031	.029	.019	.010	.026	.065
부친교육수준	.005	.005	.016	.341	-.001	.009	-.003	.868	.008	.006	.021	.210
모친교육수준	.008	.006	.025	.151	-.007	.009	-.014	.419	.012	.006	.031	.076
상수	2.817	.131			2.269	.211			3.139	.150		
F(df)	21.277***(17)				5.674***(17)				13.207***(17)			
R ² (adjusted R ²)	.065(.062)				.018(.015)				.041(.038)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5	.008	-.040	.004	-.014	.006	-.030	.028	-.001	.009	-.002	.885
서적	.039	.010	.056	.000	.046	.008	.088	.000	-.003	.011	-.004	.766
컴퓨터, 인터넷	-.034	.009	-.069	.000	-.017	.007	-.045	.017	-.001	.010	-.003	.883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07	.011	-.008	.550	.035	.008	.059	.000	-.048	.012	-.058	.000
신문	.037	.010	.055	.000	.031	.007	.062	.000	.011	.010	.016	.263
인터넷	.064	.011	.085	.000	.043	.008	.077	.000	.005	.012	.006	.686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18	.009	-.036	.053	.002	.007	.006	.733	.019	.010	.037	.052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5	.020	-.010	.458	.000	.015	.000	.979	.026	.022	.017	.237
모친 가정생활	.000	.028	.000	.997	.017	.021	.011	.432	.006	.030	.003	.837
국내이슈 대화	.064	.011	.092	.000	.051	.008	.098	.000	-.004	.011	-.005	.740
국제이슈 대화	.030	.010	.043	.004	.022	.008	.042	.005	-.020	.011	-.028	.068
통제변인												
나이	.035	.010	.048	.001	.000	.008	.000	.986	.043	.011	.057	.000
성별	-.073	.020	-.050	.000	-.032	.015	-.030	.034	-.150	.022	-.099	.000
소장도서	-.030	.010	-.047	.002	.015	.007	.031	.039	-.014	.010	-.021	.168
기대교육수준	-.027	.012	-.031	.025	-.002	.009	-.003	.849	-.031	.013	-.034	.016
부친교육수준	-.004	.007	-.009	.615	.001	.005	.003	.862	-.014	.008	-.031	.073
모친교육수준	.008	.008	.019	.279	.005	.006	.014	.424	-.008	.008	-.018	.322
상수	1.832	.175			2.395	.131			1.634	.185		
F(df)	18.882***(17)				22.492***(17)				7.871***(17)			
R ² (adjusted R ²)	.058(.055)				.068(.065)				.025(.022)			

Cyprus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8	.010	-.016	.405	-.011	.016	-.014	.480	-.002	.013	-.002	.901
서적	.061	.012	.101	.000	.051	.018	.057	.005	.035	.016	.044	.027
컴퓨터, 인터넷	-.030	.011	-.062	.006	-.033	.017	-.045	.053	-.019	.014	-.029	.187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64	.011	.121	.000	.043	.018	.054	.016	.074	.015	.106	.000
신문	-.005	.015	-.007	.756	-.058	.024	-.054	.015	.040	.020	.042	.046
인터넷	.052	.013	.082	.000	.055	.021	.058	.008	.028	.018	.033	.115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13	.010	-.028	.213	.036	.016	.053	.022	-.038	.013	-.064	.004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46	.029	.031	.111	-.010	.045	-.004	.829	.028	.038	.014	.460
모친 가정생활	.023	.050	.009	.638	.007	.076	.002	.931	-.065	.065	-.019	.318
국내이슈 대화	.010	.013	.016	.439	.014	.020	.015	.491	.057	.017	.070	.001
국제이슈 대화	.026	.013	.042	.053	.018	.020	.019	.388	.062	.017	.076	.000
통제변인												
나이	-.019	.028	-.013	.498	.053	.043	.023	.225	-.022	.037	-.011	.551
성별	-.053	.025	-.043	.035	-.117	.039	-.064	.002	.020	.033	.012	.545
소장도서	-.017	.009	-.039	.051	-.004	.014	-.006	.775	.008	.012	.014	.463
기대교육수준	-.002	.011	-.003	.872	.021	.017	.024	.232	.059	.015	.078	.000
부친교육수준	.012	.011	.024	.283	-.005	.018	-.007	.775	.044	.015	.066	.004
모친교육수준	-.004	.011	-.008	.712	.020	.017	.027	.239	.006	.015	.008	.704
상수	2.485	.404			1.476	.620			2.602	.528		
F(df)	11.853***(17)				3.166***(17)				16.395***(17)			
R ² (adjusted R ²)	.070(.064)				.020(.013)				.094(.088)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7	.013	-.025	.190	.012	.011	.021	.260	.036	.015	.046	.016
서적	.019	.015	.025	.213	.034	.013	.052	.008	-.051	.018	-.058	.004
컴퓨터, 인터넷	-.012	.014	-.019	.399	-.032	.012	-.059	.007	.008	.016	.011	.612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3	.015	.049	.023	.029	.012	.051	.017	-.026	.017	-.033	.131
신문	.054	.020	.058	.006	.033	.016	.042	.045	.030	.023	.028	.187
인터넷	.066	.017	.081	.000	.045	.014	.065	.002	.010	.020	.011	.617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25	.013	.045	.049	.017	.011	.034	.124	.100	.015	.151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9	.037	-.005	.798	.001	.031	.001	.965	-.059	.043	-.027	.166
모친 가정생활	-.045	.063	-.014	.478	.030	.053	.011	.573	.073	.073	.019	.320
국내이슈 대화	.082	.017	.104	.000	.054	.014	.081	.000	-.001	.019	-.002	.941
국제이슈 대화	.019	.017	.024	.267	.090	.014	.134	.000	-.032	.020	-.035	.099
통제변인												
나이	-.002	.036	-.001	.966	.019	.030	.012	.532	.032	.042	.014	.441
성별	-.226	.032	-.145	.000	-.018	.027	-.013	.504	-.327	.037	-.181	.000
소장도서	.020	.011	.035	.074	.032	.009	.066	.001	.049	.013	.074	.000
기대교육수준	-.012	.014	-.017	.401	.034	.012	.055	.005	-.011	.017	-.013	.514
부친교육수준	.013	.014	.020	.372	.021	.012	.039	.083	-.048	.017	-.065	.004
모친교육수준	-.024	.014	-.038	.088	.006	.012	.010	.642	.009	.017	.012	.589
상수	1.951	.512			1.494	.430			1.540	.597		
F(df)	13.886***(17)				18.807***(17)				12.565***(17)			
R ² (adjusted R ²)	.080(.075)				.106(.100)				.073(.068)			

Czech Republic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4	.009	.043	.007	.019	.014	.022	.181	-.015	.013	-.016	.273
서적	.027	.008	.058	.001	.019	.013	.027	.126	.051	.012	.067	.000
컴퓨터, 인터넷	-.035	.009	-.074	.000	-.022	.014	-.031	.105	-.001	.013	-.001	.956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2	.009	.082	.000	-.003	.014	-.004	.828	.096	.013	.114	.000
신문	.014	.009	.027	.109	.025	.014	.031	.078	.031	.013	.036	.021
인터넷	.041	.009	.081	.000	.019	.014	.024	.170	.043	.013	.053	.00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9	.007	-.024	.189	.017	.011	.028	.137	-.019	.011	-.029	.084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8	.019	.031	.045	.063	.030	.033	.035	.100	.029	.049	.001
모친 가정생활	-.012	.037	-.005	.742	-.043	.058	-.012	.457	.070	.056	.018	.210
국내이슈 대화	.020	.012	.031	.083	-.003	.018	-.003	.865	.173	.018	.163	.000
국제이슈 대화	.037	.011	.062	.000	.022	.017	.024	.176	.029	.016	.029	.073
통제변인												
나이	-.003	.017	-.003	.840	.008	.027	.005	.774	-.060	.026	-.033	.021
성별	.042	.018	.040	.021	.070	.029	.043	.015	-.031	.028	-.018	.269
소장도서	-.028	.008	-.065	.000	-.037	.012	-.055	.002	.069	.011	.097	.000
기대교육수준	-.005	.009	-.010	.543	-.034	.014	-.042	.014	.130	.013	.151	.000
부친교육수준	.014	.011	.022	.193	.010	.017	.011	.546	.058	.017	.055	.001
모친교육수준	-.005	.011	-.007	.688	-.008	.018	-.008	.647	.014	.017	.013	.412
상수	2.404	.268			2.579	.421			1.781	.404		
F(df)	13.737***(17)				3.178***(17)				59.785***(17)			
R ² (adjusted R ²)	.054(.050)				.013(.009)				.198(.195)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2	.010	.019	.221	.006	.011	.009	.562	.025	.014	.028	.079
서적	-.011	.009	-.021	.222	.035	.010	.061	.000	-.067	.013	-.087	.000
컴퓨터, 인터넷	-.026	.010	-.048	.011	-.031	.011	-.054	.003	.004	.014	.006	.77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7	.010	.029	.090	.006	.011	.009	.591	-.051	.014	-.061	.000
신문	.026	.010	.044	.010	.019	.011	.029	.081	.014	.015	.017	.329
인터넷	.030	.010	.053	.002	.054	.010	.087	.000	-.033	.014	-.040	.02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2	.008	.004	.821	.025	.009	.052	.004	.079	.012	.123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23	.022	.016	.297	-.013	.023	-.009	.558	-.022	.031	-.011	.469
모친 가정생활	.001	.042	.001	.972	.006	.044	.002	.892	.047	.060	.012	.438
국내이슈 대화	.102	.013	.137	.000	.098	.014	.123	.000	-.006	.019	-.006	.743
국제이슈 대화	.062	.012	.090	.000	.032	.013	.044	.011	-.014	.017	-.014	.421
통제변인												
나이	.023	.020	.018	.237	-.034	.021	-.025	.103	.022	.028	.012	.430
성별	-.031	.021	-.025	.140	.048	.022	.037	.030	-.234	.030	-.134	.000
소장도서	.006	.009	.012	.485	.036	.009	.066	.000	.030	.012	.042	.015
기대교육수준	.001	.010	.001	.937	.059	.011	.091	.000	-.035	.014	-.040	.016
부친교육수준	-.001	.013	-.001	.949	-.011	.013	-.014	.398	.002	.018	.002	.898
모친교육수준	.004	.013	.005	.749	-.001	.013	-.001	.965	.002	.018	.002	.899
상수	1.057	.306			2.252	.321			1.669	.438		
F(df)	17.020***(17)				25.173***(17)				15.200***(17)			
R ² (adjusted R ²)	.066(.062)				.094(.090)				.059(.055)			

Denmark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2	.008	.004	.809	-.013	.011	-.021	.223	-.012	.010	-.018	.247
서적	.008	.008	.017	.329	.013	.012	.019	.277	-.006	.011	-.008	.612
컴퓨터, 인터넷	-.003	.008	-.007	.676	.000	.011	.000	.993	-.012	.010	-.020	.229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59	.009	.128	.000	.028	.012	.044	.024	.062	.011	.095	.000
신문	.008	.009	.017	.340	-.006	.013	-.008	.665	.017	.012	.025	.139
인터넷	.011	.008	.024	.171	.017	.012	.027	.142	.044	.011	.069	.00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6	.006	-.044	.011	.002	.009	.003	.863	-.016	.008	-.031	.056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45	.019	.037	.020	.049	.028	.028	.083	-.021	.026	-.012	.413
모친 가정생활	.097	.036	.043	.007	-.030	.052	-.009	.564	.101	.047	.032	.032
국내이슈 대화	.000	.010	.000	.982	.047	.014	.070	.001	.113	.013	.167	.000
국제이슈 대화	.007	.010	.013	.499	-.007	.015	-.010	.618	.040	.013	.055	.003
통제변인												
나이	-.044	.020	-.036	.026	-.015	.029	-.009	.608	-.019	.026	-.011	.461
성별	-.041	.017	-.043	.014	.038	.024	.029	.115	.134	.022	.101	.000
소장도서	.018	.006	.050	.005	.017	.009	.034	.067	.050	.008	.100	.000
기대교육수준	.073	.011	.111	.000	-.001	.016	-.001	.937	.139	.015	.149	.000
부친교육수준	.028	.009	.058	.001	.032	.013	.047	.013	.004	.012	.006	.742
모친교육수준	.037	.010	.069	.000	.035	.014	.046	.015	.065	.013	.086	.000
상수	2.675	.309			2.499	.453			1.951	.407		
F(df)	22.984***(17)				6.176***(17)				60.138***(17)			
R ² (adjusted R ²)	.096(.092)				.028(.023)				.218(.214)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2	.009	-.040	.013	-.025	.009	-.046	.003	-.005	.011	-.008	.617
서적	-.005	.009	-.008	.625	.054	.009	.094	.000	-.021	.012	-.031	.075
컴퓨터, 인터넷	.000	.009	.001	.970	-.007	.009	-.013	.449	.017	.011	.029	.112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5	.010	.048	.010	.017	.010	.031	.089	-.051	.012	-.079	.000
신문	.035	.010	.064	.000	.017	.010	.030	.091	.024	.013	.036	.053
인터넷	.035	.009	.067	.000	.037	.009	.070	.000	-.008	.011	-.013	.473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3	.007	.030	.078	-.004	.007	-.010	.559	.051	.009	.099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67	.022	-.048	.002	-.042	.022	-.029	.058	-.024	.028	-.014	.382
모친 가정생활	.010	.041	.004	.799	-.016	.041	-.006	.702	-.120	.051	-.038	.019
국내이슈 대화	.110	.011	.201	.000	.084	.011	.149	.000	-.009	.014	-.013	.510
국제이슈 대화	-.001	.012	-.001	.945	.019	.012	.032	.100	.000	.015	.000	.982
통제변인												
나이	-.018	.022	-.013	.424	-.021	.023	-.015	.352	-.047	.028	-.027	.094
성별	.011	.019	.010	.567	.170	.019	.153	.000	-.259	.024	-.194	.000
소장도서	.029	.007	.073	.000	.036	.007	.087	.000	.014	.009	.029	.114
기대교육수준	.035	.013	.045	.007	.039	.013	.050	.003	-.103	.016	-.110	.000
부친교육수준	-.002	.010	-.003	.879	.013	.010	.022	.201	-.008	.013	-.012	.521
모친교육수준	.005	.011	.008	.659	.003	.011	.005	.782	-.009	.014	-.012	.499
상수	1.857	.353			2.002	.354			2.872	.443		
F(df)	26.807***(17)				38.834***(17)				17.967***(17)			
R ² (adjusted R ²)	.111(.106)				.153(.149)				.077(.073)			

Dominican Republic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5	.009	-.060	.004	-.043	.014	-.064	.002	.006	.010	.013	.546
서적	.013	.010	.028	.185	.009	.017	.011	.614	.011	.012	.020	.353
컴퓨터, 인터넷	-.008	.010	-.020	.421	.000	.016	.001	.982	-.017	.011	-.039	.119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0	.011	.057	.008	.006	.019	.007	.756	.057	.013	.094	.000
신문	.032	.010	.066	.003	.027	.017	.035	.115	.001	.012	.001	.949
인터넷	.022	.011	.043	.057	.016	.019	.019	.397	.027	.013	.047	.038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3	.009	-.008	.733	.015	.016	.023	.321	-.008	.011	-.018	.447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7	.023	-.033	.101	-.058	.038	-.031	.124	-.044	.026	-.035	.090
모친 가정생활	.074	.028	.055	.007	.036	.046	.016	.434	-.009	.032	-.006	.766
국내이슈 대화	.012	.012	.020	.326	.017	.020	.019	.380	.036	.014	.056	.008
국제이슈 대화	.008	.011	.017	.437	-.005	.018	-.006	.796	.020	.012	.036	.099
통제변인												
나이	.007	.010	.013	.522	.004	.017	.004	.833	-.003	.012	-.006	.786
성별	-.141	.023	-.127	.000	-.152	.038	-.083	.000	-.041	.026	-.033	.115
소장도서	-.016	.010	-.034	.112	-.026	.017	-.032	.130	.012	.012	.022	.309
기대교육수준	-.017	.010	-.033	.101	-.042	.017	-.049	.017	.034	.012	.059	.004
부친교육수준	-.013	.009	-.033	.173	-.018	.015	-.028	.248	-.007	.011	-.017	.484
모친교육수준	.015	.009	.040	.101	.003	.015	.005	.838	.001	.010	.001	.957
상수	2.791	.177			3.013	.294			2.969	.203		
F(df)	7.222***(17)				3.088***(17)				4.487***(17)			
R ² (adjusted R ²)	.048(.041)				.021(.014)				.030(.023)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1	.012	-.019	.357	-.016	.009	-.038	.068	-.013	.013	-.021	.318
서적	.000	.015	-.001	.980	.013	.011	.025	.230	-.014	.015	-.019	.360
컴퓨터, 인터넷	-.007	.014	-.013	.595	-.021	.010	-.052	.035	-.003	.015	-.005	.826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1	.016	.054	.012	.017	.012	.031	.151	-.009	.017	-.011	.611
신문	.026	.015	.038	.086	.031	.011	.063	.004	.012	.016	.017	.434
인터넷	.017	.016	.023	.300	.036	.012	.068	.003	.015	.017	.020	.369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4	.013	.007	.779	.018	.010	.043	.067	.003	.014	.005	.845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2	.032	-.001	.956	-.026	.024	-.023	.265	.011	.034	.007	.737
모친 가정생활	.083	.039	.043	.034	.013	.029	.009	.658	.021	.042	.010	.615
국내이슈 대화	.046	.017	.056	.007	.031	.012	.052	.013	.002	.018	.002	.912
국제이슈 대화	.014	.015	.020	.359	.023	.011	.045	.041	.003	.016	.005	.837
통제변인												
나이	.014	.015	.020	.342	.008	.011	.014	.492	.035	.016	.047	.025
성별	-.200	.033	-.126	.000	-.092	.024	-.079	.000	-.226	.034	-.135	.000
소장도서	-.015	.015	-.022	.299	.003	.011	.006	.772	-.009	.015	-.012	.581
기대교육수준	-.029	.015	-.040	.050	.016	.011	.029	.156	-.026	.016	-.034	.097
부친교육수준	-.001	.013	-.002	.948	-.009	.010	-.022	.374	-.035	.014	-.062	.011
모친교육수준	-.004	.013	-.007	.778	-.005	.009	-.013	.589	-.003	.014	-.006	.817
상수	2.296	.253			2.605	.185			2.025	.267		
F(df)	5.574***(17)				5.718***(17)				4.896***(17)			
R ² (adjusted R ²)	.037(.031)				.038(.031)				.033(.026)			

Estoni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3	.009	.030	.154	.041	.014	.063	.003	.013	.013	.019	.353
서적	.024	.009	.059	.008	-.001	.014	-.001	.956	.028	.014	.044	.038
컴퓨터, 인터넷	-.017	.010	-.042	.084	-.027	.015	-.044	.078	-.004	.015	-.006	.801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8	.011	.103	.000	-.007	.017	-.009	.690	.073	.016	.100	.000
신문	.022	.010	.050	.031	-.009	.016	-.013	.574	.029	.015	.041	.059
인터넷	.020	.009	.049	.033	.027	.015	.044	.061	.045	.014	.070	.00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2	.008	-.004	.855	.011	.013	.020	.397	.009	.012	.016	.481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6	.019	.038	.064	.019	.030	.013	.528	-.019	.029	-.012	.524
모친 가정생활	.094	.038	.050	.014	.080	.060	.028	.183	-.029	.057	-.010	.616
국내이슈 대화	-.021	.013	-.039	.102	-.015	.020	-.018	.449	.101	.019	.119	.000
국제이슈 대화	.006	.012	.011	.630	.031	.018	.040	.094	.030	.018	.038	.093
통제변인												
나이	-.049	.021	-.049	.017	-.069	.033	-.044	.035	-.088	.031	-.056	.005
성별	-.043	.020	-.048	.035	-.047	.032	-.034	.139	.030	.031	.021	.326
소장도서	-.011	.008	-.031	.150	.006	.012	.012	.599	.001	.012	.002	.907
기대교육수준	.038	.009	.095	.000	-.006	.014	-.010	.669	.107	.013	.168	.000
부친교육수준	.009	.010	.020	.378	.022	.016	.033	.161	.046	.015	.065	.003
모친교육수준	.004	.010	.010	.664	-.007	.016	-.011	.643	.019	.015	.028	.207
상수	2.892	.330			3.396	.518			2.946	.497		
F(df)	7.842***(17)				1.705*(17)				22.923***(17)			
R ² (adjusted R ²)	.054(.047)				.012(.005)				.142(.136)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4	.011	-.008	.712	-.007	.011	-.013	.534	.023	.014	.035	.093
서적	-.017	.012	-.033	.142	.034	.011	.070	.001	-.035	.014	-.055	.012
컴퓨터, 인터넷	-.020	.013	-.039	.111	-.020	.012	-.040	.094	-.016	.015	-.024	.308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0	.014	.018	.450	.016	.013	.029	.214	-.064	.017	-.087	.000
신문	-.001	.013	-.001	.950	.025	.012	.047	.042	-.004	.016	-.006	.800
인터넷	.048	.012	.092	.000	.056	.011	.114	.000	.011	.014	.018	.429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25	.010	.056	.019	.028	.010	.067	.004	.061	.013	.110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4	.025	.012	.570	-.028	.023	-.025	.219	-.015	.030	-.010	.611
모친 가정생활	-.069	.049	-.029	.154	-.023	.045	-.010	.607	-.059	.059	-.020	.317
국내이슈 대화	.041	.016	.060	.012	.019	.015	.029	.222	-.051	.020	-.061	.009
국제이슈 대화	.014	.015	.022	.352	.027	.014	.045	.056	.031	.018	.040	.082
통제변인												
나이	.032	.026	.025	.232	.031	.025	.026	.207	.077	.032	.049	.016
성별	-.086	.026	-.076	.001	-.047	.024	-.044	.052	-.288	.031	-.204	.000
소장도서	.006	.010	.014	.511	.033	.009	.077	.000	.035	.012	.062	.003
기대교육수준	.024	.011	.047	.036	.019	.011	.040	.069	-.059	.014	-.092	.000
부친교육수준	-.012	.013	-.021	.366	-.017	.012	-.031	.169	-.017	.016	-.024	.284
모친교육수준	-.020	.013	-.036	.119	.004	.012	.009	.706	-.008	.015	-.012	.608
상수	1.441	.420		.001	1.490	.393			.986	.510		.053
F(df)	4.536***(17)				9.205***(17)				14.083***(17)			
R ² (adjusted R ²)	.032(.025)				.062(.056)				.093(.086)			

Finland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0	.009	-.021	.258	.013	.012	.020	.289	-.051	.012	-.074	.000
서적	.016	.008	.038	.054	-.016	.011	-.029	.144	.011	.011	.018	.322
컴퓨터, 인터넷	-.009	.009	-.022	.315	-.021	.012	-.039	.079	-.034	.012	-.056	.005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0	.010	.093	.000	.039	.013	.070	.002	.053	.013	.086	.000
신문	.022	.009	.052	.016	.005	.012	.009	.674	.044	.012	.073	.000
인터넷	.001	.009	.001	.951	.005	.012	.008	.718	.018	.012	.028	.137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7	.008	-.043	.045	.018	.011	.035	.111	-.006	.011	-.011	.56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84	.020	.076	.000	.020	.027	.014	.463	.117	.026	.074	.000
모친 가정생활	.054	.039	.025	.171	.117	.053	.041	.027	.142	.052	.045	.006
국내이슈 대화	-.020	.014	-.033	.149	-.084	.018	-.107	.000	.108	.018	.125	.000
국제이슈 대화	.033	.012	.063	.007	.026	.016	.038	.105	.050	.016	.066	.002
통제변인												
나이	-.041	.024	-.030	.092	-.019	.033	-.011	.554	-.019	.032	-.010	.558
성별	.003	.018	.003	.879	-.017	.024	-.014	.479	.084	.024	.065	.000
소장도서	.011	.007	.030	.133	-.001	.010	-.001	.946	.064	.010	.119	.000
기대교육수준	.030	.009	.066	.001	.001	.012	.002	.926	.081	.012	.123	.000
부친교육수준	.009	.008	.023	.273	.022	.011	.040	.058	.020	.011	.034	.069
모친교육수준	.006	.009	.013	.531	.013	.012	.022	.306	.029	.012	.045	.019
상수	3.157	.372			2.864	.499			2.291	.491		
F(df)	10.601***(17)				3.319***(17)				44.381***(17)			
R ² (adjusted R ²)	.057(.052)				.019(.013)				.203(.198)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0	.010	-.038	.043	-.020	.011	-.031	.084	.040	.015	.049	.009
서적	-.003	.009	-.006	.757	.054	.010	.096	.000	-.031	.014	-.042	.029
컴퓨터, 인터넷	-.038	.010	-.081	.000	-.039	.011	-.070	.001	-.013	.015	-.018	.395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2	.010	.025	.255	.043	.012	.076	.000	-.008	.016	-.011	.613
신문	.014	.010	.031	.151	.007	.011	.013	.518	-.026	.015	-.036	.092
인터넷	.020	.010	.041	.043	.017	.012	.029	.147	-.027	.016	-.035	.087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20	.009	.048	.023	.031	.010	.061	.003	.108	.014	.162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7	.022	.006	.750	-.019	.025	-.013	.436	-.107	.034	-.057	.001
모친 가정생활	-.016	.043	-.007	.704	-.008	.049	-.003	.874	-.043	.066	-.012	.518
국내이슈 대화	.087	.015	.132	.000	.072	.017	.092	.000	-.004	.023	-.004	.858
국제이슈 대화	.038	.013	.065	.004	.047	.015	.068	.002	-.032	.020	-.036	.115
통제변인												
나이	-.010	.026	-.006	.718	-.046	.031	-.026	.131	.011	.041	.005	.789
성별	-.055	.020	-.055	.005	.179	.023	.150	.000	-.264	.031	-.171	.000
소장도서	.026	.008	.064	.001	.049	.009	.100	.000	.033	.013	.052	.009
기대교육수준	.027	.010	.053	.006	.033	.011	.055	.003	-.066	.015	-.085	.000
부친교육수준	.005	.009	.010	.608	.006	.011	.011	.574	.024	.014	.034	.099
모친교육수준	-.006	.010	-.012	.570	.012	.012	.022	.284	-.005	.016	-.007	.732
상수	1.799	.402			2.427	.466			1.745	.628		
F(df)	15.191***(17)				28.585***(17)				13.892***(17)			
R ² (adjusted R ²)	.080(.075)				.141(.136)				.074(.068)			

Greece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8	.010	.015	.414	.001	.015	.001	.946	.019	.013	.026	.148
서적	.028	.011	.051	.008	.023	.015	.029	.134	.024	.013	.034	.070
컴퓨터, 인터넷	-.041	.009	-.093	.000	-.005	.013	-.008	.711	-.023	.011	-.039	.046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60	.011	.119	.000	.041	.015	.056	.008	.063	.013	.094	.000
신문	.030	.014	.045	.027	.027	.020	.029	.169	.024	.017	.028	.164
인터넷	.033	.013	.051	.010	.012	.019	.014	.507	.016	.016	.019	.322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4	.009	-.031	.111	.006	.013	.009	.668	-.033	.011	-.055	.004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9	.028	.013	.483	.037	.041	.017	.365	.048	.036	.024	.180
모친 가정생활	.084	.048	.033	.084	.012	.071	.003	.861	.172	.062	.050	.006
국내이슈 대화	-.051	.012	-.087	.000	-.010	.018	-.011	.586	.089	.015	.113	.000
국제이슈 대화	.046	.012	.079	.000	.027	.017	.032	.126	.008	.015	.011	.578
통제변인												
나이	-.035	.028	-.023	.215	-.042	.041	-.019	.306	-.124	.036	-.061	.001
성별	-.075	.023	-.064	.001	-.042	.034	-.025	.217	.054	.030	.034	.073
소장도서	-.011	.009	-.025	.230	-.003	.014	-.004	.845	.039	.012	.065	.001
기대교육수준	.002	.014	.003	.873	.007	.020	.007	.726	.127	.018	.140	.000
부친교육수준	-.014	.011	-.030	.191	.002	.016	.003	.885	.025	.014	.040	.075
모친교육수준	.001	.012	.001	.962	-.013	.017	-.019	.437	-.004	.015	-.006	.776
상수	2.749	.399			2.895	.586			3.602	.511		
F(df)	9.991***(17)				1.936*(17)				22.050***(17)			
R ² (adjusted R ²)	.056(.050)				.011(.005)				.115(.110)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6	.012	-.026	.175	-.012	.010	-.021	.248	.002	.015	.002	.897
서적	.016	.012	.026	.184	.026	.011	.048	.012	-.019	.016	-.023	.227
컴퓨터, 인터넷	.007	.010	.015	.465	-.001	.009	-.003	.880	.064	.013	.095	.00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06	.012	.011	.604	.024	.011	.047	.021	-.007	.016	-.009	.649
신문	.023	.016	.030	.143	.019	.014	.029	.159	-.008	.020	-.008	.699
인터넷	.038	.015	.052	.010	.045	.013	.069	.000	.026	.019	.026	.184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5	.010	.029	.143	.029	.009	.063	.001	.135	.013	.195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7	.032	-.022	.241	-.015	.028	-.010	.581	-.047	.042	-.021	.263
모친 가정생활	.036	.056	.012	.513	.026	.049	.010	.589	-.157	.073	-.040	.032
국내이슈 대화	.031	.014	.047	.024	.042	.012	.070	.001	.014	.018	.015	.460
국제이슈 대화	.025	.014	.037	.072	.047	.012	.080	.000	-.026	.018	-.029	.156
통제변인												
나이	.009	.032	.005	.785	-.051	.028	-.033	.070	.052	.043	.022	.220
성별	-.145	.027	-.108	.000	.008	.024	.007	.730	-.119	.035	-.066	.001
소장도서	.011	.011	.021	.304	.033	.009	.072	.000	.023	.014	.033	.104
기대교육수준	.001	.016	.001	.962	.048	.014	.069	.001	-.083	.021	-.079	.000
부친교육수준	.021	.013	.038	.104	.003	.011	.005	.819	-.002	.017	-.003	.888
모친교육수준	-.027	.013	-.048	.042	-.004	.012	-.008	.717	.018	.018	.024	.299
상수	1.826	.460			2.621	.403			1.524	.604		
F(df)	5.803***(17)				13.186***(17)				14.552***(17)			
R ² (adjusted R ²)	.033(.027)				.072(.067)				.079(.074)			

Guatemal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7	.008	-.037	.040	-.023	.013	-.032	.085	.001	.009	.002	.933
서적	.063	.010	.119	.000	.069	.016	.083	.000	.001	.010	.001	.942
컴퓨터, 인터넷	-.027	.008	-.070	.001	-.042	.013	-.067	.002	-.023	.009	-.056	.009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7	.009	.055	.003	-.008	.015	-.011	.577	.040	.010	.075	.000
신문	.022	.009	.043	.019	-.001	.015	-.001	.955	.044	.010	.080	.000
인터넷	.036	.011	.065	.001	.022	.017	.025	.196	.031	.012	.052	.007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06	.008	.015	.434	.026	.012	.042	.033	.011	.008	.025	.197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7	.020	.015	.407	.016	.033	.009	.624	.011	.022	.009	.630
모친 가정생활	-.026	.033	-.014	.436	-.036	.054	-.012	.508	-.030	.036	-.015	.404
국내이슈 대화	.022	.010	.043	.022	.020	.016	.025	.202	.029	.011	.052	.006
국제이슈 대화	.043	.010	.086	.000	.046	.016	.058	.003	.035	.010	.064	.001
통제변인												
나이	-.018	.010	-.033	.065	-.051	.016	-.057	.002	-.016	.011	-.027	.130
성별	-.065	.019	-.062	.001	-.129	.031	-.077	.000	.002	.021	.002	.923
소장도서	-.025	.008	-.055	.003	-.015	.014	-.021	.265	-.009	.009	-.019	.324
기대교육수준	-.021	.010	-.038	.032	-.004	.016	-.005	.793	.029	.011	.049	.007
부친교육수준	-.017	.007	-.054	.017	-.027	.012	-.054	.021	.031	.008	.088	.000
모친교육수준	-.005	.007	-.016	.486	-.002	.012	-.004	.860	-.009	.008	-.027	.239
상수	2.734	.170			3.320	.278			3.234	.186		
F(df)	15.972***(17)				5.873***(17)				9.560***(17)			
R ² (adjusted R ²)	.078(.073)				.030(.025)				.048(.043)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48	.012	-.070	.000	-.014	.009	-.028	.127	-.006	.012	-.010	.597
서적	.071	.014	.089	.000	.056	.011	.094	.000	.017	.014	.022	.236
컴퓨터, 인터넷	-.048	.012	-.081	.000	-.028	.009	-.065	.002	-.011	.012	-.019	.384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1	.014	.055	.003	.021	.010	.038	.041	-.004	.014	-.006	.741
신문	.010	.014	.013	.472	.019	.011	.033	.070	-.030	.014	-.041	.028
인터넷	.056	.016	.067	.000	.038	.012	.061	.002	.039	.016	.048	.015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15	.011	.026	.177	.021	.009	.047	.015	.034	.011	.061	.002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25	.031	.015	.409	-.030	.023	-.023	.196	-.041	.030	-.025	.177
모친 가정생활	-.070	.050	-.025	.163	-.017	.038	-.008	.654	.037	.049	.014	.449
국내이슈 대화	.043	.015	.055	.003	.041	.011	.070	.000	-.002	.015	-.003	.866
국제이슈 대화	.081	.014	.106	.000	.044	.011	.079	.000	.005	.014	.007	.701
통제변인												
나이	.019	.015	.023	.198	-.016	.011	-.026	.144	-.013	.015	-.017	.359
성별	-.111	.029	-.070	.000	-.097	.022	-.083	.000	-.187	.028	-.123	.000
소장도서	-.020	.013	-.030	.109	.008	.010	.015	.419	-.010	.013	-.016	.407
기대교육수준	-.001	.015	-.001	.961	.013	.011	.021	.240	-.001	.015	-.001	.964
부친교육수준	-.014	.011	-.029	.197	-.001	.008	-.003	.892	-.026	.011	-.056	.016
모친교육수준	-.032	.011	-.067	.003	-.010	.008	-.029	.206	-.020	.011	-.044	.061
상수	1.758	.257			2.615	.193			2.184	.253		
F(df)	17.731***(17)				11.700***(17)				5.297***(17)			
R ² (adjusted R ²)	.086(.081)				.058(.053)				.027(.022)			

Hong Kong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2	.009	-.004	.829	-.006	.014	-.009	.673	-.012	.013	-.018	.342
서적	-.007	.010	-.015	.473	.007	.014	.011	.614	.014	.013	.021	.300
컴퓨터, 인터넷	-.050	.011	-.111	.000	-.005	.016	-.007	.759	-.054	.015	-.082	.00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1	.014	.078	.002	.028	.020	.036	.163	.048	.019	.062	.011
신문	.010	.013	.020	.428	-.014	.020	-.019	.472	.080	.018	.105	.000
인터넷	.008	.011	.017	.444	-.014	.017	-.019	.396	.051	.015	.071	.001
친구제형												
휴대폰, 인터넷	.006	.009	.015	.497	.044	.013	.077	.001	-.001	.012	-.001	.959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26	.029	.019	.363	.015	.044	.007	.739	.079	.041	.038	.051
모친 가정생활	.057	.042	.027	.180	.012	.064	.004	.852	.035	.059	.011	.559
국내이슈 대화	.009	.013	.018	.493	-.007	.020	-.010	.715	.072	.019	.094	.000
국제이슈 대화	.040	.013	.077	.003	.023	.020	.030	.251	.040	.019	.052	.032
통제변인												
나이	.001	.013	.001	.961	-.036	.020	-.037	.069	-.017	.018	-.017	.371
성별	-.005	.020	-.005	.809	.015	.030	.010	.624	-.005	.028	-.003	.866
소장도서	-.010	.008	-.028	.223	.018	.013	.033	.152	.021	.012	.039	.069
기대교육수준	.033	.011	.057	.004	-.037	.017	-.044	.030	.096	.016	.114	.000
부친교육수준	.002	.010	.005	.853	.012	.015	.020	.431	.003	.014	.005	.835
모친교육수준	-.013	.011	-.029	.247	.002	.017	.002	.922	-.009	.016	-.014	.550
상수	2.495	.212			2.536	.318			2.277	.297		
F(df)	7.273***(17)				1.922*(17)				23.759***(17)			
R ² (adjusted R ²)	.046(.040)				.013(.006)				.137(.131)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5	.012	-.009	.658	-.020	.011	-.036	.072	.003	.012	.006	.782
서적	.003	.012	.006	.790	.030	.012	.053	.010	-.017	.012	-.029	.162
컴퓨터, 인터넷	-.061	.014	-.105	.000	-.047	.013	-.085	.000	-.002	.013	-.003	.907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6	.017	-.053	.039	-.005	.016	-.007	.772	-.054	.017	-.080	.002
신문	.016	.017	.024	.348	.045	.016	.071	.004	-.014	.017	-.022	.386
인터넷	.034	.014	.053	.017	.043	.013	.072	.001	-.024	.014	-.038	.085
친구제형												
휴대폰, 인터넷	.022	.011	.044	.051	.014	.011	.029	.190	.060	.011	.120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7	.037	.009	.653	-.002	.035	-.001	.954	.060	.037	.033	.104
모친 가정생활	.015	.055	.006	.784	-.008	.051	-.003	.872	.004	.054	.002	.940
국내이슈 대화	.062	.017	.092	.000	.082	.016	.128	.000	-.001	.017	-.002	.932
국제이슈 대화	.051	.017	.075	.003	.036	.016	.056	.027	.032	.017	.047	.064
통제변인												
나이	.050	.017	.059	.003	-.003	.016	-.004	.838	.038	.017	.045	.023
성별	-.152	.026	-.117	.000	-.029	.024	-.023	.234	-.193	.026	-.149	.000
소장도서	.023	.011	.048	.035	.005	.010	.012	.597	.007	.011	.015	.515
기대교육수준	.012	.015	.016	.433	.009	.014	.013	.521	-.061	.015	-.083	.000
부친교육수준	-.014	.013	-.027	.290	-.005	.012	-.010	.692	-.006	.013	-.012	.632
모친교육수준	-.008	.014	-.013	.589	-.011	.014	-.020	.406	.010	.014	.017	.492
상수	1.155	.273			2.096	.256			1.196	.270		
F(df)	8.583***(17)				12.568***(17)				10.092***(17)			
R ² (adjusted R ²)	.054(.048)				.077(.071)				.063(.057)			

Indonesi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4	.006	-.064	.000	-.024	.011	-.035	.026	.006	.008	.012	.453
서적	.002	.007	.006	.719	.022	.012	.030	.064	.020	.009	.035	.024
컴퓨터, 인터넷	-.012	.006	-.037	.050	-.008	.011	-.014	.451	-.002	.008	-.004	.826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0	.008	.041	.010	-.007	.014	-.008	.605	.040	.010	.059	.000
신문	.014	.007	.035	.031	.011	.012	.015	.345	.026	.009	.048	.003
인터넷	.006	.008	.014	.430	.031	.014	.041	.022	.001	.010	.002	.931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03	.006	-.008	.613	-.004	.010	-.007	.683	.008	.008	.017	.29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3	.018	.030	.070	.042	.032	.022	.193	.020	.024	.014	.395
모친 가정생활	.015	.025	.010	.529	-.016	.044	-.006	.714	.000	.033	.000	.998
국내이슈 대화	.005	.007	.013	.415	.001	.012	.002	.916	.031	.009	.058	.000
국제이슈 대화	.011	.006	.027	.095	-.006	.011	-.008	.606	.002	.008	.004	.786
통제변인												
나이	.007	.009	.012	.421	.001	.016	.001	.933	-.004	.012	-.005	.747
성별	-.018	.013	-.021	.180	-.068	.023	-.046	.004	-.014	.017	-.013	.421
소장도서	.013	.006	.035	.025	.020	.011	.029	.063	-.014	.008	-.026	.084
기대교육수준	.000	.006	.000	.983	-.005	.011	-.007	.643	.048	.008	.092	.000
부친교육수준	-.020	.006	-.067	.002	-.012	.012	-.023	.292	.017	.009	.042	.047
모친교육수준	-.003	.007	-.009	.675	-.027	.012	-.047	.026	.013	.009	.031	.133
상수	3.079	.138			3.063	.247			2.888	.184		
F(df)	5.268***(17)				2.729***(17)				10.968***(17)			
R ² (adjusted R ²)	.020(.016)				.010(.007)				.040(.036)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54	.009	-.094	.000	-.037	.007	-.078	.000	-.049	.010	-.074	.000
서적	-.002	.010	-.003	.843	.014	.008	.027	.089	.001	.012	.001	.931
컴퓨터, 인터넷	-.023	.009	-.048	.010	.003	.007	.007	.727	-.025	.010	-.045	.017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1	.012	-.014	.347	-.008	.010	-.013	.392	-.046	.014	-.052	.001
신문	.023	.010	.037	.019	.025	.008	.049	.002	-.011	.011	-.015	.337
인터넷	.055	.011	.084	.000	.043	.009	.079	.000	.048	.013	.064	.000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17	.009	.032	.042	.000	.007	.000	.979	.027	.010	.043	.007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26	.027	-.016	.329	.009	.022	.006	.690	.009	.031	.005	.760
모친 가정생활	.020	.037	.009	.587	-.019	.030	-.010	.532	-.104	.042	-.040	.014
국내이슈 대화	.030	.010	.049	.002	.018	.008	.035	.027	-.012	.011	-.018	.271
국제이슈 대화	.027	.010	.045	.005	.032	.008	.063	.000	.036	.011	.051	.001
통제변인												
나이	.045	.013	.051	.001	.041	.011	.056	.000	.045	.015	.045	.003
성별	-.165	.020	-.131	.000	-.115	.016	-.109	.000	-.158	.023	-.108	.000
소장도서	.020	.009	.033	.027	.023	.007	.047	.002	.022	.010	.032	.032
기대교육수준	-.014	.009	-.023	.139	-.029	.008	-.059	.000	-.060	.011	-.087	.000
부친교육수준	-.003	.010	-.006	.789	-.015	.008	-.040	.055	-.020	.011	-.038	.070
모친교육수준	-.033	.010	-.068	.001	-.014	.008	-.034	.098	-.023	.012	-.041	.048
상수	1.988	.207			2.131	.172			2.072	.239		
F(df)	14.556***(17)				14.353***(17)				14.613***(17)			
R ² (adjusted R ²)	.052(.049)				.052(.048)				.053(.049)			

Ireland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2	.010	.023	.235	.003	.015	.003	.871	-.018	.012	-.027	.140
서적	.010	.010	.021	.320	.014	.015	.020	.367	.039	.012	.065	.001
컴퓨터, 인터넷	-.016	.009	-.037	.076	-.030	.014	-.045	.036	-.033	.011	-.057	.004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0	.010	.044	.061	.013	.016	.020	.414	.044	.013	.072	.001
신문	.037	.010	.082	.000	.014	.016	.020	.383	.022	.013	.035	.088
인터넷	.027	.013	.041	.047	.016	.021	.016	.453	.014	.017	.016	.416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15	.008	-.039	.063	.046	.013	.077	.000	-.032	.010	-.060	.002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60	.026	.045	.022	.081	.042	.039	.052	.062	.034	.034	.066
모친 가정생활	.089	.052	.033	.089	.090	.082	.022	.273	.189	.066	.052	.004
국내이슈 대화	.010	.011	.021	.371	-.005	.018	-.007	.770	.066	.015	.098	.000
국제이슈 대화	.030	.012	.059	.010	-.002	.019	-.003	.895	.028	.015	.040	.062
통제변인												
나이	-.024	.022	-.021	.274	-.029	.035	-.016	.398	-.035	.028	-.022	.213
성별	.052	.021	.051	.012	.019	.033	.012	.564	.097	.026	.070	.000
소장도서	-.011	.008	-.029	.188	.010	.013	.017	.453	.051	.010	.101	.000
기대교육수준	.027	.011	.050	.016	.031	.017	.038	.076	.128	.014	.178	.000
부친교육수준	.001	.010	.002	.923	.017	.016	.024	.288	-.004	.013	-.006	.772
모친교육수준	.016	.011	.032	.151	-.010	.017	-.014	.545	-.002	.014	-.003	.878
상수	2.571	.327			2.661	.516			2.824	.415		
F(df)	8.897***(17)				2.253**(17)				33.072***(17)			
R ² (adjusted R ²)	.054(.048)				.014(.008)				.175(.170)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45	.013	-.069	.000	-.026	.012	-.040	.027	.032	.016	.038	.041
서적	.001	.012	.002	.938	.077	.012	.132	.000	-.056	.015	-.077	.000
컴퓨터, 인터넷	-.017	.012	-.031	.133	-.013	.011	-.024	.226	.017	.014	.024	.237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1	.013	.071	.002	.033	.013	.058	.008	-.040	.017	-.056	.015
신문	.029	.013	.049	.024	.035	.012	.059	.004	-.020	.016	-.026	.214
인터넷	.079	.017	.094	.000	.044	.016	.053	.007	.037	.021	.035	.084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14	.011	.028	.184	.011	.010	.022	.261	.107	.013	.166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98	.034	-.056	.004	-.031	.032	-.018	.338	-.013	.042	-.006	.756
모친 가정생활	.122	.067	.035	.067	.155	.063	.045	.014	-.031	.083	-.007	.709
국내이슈 대화	.069	.015	.108	.000	.049	.014	.077	.000	-.024	.018	-.029	.194
국제이슈 대화	.027	.015	.040	.080	.055	.014	.083	.000	-.017	.019	-.020	.380
통제변인												
나이	-.039	.028	-.026	.161	-.025	.026	-.017	.344	-.069	.035	-.037	.048
성별	-.063	.026	-.048	.017	.151	.025	.115	.000	-.367	.033	-.220	.000
소장도서	.011	.010	.024	.273	.052	.010	.108	.000	.020	.013	.033	.117
기대교육수준	.036	.014	.052	.012	.082	.013	.119	.000	-.030	.018	-.034	.091
부친교육수준	-.031	.013	-.054	.014	-.015	.012	-.026	.215	-.011	.016	-.015	.478
모친교육수준	.012	.014	.020	.370	-.014	.013	-.022	.289	-.040	.017	-.050	.021
상수	2.334	.419			1.993	.395			3.154	.522		
F(df)	14.075***(17)				34.497***(17)				19.580***(17)			
R ² (adjusted R ²)	.083(.077)				.181(.176)				.112(.106)			

Italy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0	.008	.001	.959	-.008	.014	-.011	.536	-.005	.010	-.008	.659
서적	.019	.008	.046	.020	.024	.015	.034	.094	.015	.011	.025	.183
컴퓨터, 인터넷	.001	.008	.004	.866	.014	.014	.022	.310	-.018	.010	-.035	.081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3	.009	.095	.000	.018	.016	.022	.258	.049	.012	.075	.000
신문	.020	.009	.044	.022	.013	.016	.016	.413	.021	.012	.033	.077
인터넷	.024	.009	.054	.006	.028	.015	.037	.065	.019	.012	.031	.103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6	.007	-.047	.026	-.029	.012	-.051	.018	.019	.010	.040	.046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5	.020	.032	.081	.027	.036	.014	.444	.072	.027	.046	.009
모친 가정생활	.050	.039	.024	.190	-.021	.068	-.006	.754	.030	.052	.010	.564
국내이슈 대화	-.021	.008	-.052	.010	.006	.015	.009	.670	.040	.011	.069	.000
국제이슈 대화	.047	.009	.100	.000	-.001	.016	-.001	.970	.015	.013	.023	.222
통제변인												
나이	-.071	.017	-.077	.000	.049	.029	.031	.096	-.118	.022	-.091	.000
성별	-.017	.017	-.019	.310	.023	.030	.015	.451	-.019	.023	-.015	.419
소장도서	-.018	.007	-.053	.009	.000	.012	-.001	.974	.041	.009	.087	.000
기대교육수준	.020	.009	.046	.023	-.022	.015	-.029	.153	.123	.012	.200	.000
부친교육수준	.014	.009	.034	.125	.024	.016	.035	.125	.016	.012	.029	.179
모친교육수준	.001	.009	.003	.887	.011	.016	.016	.481	-.015	.012	-.026	.223
상수	3.510	.243			1.654	.430			4.118	.330		
F(df)	11,294***(17)				1,980*(17)				28,043***(17)			
R ² (adjusted R ²)	.059(.054)				.011(.005)				.134(.129)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32	.011	-.051	.004	-.021	.009	-.040	.019	-.009	.012	-.014	.446
서적	-.005	.012	-.008	.688	.054	.010	.106	.000	-.036	.012	-.057	.004
컴퓨터, 인터넷	-.026	.011	-.048	.022	-.027	.009	-.061	.003	.006	.012	.012	.581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3	.013	.034	.073	.034	.010	.060	.001	-.014	.013	-.021	.282
신문	.047	.013	.070	.000	.010	.010	.018	.320	.001	.013	.001	.968
인터넷	.037	.013	.056	.004	.055	.010	.101	.000	.017	.013	.025	.195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33	.010	.066	.001	.022	.008	.053	.009	.054	.011	.107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56	.030	-.034	.060	-.022	.024	-.016	.354	-.078	.031	-.046	.011
모친 가정생활	-.006	.056	-.002	.911	.012	.045	.004	.798	-.076	.058	-.024	.192
국내이슈 대화	.084	.012	.138	.000	.058	.010	.116	.000	.014	.013	.022	.277
국제이슈 대화	.017	.014	.025	.199	.059	.011	.103	.000	-.032	.014	-.046	.021
통제변인												
나이	-.037	.024	-.027	.122	-.010	.019	-.009	.595	.074	.025	.053	.003
성별	-.204	.025	-.151	.000	.008	.020	.007	.701	-.108	.026	-.078	.000
소장도서	.012	.010	.023	.243	.009	.008	.022	.249	-.006	.010	-.013	.535
기대교육수준	.019	.013	.030	.128	.045	.010	.085	.000	-.081	.013	-.124	.000
부친교육수준	.033	.013	.057	.010	.010	.010	.021	.323	-.010	.013	-.016	.472
모친교육수준	-.011	.013	-.018	.421	.001	.011	.002	.943	.047	.014	.078	.001
상수	2.231	.356			1.849	.286			.959	.367		
F(df)	17,665***(17)				28,573***(17)				11,933***(17)			
R ² (adjusted R ²)	.089(.084)				.136(.132)				.062(.057)			

Kore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1	.007	-.002	.889	-.005	.010	-.007	.633	-.037	.008	-.064	.000
서적	-.004	.007	-.008	.613	.018	.011	.024	.109	.013	.009	.019	.165
컴퓨터, 인터넷	-.015	.007	-.035	.027	.001	.011	.002	.889	.013	.009	.023	.13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0	.008	.058	.000	.056	.013	.069	.000	.051	.011	.072	.000
신문	.007	.008	.013	.436	-.011	.013	-.014	.405	.017	.011	.025	.109
인터넷	.000	.008	-.001	.967	.021	.013	.027	.100	.067	.010	.099	.00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7	.007	.016	.293	.013	.010	.020	.200	-.052	.008	-.090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50	.015	.048	.001	.022	.024	.014	.361	.016	.020	.011	.417
모친 가정생활	.028	.018	.023	.122	.049	.028	.026	.083	.058	.023	.036	.012
국내이슈 대화	.017	.010	.031	.090	.001	.015	.001	.952	.065	.013	.088	.000
국제이슈 대화	.019	.010	.035	.056	.022	.016	.025	.163	.037	.013	.049	.004
통제변인												
나이	-.011	.023	-.007	.631	-.004	.036	-.002	.901	.066	.029	.030	.025
성별	-.111	.015	-.108	.000	-.040	.024	-.025	.090	.111	.019	.080	.000
소장도서	-.002	.006	-.006	.694	.018	.010	.029	.075	.044	.008	.084	.000
기대교육수준	.001	.012	.001	.962	.049	.019	.040	.008	.126	.015	.118	.000
부친교육수준	.006	.009	.013	.464	.012	.013	.016	.373	.000	.011	.000	.992
모친교육수준	-.010	.009	-.020	.270	-.012	.014	-.016	.374	-.010	.011	-.015	.384
상수	2.388	.343			1.884	.535			1.039	.438		
F(df)	7.989***(17)				5.241***(17)				45.485***(17)			
R ² (adjusted R ²)	0.027(.023)				.018(.014)				.135(.132)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0	.008	-.040	.009	-.008	.008	-.016	.290	.012	.008	.022	.152
서적	.016	.008	.028	.058	.034	.009	.059	.000	-.003	.009	-.004	.772
컴퓨터, 인터넷	-.034	.008	-.066	.000	-.034	.008	-.065	.000	-.050	.009	-.090	.00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6	.010	.026	.092	.031	.010	.049	.001	-.008	.010	-.012	.453
신문	.035	.010	.059	.000	.043	.010	.071	.000	-.014	.011	-.022	.179
인터넷	.020	.010	.033	.040	.038	.010	.064	.000	-.016	.010	-.025	.13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36	.008	.071	.000	.012	.008	.023	.118	.067	.008	.123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50	.018	.041	.005	.033	.018	.027	.065	.024	.019	.018	.220
모친 가정생활	-.002	.021	-.002	.909	.028	.021	.019	.191	.005	.023	.003	.841
국내이슈 대화	.012	.012	.018	.312	.016	.012	.025	.164	-.009	.012	-.013	.484
국제이슈 대화	.029	.012	.043	.016	.044	.012	.066	.000	-.003	.013	-.004	.837
통제변인												
나이	.033	.027	.017	.225	.029	.027	.014	.293	-.022	.029	-.011	.454
성별	-.132	.018	-.109	.000	-.005	.018	-.004	.775	-.060	.019	-.046	.002
소장도서	-.009	.007	-.019	.240	.010	.007	.022	.176	-.002	.008	-.005	.781
기대교육수준	-.037	.014	-.039	.009	.016	.014	.017	.262	-.048	.015	-.048	.001
부친교육수준	-.014	.010	-.025	.164	-.005	.010	-.009	.618	-.008	.011	-.013	.472
모친교육수준	-.004	.010	-.006	.732	-.014	.010	-.024	.169	-.007	.011	-.011	.544
상수	1.503	.402			1.412	.405			2.410	.433		
F(df)	11.673***(17)				18.659***(17)				7.147***(17)			
R ² (adjusted R ²)	.038(.035)				.060(.057)				.024(.021)			

Latvi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3	.010	-.028	.182	.001	.016	.002	.942	-.012	.015	-.016	.417
서적	.017	.010	.039	.068	.023	.016	.031	.160	.037	.015	.052	.013
컴퓨터, 인터넷	-.020	.009	-.048	.030	.002	.015	.003	.895	-.029	.014	-.045	.037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9	.011	.079	.001	.016	.019	.020	.392	.089	.018	.113	.000
신문	.039	.011	.080	.000	.033	.019	.041	.074	.045	.017	.058	.009
인터넷	.021	.010	.045	.044	.011	.017	.014	.531	.007	.016	.010	.638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5	.008	-.013	.542	.016	.014	.025	.260	.009	.013	.015	.471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3	.020	.003	.890	.075	.034	.046	.028	.028	.031	.018	.369
모친 가정생활	.045	.035	.027	.195	.054	.059	.019	.355	.049	.054	.018	.359
국내이슈 대화	-.022	.012	-.046	.057	.018	.020	.022	.362	.074	.018	.097	.000
국제이슈 대화	.026	.012	.051	.031	.015	.020	.017	.466	.021	.019	.025	.270
통제변인												
나이	-.044	.020	-.045	.029	-.048	.034	-.030	.157	-.021	.031	-.014	.499
성별	-.055	.020	-.059	.006	-.080	.034	-.052	.019	.061	.031	.041	.051
소장도서	-.012	.008	-.031	.145	-.006	.013	-.010	.636	.007	.012	.013	.550
기대교육수준	-.015	.011	-.032	.143	-.007	.018	-.008	.711	.058	.016	.076	.000
부친교육수준	.005	.010	.011	.617	.008	.017	.011	.643	.019	.015	.028	.215
모친교육수준	-.025	.011	-.055	.018	-.005	.018	-.007	.767	.027	.016	.037	.104
상수	3.120	.314			2.992	.529			2.466	.484		
F(df)	5.658***(17)				1.953*(17)				13.595***(17)			
R ² (adjusted R ²)	.039(.032)				.014(.007)				.089(.083)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3	.014	-.005	.823	.012	.012	.021	.309	.046	.017	.054	.007
서적	-.010	.013	-.015	.473	.045	.012	.082	.000	-.031	.017	-.039	.059
컴퓨터, 인터넷	-.021	.013	-.036	.103	-.019	.011	-.036	.097	.039	.016	.054	.012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06	.016	-.008	.721	.030	.014	.049	.033	-.066	.020	-.074	.001
신문	.081	.016	.118	.000	.036	.014	.059	.009	-.010	.019	-.011	.609
인터넷	.033	.014	.052	.022	.025	.013	.044	.051	.006	.018	.008	.72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21	.012	.038	.075	.022	.010	.046	.032	.030	.014	.044	.036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42	.029	.030	.141	-.013	.025	-.011	.604	.070	.035	.040	.047
모친 가정생활	-.056	.049	-.023	.252	.035	.043	.016	.420	-.133	.061	-.043	.029
국내이슈 대화	.004	.016	.007	.786	.052	.015	.086	.000	.039	.020	.045	.055
국제이슈 대화	.072	.017	.099	.000	.018	.015	.028	.225	-.007	.021	-.007	.755
통제변인												
나이	.031	.028	.023	.272	.022	.025	.018	.381	.055	.035	.031	.116
성별	-.113	.028	-.086	.000	.058	.025	.050	.021	-.384	.035	-.229	.000
소장도서	-.018	.011	-.034	.109	.015	.010	.033	.122	-.027	.014	-.041	.048
기대교육수준	-.004	.015	-.006	.781	-.002	.013	-.003	.876	-.073	.018	-.085	.000
부친교육수준	.004	.014	.006	.785	.005	.012	.010	.672	-.012	.017	-.015	.488
모친교육수준	-.011	.015	-.016	.481	.002	.013	.004	.860	.019	.019	.023	.317
상수	1.571	.441			1.592	.390			1.465	.546		
F(df)	6.779***(17)				8.872***(17)				15.163***(17)			
R ² (adjusted R ²)	.047(.040)				.060(.053)				.098(.092)			

Liechtenstein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6	.030	.056	.383	-.025	.044	-.036	.574	.067	.039	.108	.085
서적	-.018	.029	-.040	.538	-.063	.042	-.098	.135	.066	.038	.111	.082
컴퓨터, 인터넷	-.001	.029	-.003	.968	.095	.042	.162	.025	-.014	.038	-.025	.715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72	.031	.159	.020	.005	.045	.007	.918	-.031	.040	-.052	.437
신문	.040	.028	.095	.149	.052	.040	.086	.195	.081	.036	.144	.026
인터넷	.008	.031	.016	.792	.009	.045	.012	.849	.031	.040	.046	.449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6	.027	-.041	.565	-.101	.039	-.186	.011	-.032	.035	-.064	.358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22	.063	.021	.723	-.107	.091	-.070	.238	.130	.082	.092	.112
모친 가정생활	.287	.173	.098	.099	-.185	.251	-.044	.462	.414	.225	.106	.067
국내이슈 대화	.047	.033	.099	.146	-.050	.047	-.073	.288	.065	.042	.102	.126
국제이슈 대화	-.014	.034	-.030	.668	.041	.049	.058	.406	-.059	.044	-.091	.181
통제변인												
나이	-.079	.046	-.103	.089	-.041	.067	-.037	.540	.001	.060	.001	.981
성별	.006	.062	.006	.927	.058	.089	.043	.515	.102	.080	.081	.205
소장도서	-.045	.025	-.125	.075	-.083	.037	-.159	.024	.030	.033	.063	.357
기대교육수준	-.005	.027	-.011	.865	.009	.039	.014	.820	.039	.035	.067	.272
부친교육수준	-.011	.029	-.024	.722	-.002	.043	-.004	.954	.023	.038	.039	.546
모친교육수준	.019	.034	.039	.573	.056	.049	.079	.253	.057	.044	.086	.196
상수	3.563	.740			3.818	1.074			1.815	.963		
F(df)	1.786*(17)				1.562*(17)				2.742****(17)			
R ² (adjusted R ²)	.098(.043)				.087(.031)				.143(.091)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5	.038	-.008	.901	.027	.036	.048	.455	-.076	.050	-.095	.131
서적	.022	.037	.039	.550	.007	.035	.014	.833	-.172	.049	-.223	.000
컴퓨터, 인터넷	.012	.037	.023	.745	-.029	.035	-.059	.412	.072	.048	.103	.136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6	.039	-.063	.360	-.007	.037	-.013	.850	-.032	.051	-.041	.534
신문	.001	.035	.002	.976	.038	.034	.075	.256	-.053	.046	-.072	.257
인터넷	.061	.039	.098	.118	.073	.037	.121	.052	.047	.052	.054	.369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46	.034	.098	.178	-.007	.033	-.016	.826	.070	.045	.107	.126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22	.079	.017	.779	-.006	.076	-.005	.937	-.021	.105	-.011	.844
모친 가정생활	-.083	.219	-.023	.706	.150	.210	.042	.476	-.063	.290	-.012	.830
국내이슈 대화	.041	.041	.069	.319	.022	.039	.038	.574	-.013	.055	-.016	.806
국제이슈 대화	-.038	.043	-.063	.375	.042	.041	.072	.306	.030	.057	.036	.599
통제변인												
나이	.082	.059	.085	.164	.001	.056	.001	.988	.118	.078	.089	.131
성별	-.159	.078	-.134	.042	-.053	.075	-.046	.481	-.182	.103	-.111	.079
소장도서	-.018	.032	-.039	.581	.046	.031	.105	.134	-.003	.042	-.005	.947
기대교육수준	-.021	.034	-.039	.541	.025	.033	.048	.448	.007	.045	.010	.873
부친교육수준	.010	.037	.017	.798	-.010	.036	-.019	.782	.018	.049	.024	.717
모친교육수준	.095	.043	.154	.027	.051	.041	.085	.215	-.076	.057	-.088	.184
상수	.751	.936			1.656	.896			.612	1.241		
F(df)	1.430(17)				1.744*(17)				2.961****(17)			
R ² (adjusted R ²)	.080(.024)				.096(.041)				.152(.101)			

Lithuani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1	.008	-.002	.916	.001	.013	.001	.961	-.010	.012	-.015	.376
서적	.023	.008	.055	.003	.019	.012	.030	.110	.020	.011	.033	.066
컴퓨터, 인터넷	-.024	.007	-.061	.001	-.009	.012	-.015	.426	-.010	.011	-.016	.373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54	.009	.114	.000	.038	.014	.051	.008	.071	.013	.098	.000
신문	.024	.008	.054	.004	.010	.013	.014	.475	.058	.012	.085	.000
인터넷	.023	.008	.054	.003	-.001	.012	-.002	.922	.053	.011	.083	.00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8	.006	.021	.236	.029	.010	.052	.004	.007	.009	.012	.464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50	.018	.047	.006	.050	.029	.030	.083	.026	.026	.016	.312
모친 가정생활	.066	.036	.031	.065	.068	.057	.020	.234	.046	.051	.015	.369
국내이슈 대화	-.012	.009	-.024	.198	.007	.015	.009	.629	.052	.014	.070	.000
국제이슈 대화	.010	.009	.020	.271	.024	.015	.031	.100	.028	.013	.038	.033
통제변인												
나이	-.031	.016	-.032	.056	-.045	.026	-.029	.086	.056	.024	.038	.018
성별	.003	.017	.003	.880	-.039	.028	-.027	.167	.064	.025	.047	.011
소장도서	-.023	.007	-.064	.001	-.008	.011	-.013	.483	-.003	.010	-.006	.746
기대교육수준	-.029	.009	-.061	.001	.041	.014	.055	.004	.110	.013	.155	.000
부친교육수준	-.002	.009	-.004	.853	.005	.015	.007	.741	.022	.014	.032	.103
모친교육수준	-.002	.009	-.005	.793	-.004	.015	-.005	.797	.014	.014	.021	.286
상수	2.940	.252			2.857	.403			1.224	.364		
F(df)	10.481***(17)				3.500***(17)				30.721***(17)			
R ² (adjusted R ²)	.048(.044)				.017(.012)				.130(.126)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6	.011	-.039	.025	-.023	.011	-.037	.030	.013	.014	.015	.369
서적	-.014	.011	-.024	.195	.037	.010	.068	.000	-.060	.014	-.081	.000
컴퓨터, 인터넷	-.021	.010	-.038	.045	-.004	.010	-.007	.696	.025	.013	.035	.058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05	.013	.008	.677	.047	.012	.074	.000	-.039	.016	-.045	.014
신문	-.002	.012	-.003	.875	.010	.011	.017	.344	.005	.015	.006	.739
인터넷	.026	.011	.045	.017	.071	.010	.127	.000	.016	.014	.021	.257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33	.009	.067	.000	.028	.008	.059	.001	.080	.011	.124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20	.025	.014	.430	.002	.023	.001	.940	.039	.032	.020	.227
모친 가정생활	.007	.050	.002	.886	.131	.046	.047	.005	-.130	.063	-.034	.039
국내이슈 대화	.072	.013	.103	.000	.045	.012	.067	.000	-.020	.017	-.022	.241
국제이슈 대화	.043	.013	.063	.001	.026	.012	.039	.031	-.008	.016	-.009	.604
통제변인												
나이	-.017	.023	-.013	.455	.050	.021	.039	.018	.010	.029	.006	.737
성별	-.146	.025	-.114	.000	.041	.023	.034	.073	-.253	.031	-.154	.000
소장도서	.007	.010	.013	.488	.004	.009	.009	.629	-.011	.012	-.016	.377
기대교육수준	-.022	.013	-.034	.077	.047	.012	.074	.000	-.071	.016	-.083	.000
부친교육수준	-.007	.013	-.011	.596	-.009	.012	-.014	.468	-.010	.017	-.012	.534
모친교육수준	-.033	.013	-.053	.011	.008	.012	.013	.519	.004	.017	.005	.800
상수	2.339	.355			1.050	.328			2.149	.447		
F(df)	9.096***(17)				20.571***(17)				18.809***(17)			
R ² (adjusted R ²)	.042(.038)				.091(.087)				.084(.079)			

Luxembourg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5	.008	.010	.537	.015	.012	.021	.202	-.020	.011	-.028	.060
서적	.037	.008	.084	.000	.041	.012	.061	.000	.042	.010	.065	.000
컴퓨터, 인터넷	-.016	.008	-.038	.034	-.009	.012	-.013	.467	-.024	.010	-.039	.019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2	.009	.047	.010	.001	.013	.001	.965	.068	.012	.097	.000
신문	.011	.008	.024	.167	.015	.012	.021	.241	.023	.011	.035	.032
인터넷	.020	.009	.037	.032	.017	.014	.020	.237	.059	.013	.073	.00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9	.007	-.051	.005	-.007	.011	-.012	.526	-.021	.009	-.037	.026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52	.020	.041	.008	.036	.031	.019	.244	-.008	.027	-.004	.759
모친 가정생활	.005	.040	.002	.907	-.018	.062	-.005	.774	.000	.054	.000	.996
국내이슈 대화	.025	.009	.049	.007	.017	.015	.021	.258	.087	.013	.113	.000
국제이슈 대화	.003	.010	.006	.750	.021	.015	.026	.160	.061	.013	.077	.000
통제변인												
나이	-.039	.013	-.050	.003	-.038	.020	-.032	.058	-.017	.017	-.015	.325
성별	-.056	.017	-.055	.001	-.053	.027	-.033	.050	-.049	.023	-.032	.037
소장도서	-.009	.007	-.025	.200	-.012	.011	-.022	.262	.038	.009	.073	.000
기대교육수준	.003	.008	.005	.763	-.026	.013	-.035	.047	.095	.011	.131	.000
부친교육수준	.003	.008	.007	.759	.005	.013	.009	.679	.016	.011	.030	.142
모친교육수준	.005	.008	.013	.549	.011	.013	.020	.375	.030	.011	.056	.007
상수	3.114	.204			3.146	.318			2.185	.277		
F(df)	10.286***(17)				2.768***(17)				54.473***(17)			
R ² (adjusted R ²)	.042(.037)				.012(.007)				.187(.183)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5	.009	-.026	.109	-.012	.009	-.020	.197	.034	.012	.046	.004
서적	.001	.009	.001	.943	.046	.009	.086	.000	-.053	.012	-.076	.000
컴퓨터, 인터넷	-.013	.009	-.025	.155	-.001	.009	-.001	.948	.022	.012	.034	.054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9	.010	.033	.064	.023	.010	.040	.022	-.031	.013	-.043	.017
신문	.018	.010	.032	.065	.003	.009	.006	.733	-.001	.012	-.001	.951
인터넷	.061	.011	.092	.000	.062	.011	.093	.000	.038	.014	.045	.007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5	.008	.033	.065	.012	.008	.026	.135	.069	.010	.117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9	.024	.012	.444	-.016	.023	-.010	.503	-.035	.030	-.018	.250
모친 가정생활	-.095	.048	-.030	.050	-.059	.047	-.019	.204	-.024	.061	-.006	.691
국내이슈 대화	.064	.012	.100	.000	.062	.011	.098	.000	.016	.014	.020	.273
국제이슈 대화	.024	.012	.037	.042	.047	.011	.073	.000	-.008	.015	-.009	.602
통제변인												
나이	.003	.016	.003	.857	-.009	.015	-.010	.552	.036	.020	.030	.070
성별	-.104	.021	-.082	.000	-.052	.020	-.042	.010	-.263	.026	-.165	.000
소장도서	-.006	.008	-.014	.466	.039	.008	.091	.000	.023	.010	.042	.025
기대교육수준	.010	.010	.016	.358	.025	.010	.043	.011	-.042	.013	-.055	.001
부친교육수준	.003	.010	.006	.784	.017	.010	.039	.073	.000	.013	.000	.984
모친교육수준	-.006	.010	-.014	.524	-.007	.010	-.016	.469	-.017	.013	-.029	.188
상수	1.914	.249			1.995	.241			1.343	.311		
F(df)	12.936***(17)				25.682***(17)				18.233***(17)			
R ² (adjusted R ²)	.052(.048)				.098(.094)				.071(.067)			

Malt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9	.011	.020	.377	.011	.017	.015	.516	.001	.014	.002	.944
서적	.013	.011	.029	.247	.026	.018	.035	.166	-.032	.015	-.050	.039
컴퓨터, 인터넷	-.006	.011	-.013	.595	-.004	.017	-.006	.823	-.021	.014	-.035	.146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71	.011	.159	.000	.020	.018	.029	.245	.077	.015	.127	.000
신문	.014	.013	.027	.269	.020	.020	.025	.319	.063	.017	.090	.000
인터넷	.024	.012	.047	.054	.028	.020	.036	.158	.031	.016	.045	.062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0	.010	-.001	.963	.039	.016	.064	.013	.023	.013	.043	.078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내이슈 대화	.026	.012	.050	.033	.015	.019	.019	.436	.112	.016	.161	.000
국제이슈 대화	.021	.013	.041	.092	-.004	.020	-.005	.852	-.013	.017	-.019	.429
통제변인												
나이	-.042	.026	-.036	.104	.000	.041	.000	.994	-.001	.034	.000	.983
성별	-.025	.024	-.024	.301	-.060	.038	-.038	.120	.034	.032	.025	.287
소장도서	.002	.010	.006	.823	.024	.016	.038	.138	.044	.013	.080	.001
기대교육수준	.045	.010	.109	.000	-.046	.016	-.071	.005	.076	.013	.135	.000
부친교육수준	-.007	.010	-.020	.464	-.012	.016	-.020	.471	-.001	.013	-.002	.948
모친교육수준	.003	.011	.008	.756	.000	.017	.000	.990	-.003	.014	-.006	.811
상수	2.904	.367			2.252	.590			2.257	.488		
F(df)	11,340***(15)				2,175**(15)				18,372***(15)			
R ² (adjusted R ²)	.080(.073)				.016(.009)				.124(.117)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5	.015	.007	.741	.008	.013	.014	.522	.035	.015	.051	.022
서적	-.059	.016	-.090	.000	-.018	.014	-.032	.193	-.070	.016	-.103	.000
컴퓨터, 인터넷	-.014	.015	-.024	.329	-.031	.013	-.057	.021	.016	.015	.026	.283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6	.015	.026	.276	.037	.013	.067	.006	-.061	.016	-.094	.000
신문	.068	.017	.095	.000	.052	.016	.083	.001	.021	.018	.029	.235
인터넷	.025	.017	.035	.145	.059	.015	.095	.000	.015	.018	.021	.39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25	.013	.045	.063	.025	.012	.052	.037	.022	.014	.039	.112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내이슈 대화	.149	.017	.207	.000	.091	.015	.143	.000	.007	.017	.009	.682
국제이슈 대화	.011	.017	.015	.524	.024	.016	.037	.128	.004	.018	.006	.816
통제변인												
나이	.008	.035	.005	.815	-.006	.031	-.004	.845	-.001	.036	.000	.985
성별	-.226	.033	-.159	.000	-.055	.029	-.043	.065	-.309	.034	-.210	.000
소장도서	.026	.014	.046	.061	.009	.012	.018	.466	-.010	.014	-.018	.472
기대교육수준	-.032	.014	-.055	.020	.002	.012	.004	.865	-.081	.014	-.136	.000
부친교육수준	-.006	.014	-.011	.675	.004	.012	.009	.746	.021	.014	.040	.136
모친교육수준	-.003	.015	-.005	.837	.025	.013	.049	.065	-.006	.015	-.010	.706
상수	1.654	.505			1.956	.452			2.062	.524		
F(df)	17,590***(15)				13,155***(15)				15,622***(15)			
R ² (adjusted R ²)	.119(.113)				.092(.085)				.107(.101)			

Mexico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4	.007	-.030	.028	.002	.010	.003	.844	-.004	.007	-.007	.607
서적	.016	.008	.028	.042	.024	.013	.026	.062	.018	.009	.026	.053
컴퓨터, 인터넷	-.022	.007	-.056	.001	-.015	.011	-.024	.176	-.021	.008	-.046	.007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3	.007	.045	.001	.003	.011	.004	.754	.057	.008	.100	.000
신문	.025	.008	.045	.001	.004	.012	.004	.750	.028	.009	.044	.001
인터넷	.051	.009	.083	.000	.055	.014	.057	.000	.036	.010	.051	.00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6	.006	.016	.325	-.001	.010	-.002	.886	.011	.007	.025	.122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48	.017	.038	.005	.036	.027	.018	.183	.053	.019	.037	.006
모친 가정생활	.012	.027	.006	.651	-.043	.043	-.014	.317	-.043	.031	-.019	.159
국내이슈 대화	.009	.009	.013	.353	-.017	.015	-.017	.242	.044	.010	.060	.000
국제이슈 대화	.034	.008	.060	.000	.038	.013	.043	.003	.021	.009	.032	.022
통제변인												
나이	-.002	.013	-.002	.901	.024	.021	.015	.270	.000	.015	.000	.979
성별	-.132	.016	-.115	.000	-.097	.025	-.054	.000	.033	.017	.025	.060
소장도서	-.036	.007	-.075	.000	-.016	.011	-.022	.122	.003	.008	.005	.725
기대교육수준	-.014	.007	-.026	.053	-.048	.012	-.056	.000	.063	.008	.101	.000
부친교육수준	-.004	.007	-.010	.578	-.012	.011	-.020	.257	.003	.007	.006	.720
모친교육수준	.005	.007	.013	.460	.004	.011	.006	.724	.023	.008	.052	.003
상수	2.633	.202			2.304	.321			2.683	.228		
F(df)	16.645***(17)				5.259***(17)				21.736***(17)			
R ² (adjusted R ²)	.047(.044)				.015(.012)				.060(.057)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41	.009	-.062	.000	-.012	.007	-.022	.097	-.010	.010	-.013	.320
서적	-.025	.011	-.030	.028	.035	.009	.055	.000	-.036	.012	-.041	.003
컴퓨터, 인터넷	-.021	.009	-.039	.024	-.008	.007	-.018	.286	.012	.010	.020	.239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4	.010	.020	.158	.030	.008	.056	.000	-.019	.010	-.026	.062
신문	.032	.010	.042	.002	.025	.008	.042	.002	.008	.011	.010	.491
인터넷	.066	.012	.078	.000	.058	.009	.086	.000	.014	.013	.015	.28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8	.009	.033	.046	-.002	.007	-.005	.781	.019	.010	.033	.044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67	.024	.039	.004	.010	.018	.007	.591	-.003	.025	-.002	.905
모친 가정생활	-.039	.038	-.014	.296	-.031	.030	-.014	.294	-.037	.041	-.012	.366
국내이슈 대화	.060	.013	.067	.000	.040	.010	.056	.000	.004	.014	.004	.769
국제이슈 대화	.018	.011	.023	.105	.055	.009	.090	.000	.001	.012	.002	.910
통제변인												
나이	.033	.019	.024	.074	.027	.015	.024	.065	.044	.020	.029	.029
성별	-.163	.021	-.103	.000	-.058	.017	-.046	.001	-.261	.023	-.153	.000
소장도서	-.015	.009	-.023	.102	.000	.007	.001	.956	-.020	.010	-.027	.048
기대교육수준	-.023	.010	-.031	.023	.015	.008	.025	.069	-.052	.011	-.064	.000
부친교육수준	-.020	.009	-.038	.031	-.016	.007	-.039	.027	-.012	.010	-.021	.239
모친교육수준	.001	.009	.001	.956	.023	.007	.054	.002	-.003	.010	-.006	.748
상수	2.095	.279			1.924	.219			1.854	.300		
F(df)	14.808***(17)				20.144***(17)				13.526***(17)			
R ² (adjusted R ²)	.042(.039)				.056(.053)				.038(.035)			

Netherlands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1	.012	-.022	.371	.026	.019	.037	.153	-.009	.018	-.012	.620
서적	-.004	.012	-.009	.730	.007	.019	.010	.707	.010	.018	.014	.562
컴퓨터, 인터넷	-.022	.013	-.048	.106	-.004	.021	-.005	.858	-.055	.020	-.076	.006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6	.011	.111	.000	-.001	.017	-.002	.955	.035	.016	.052	.035
신문	.020	.011	.047	.079	-.012	.018	-.019	.497	.035	.017	.052	.036
인터넷	.020	.012	.043	.108	-.015	.019	-.021	.449	.074	.018	.100	.000
친구제형												
휴대폰, 인터넷	.001	.012	.003	.929	.009	.018	.016	.605	-.017	.017	-.026	.336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114	.032	.085	.000	.028	.050	.014	.577	.161	.048	.075	.001
모친 가정생활	.034	.067	.012	.606	.116	.103	.028	.262	-.038	.099	-.008	.704
국내이슈 대화	-.002	.015	-.004	.874	.011	.023	.013	.650	.096	.022	.113	.000
국제이슈 대화	.027	.015	.053	.075	.050	.024	.065	.034	.068	.023	.083	.003
통제변인												
나이	-.033	.022	-.038	.123	-.048	.034	-.037	.150	-.015	.032	-.011	.631
성별	.057	.024	.061	.019	.047	.038	.033	.208	-.030	.036	-.020	.401
소장도서	.017	.009	.050	.063	.030	.014	.059	.034	.081	.014	.151	.000
기대교육수준	-.002	.014	-.004	.868	-.004	.021	-.005	.861	.078	.020	.091	.000
부친교육수준	.027	.014	.058	.049	.040	.021	.058	.055	.046	.020	.063	.022
모친교육수준	.021	.014	.045	.123	-.014	.021	-.020	.496	-.001	.020	-.002	.943
상수	2.758	.329			2.751	.508			2.087	.488		
F(df)	7.816***(17)				1.926*(17)				23.081***(17)			
R ² (adjusted R ²)	.075(.065)				.020(.009)				.193(.184)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7	.015	-.046	.068	.001	.014	.001	.956	.012	.018	.016	.515
서적	-.006	.015	-.011	.674	.028	.014	.052	.045	-.060	.018	-.085	.001
컴퓨터, 인터넷	-.016	.017	-.028	.347	-.035	.015	-.068	.021	.016	.020	.023	.421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8	.014	.054	.043	.028	.013	.058	.026	-.021	.017	-.032	.216
신문	.035	.014	.066	.014	.027	.013	.055	.037	.006	.017	.009	.727
인터넷	.044	.015	.077	.004	.051	.014	.095	.000	.046	.019	.065	.014
친구제형												
휴대폰, 인터넷	-.006	.014	-.012	.692	.013	.013	.029	.321	.084	.017	.140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58	.040	.035	.148	.047	.037	.030	.208	-.093	.048	-.046	.055
모친 가정생활	-.178	.083	-.051	.033	-.098	.077	-.030	.202	-.152	.100	-.036	.131
국내이슈 대화	.083	.019	.125	.000	.009	.017	.014	.617	-.002	.023	-.003	.914
국제이슈 대화	-.015	.019	-.024	.419	.062	.018	.103	.000	-.037	.023	-.047	.107
통제변인												
나이	.037	.027	.034	.175	.005	.025	.005	.849	.032	.033	.024	.323
성별	-.043	.030	-.037	.153	.044	.028	.040	.117	-.265	.037	-.185	.000
소장도서	.025	.011	.059	.030	.028	.010	.072	.007	-.021	.014	-.040	.132
기대교육수준	-.004	.017	-.006	.810	.000	.016	.000	.996	-.032	.020	-.039	.119
부친교육수준	-.007	.017	-.012	.676	-.003	.016	-.007	.824	-.020	.020	-.029	.326
모친교육수준	.003	.017	.006	.847	.019	.016	.035	.235	.003	.021	.004	.896
상수	1.471	.410			1.731	.378			1.692	.494		
F(df)	6.487***(17)				9.327***(17)				10.420***(17)			
R ² (adjusted R ²)	.063(.053)				.088(.079)				.097(.088)			

New Zealand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1	.008	.026	.173	-.003	.013	-.004	.825	-.003	.011	-.005	.782
서적	.021	.009	.048	.016	.003	.013	.005	.802	.048	.011	.080	.000
컴퓨터, 인터넷	-.037	.008	-.089	.000	-.031	.012	-.053	.011	-.044	.011	-.076	.00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57	.010	.125	.000	.008	.014	.012	.579	.087	.013	.136	.000
신문	.038	.010	.077	.000	.050	.015	.071	.001	.018	.013	.026	.184
인터넷	.023	.012	.041	.048	.020	.017	.025	.247	.035	.015	.045	.020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02	.007	-.006	.768	.018	.011	.033	.110	.001	.010	.003	.888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0	.021	.026	.147	-.023	.031	-.014	.456	.081	.027	.049	.003
모친 가정생활	.129	.036	.065	.000	.101	.054	.035	.059	.097	.047	.035	.039
국내이슈 대화	-.001	.010	-.003	.886	.004	.015	.006	.789	.052	.013	.077	.000
국제이슈 대화	.054	.012	.102	.000	.037	.017	.048	.032	.067	.015	.090	.000
통제변인												
나이	-.027	.025	-.019	.275	-.024	.037	-.012	.523	-.051	.032	-.026	.115
성별	.014	.019	.014	.466	.067	.028	.046	.018	.078	.025	.056	.002
소장도서	-.032	.007	-.087	.000	-.015	.011	-.029	.166	.020	.010	.040	.033
기대교육수준	.021	.011	.038	.050	-.020	.016	-.025	.208	.143	.014	.185	.000
부친교육수준	.003	.010	.007	.742	-.006	.014	-.010	.653	.014	.013	.023	.255
모친교육수준	.014	.010	.030	.151	.018	.015	.026	.227	.028	.013	.042	.035
상수	2.586	.359			2.725	.536			2.398	.468		
F(df)	16.963***(17)				3.757***(17)				44.392***(17)			
R ² (adjusted R ²)	.091(.085)				.022(.016)				.207(.202)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4	.011	-.024	.205	-.021	.010	-.036	.044	-.005	.013	-.007	.710
서적	-.005	.011	-.009	.662	.058	.011	.102	.000	-.042	.014	-.062	.002
컴퓨터, 인터넷	-.023	.011	-.044	.029	-.023	.010	-.042	.028	.021	.013	.032	.113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00	.012	-.001	.971	.036	.012	.061	.002	-.043	.015	-.061	.004
신문	.059	.013	.096	.000	.053	.012	.083	.000	.017	.016	.022	.291
인터넷	.092	.015	.131	.000	.033	.014	.046	.019	.045	.018	.052	.013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37	.009	.080	.000	.029	.009	.061	.001	.091	.012	.159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2	.027	-.008	.665	-.039	.026	-.025	.135	-.064	.033	-.035	.052
모친 가정생활	-.037	.046	-.015	.412	.027	.044	.010	.540	-.075	.057	-.024	.186
국내이슈 대화	.070	.013	.116	.000	.059	.012	.096	.000	.026	.016	.035	.098
국제이슈 대화	.026	.015	.039	.072	.060	.014	.087	.000	-.026	.018	-.031	.153
통제변인												
나이	-.013	.032	-.008	.673	-.012	.031	-.006	.706	.031	.039	.014	.425
성별	-.010	.024	-.008	.672	.197	.023	.150	.000	-.176	.030	-.113	.000
소장도서	-.013	.009	-.028	.157	.033	.009	.068	.000	-.005	.012	-.009	.658
기대교육수준	.007	.013	.010	.607	.071	.013	.099	.000	-.052	.017	-.060	.002
부친교육수준	-.017	.012	-.030	.167	-.005	.012	-.008	.692	-.020	.015	-.028	.186
모친교육수준	.016	.013	.027	.211	.008	.012	.013	.509	.021	.016	.028	.184
상수	1.860	.455			1.636	.443			1.590	.564		
F(df)	14.251***(17)				38.201***(17)				11.989***(17)			
R ² (adjusted R ²)	.077(.072)				.183(.178)				.066(.060)			

Norway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1	.010	.022	.284	-.005	.016	-.007	.735	.010	.014	.013	.489
서적	.005	.010	.010	.644	-.020	.016	-.027	.200	.021	.014	.028	.144
컴퓨터, 인터넷	.008	.010	.019	.440	-.012	.016	-.020	.444	.012	.015	.019	.404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4	.011	.074	.002	-.002	.017	-.003	.906	.088	.016	.122	.000
신문	.014	.010	.032	.175	.008	.016	.013	.602	.030	.015	.045	.037
인터넷	.010	.010	.022	.335	.001	.016	.002	.928	.013	.015	.019	.373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24	.009	-.063	.010	.017	.015	.029	.253	-.035	.014	-.058	.01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6	.025	.028	.158	.045	.040	.023	.257	.009	.037	.005	.806
모친 가정생활	.076	.045	.033	.093	-.121	.072	-.035	.092	.020	.066	.006	.757
국내이슈 대화	-.002	.012	-.004	.877	.011	.019	.015	.561	.046	.018	.060	.009
국제이슈 대화	.035	.013	.071	.005	.012	.020	.016	.538	.059	.018	.076	.001
통제변인												
나이	-.057	.030	-.037	.059	.020	.048	.008	.680	.072	.044	.030	.103
성별	-.004	.020	-.005	.826	.016	.031	.011	.616	.128	.029	.089	.000
소장도서	-.008	.008	-.022	.324	-.012	.012	-.022	.333	.054	.011	.096	.000
기대교육수준	.039	.009	.092	.000	.013	.015	.020	.373	.126	.013	.187	.000
부친교육수준	.008	.011	.018	.456	-.010	.017	-.014	.554	.020	.016	.029	.188
모친교육수준	.027	.010	.061	.010	.026	.017	.038	.115	.053	.015	.075	.001
상수	3.133	.422			2.313	.668			.757	.616		
F(df)	8.450***(17)				.879(17)				33.563***(17)			
R ² (adjusted R ²)	.056(.049)				.006(-.001)				.190(.184)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3	.013	-.038	.066	-.036	.012	-.059	.003	.003	.014	.005	.819
서적	.016	.013	.027	.196	.036	.012	.058	.004	-.048	.014	-.067	.001
컴퓨터, 인터넷	.007	.013	.013	.609	-.003	.013	-.006	.809	.010	.015	.017	.488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09	.014	.016	.498	.023	.013	.039	.086	-.036	.016	-.052	.023
신문	.028	.013	.051	.027	.043	.012	.076	.001	-.042	.015	-.066	.004
인터넷	.040	.013	.071	.002	.039	.013	.067	.003	.026	.015	.039	.087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2	.012	.004	.857	.010	.012	.020	.385	.068	.014	.119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76	.032	-.047	.018	-.079	.031	-.048	.012	-.048	.037	-.025	.196
모친 가정생활	-.006	.058	-.002	.916	-.044	.056	-.015	.435	-.146	.066	-.043	.027
국내이슈 대화	.085	.015	.135	.000	.068	.015	.106	.000	.027	.018	.037	.127
국제이슈 대화	.042	.016	.065	.009	.065	.016	.101	.000	.027	.018	.037	.137
통제변인												
나이	.057	.038	.029	.136	.033	.038	.016	.385	-.006	.044	-.003	.888
성별	-.028	.025	-.024	.264	.054	.024	.045	.027	-.312	.029	-.229	.000
소장도서	.004	.010	.008	.711	.035	.010	.075	.000	-.002	.011	-.004	.849
기대교육수준	.025	.012	.045	.035	.047	.011	.085	.000	-.037	.013	-.058	.006
부친교육수준	.018	.014	.031	.185	-.001	.013	-.001	.959	-.024	.016	-.036	.126
모친교육수준	-.011	.013	-.019	.409	.017	.013	.029	.205	.001	.015	.001	.951
상수	.870	.537			1.236	.526			2.187	.617		
F(df)	12.425***(17)				23.203***(17)				15.184***(17)			
R ² (adjusted R ²)	.080(.074)				.140(.134)				.096(.090)			

Paraguay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2	.008	-.030	.152	-.003	.014	-.004	.859	.005	.010	.011	.596
서적	.008	.010	.016	.437	.029	.017	.036	.092	-.012	.012	-.021	.320
컴퓨터, 인터넷	.005	.008	.014	.576	-.010	.015	-.018	.470	.009	.010	.021	.392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8	.010	.039	.068	.012	.018	.015	.485	.059	.012	.099	.000
신문	.025	.010	.054	.011	.019	.017	.024	.265	-.004	.012	-.008	.709
인터넷	.011	.011	.023	.311	.027	.019	.033	.148	.005	.013	.008	.70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2	.007	-.006	.794	.009	.013	.015	.499	-.004	.009	-.011	.619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5	.021	.035	.098	.030	.037	.017	.419	.027	.026	.021	.308
모친 가정생활	-.021	.027	-.017	.421	-.041	.047	-.019	.384	-.014	.033	-.009	.671
국내이슈 대화	.021	.011	.042	.053	.005	.019	.006	.786	.099	.013	.160	.000
국제이슈 대화	.019	.010	.041	.060	.022	.018	.027	.222	.013	.012	.022	.301
통제변인												
나이	-.020	.013	-.031	.133	.010	.023	.009	.660	.007	.016	.009	.659
성별	-.131	.020	-.135	.000	-.172	.035	-.103	.000	.034	.025	.028	.169
소장도서	-.016	.010	-.037	.115	.000	.017	.000	.985	.020	.012	.039	.096
기대교육수준	-.019	.010	-.039	.063	-.017	.018	-.020	.346	.065	.012	.107	.000
부친교육수준	.009	.008	.028	.285	.005	.014	.009	.743	.009	.010	.024	.349
모친교육수준	-.016	.008	-.053	.048	-.013	.014	-.025	.348	.008	.010	.022	.396
상수	3.022	.210			2.477	.368			2.539	.260		
F(df)	6.114***(17)				2.496**(17)				11.666***(17)			
R ² (adjusted R ²)	.041(.034)				.017(.010)				.075(.068)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1	.012	-.019	.366	.012	.010	.025	.229	.015	.013	.026	.226
서적	.004	.014	.006	.774	.039	.012	.068	.001	.000	.015	.000	.987
컴퓨터, 인터넷	-.002	.012	-.005	.851	.018	.010	.044	.070	.001	.013	.002	.921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16	.015	.023	.279	.015	.012	.025	.233	-.015	.016	-.020	.344
신문	.023	.014	.035	.096	.028	.012	.050	.018	.012	.015	.017	.425
인터넷	.061	.016	.087	.000	.045	.013	.075	.001	.056	.017	.075	.00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4	.011	.030	.173	-.014	.009	-.036	.103	.008	.011	.016	.461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9	.031	-.013	.532	-.010	.026	-.008	.689	.021	.033	.013	.531
모친 가정생활	.000	.039	.000	.997	-.003	.032	-.002	.937	-.027	.042	-.014	.516
국내이슈 대화	.085	.016	.119	.000	.072	.013	.119	.000	.028	.017	.038	.087
국제이슈 대화	-.005	.015	-.008	.712	.033	.012	.059	.007	.010	.016	.014	.528
통제변인												
나이	-.015	.019	-.016	.443	.024	.016	.030	.136	.028	.020	.029	.161
성별	-.096	.029	-.068	.001	-.047	.024	-.039	.056	-.143	.031	-.096	.000
소장도서	.000	.014	.000	.986	.002	.012	.005	.847	-.025	.015	-.038	.110
기대교육수준	-.023	.015	-.033	.118	.030	.012	.050	.015	-.051	.016	-.069	.001
부친교육수준	-.018	.012	-.042	.113	.004	.010	.012	.645	-.008	.012	-.018	.500
모친교육수준	-.011	.012	-.026	.327	.001	.010	.002	.940	-.006	.012	-.013	.627
상수	2.508	.307			1.728	.255			1.759	.327		
F(df)	5.465***(17)				10.281***(17)				4.398***(17)			
R ² (adjusted R ²)	.037(.030)				.067(.060)				.030(.023)			

Poland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9	.009	-.017	.356	-.010	.013	-.015	.443	-.032	.013	-.043	.016
서적	-.008	.009	-.016	.400	.013	.013	.021	.306	.012	.013	.017	.372
컴퓨터, 인터넷	-.022	.009	-.050	.017	-.004	.013	-.006	.784	-.026	.013	-.040	.049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61	.012	.106	.000	.030	.017	.038	.074	.089	.017	.104	.000
신문	.042	.011	.078	.000	.037	.016	.050	.018	.035	.016	.043	.027
인터넷	.015	.010	.030	.128	.000	.014	-.001	.980	.051	.014	.070	.00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31	.008	-.078	.000	.019	.011	.036	.085	-.019	.011	-.033	.085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68	.027	.046	.011	.031	.038	.015	.423	.124	.039	.056	.001
모친 가정생활	.134	.054	.044	.014	.181	.078	.044	.020	.040	.078	.009	.610
국내이슈 대화	.042	.012	.077	.000	.010	.017	.014	.555	.099	.017	.125	.000
국제이슈 대화	.030	.012	.052	.014	.023	.018	.029	.191	.043	.018	.050	.016
통제변인												
나이	-.052	.025	-.037	.039	-.018	.036	-.009	.618	.018	.036	.009	.620
성별	.077	.021	.073	.000	.002	.030	.002	.938	.122	.031	.079	.000
소장도서	-.037	.008	-.089	.000	.000	.012	.001	.968	.028	.012	.046	.019
기대교육수준	.045	.011	.083	.000	.027	.015	.036	.077	.111	.015	.137	.000
부친교육수준	-.008	.014	-.012	.594	-.013	.020	-.014	.533	.001	.020	.001	.968
모친교육수준	-.020	.014	-.033	.146	.005	.020	.006	.797	.021	.020	.023	.286
상수	2.835	.391			2.293	.558			1.489	.562		
F(df)	18.796***(17)				2.896***(17)				30.860***(17)			
R ² (adjusted R ²)	.098(.093)				.017(.011)				.152(.147)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8	.011	-.031	.105	-.053	.011	-.090	.000	-.021	.014	-.029	.123
서적	-.011	.011	-.020	.320	.048	.010	.090	.000	-.004	.013	-.005	.792
컴퓨터, 인터넷	-.020	.011	-.038	.074	-.018	.011	-.034	.098	.005	.014	.008	.699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03	.014	-.004	.844	.025	.014	.037	.070	-.031	.017	-.037	.072
신문	.047	.013	.074	.000	.037	.013	.059	.003	.010	.016	.013	.517
인터넷	.038	.012	.066	.001	.048	.011	.083	.000	.007	.015	.010	.63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5	.009	.033	.106	.011	.009	.025	.208	.048	.012	.083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21	.033	.012	.525	.031	.031	.018	.321	.051	.040	.023	.198
모친 가정생활	.004	.066	.001	.956	.051	.063	.014	.418	-.089	.081	-.020	.268
국내이슈 대화	.039	.014	.061	.007	.062	.014	.099	.000	-.004	.018	-.006	.801
국제이슈 대화	.049	.015	.072	.001	.026	.014	.039	.062	-.043	.018	-.051	.018
통제변인												
나이	-.044	.031	-.026	.154	.057	.029	.035	.049	.029	.037	.014	.441
성별	-.179	.026	-.144	.000	-.001	.025	.000	.983	-.335	.031	-.219	.000
소장도서	.003	.010	.006	.773	.028	.010	.059	.003	.039	.012	.064	.002
기대교육수준	.004	.013	.005	.784	.036	.012	.057	.003	-.054	.016	-.068	.001
부친교육수준	-.023	.017	-.030	.180	.004	.016	.005	.807	.015	.021	.016	.473
모친교육수준	.002	.017	.003	.907	.000	.016	.000	.992	-.002	.020	-.002	.940
상수	2.472	.474			.784	.452			1.689	.579		
F(df)	10.099***(17)				19.960***(17)				12.553***(17)			
R ² (adjusted R ²)	.055(.050)				.104(.099)				.068(.063)			

Russian Federation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5	.007	.012	.495	.006	.011	.010	.547	-.011	.010	-.017	.296
서적	.011	.007	.029	.109	-.010	.011	-.017	.355	-.009	.010	-.016	.359
컴퓨터, 인터넷	-.021	.006	-.065	.001	.007	.009	.013	.485	-.021	.009	-.043	.02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7	.008	.064	.001	-.005	.012	-.008	.686	.075	.012	.118	.000
신문	.061	.008	.135	.000	.026	.013	.037	.047	.062	.012	.091	.000
인터넷	.042	.008	.103	.000	.006	.012	.010	.599	.036	.011	.059	.00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0	.006	.000	.998	.013	.010	.025	.180	-.011	.009	-.021	.236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9	.016	.040	.016	.019	.026	.012	.470	-.008	.024	-.006	.735
모친 가정생활	-.009	.031	-.005	.776	.035	.048	.013	.464	-.017	.045	-.006	.701
국내이슈 대화	.001	.010	.002	.912	.002	.016	.002	.905	.055	.015	.071	.000
국제이슈 대화	-.003	.009	-.007	.727	.000	.015	.001	.979	.031	.014	.043	.026
통제변인												
나이	-.054	.015	-.061	.000	-.041	.023	-.030	.075	.001	.022	.000	.980
성별	-.012	.016	-.013	.481	-.108	.026	-.078	.000	.074	.024	.055	.002
소장도서	-.013	.006	-.036	.042	.006	.010	.011	.532	.013	.009	.024	.159
기대교육수준	.007	.008	.015	.418	.030	.013	.043	.022	.063	.012	.092	.000
부친교육수준	-.011	.008	-.027	.153	.018	.012	.028	.150	-.002	.011	-.003	.868
모친교육수준	-.003	.008	-.007	.721	.005	.013	.007	.704	.017	.012	.027	.148
상수	3.423	.231			2.856	.364			2.506	.342		
F(df)	13.065***(17)				2.906***(17)				21.730***(17)			
R ² (adjusted R ²)	.060(.055)				.014(.009)				.095(.091)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6	.011	-.010	.564	-.021	.009	-.041	.017	-.007	.010	-.012	.473
서적	.010	.011	.016	.359	.023	.009	.045	.011	-.019	.011	-.032	.079
컴퓨터, 인터넷	-.027	.010	-.052	.005	-.015	.008	-.035	.061	.016	.009	.033	.084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7	.013	.039	.036	.022	.010	.041	.029	-.024	.012	-.038	.048
신문	.055	.013	.077	.000	.028	.011	.048	.009	-.026	.013	-.039	.037
인터넷	.032	.012	.050	.008	.040	.010	.076	.000	.002	.011	.004	.832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6	.010	.029	.107	.008	.008	.017	.337	.028	.009	.055	.002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42	.026	.027	.108	.033	.021	.026	.125	.041	.025	.028	.101
모친 가정생활	-.119	.049	-.041	.015	-.058	.040	-.024	.148	-.040	.047	-.014	.397
국내이슈 대화	.082	.016	.100	.000	.043	.013	.064	.001	.022	.016	.029	.159
국제이슈 대화	.032	.015	.042	.034	.041	.012	.066	.001	-.008	.014	-.011	.594
통제변인												
나이	-.047	.024	-.033	.045	-.016	.019	-.013	.420	.030	.023	.022	.185
성별	-.152	.026	-.106	.000	-.013	.021	-.011	.545	-.167	.025	-.124	.000
소장도서	-.029	.010	-.050	.005	.017	.008	.036	.040	-.001	.010	-.002	.919
기대교육수준	-.018	.013	-.024	.187	.008	.011	.013	.463	-.030	.013	-.044	.018
부친교육수준	-.005	.012	-.008	.671	-.006	.010	-.011	.549	-.008	.012	-.012	.520
모친교육수준	.013	.013	.019	.320	.024	.011	.043	.026	.021	.012	.032	.097
상수	2.830	.369			2.164	.302			1.446	.353		
F(df)	12.601***(17)				13.438***(17)				7.263***(17)			
R ² (adjusted R ²)	.058(.053)				.061(.057)				.034(.029)			

Slovak Republic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36	.010	.067	.000	.007	.015	.009	.662	.015	.014	.020	.284
서적	.025	.009	.054	.008	.064	.014	.096	.000	.031	.013	.047	.016
컴퓨터, 인터넷	-.034	.009	-.080	.000	-.019	.014	-.031	.169	-.037	.013	-.060	.005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5	.011	.084	.000	-.003	.017	-.004	.845	.088	.016	.114	.000
신문	.033	.010	.065	.002	.045	.015	.062	.003	.037	.014	.050	.011
인터넷	.021	.010	.044	.038	.021	.015	.031	.152	.036	.014	.053	.009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21	.009	-.051	.017	.012	.013	.020	.353	.012	.012	.021	.311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8	.024	.030	.108	.075	.035	.042	.032	.043	.033	.024	.191
모친 가정생활	.089	.042	.040	.033	.023	.061	.007	.702	.072	.057	.023	.212
국내이슈 대화	.021	.012	.037	.076	.009	.018	.011	.593	.092	.017	.111	.000
국제이슈 대화	.023	.013	.038	.070	.042	.019	.047	.025	.028	.018	.032	.109
통제변인												
나이	-.043	.023	-.037	.056	.049	.033	.029	.140	-.008	.031	-.005	.803
성별	-.034	.022	-.032	.118	-.063	.032	-.041	.049	-.010	.030	-.007	.738
소장도서	-.025	.010	-.056	.009	.007	.014	.011	.619	.057	.013	.088	.000
기대교육수준	.007	.011	.013	.523	-.004	.016	-.005	.809	.127	.015	.167	.000
부친교육수준	-.016	.014	-.025	.271	-.004	.021	-.004	.846	.003	.020	.004	.859
모친교육수준	-.030	.014	-.047	.040	.022	.021	.025	.288	-.007	.020	-.007	.744
상수	3.044	.345			1.314	.507			1.762	.478		
F(df)	11.609***(17)				4.929***(17)				26.846***(17)			
R ² (adjusted R ²)	.067(.061)				.029(.023)				.141(.136)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4	.012	-.006	.746	-.019	.012	-.030	.114	.001	.015	.001	.970
서적	-.037	.011	-.068	.001	.040	.011	.074	.000	-.056	.014	-.083	.000
컴퓨터, 인터넷	-.023	.011	-.046	.037	-.014	.011	-.027	.214	.010	.014	.016	.46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2	.013	.036	.095	.036	.013	.057	.006	-.032	.017	-.041	.055
신문	.011	.012	.019	.366	.010	.012	.017	.409	-.014	.015	-.019	.359
인터넷	.025	.012	.045	.032	.039	.012	.070	.001	.006	.015	.008	.705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07	.010	.015	.479	.030	.010	.063	.003	.068	.013	.112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4	.028	-.003	.889	-.049	.027	-.033	.075	-.032	.035	-.017	.359
모친 가정생활	.070	.049	.027	.153	-.068	.048	-.026	.156	-.084	.061	-.026	.172
국내이슈 대화	.084	.014	.125	.000	.053	.014	.079	.000	-.001	.018	-.001	.957
국제이슈 대화	.050	.015	.070	.001	.052	.015	.073	.000	.002	.019	.002	.915
통제변인												
나이	.042	.027	.031	.110	.008	.026	.006	.757	.064	.033	.036	.058
성별	-.091	.026	-.073	.000	-.021	.025	-.017	.408	-.171	.032	-.109	.000
소장도서	.012	.011	.023	.273	.053	.011	.100	.000	.006	.014	.010	.651
기대교육수준	-.049	.013	-.080	.000	.046	.013	.075	.000	-.086	.016	-.110	.000
부친교육수준	-.014	.017	-.019	.399	.011	.016	.016	.482	.021	.021	.022	.326
모친교육수준	-.037	.017	-.050	.030	-.004	.017	-.005	.828	-.009	.021	-.010	.676
상수	1.380	.405			1.761	.397			1.249	.510		
F(df)	11.395***(17)				16.641***(17)				11.328***(17)			
R ² (adjusted R ²)	.065(.060)				.093(.087)				.065(.059)			

Slovenia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2	.012	.003	.871	-.020	.016	-.026	.209	-.037	.016	-.045	.020
서적	.065	.011	.120	.000	.025	.015	.034	.106	.054	.015	.072	.000
컴퓨터, 인터넷	-.040	.011	-.082	.000	.014	.016	.022	.367	.005	.015	.007	.739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3	.012	.081	.000	.010	.016	.013	.557	.069	.016	.094	.000
신문	.010	.012	.018	.397	.000	.016	.000	.990	-.004	.016	-.006	.776
인터넷	.055	.011	.104	.000	-.001	.015	-.001	.948	.053	.015	.073	.00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4	.010	.010	.667	-.018	.014	-.029	.208	-.002	.014	-.003	.89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22	.030	.015	.467	.036	.042	.018	.384	.028	.040	.014	.481
모친 가정생활	.115	.044	.053	.009	.043	.061	.015	.484	.048	.059	.016	.415
국내이슈 대화	.000	.015	-.001	.976	-.039	.021	-.040	.071	.121	.021	.122	.000
국제이슈 대화	.037	.013	.059	.005	.065	.018	.078	.000	.038	.018	.044	.031
통제변인												
나이	.009	.033	.005	.775	-.029	.046	-.012	.523	-.010	.044	-.004	.819
성별	.002	.024	.001	.945	.010	.033	.006	.771	.026	.032	.017	.410
소장도서	-.026	.009	-.057	.005	.013	.013	.021	.318	.037	.012	.060	.003
기대교육수준	.030	.013	.047	.025	.017	.018	.020	.341	.132	.018	.151	.000
부친교육수준	.012	.014	.019	.399	-.017	.020	-.021	.383	.002	.019	.003	.905
모친교육수준	-.016	.013	-.028	.232	-.028	.019	-.036	.134	.027	.018	.034	.130
상수	2.079	.467			3.098	.648			2.002	.625		
F(df)	11.628***(17)				1.926*(17)				24.088***(17)			
R ² (adjusted R ²)	.069(.063)				.012(.006)				.132(.127)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41	.014	-.060	.002	-.034	.013	-.052	.009	-.012	.017	-.014	.464
서적	.015	.013	.024	.230	.033	.012	.055	.007	-.060	.016	-.076	.000
컴퓨터, 인터넷	.015	.013	.025	.273	.010	.013	.018	.454	.074	.017	.103	.00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00	.014	.001	.980	-.008	.013	-.014	.535	-.043	.017	-.055	.011
신문	.004	.014	.006	.786	.035	.013	.055	.009	-.026	.017	-.032	.120
인터넷	.031	.013	.051	.013	.033	.012	.057	.006	-.021	.016	-.027	.184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37	.012	.069	.002	.025	.012	.048	.031	.031	.015	.045	.041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5	.035	.003	.884	-.006	.034	-.004	.853	-.047	.043	-.022	.276
모친 가정생활	.070	.051	.028	.171	-.081	.050	-.033	.105	-.105	.064	-.033	.101
국내이슈 대화	.116	.018	.140	.000	.059	.017	.074	.001	-.002	.022	-.002	.933
국제이슈 대화	.043	.015	.059	.005	.051	.015	.073	.001	-.026	.019	-.028	.173
통제변인												
나이	.015	.038	.007	.697	.003	.037	.001	.943	.037	.048	.014	.442
성별	-.199	.027	-.152	.000	.001	.027	.001	.960	-.318	.034	-.192	.000
소장도서	.017	.011	.033	.105	.039	.010	.078	.000	.028	.013	.042	.038
기대교육수준	.008	.015	.011	.610	.033	.015	.046	.028	-.037	.019	-.040	.053
부친교육수준	-.005	.016	-.008	.742	.013	.016	.019	.409	-.010	.021	-.010	.644
모친교육수준	-.046	.016	-.069	.003	-.018	.015	-.027	.243	-.013	.019	-.016	.496
상수	1.574	.539			1.959	.524			1.822	.674		
F(df)	13.462***(17)				10.249***(17)				15.913***(17)			
R ² (adjusted R ²)	.079(.073)				.061(.055)				.092(.086)			

Spain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 비디오, DVD	-.007	.009	-.015	.403	-.009	.014	-.012	.537	-.009	.012	-.013	.464
서적	.034	.009	.071	.000	.020	.015	.027	.175	.007	.013	.010	.584
컴퓨터, 인터넷	-.015	.009	-.038	.087	-.017	.015	-.027	.239	-.023	.012	-.040	.068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52	.009	.110	.000	.009	.015	.013	.520	.107	.012	.158	.000
신문	.024	.010	.045	.019	.026	.017	.031	.124	.047	.014	.063	.001
인터넷	.054	.011	.094	.000	.053	.018	.057	.004	.034	.015	.041	.028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17	.009	-.041	.069	.009	.015	.014	.548	-.009	.013	-.016	.469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내이슈 대화	-.002	.011	-.003	.866	.003	.018	.004	.866	.084	.015	.111	.000
국제이슈 대화	.024	.011	.046	.025	.007	.018	.008	.697	.000	.015	.000	.986
통제변인												
나이	-.061	.015	-.083	.000	-.019	.024	-.016	.441	-.041	.021	-.038	.049
성별	-.007	.019	-.007	.709	-.063	.031	-.039	.045	.014	.027	.010	.592
소장도서	-.026	.008	-.067	.001	-.028	.013	-.044	.035	.016	.011	.028	.154
기대교육수준	.023	.009	.059	.006	-.007	.014	-.012	.596	.084	.012	.147	.000
부친교육수준	.006	.008	.019	.430	.015	.013	.028	.246	.011	.011	.022	.333
모친교육수준	-.005	.008	-.014	.552	-.014	.013	-.025	.310	.004	.011	.009	.693
상수	3.370	.227			2.917	.373			2.948	.315		
F(df)	16.740***(15)				2.253**(15)				31.134***(15)			
R ² (adjusted R ²)	.077(.072)				.011(.006)				.134(.130)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 비디오, DVD	-.007	.012	-.010	.582	-.003	.010	-.005	.797	.054	.014	.070	.000
서적	-.009	.013	-.014	.462	.045	.011	.078	.000	-.048	.015	-.063	.001
컴퓨터, 인터넷	-.011	.013	-.021	.370	-.016	.011	-.033	.139	.036	.014	.056	.012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3	.013	.035	.072	.034	.011	.059	.002	-.026	.014	-.034	.069
신문	.030	.014	.041	.036	.044	.012	.069	.000	.018	.016	.021	.260
인터넷	.055	.015	.070	.000	.047	.013	.068	.000	.005	.018	.006	.759
친구재형												
휴대폰, 인터넷	.001	.013	.002	.926	.007	.011	.015	.500	.061	.015	.093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국내이슈 대화	.053	.015	.074	.000	.054	.013	.085	.000	.009	.017	.010	.616
국제이슈 대화	.028	.015	.038	.068	.077	.013	.122	.000	.017	.017	.019	.339
통제변인												
나이	-.012	.021	-.012	.573	-.015	.018	-.017	.392	.033	.024	.028	.167
성별	-.052	.027	-.037	.054	.044	.023	.036	.054	-.267	.031	-.161	.000
소장도서	-.021	.011	-.039	.062	.012	.010	.025	.204	.011	.013	.016	.415
기대교육수준	-.002	.012	-.004	.842	.023	.010	.047	.025	-.064	.014	-.098	.000
부친교육수준	-.018	.011	-.039	.105	-.015	.009	-.036	.119	-.034	.013	-.062	.008
모친교육수준	.009	.011	.019	.430	-.003	.010	-.006	.790	.015	.013	.026	.263
상수	2.107	.317			2.087	.270			1.396	.366		
F(df)	6.124***(15)				22.706***(15)				20.314***(15)			
R ² (adjusted R ²)	.030(.025)				.102(.097)				.092(.087)			

Sweden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3	.010	-.042	.024	-.026	.013	-.037	.055	-.033	.012	-.047	.007
서적	-.008	.010	-.016	.426	-.007	.013	-.010	.625	.005	.012	.007	.697
컴퓨터, 인터넷	-.015	.011	-.030	.159	.001	.014	.002	.943	-.025	.013	-.038	.054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65	.012	.125	.000	.042	.017	.062	.012	.062	.015	.091	.000
신문	.023	.011	.046	.040	.024	.015	.036	.116	.032	.014	.048	.023
인터넷	-.007	.011	-.014	.521	.004	.015	.006	.797	.039	.014	.058	.005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32	.009	-.077	.000	-.017	.012	-.031	.148	-.017	.011	-.031	.121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107	.026	.075	.000	.044	.036	.023	.218	.001	.033	.000	.982
모친 가정생활	.111	.047	.043	.018	.046	.063	.014	.461	.263	.058	.079	.000
국내이슈 대화	.025	.014	.043	.069	.018	.019	.023	.347	.094	.017	.121	.000
국제이슈 대화	-.001	.014	-.001	.951	.016	.019	.021	.393	.031	.017	.041	.073
통제변인												
나이	.009	.028	.006	.747	-.024	.038	-.012	.529	-.016	.035	-.008	.654
성별	.035	.022	.033	.103	-.010	.029	-.007	.740	.104	.027	.074	.000
소장도서	.014	.008	.036	.072	.014	.011	.027	.198	.071	.010	.134	.000
기대교육수준	.041	.011	.074	.000	.020	.015	.027	.187	.081	.014	.111	.000
부친교육수준	.004	.010	.008	.728	.007	.014	.012	.596	.013	.013	.020	.322
모친교육수준	.023	.010	.047	.030	.002	.014	.003	.878	.023	.013	.037	.072
상수	2.212	.429			2.797	.578			2.127	.532		
F(df)	14.706***(17)				4.001***(17)				36.279***(17)			
R ² (adjusted R ²)	.082(.076)				.024(.018)				.181(.176)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4	.011	-.023	.208	-.007	.011	-.013	.478	.034	.013	.047	.011
서적	-.009	.011	-.017	.409	.057	.011	.104	.000	-.022	.013	-.034	.090
컴퓨터, 인터넷	-.013	.011	-.024	.251	-.029	.011	-.051	.011	.017	.014	.025	.239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0	.014	.036	.135	.000	.013	.000	.989	-.059	.017	-.086	.000
신문	.018	.012	.032	.149	.043	.012	.075	.000	-.002	.015	-.003	.895
인터넷	.050	.012	.090	.000	.041	.012	.072	.001	.021	.015	.030	.162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7	.009	.037	.078	.021	.009	.046	.021	.071	.012	.128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48	.029	-.031	.096	-.035	.028	-.022	.216	-.103	.035	-.054	.003
모친 가정생활	.078	.051	.028	.122	.036	.049	.013	.466	-.104	.062	-.030	.095
국내이슈 대화	.080	.015	.124	.000	.074	.015	.113	.000	-.001	.018	-.002	.937
국제이슈 대화	.048	.015	.076	.002	.075	.015	.117	.000	.012	.019	.015	.527
통제변인												
나이	-.032	.030	-.019	.299	-.020	.030	-.012	.501	.014	.037	.007	.715
성별	-.008	.023	-.007	.747	.104	.023	.088	.000	-.274	.029	-.192	.000
소장도서	.017	.009	.038	.059	.043	.009	.097	.000	.018	.011	.034	.089
기대교육수준	.009	.012	.015	.437	.027	.012	.043	.023	-.068	.015	-.092	.000
부친교육수준	-.004	.011	-.008	.728	.013	.011	.024	.251	-.029	.014	-.046	.034
모친교육수준	.010	.011	.019	.378	-.008	.011	-.015	.459	-.015	.014	-.023	.279
상수	2.056	.466			1.866	.455			1.790	.570		
F(df)	14.292***(17)				31.994***(17)				17.148***(17)			
R ² (adjusted R ²)	.080(.074)				.163(.158)				.094(.089)			

Switzerland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7	.010	.014	.488	.011	.015	.016	.458	-.027	.014	-.037	.059
서적	.046	.010	.099	.000	.055	.014	.084	.000	.028	.014	.041	.042
컴퓨터, 인터넷	-.034	.011	-.073	.002	-.030	.016	-.046	.057	-.012	.015	-.017	.435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28	.011	.057	.010	-.013	.015	-.020	.381	.081	.015	.113	.000
신문	.011	.010	.025	.252	.015	.014	.024	.281	.023	.014	.034	.094
인터넷	.040	.013	.069	.001	.038	.018	.047	.032	.032	.017	.037	.068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29	.010	-.066	.005	.014	.015	.023	.348	-.033	.014	-.050	.023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65	.025	.051	.010	.033	.036	.018	.368	.025	.035	.013	.485
모친 가정생활	.033	.056	.012	.561	.083	.080	.021	.298	.064	.077	.015	.408
국내이슈 대화	.028	.012	.054	.022	-.006	.017	-.008	.735	.091	.017	.118	.000
국제이슈 대화	.008	.013	.014	.549	.036	.019	.044	.061	.016	.018	.019	.376
통제변인												
나이	.001	.017	.001	.961	.092	.024	.080	.000	-.092	.024	-.076	.000
성별	-.006	.022	-.006	.798	-.033	.032	-.022	.308	.002	.031	.001	.958
소장도서	-.018	.009	-.045	.049	-.005	.013	-.009	.713	.052	.012	.090	.000
기대교육수준	-.012	.010	-.025	.252	-.032	.015	-.048	.028	.087	.014	.122	.000
부친교육수준	.018	.011	.039	.101	.031	.015	.048	.047	.048	.015	.071	.001
모친교육수준	-.014	.011	-.030	.206	-.020	.016	-.030	.213	.055	.016	.078	.000
상수	2.554	.277			1.049	.396			3.186	.384		
F(df)	8.252***(17)				3.616***(17)				31.907***(17)			
R ² (adjusted R ²)	.054(.048)				.024(.018)				.181(.175)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38	.012	-.066	.001	-.029	.011	-.050	.012	.018	.015	.024	.228
서적	-.026	.011	-.048	.025	.034	.011	.064	.002	-.065	.014	-.095	.000
컴퓨터, 인터넷	-.031	.013	-.058	.013	.003	.012	.006	.808	.020	.016	.029	.210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4	.012	.060	.006	.044	.012	.080	.000	-.010	.015	-.014	.524
신문	.016	.011	.030	.160	.027	.011	.053	.011	-.019	.014	-.028	.185
인터넷	.036	.014	.053	.012	.056	.014	.086	.000	-.002	.018	-.002	.930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1	.012	.021	.376	-.004	.011	-.008	.740	.096	.015	.147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69	.029	.046	.018	.007	.028	.005	.799	-.028	.036	-.015	.439
모친 가정생활	-.005	.064	-.002	.932	-.071	.061	-.022	.244	-.199	.080	-.048	.013
국내이슈 대화	.080	.014	.133	.000	.034	.013	.059	.010	.004	.017	.005	.832
국제이슈 대화	.011	.015	.016	.473	.051	.015	.079	.000	-.019	.019	-.023	.319
통제변인												
나이	.010	.020	.010	.623	-.007	.019	-.008	.701	.000	.024	.000	.987
성별	-.142	.026	-.118	.000	.055	.024	.046	.026	-.378	.032	-.247	.000
소장도서	-.001	.010	-.001	.959	.038	.010	.086	.000	.041	.013	.070	.002
기대교육수준	.033	.012	.058	.006	.041	.011	.075	.000	-.034	.015	-.049	.020
부친교육수준	.011	.012	.021	.378	.019	.012	.037	.103	.017	.016	.026	.266
모친교육수준	.026	.013	.047	.047	.023	.012	.042	.065	-.016	.016	-.023	.312
상수	1.634	.317			1.731	.303			1.946	.398		
F(df)	13.878***(17)				19.695***(17)				17.903***(17)			
R ² (adjusted R ²)	.088(.081)				.120(.114)				.110(.104)			

Thailand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03	.005	-.009	.566	-.015	.010	-.023	.122	.020	.008	.038	.010
서적	.003	.007	.007	.658	.007	.013	.009	.572	.012	.010	.017	.250
컴퓨터, 인터넷	-.011	.005	-.033	.050	.011	.010	.018	.276	-.012	.008	-.026	.116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3	.007	.069	.000	.001	.013	.002	.914	.065	.010	.096	.000
신문	.028	.008	.058	.000	.005	.014	.006	.714	.027	.011	.039	.011
인터넷	.030	.007	.065	.000	.054	.013	.065	.000	.025	.010	.038	.015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1	.006	.002	.915	-.011	.011	-.016	.305	-.001	.008	-.001	.928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7	.014	.008	.611	.033	.026	.020	.195	-.009	.020	-.007	.652
모친 가정생활	.001	.017	.001	.972	-.028	.030	-.014	.356	.025	.024	.016	.297
국내이슈 대화	-.001	.008	-.003	.856	.004	.014	.005	.775	.028	.011	.041	.009
국제이슈 대화	.020	.007	.043	.006	.013	.013	.016	.331	.036	.010	.054	.001
통제변인												
나이	-.022	.013	-.023	.099	.006	.024	.004	.805	-.013	.019	-.010	.489
성별	-.110	.013	-.125	.000	-.137	.024	-.087	.000	.047	.019	.038	.012
소장도서	-.001	.006	-.001	.930	.018	.011	.026	.088	-.017	.008	-.030	.045
기대교육수준	.005	.007	.012	.423	-.044	.012	-.057	.000	.081	.009	.132	.000
부친교육수준	-.019	.006	-.066	.001	-.031	.010	-.060	.002	.021	.008	.051	.007
모친교육수준	-.018	.006	-.062	.001	-.011	.010	-.021	.287	.005	.008	.011	.554
상수	3.233	.195			2.810	.353			2.785	.274		
F(df)	12.843***(17)				7.413***(17)				23.544***(17)			
R ² (adjusted R ²)	.043(.039)				.025(.022)				.076(.073)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35	.009	-.060	.000	-.019	.008	-.036	.015	-.035	.010	-.052	.000
서적	.008	.011	.010	.479	.014	.010	.021	.163	-.019	.013	-.021	.141
컴퓨터, 인터넷	-.027	.008	-.053	.001	-.026	.008	-.057	.001	-.010	.009	-.017	.288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02	.012	-.002	.888	-.020	.010	-.030	.049	-.074	.013	-.084	.000
신문	.014	.012	.018	.249	-.003	.011	-.005	.752	-.037	.013	-.041	.005
인터넷	.056	.012	.075	.000	.065	.010	.097	.000	.041	.013	.048	.00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28	.009	.045	.003	.023	.008	.042	.007	.045	.010	.063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8	.022	.012	.419	.017	.020	.013	.401	.032	.025	.018	.206
모친 가정생활	.050	.026	.028	.059	.029	.024	.019	.220	.037	.030	.018	.208
국내이슈 대화	.036	.012	.046	.003	.057	.011	.082	.000	.027	.014	.030	.045
국제이슈 대화	.021	.012	.028	.074	.026	.010	.039	.014	-.005	.013	-.005	.715
통제변인												
나이	.021	.021	.014	.309	.029	.019	.022	.124	.053	.023	.030	.024
성별	-.247	.021	-.175	.000	-.234	.019	-.186	.000	-.404	.024	-.247	.000
소장도서	.007	.009	.011	.445	.011	.008	.020	.176	.004	.010	.005	.712
기대교육수준	-.052	.011	-.075	.000	-.053	.009	-.086	.000	-.124	.012	-.153	.000
부친교육수준	-.030	.009	-.065	.001	-.017	.008	-.042	.028	-.024	.010	-.046	.012
모친교육수준	-.043	.009	-.091	.000	-.003	.008	-.008	.672	-.025	.010	-.046	.011
상수	2.431	.307			2.166	.276			1.983	.344		
F(df)	24.749***(17)				22.425***(17)				49.373***(17)			
R ² (adjusted R ²)	.079(.076)				.072(.069)				.147(.144)			

England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2	.011	-.024	.305	-.019	.017	-.025	.287	-.011	.016	-.015	.463
서적	-.008	.011	-.017	.497	.009	.017	.014	.598	.019	.016	.027	.233
컴퓨터, 인터넷	-.004	.012	-.010	.715	-.013	.018	-.019	.485	-.022	.016	-.033	.168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47	.012	.103	.000	.031	.018	.044	.094	.079	.016	.112	.000
신문	-.012	.011	-.027	.279	-.003	.018	-.004	.881	.015	.016	.021	.345
인터넷	.030	.013	.060	.018	-.005	.020	-.007	.781	.032	.018	.041	.071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8	.011	-.045	.096	.010	.016	.017	.523	-.027	.015	-.045	.064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37	.026	.032	.154	.062	.040	.036	.120	.133	.036	.075	.000
모친 가정생활	.032	.055	.013	.564	-.033	.085	-.009	.696	.001	.076	.000	.985
국내이슈 대화	-.011	.014	-.020	.446	.010	.021	.012	.648	.070	.019	.088	.000
국제이슈 대화	.033	.014	.062	.023	.014	.022	.018	.523	.095	.020	.117	.000
통제변인												
나이	-.021	.037	-.013	.566	-.076	.057	-.030	.182	.006	.051	.003	.899
성별	-.038	.024	-.037	.115	.016	.037	.011	.657	.009	.033	.006	.795
소장도서	.008	.009	.023	.372	-.014	.014	-.027	.302	.080	.012	.149	.000
기대교육수준	.011	.013	.019	.414	-.002	.020	-.002	.921	.132	.018	.155	.000
부친교육수준	.017	.012	.036	.178	.017	.019	.024	.374	.008	.017	.012	.622
모친교육수준	.005	.013	.010	.702	.001	.020	.002	.950	.024	.018	.032	.182
상수	2.815	.529			3.539	.815			1.528	.731		
F(df)	5.051***(17)				.939(17)				33.974***(17)			
R ² (adjusted R ²)	.041(.033)				.008(-.001)				.225(.219)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37	.013	-.062	.006	-.031	.013	-.048	.023	-.010	.017	-.014	.544
서적	.006	.013	.012	.630	.049	.013	.086	.000	-.042	.017	-.062	.014
컴퓨터, 인터넷	-.018	.014	-.033	.197	-.014	.014	-.024	.329	.001	.018	.001	.958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4	.014	.062	.015	.020	.014	.034	.153	-.044	.018	-.063	.014
신문	.009	.014	.016	.502	.033	.014	.056	.015	.023	.017	.033	.180
인터넷	.062	.015	.102	.000	.061	.015	.093	.000	.001	.019	.001	.965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01	.013	.001	.956	.007	.013	.014	.578	.076	.016	.124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8	.030	-.006	.791	-.008	.031	-.006	.785	-.085	.039	-.048	.030
모친 가정생활	-.051	.065	-.017	.435	.081	.066	.025	.215	-.183	.084	-.048	.029
국내이슈 대화	.037	.016	.059	.025	.064	.016	.095	.000	-.032	.021	-.040	.130
국제이슈 대화	.056	.017	.088	.001	.089	.017	.129	.000	.013	.022	.015	.564
통제변인												
나이	-.074	.044	-.037	.092	-.047	.044	-.022	.286	-.032	.056	-.012	.573
성별	-.029	.028	-.024	.298	.190	.028	.145	.000	-.251	.036	-.161	.000
소장도서	.003	.011	.006	.802	.045	.011	.099	.000	-.016	.014	-.030	.238
기대교육수준	.043	.015	.065	.004	.062	.015	.087	.000	-.035	.020	-.041	.076
부친교육수준	.008	.015	.015	.570	.006	.015	.010	.670	-.012	.019	-.017	.519
모친교육수준	-.018	.015	-.031	.241	.004	.015	.006	.802	-.023	.019	-.031	.246
상수	2.833	.625			2.155	.630			2.972	.805		
F(df)	9.963***(17)				28.290***(17)				8.791***(17)			
R ² (adjusted R ²)	.079(.071)				.195(.188)				.070(.062)			

Belgium

	제도신뢰				대인신뢰				전통적 선거참여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11	.010	.023	.269	-.026	.016	-.035	.093	-.035	.014	-.047	.014
서적	.019	.010	.039	.063	.018	.016	.024	.263	.082	.015	.110	.000
컴퓨터, 인터넷	-.017	.010	-.040	.095	-.013	.016	-.019	.422	.008	.014	.012	.579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6	.010	.083	.000	.023	.015	.034	.123	.100	.013	.152	.000
신문	.009	.009	.020	.333	.014	.014	.021	.331	.022	.013	.034	.087
인터넷	.017	.012	.030	.146	.026	.019	.029	.168	.045	.017	.052	.008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15	.009	-.040	.094	-.004	.014	-.007	.767	-.033	.013	-.057	.011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09	.026	.007	.736	.068	.041	.033	.095	-.011	.037	-.005	.765
모친 가정생활	.037	.051	.014	.473	.079	.080	.019	.324	-.002	.072	.000	.983
국내이슈 대화	-.006	.013	-.010	.645	-.035	.020	-.039	.088	.092	.019	.104	.000
국제이슈 대화	.038	.012	.072	.002	.030	.019	.038	.102	.047	.017	.060	.005
통제변인												
나이	-.014	.018	-.016	.441	-.055	.028	-.040	.050	-.007	.026	-.005	.774
성별	-.018	.020	-.018	.384	.086	.032	.058	.007	-.012	.029	-.008	.666
소장도서	.003	.008	.009	.667	-.009	.013	-.015	.476	.032	.011	.055	.006
기대교육수준	.010	.012	.017	.408	-.009	.019	-.010	.629	.072	.017	.080	.000
부친교육수준	-.002	.011	-.004	.861	.008	.017	.011	.623	.043	.015	.061	.004
모친교육수준	.033	.011	.073	.002	.027	.017	.038	.107	.042	.015	.060	.005
상수	2.498	.279			3.131	.434			1.775	.393		
F(df)	6.214***(17)				2.854***(17)				28.283***(17)			
R ² (adjusted R ²)	.040(.033)				.019(.012)				.158(.152)			

	전통적 · 정파적 참여의향				합법적 저항의향				불법적 저항의향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오락추구 미디어이용												
TV,비디오, DVD	-.022	.012	-.038	.061	-.021	.012	-.036	.068	.018	.015	.024	.227
서적	.013	.012	.022	.276	.068	.012	.112	.000	-.069	.015	-.091	.000
컴퓨터, 인터넷	-.020	.012	-.040	.089	.001	.012	.002	.920	.006	.015	.009	.698
정보추구 미디어이용												
TV	.034	.011	.064	.003	.038	.011	.072	.001	-.042	.014	-.063	.003
신문	.004	.011	.008	.712	.038	.011	.071	.000	.021	.014	.032	.119
인터넷	.036	.014	.052	.012	.066	.014	.094	.000	.037	.018	.042	.039
친구채팅												
휴대폰, 인터넷	.040	.011	.086	.000	.005	.011	.011	.644	.113	.014	.192	.000
가족내부 사회자본												
부친 가정생활	-.019	.031	-.012	.533	-.013	.031	-.008	.666	.005	.039	.003	.889
모친 가정생활	-.035	.061	-.011	.566	.007	.060	.002	.904	-.113	.076	-.028	.140
국내이슈 대화	.069	.016	.098	.000	.021	.015	.030	.170	.003	.020	.003	.898
국제이슈 대화	.048	.014	.077	.001	.068	.014	.107	.000	.004	.018	.005	.815
통제변인												
나이	.095	.022	.088	.000	.011	.021	.010	.602	.070	.027	.051	.010
성별	-.112	.024	-.096	.000	.065	.024	.055	.007	-.306	.030	-.206	.000
소장도서	.012	.010	.027	.200	.021	.010	.045	.029	.021	.012	.035	.088
기대교육수준	.021	.014	.029	.152	.038	.014	.052	.008	.011	.018	.012	.531
부친교육수준	.015	.013	.027	.232	.026	.013	.046	.039	.000	.016	.000	.997
모친교육수준	-.007	.013	-.012	.593	-.003	.013	-.005	.809	-.020	.016	-.029	.197
상수	.103	.330			1.394	.328			.707	.415		
F(df)	11.475***(17)				18.259***(17)				16.102***(17)			
R ² (adjusted R ²)	.071(.064)				.108(.102)				.096(.090)			

Note: † p<.10 *p<.05 **p<.01 ***p<.001

[부록 3-1] 국가별 거시적 변인의 기술통계

	국가	제도신뢰 (평균)	제도신뢰 (표준편차)	대인신뢰 (평균)	대인신뢰 (표준편차)	전통적 선거 참여의향 (평균)	전통적 선거 참여의향 (표준편차)
1	Austria	2.7864	0.53486	2.7139	0.80847	3.2039	0.69915
2	Bulgaria	2.6766	0.58819	2.7636	0.86754	2.9730	0.80126
3	Chile	2.8016	0.55303	2.5802	0.84785	3.1046	0.94255
4	Chinese Taipei	2.5945	0.51080	2.5222	0.76335	3.2184	0.71605
5	Colombia	2.7918	0.53735	2.5598	0.84473	3.3870	0.60929
6	Cyprus	2.4540	0.61557	2.4796	0.91035	3.0359	0.80828
7	Czech Republic	2.6446	0.53702	2.7225	0.82012	2.6566	0.87556
8	Denmark	2.8167	0.46880	2.7456	0.65467	3.0979	0.66684
9	Dominican Republic	2.9377	0.51860	2.8060	0.85447	3.2842	0.60126
10	Estonia	2.6152	0.45747	2.6270	0.68677	2.9082	0.70844
11	Finland	2.9344	0.46500	2.8392	0.59829	3.1182	0.66151
12	Greece	2.4581	0.59301	2.5830	0.84920	3.1375	0.77691
13	Guatemala	2.6718	0.52143	2.5908	0.83274	3.4984	0.56220
14	Hong Kong	2.7241	0.50176	2.1931	0.73925	3.0564	0.74005
15	Indonesia	3.2300	0.41783	3.0070	0.73776	3.3721	0.55478
16	Ireland	2.6974	0.51620	2.7192	0.78346	3.3065	0.70159
17	Italy	2.9348	0.45724	2.5064	0.78877	3.4441	0.65091
18	Korea	2.3327	0.51367	2.3914	0.79438	3.0636	0.69905
19	Latvia	2.4861	0.46587	2.6262	0.76927	3.1511	0.73710
20	Liechtenstein	2.9024	0.48888	2.8116	0.68800	3.1565	0.65755
21	Lithuania	2.6625	0.45968	2.7154	0.71767	3.2276	0.69743
22	Luxembourg	2.7207	0.52577	2.7339	0.78777	2.9889	0.76420
23	Malta	2.8573	0.50899	2.5007	0.79480	3.1313	0.69539
24	Mexico	2.6834	0.56943	2.5319	0.89502	3.3586	0.65073
25	Netherlands	2.7807	0.47928	2.5800	0.70173	2.9114	0.74818
26	New Zealand	2.7250	0.51056	2.6403	0.73533	3.0767	0.72245
27	Norway	2.8892	0.47191	2.5744	0.70804	3.2707	0.73644
28	Paraguay	2.7754	0.47158	2.7036	0.81209	3.3240	0.59710
29	Poland	2.4457	0.53012	2.5866	0.71879	3.0225	0.77862
30	Russian Federation	2.8204	0.44803	2.5594	0.69445	3.2535	0.69039
31	Slovak Republic	2.6411	0.53131	2.5202	0.76308	2.9877	0.77029
32	Slovenia	2.6514	0.57934	2.7734	0.77333	3.1121	0.78884
33	Spain	2.7798	0.51350	2.6673	0.81034	3.2354	0.73644
34	Sweden	2.8012	0.54050	2.7311	0.70815	3.0947	0.71542
35	Switzerland	2.7316	0.52726	2.6530	0.73588	3.0196	0.77445
36	Thailand	3.0559	0.43880	2.7715	0.78218	3.4545	0.62507
37	England	2.7467	0.50229	2.5466	0.75787	2.9555	0.77331
38	Belgium(Flemish)	2.6668	0.49188	2.6246	0.74969	2.8411	0.74415

국가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평균)	전통적·정파적 참여의향 (표준편차)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평균)	저항적·합법적 참여의향 (표준편차)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평균)	저항적·불법적 참여의향 (표준편차)	
1	Austria	2.1930	0.68007	2.5821	0.63747	1.8420	0.85147
2	Bulgaria	2.0313	0.69017	2.6319	0.60618	2.0893	0.82321
3	Chile	2.0545	0.75775	2.7826	0.67182	2.0590	0.82471
4	Chinese Taipei	1.9463	0.62905	2.4836	0.63243	1.5614	0.70947
5	Colombia	2.3494	0.71387	2.8599	0.53722	1.8553	0.74706
6	Cyprus	2.2329	0.77116	2.6308	0.66324	2.1730	0.89542
7	Czech Republic	1.8233	0.61458	2.4956	0.65037	1.9182	0.86437
8	Denmark	2.1279	0.53734	2.3698	0.55225	1.6142	0.65535
9	Dominican Republic	2.5750	0.74582	2.9170	0.55424	2.1838	0.78795
10	Estonia	1.9990	0.56578	2.4376	0.54246	1.7545	0.70604
11	Finland	1.9371	0.50015	2.5066	0.59764	1.8125	0.77307
12	Greece	2.1757	0.67015	2.6593	0.59414	2.3637	0.89902
13	Guatemala	2.3386	0.78665	2.7761	0.58232	1.8522	0.74948
14	Hong Kong	1.9635	0.64456	2.3868	0.61315	1.4658	0.64668
15	Indonesia	2.5279	0.63055	2.6797	0.52307	2.1443	0.73116
16	Ireland	2.1595	0.65358	2.6407	0.65782	1.9651	0.82210
17	Italy	2.0976	0.67322	2.4467	0.55824	1.6746	0.68858
18	Korea	1.8852	0.60337	2.2261	0.61879	1.7419	0.64712
19	Latvia	2.1871	0.64976	2.5532	0.58953	1.8925	0.83133
20	Liechtenstein	2.2237	0.59789	2.4493	0.56664	1.8067	0.82285
21	Lithuania	2.0708	0.64106	2.6646	0.60724	1.9512	0.81756
22	Luxembourg	2.1548	0.63525	2.5254	0.62532	1.8632	0.79406
23	Malta	2.0667	0.71314	2.4499	0.62653	1.6900	0.74843
24	Mexico	2.4637	0.78421	2.7362	0.62033	2.0103	0.84261
25	Netherlands	2.0559	0.58493	2.2598	0.55648	1.7979	0.71241
26	New Zealand	2.0709	0.63935	2.5195	0.65857	1.8815	0.78211
27	Norway	2.0936	0.58822	2.4183	0.60384	1.6831	0.68358
28	Paraguay	2.4323	0.68264	2.6864	0.56961	2.0582	0.71589
29	Poland	1.9753	0.61966	2.3045	0.61039	1.8579	0.76836
30	Russian Federation	2.2673	0.71625	2.3762	0.59159	1.7066	0.67628
31	Slovak Republic	1.9747	0.62024	2.5872	0.62217	1.7860	0.78199
32	Slovenia	2.0284	0.66500	2.4972	0.63223	1.8417	0.82916
33	Spain	2.0982	0.69283	2.5375	0.61586	1.8770	0.83102
34	Sweden	2.1038	0.58262	2.4123	0.59279	1.6777	0.71725
35	Switzerland	2.0671	0.60934	2.4010	0.58861	1.7461	0.77652
36	Thailand	2.5194	0.70288	2.4941	0.62814	1.7925	0.82524
37	England	2.0757	0.60300	2.5496	0.64301	1.8921	0.75495
38	Belgium(Flemish)	1.8028	0.58342	2.3506	0.59457	1.7483	0.74623

	국가	TV,비디오,DVD (평균)	TV,비디오,DVD (표준편차)	서적 (평균)	서적 (표준편차)	컴퓨터·인터넷 (평균)	컴퓨터·인터넷 (표준편차)
1	Austria	3.48	1.097	2.18	1.227	3.29	1.228
2	Bulgaria	3.60	1.178	2.37	1.149	4.14	1.287
3	Chile	3.48	1.119	1.91	0.987	3.28	1.433
4	Chinese Taipei	3.43	1.179	2.73	1.148	3.41	1.412
5	Colombia	3.47	1.192	2.31	1.031	2.83	1.455
6	Cyprus	3.54	1.156	1.97	1.033	3.78	1.258
7	Czech Republic	3.54	0.957	2.27	1.132	3.86	1.142
8	Denmark	3.54	1.018	2.14	0.988	3.78	1.100
9	Dominican Republic	3.08	1.352	2.48	1.154	2.38	1.400
10	Estonia	3.51	1.050	2.17	1.103	3.92	1.099
11	Finland	3.45	0.939	2.25	1.067	3.73	1.079
12	Greece	3.62	1.106	2.29	1.084	3.14	1.357
13	Guatemala	3.08	1.174	2.39	1.008	2.34	1.345
14	Hong Kong	3.50	1.133	2.72	1.105	3.89	1.123
15	Indonesia	3.26	1.108	2.41	0.982	2.07	1.318
16	Ireland	3.44	1.019	2.03	1.122	2.80	1.192
17	Italy	3.29	1.067	2.23	1.087	3.35	1.251
18	Korea	3.26	1.209	2.23	1.054	3.49	1.171
19	Latvia	3.58	1.002	2.32	1.058	3.75	1.151
20	Liechtenstein	3.25	1.018	2.00	1.073	3.30	1.176
21	Lithuania	3.64	0.966	2.44	1.105	3.77	1.164
22	Luxembourg	3.34	1.088	2.32	1.149	3.35	1.221
23	Malta	3.44	1.080	2.27	1.086	3.76	1.179
24	Mexico	3.35	1.201	2.07	0.973	2.76	1.438
25	Netherlands	3.42	0.995	1.91	1.006	3.64	1.054
26	New Zealand	3.41	1.155	2.25	1.154	2.97	1.238
27	Norway	3.64	0.981	2.17	0.975	3.61	1.134
28	Paraguay	3.11	1.283	2.39	1.030	2.41	1.432
29	Poland	3.58	1.026	2.36	1.132	3.79	1.177
30	Russian Federation	3.54	1.108	2.45	1.137	3.17	1.410
31	Slovak Republic	3.65	0.991	2.14	1.160	3.71	1.252
32	Slovenia	3.55	0.967	2.21	1.055	3.60	1.159
33	Spain	3.21	1.081	2.13	1.077	3.00	1.280
34	Sweden	3.64	0.996	2.19	1.078	3.95	1.059
35	Switzerland	3.13	1.038	2.19	1.125	3.18	1.133
36	Thailand	3.20	1.204	2.43	0.916	2.67	1.367
37	England	3.64	1.029	2.09	1.122	3.59	1.165
38	Belgium(Flemish)	3.53	1.009	1.86	0.990	3.27	1.171

	국가	TV (평균)	TV (표준편차)	신문 (평균)	신문 (표준편차)	인터넷 (평균)	인터넷 (표준편차)	친구와 채팅 (평균)	친구와 채팅 (표준편차)
1	Austria	2.64	1.107	2.52	1.147	1.69	0.930	3.10	1.314
2	Bulgaria	3.09	1.110	2.05	1.066	2.21	1.160	3.11	1.371
3	Chile	3.30	1.007	2.09	1.060	1.66	0.919	3.02	1.414
4	Chinese Taipei	3.21	0.924	2.60	1.076	2.33	1.094	2.78	1.399
5	Colombia	3.44	0.926	2.14	1.074	1.78	0.966	2.68	1.462
6	Cyprus	2.46	1.157	1.56	0.848	1.73	0.957	3.40	1.372
7	Czech Republic	2.83	1.042	2.22	1.016	2.36	1.060	3.34	1.364
8	Denmark	2.87	1.035	1.88	0.977	1.98	1.044	3.25	1.294
9	Dominican Republic	3.17	1.092	2.56	1.154	1.99	1.113	2.42	1.371
10	Estonia	3.08	0.973	2.49	1.016	2.52	1.092	3.35	1.284
11	Finland	2.47	1.060	2.42	1.081	1.98	1.007	3.24	1.172
12	Greece	2.57	1.166	1.56	0.895	1.65	0.922	2.89	1.307
13	Guatemala	3.12	1.056	3.01	1.024	1.70	0.945	2.54	1.356
14	Hong Kong	3.20	0.969	2.39	0.981	2.61	1.032	3.07	1.301
15	Indonesia	3.43	0.838	2.38	1.037	1.74	0.974	2.45	1.167
16	Ireland	2.42	1.152	2.11	1.107	1.46	0.788	3.21	1.303
17	Italy	3.20	0.999	2.06	1.005	1.98	1.031	3.22	1.368
18	Korea	3.01	0.965	1.89	1.006	1.95	1.019	2.20	1.187
19	Latvia	3.07	0.945	2.09	0.957	2.19	1.029	2.80	1.216
20	Liechtenstein	2.81	1.052	2.51	1.127	1.74	0.952	3.02	1.268
21	Lithuania	3.16	0.957	2.26	1.013	2.28	1.086	3.65	1.272
22	Luxembourg	2.72	1.098	2.43	1.146	1.74	0.941	2.96	1.351
23	Malta	2.82	1.136	1.89	1.003	1.87	1.009	2.96	1.311
24	Mexico	2.84	1.155	1.97	1.044	1.69	0.931	2.67	1.449
25	Netherlands	2.76	1.129	1.98	1.101	1.91	1.012	3.24	1.190
26	New Zealand	2.69	1.114	2.04	1.024	1.62	0.880	3.17	1.387
27	Norway	2.92	1.035	2.47	1.086	2.14	1.038	3.12	1.211
28	Paraguay	3.25	1.007	2.67	1.069	1.75	0.994	2.96	1.474
29	Poland	3.16	0.914	2.34	0.974	2.38	1.064	3.41	1.336
30	Russian Federation	2.72	1.060	2.12	0.989	2.01	1.097	2.79	1.332
31	Slovak Republic	3.02	0.992	2.41	1.046	2.23	1.108	3.05	1.287
32	Slovenia	2.55	1.072	2.03	1.008	2.05	1.073	2.88	1.210
33	Spain	3.12	1.088	1.76	0.971	1.63	0.883	2.73	1.273
34	Sweden	2.46	1.033	2.51	1.057	2.05	1.042	3.52	1.281
35	Switzerland	2.80	1.077	2.60	1.150	1.64	0.899	2.75	1.185
36	Thailand	3.17	0.927	2.63	0.904	1.94	0.942	2.27	1.155
37	England	2.61	1.119	2.17	1.093	1.83	0.981	3.36	1.288
38	Belgium(Flemish)	2.71	1.117	1.99	1.101	1.51	0.834	3.02	1.271

		부친 가정생활 (평균)	부친 가정생활 (표준편차)	모친 가정생활 (평균)	모친 가정생활 (표준편차)	국내이슈 대화 (평균)	국내이슈 대화 (표준편차)	국제이슈 대화 (평균)	국제이슈 대화 (표준편차)
1	Austria	0.7714	0.41727	0.9569	0.20119	1.95	1.012	2.25	0.946
2	Bulgaria	0.7886	0.40500	0.9049	0.29209	1.77	1.016	2.27	1.038
3	Chile	0.6597	0.47198	0.9216	0.26782	1.95	1.072	2.28	1.025
4	Chinese Taipei	0.8255	0.37855	0.8936	0.30788	1.85	0.962	2.20	0.999
5	Colombia	0.5303	0.49716	0.8443	0.36200	1.90	1.039	2.40	1.052
6	Cyprus	0.7686	0.41672	0.9343	0.24441	1.77	0.995	2.25	0.999
7	Czech Republic	0.7321	0.44232	0.9451	0.22730	1.60	0.814	2.07	0.881
8	Denmark	0.8041	0.38786	0.9488	0.21402	1.84	0.974	2.37	0.919
9	Dominican Republic	0.4579	0.49268	0.7795	0.41252	1.69	1.002	2.49	1.128
10	Estonia	0.6364	0.47886	0.9351	0.24503	1.63	0.842	2.05	0.897
11	Finland	0.7641	0.42128	0.9532	0.20877	1.48	0.752	1.90	0.868
12	Greece	0.7872	0.40688	0.9385	0.23853	1.81	0.999	2.45	1.020
13	Guatemala	0.6506	0.47415	0.9040	0.29339	2.10	1.012	2.50	1.047
14	Hong Kong	0.8342	0.36324	0.9328	0.24534	2.00	0.962	2.34	0.962
15	Indonesia	0.8112	0.38746	0.9080	0.28710	2.06	1.031	2.37	1.046
16	Ireland	0.7997	0.39789	0.9611	0.19162	1.83	1.021	2.18	0.988
17	Italy	0.7782	0.41333	0.9481	0.22021	2.15	1.113	2.57	0.977
18	Korea	0.4364	0.49144	0.7572	0.42668	2.10	0.929	2.17	0.909
19	Latvia	0.6139	0.48456	0.9085	0.28686	2.09	0.968	2.32	0.907
20	Liechtenstein	0.7191	0.44944	0.9743	0.15705	1.95	0.990	2.31	0.985
21	Lithuania	0.7161	0.44978	0.9446	0.22819	1.90	0.909	2.32	0.927
22	Luxembourg	0.7714	0.41625	0.9512	0.21338	1.81	0.984	2.37	0.965
23	Malta	0.7116	0.00000	0.9094	0.00000	1.84	0.987	2.30	0.970
24	Mexico	0.6770	0.46626	0.9047	0.29302	1.64	0.895	2.19	1.018
25	Netherlands	0.8381	0.36001	0.9674	0.17095	1.59	0.877	2.06	0.919
26	New Zealand	0.7192	0.44478	0.9161	0.27486	1.95	1.048	2.24	0.951
27	Norway	0.8202	0.37859	0.9506	0.21334	1.78	0.929	2.18	0.928
28	Paraguay	0.5827	0.48992	0.8160	0.38603	1.78	0.990	2.48	1.061
29	Poland	0.8376	0.36779	0.9665	0.17931	1.99	0.971	2.22	0.904
30	Russian Federation	0.6222	0.48395	0.9231	0.26595	1.78	0.863	2.15	0.928
31	Slovak Republic	0.7522	0.43043	0.9352	0.24531	1.80	0.927	2.08	0.871
32	Slovenia	0.7983	0.39896	0.9212	0.26842	1.50	0.796	2.14	0.904
33	Spain	0.7116	0.00000	0.9094	0.00000	1.72	0.966	2.22	0.971
34	Sweden	0.8159	0.38209	0.9491	0.21602	1.67	0.897	2.02	0.921
35	Switzerland	0.7677	0.42028	0.9600	0.19443	1.90	1.004	2.37	0.912
36	Thailand	0.6550	0.47373	0.7939	0.40398	2.21	0.899	2.46	0.941
37	England	0.7007	0.45570	0.9541	0.20717	1.67	0.941	2.09	0.953
38	Belgium(Flemish)	0.8265	0.37749	0.9626	0.18896	1.48	0.825	1.97	0.929

		소장서적 (평균)	소장서적 (표준편차)	기대 교육수준 (평균)	기대 교육수준 (표준편차)	부친 교육수준 (평균)	부친 교육수준 (표준편차)	모친 교육수준 (평균)	모친 교육수준 (표준편차)
1	Austria	3.58	1.413	2.62	1.006	3.26	0.940	3.19	0.957
2	Bulgaria	3.24	1.463	3.19	1.068	3.52	1.133	3.57	1.231
3	Chile	2.79	1.207	3.35	0.874	3.15	1.222	3.05	1.192
4	Chinese Taipei	3.30	1.382	3.41	0.865	3.22	1.125	3.15	1.020
5	Colombia	2.46	1.134	3.58	0.826	2.64	1.709	2.63	1.666
6	Cyprus	3.43	1.377	3.33	1.112	3.36	1.236	3.46	1.249
7	Czech Republic	3.51	1.213	2.79	1.006	3.41	0.822	3.36	0.818
8	Denmark	3.38	1.346	3.09	0.719	3.65	0.985	3.59	0.881
9	Dominican Republic	2.07	1.153	2.80	1.083	2.61	1.468	2.58	1.513
10	Estonia	3.83	1.258	2.99	1.124	3.59	1.003	3.79	1.038
11	Finland	3.49	1.218	2.80	0.996	3.40	1.097	3.56	1.035
12	Greece	3.55	1.309	3.42	0.872	3.39	1.242	3.49	1.189
13	Guatemala	2.28	1.152	3.23	0.960	1.85	1.632	1.52	1.660
14	Hong Kong	2.86	1.361	3.53	0.901	2.65	1.243	2.51	1.124
15	Indonesia	2.59	1.085	3.20	1.066	2.33	1.359	2.12	1.306
16	Ireland	3.40	1.369	3.03	0.974	3.40	1.148	3.50	1.066
17	Italy	3.35	1.356	2.94	1.059	2.86	1.153	2.87	1.139
18	Korea	3.72	1.313	3.67	0.660	3.80	1.091	3.55	1.035
19	Latvia	3.54	1.281	2.91	0.981	3.65	1.076	3.86	1.028
20	Liechtenstein	3.65	1.327	2.33	1.101	3.17	1.077	2.83	0.967
21	Lithuania	3.32	1.258	3.10	0.971	3.42	0.978	3.65	1.020
22	Luxembourg	3.83	1.469	2.97	1.055	2.99	1.400	2.88	1.406
23	Malta	3.59	1.272	3.09	1.246	2.91	1.376	2.81	1.266
24	Mexico	2.45	1.191	3.34	1.067	2.56	1.525	2.41	1.496
25	Netherlands	3.27	1.406	2.64	0.88	3.51	1.024	3.41	1.005
26	New Zealand	3.56	1.366	3.20	0.945	3.69	1.122	3.69	1.060
27	Norway	3.77	1.307	2.94	1.087	3.97	1.036	4.01	1.059
28	Paraguay	2.11	1.129	3.23	1.057	2.36	1.590	2.23	1.594
29	Poland	3.63	1.266	3.23	0.986	3.40	0.809	3.53	0.865
30	Russian Federation	3.59	1.234	3.36	1.010	3.84	1.105	3.98	1.074
31	Slovak Republic	3.30	1.176	3.06	1.016	3.45	0.836	3.44	0.841
32	Slovenia	3.34	1.267	3.09	0.901	3.65	0.914	3.71	0.988
33	Spain	3.56	1.295	3.00	1.282	2.95	1.514	3.04	1.490
34	Sweden	3.72	1.337	3.13	0.976	3.76	1.131	3.94	1.135
35	Switzerland	3.56	1.334	2.32	1.083	3.14	1.151	3.03	1.108
36	Thailand	2.52	1.127	3.31	1.021	2.25	1.523	2.02	1.494
37	England	3.41	1.446	3.26	0.931	3.52	1.091	3.50	1.055
38	Belgium(Flemish)	2.96	1.272	3.10	0.810	3.66	1.051	3.65	1.075

[부록 3-2] 국가별 사회경제지표

		성인 문자 해독 비율 (%)	GDP (US\$)	HDI	교육비 공공지출 (GDP 대비 %)	최근투표율 (%)
1	Austria	98.0	44879	0.955	5.4	81.7
2	Bulgaria	98.3	5163	0.840	4.5	55.8
3	Chile	96.5	9878	0.878	3.2	87.7
4	Chinese Taipei	96.1	29800	0.943	4.4	58.5
5	Colombia	92.7	4724	0.807	4.7	40.5
6	Cyprus	97.7	24895	0.914	6.3	89.0
7	Czech Republic	99.0	16934	0.903	4.4	64.5
8	Denmark	99.0	57051	0.955	8.3	86.6
9	Dominican Republic	89.1	3772	0.777	3.6	56.5
10	Estonia	99.8	15578	0.883	5.1	61.9
11	Finland	100.0	46261	0.959	6.4	65.0
12	Greece	97.1	27995	0.942	4.4	74.1
13	Guatemala	73.2	2536	0.704	2.6	60.5
14	Hong Kong	93.5	29912	0.944	3.9	45.2
15	Indonesia	92.0	1918	0.734	3.6	84.1
16	Ireland	99.0	59324	0.965	4.7	67.0
17	Italy	98.9	35396	0.951	4.5	80.5
18	Korea	97.9	20014	0.937	4.6	46.0
19	Latvia	99.8	11930	0.866	5.1	61.0
20	Liechtenstein	100.0	-	0.951	0.0	84.6
21	Lithuania	99.7	11356	0.870	5.0	48.6
22	Luxembourg	100.0	103042	0.960	3.4	91.7
23	Malta	92.4	18203	0.902	5.1	93.3
24	Mexico	92.8	9715	0.854	5.5	58.9
25	Netherlands	99.0	46750	0.964	5.3	80.4
26	New Zealand	99.0	32086	0.950	6.2	79.5
27	Norway	100.0	82480	0.971	7.2	77.4
28	Paraguay	94.6	1997	0.761	4.0	65.5
29	Poland	99.3	11072	0.880	5.5	53.9
30	Russian Federation	99.5	9079	0.817	3.8	63.7
31	Slovak Republic	99.6	13891	0.880	3.9	54.7
32	Slovenia	99.7	23379	0.929	6.0	63.1
33	Spain	97.9	32017	0.955	4.2	75.3
34	Sweden	99.0	49662	0.963	7.1	82.0
35	Switzerland	99.0	56207	0.960	5.8	48.3
36	Thailand	94.1	3844	0.783	4.2	78.5
37	England	99.0	45442	0.947	5.6	61.4
38	Belgium(Flemish)	99.0	42609	0.953	6.0	93.1

Note : Liechtenstein은 자료의 미비로 구득할 수 없었음.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Proposed student questionnaire for the main survey

NRC(June08)6.doc

*CONFIDENTIAL TO ICCS
DO NOT CITE OR QUOTE*

*National Research
Coordinators Meeting
Windsor
June 2008*



Università degli Studi Roma Tre
Laboratorio di Pedagogia sperimentale

PROPOSED QUESTIONNAIRE FOR THE MAIN SURVEY

Overview of proposed student questionnaire

1. This document contains the proposed Student Questionnaire (StQ) for the ICCS main survey and provides notes for translation and adaptation.
2. Each question may be follow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types of notes for National Research Centres (NRC):
 - A General comments about the background of the question
 - B Notes that provide guidanc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where required)
 - C Notes for test administration (where required).
3. General comments and notes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will not have to be translated as part of the instrument and will not appear in the final student questionnaire forms. Test administrator notes will be translated as part of the Test Administrator manual.
4. Expressions in carets (<>) will have to be adapted and need to be documented in the National Adaptation Form (NAF) and to be reviewed by the International Study Centre (ISC).
5. The questionnaire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sections:
 - A “About you”, asking questions about basic student characteristics
 - B “Your home and your family”, containing questions about the student’s parents and their home
 - C “Your activities”, consisting of questions about the student’s activities both at and outside of school
 - D “Your school” contains questions about students’ experience and views regarding classroom practices, climate and school participation. This section was originally treated as part of the StBQ.
 - E “Citizens and society” contains questions about students’ value beliefs regarding democracy and citizenship.
 - F “You and society” contains questions about students’ beliefs about themselves.
 - 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contains questions regarding students’ perceptions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different groups in society.
 - H “Institutions and society” contains questions about institutions in society including attitudes towards their own nation.⁶
 - I “Participating in society” contains questions about students’ sense of self-efficacy and expectation to participate actively in society.
 - J “You and religion” is an international option and contains questions about students’ religion or denomination, religious practices and attitudes towards religion.

ABOUT YOU

Q1 When were you born?

(Please write month and year)

_____ 19____
Month Year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the approximate birth dates of students. The **age of the students** will be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esting time (month and year) and date of birth (month and year). The data from this question will also be used for data cleaning purposes when comparing the data to the information on the completed student tracking form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A01 in the Field trial.*

Q2 Are you a girl or a boy?

girl boy
₁ ₂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the **gender of students**. The data from this question will also be used for data cleaning purposes when comparing the data to the information on the completed student tracking form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A02 in the field trial.*

Q3 <What best describes you?>

(Please tick only one box)

- | | | |
|-----|--------------------------|---|
| <A> | <input type="checkbox"/> | 1 |
| | <input type="checkbox"/> | 2 |
| <C> | <input type="checkbox"/> | 3 |
| <D> | <input type="checkbox"/> | 4 |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the **ethnic background of students** and is identical to Q3 in the CIVED Student Background Questionnaire. This question is optional for countries as in many countries this information is either irrelevant or already captured through questions about country of birth and language use at home.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A03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Stem: NRCs should choose a wording that is understood by students and captures what should be measured.

Categories: NRCs should use adaptations that resemble existing ethnic descriptions in their country and are not offensive or perceived as discriminatory by students. An example for adapting categories could be: <A> White, Indigenous, <C> Asian and <D> Other.

Q4 Which of the following <levels of education> do you expect to complete?

(Please tick only one box)

<ISCED level 5A or 6> ₁

<ISCED level 4 or 5B> ₂

<ISCED level 3> ₃

<ISCED 2> ₄

I do not expect to complete <ISCED 2> ₅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students' expected further education**.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A04b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Categories will have to be adapted to the national context and mapped to the ISCED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levels. NRCs will receive a copy of the ISCED brochure to help with the adaptations. Adaptations to these categories should be consulted with the International Study Centre. Each national category will require mapping to the ISCED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levels. The ISCED level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ISCED Level 2: Low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ISCED Level 3: Upp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including general, vocational and pre-vocational programmes).

ISCED Level 4 and 5B: Qualifications obtained in post-secondary programmes between upper-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ISCED 4) and qualifications obtained in tertiary programmes that are generally more practical/technical/occupation specific and typically shorter than ISCED 5A programmes.

ISCED Level 5A or 6: Qualification obtained from a tertiary study programme providing entry into professions with high skills requirements or an advanced research programme (ISCED 5A) or an advanced research qualification typically obtained after a second stage of tertiary education (ISCED 6).

Test Administrator note:

If students say that they do not know what level of education they expect to achieve, ask them to give their best guess. Keep in mind that this question asks for what students expect, not what they would like, to achieve.

YOUR HOME AND YOUR FAMILY

In this section you will be asked some questions about your family and your home.

Some of these questions will be about home and your mother and father or guardians who look after you — for example, step-parents or foster-parents.

If you share your time with more than one set of parents or guardians,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or those parents/guardians you spend the most time with.

Q5 Do any of these people live at home with you most or all of the time?

(Please tick only one answer in each row)

	Yes	No
a) Mother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b) Other female guardian (for example, stepmother or foster-mother)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c) Father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d) Other male guardian (for example, stepfather or foster-father)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e) Sibling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f) Grandparent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g) Other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ollect information on **household structure** by adding more categories to capture a more complete picture of the household.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B01 in the field trial.*

Q6 In what country were you and your parents born?

(Please tick only one answer in each column)

	You	Mother or female guardian	Father or male guardian
<Country of tes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₁
<Other country/group A>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₂
<Other country/group B>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₃
<Another country>	<input type="checkbox"/> ₄	<input type="checkbox"/> ₄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the **country of birth of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Please note that the question format with ticks in columns (instead of rows) is necessary to allow inclusion of more categorie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B02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Countries may add more categories either for specific countries or groups of countries as national adaptations (for example, "Another European country" and "Another non-European country", or "England", "Scotland", "Northern Ireland", "Wales", and "Another country"). NRCs should include only those countries or groups of countries that are relevant in their country (for example, by consulting national statistics on immigration). Countries not wanting to include any optional categories may reduce this question to two categories (<Country of test> and <Another country>). Please note that in the international database there will only be two categories (for <country of test> and another country).

Q7 What language do you speak at home most of the time?

(Please tick only one box)

<Language of test> ₁

<Other language 1> ₂

<Other language 2> ₃

<Another language>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students' **language background**.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B03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Countries may add more categories for languages or groups of languages spoken more frequently (for example, "Another European language" and "Another non-European language", or "English", "French", "Spanish", "Italian", and "Another language"). NRCs should include only those languages or language groups that are relevant in their country (for example, by consulting national statistics on language use). Countries not wanting to include any optional categories may reduce this question to two categories (<Language of test> and <Another language>).

Q8 What is your mother's or female guardian's main <job>?

(e.g. school teacher, kitchen-hand, sales manager)

(If she is not working now, please tell us her last main <job>. If she has never had a <job> please write what she is currently doing.)

Please write in the <job> title.

Q9 What does your mother or female guardian do in her main <job>?

(e.g. teaches high school students, helps the cook prepare meals in a restaurant, manages a sales team)

Please use a sentence to describe the kind of work she does or did in that <job>.

General comment:

*These two questions are proposed in order to capture data on **parental occupation**. The first open-ended question should capture the job title and the second one is added in order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in cases where the job title is insufficient for coding.*

Open-ended responses will be cod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 which consists of four-digit codes. These codes will then be transformed into the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which provides SEI scores that can be understood as the resources required for socio-economic advancement in modern societies. Data on occupational status could be combined with other socio-economic indicators to build an index of socio-economic background. Furthermore, occupations could also be grouped into types of occupations (for example, blue collar vs. white collar jobs).

Please use examples in Q9 that match the job titles given in Q8.

These questions were originally numbered B04a and B04b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job>: This should be understood as the primary and usually paid occupation of a person.

Test Administrator note:

If a parent is doing home duties and has never worked in a job before, students should write in "home duties".

Q10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by your mother or female guardian?

If you are not sure which box to choose, please ask the <test administrator> for help.

(Please tick only one box)

- <ISCED level 5A or 6> ₁
- <ISCED level 4 or 5B> ₂
- <ISCED level 3> ₃
- <ISCED level 2> ₄
- <ISCED level 1> ₅
- She did not complete <ISCED level 1> ₆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data on **parental education**.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B05b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Categories will have to be adapted to the national context and mapped to the ISCED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levels. NRCs will receive a copy of the ISCED brochure to help with the adaptations. Adaptations to these categories should be consulted with the International Study Centre. Each national category will require mapping to the ISCED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levels. The ISCED level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ISCED Level 1: Elementary/primary level of education. This level starts usually between ages 5 and 7 and has a typical duration of 4 to 6 years. In some countries, primary education is combined with lower secondary education. In these cases the first cycle of this basic education would be counted as ISCED 1.

ISCED Level 2: Low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This level may be the second phase of the primary phase of education.

ISCED Level 3: Upp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including general, vocational and pre-vocational programmes).

ISCED Level 4 and 5B: Qualifications obtained in post-secondary programmes between upper-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ISCED 4) and qualifications obtained in tertiary programmes that are generally more practical/technical/occupation specific and typically shorter than ISCED 5A programmes.

Proposed Student Questionnaire for the Main Survey

ISCED Level 5A or 6: Qualification obtained from a tertiary study programme providing entry into professions with high skills requirements or an advanced research programme (ISCED 5A) or an advanced research qualification typically obtained after a second stage of tertiary education (ISCED 6).

<test administrator>: This expression should be replaced with the appropriate word for the person administrating the test and questionnaire to the students.

Test Administrator note:

This question is asking about completion, that is obtaining a qualification. Just attending an institution where these qualifications can be obtained is not sufficient. If the student's mother obtained her qualifications abroad, please help the student to choose the response from the list that is most relevant.

Q11 What is your father's or male guardian's main <job>?
(e.g. school teacher, kitchen-hand, sales manager)

(If he is not working now, please tell us his last main <job>. If he has never had a <job> please write what he is currently doing.)

Please write in the <job> title.

Q12 What does your father or male guardian do in his main <job>?
(e.g. teaches high school students, helps the cook prepare meals in a restaurant, manages a sales team)

Please use a sentence to describe the kind of work he does or did in that <job>.

General comment:

See comments on Q8 and Q9. These questions were originally numbered B06a and B06b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See comments on Q8 and Q9.

Test Administrator note:

See note for Q8 and Q9.

Q13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completed by your father or male guardian?

If you are not sure which box to choose, please ask the <test administrator> for help.

(Please tick only one box)

<ISCED level 5A or 6> ₁

<ISCED level 4 or 5B> ₂

<ISCED level 3> ₃

<ISCED level 2> ₄

<ISCED level 1> ₅

He did not complete <ISCED level 1> ₆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data on **parental education**.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B07b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See note for Q10.

Test Administrator note:

See note for Q10.

Q14 How interested are your parent(s)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Very interested</i>	<i>Quite interested</i>	<i>Not very interested</i>	<i>Not interested at all</i>
a) Mother or female guardia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Father or male guardia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data on **parental interest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nd is a modified version of country suggestion presented at the NRC meeting in Rome.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B08 in the field trial.*

Test Administrator note:

If a student's parent (or equivalent guardian) is deceased the corresponding question should be left blank.

Q15 About how many books are there in your home?

There are usually about 40 books per metre of shelving. Do not count magazines, newspapers, or your schoolbooks.

(Please tick only one box)

0 - 10 books	<input type="checkbox"/> ₁
11 - 25 books	<input type="checkbox"/> ₂
26 - 100 books	<input type="checkbox"/> ₃
101 - 200 books	<input type="checkbox"/> ₄
201 - 500 books	<input type="checkbox"/> ₅
More than 500 books	<input type="checkbox"/> ₆

General comment:

Proposed Student Questionnaire for the Main Survey

*This question will be used to capture data on the **cultural environment**. This variable also measures students' socio-economic family background and could be combined with other indicators to build an index of socio-economic status. The categorie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used in the CIVED survey and similar to the ones used in TIMS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B10 in the field trial.*

YOUR ACTIVITIES

Q16 On a normal school day, how much time do you spend doing each of the following things outside of school?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No time</i>	<i>Less than 30 minutes</i>	<i>About 30–60 minutes</i>	<i>About 1–2 hours</i>	<i>More than 2 hours</i>
a) Reading for enjoymen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input type="checkbox"/> ₅
b) Hanging out with friend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input type="checkbox"/> ₅
c) Doing homework or study for school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input type="checkbox"/> ₅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ollect data on students' **leisure time activities**. The rationale for including this question is the potential importance of media consumption behaviour on students' attitudes, knowledge and behaviour. The question was originally based on C01 in the field trial.*

Q17 How often are you involved in each of the following activities outside of school?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Never or hardly ever</i>	<i>Monthly (at least once a month)</i>	<i>Weekly (at least once a week)</i>	<i>Daily or almost daily</i>
a) Talking with your parent(s) about political or social issu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Watching television to inform yourself about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w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Reading the newspaper to inform yourself about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w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Talking with friends about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Using the internet to inform yourself about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w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Talking with your parent(s) about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Talking with friends about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ollect data on students' **discussions with parents and peers, and media information, regarding issues related to civics and citizenship** as well as **social activitie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C02 in the field trial.*

Notes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boys/girls scouts> or <YMCA>: Please use similar (or the same) examples of youth groups known to the age group in your country.

<computer club> or <chess club>: Please use similar (or the same) examples of special interest groups known to the age group in your country.

Q18 Have you ever been involved in activities of any of the following organisations, clubs or groups?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Yes, I have done this <u>within</u> the <u>last twelve</u> <u>months</u></i>	<i>Yes, I have done this but <u>more than a</u> <u>year ago</u></i>	<i>No, I have never done this</i>
a) Youth organisation affiliated with a political party or unio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b) Environmental organisatio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c) Human Rights organisatio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d) A voluntary group doing something to help the communit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e) An organisation collecting money for a social caus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f) A cultural organisation based on ethnicit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g) A religious group or organisation (including religious servic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h) A group of young people campaigning for an issu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ollect data on students' **involvement in civic participation outside of school**. It is similar to the previous question but has three response categories that distinguish between recent or more current participation and that which occurred more than one year ago.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C03 in the field trial.*

Proposed Student Questionnaire for the Main Survey

If students have problems understanding what kind of organisation, club or group is meant, please try to illustrate the meaning with appropriate examples (Environmental organisation: Greenpeace, WWF; Human Rights Organisation: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Q19 At school, have you ever done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Please think about all schools you have been enrolled at since the first year of <ISCED 1>.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Yes</i>	<i>No</i>
a) Voluntary participation in school-based music or drama activities outside of regular lesson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b) Active participation in a debat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c) Voting for <class representative> or <school parliamen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d) Taking part in decision-making about how the school is ru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e) Taking part in discussions at a <student assembl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f) Becoming a candidate for <class representative> or <school parliamen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ollect data on students' **civic participation at school**. It is similar to the previous question but focuses on school-based activities and provides an extra category for students who have not had these opportunities at their school(s). The instruction is aimed at clarifying that any civic-related experiences since the beginning of schooling should be captured. <ISCED 1> (primary or elementary education) needs to be adapted to the national context and mapped to the ISCED classification (primary or elementary education that typically starts between age 5 and 7 with a typical duration of 4 to 6 year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C04 in the field trial.*

Notes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Proposed Student Questionnaire for the Main Survey

<Tutoring>: Activity where students help other students with the learning of any school subjects. Please note that this should only include school-based activities organised by the school or teachers.

<class representative> or <school parliament>: These terms should be adapted in words understood by students of the age group in the country and refer to democratically elected (groups of) student representatives.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common terminology for this, a descriptive wording should be chosen (“elected student representatives”) that would be commonly understood. Please note that mock elections should not be included.

YOUR SCHOOL

Q20 When discussing political and social issues during regular lessons, how often do the following things happen?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Never or hardly ever</i>	<i>In some lessons</i>	<i>In most lessons</i>	<i>In all lessons</i>
a) Students are able to disagree openly with their teacher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Teachers encourage students to make up their own mind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Teachers encourage students to express their opinion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Students bring up current political events for discussion in clas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Students express opinions in class even when their opinions are different from most of the other student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Teachers encourage students to discuss the issues with people having different opinion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Teachers present several sides of the issues when explaining them in clas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data on **classroom practices for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at school.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D01 in the field trial.*

Q21 At your school, how much is your opinion taken into account when decisions are made about the following issues?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To a large extent</i>	<i>To a moderate extent</i>	<i>To a small extent</i>	<i>Not at all</i>
a) The way classes are taugh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What is taught in class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The schoolbooks and other materials you us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The timetabl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Classroom rul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School rul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capture **the perception of students' influence on school matters** by asking to what extent students think that their opinion is taken into account when making decisions about how the school is run.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D02 in the field trial.*

Q22 How much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you and your school?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Strongly agree</i>	<i>Agree</i>	<i>Disagree</i>	<i>Strongly disagree</i>
a) Most of my teachers treat me fairl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Students get along well with most teacher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Most teachers are interested in students' well-being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Most of my teachers really listen to what I have to sa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If I need extra help, I will receive it from my teacher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captures the students' perceptions of student teacher relation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adapted from D03 in the field trial.

Q23 How much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student participation at school?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Strongly Agree</i>	<i>Agree</i>	<i>Disagree</i>	<i>Strongly disagree</i>
a) Student participation in how schools are run can make schools better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Lots of positive changes can happen in schools when students work together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Organising groups of students to express their opinions could help solve problems in school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All schools should have a <school parliamen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Students can have more influence on what happens in schools if they act together rather than alon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attitudes towards student participation in school.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D04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school parliament>: This expression may have to be adapted and should refer to any type of student representation that is democratically elected by students at the school. The expression should not refer to representations that are just elected as part of mock elections.

<student assemblies>: This term should refer to special meetings of students at school for the discussion of matters relevant for the school.

CITIZENS AND SOCIETY

Q24 There are different views about what a society should be like. We are interested in your views on this. **Please read the following statements and indicate how important you think they are for a society?**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Essential</i>	<i>Very important</i>	<i>Important</i>	<i>Not important</i>
a) Everyone has the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s freel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Political leaders cannot give government jobs to their family member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No company or government can own all the newspaper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All people have their social and political rights respected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People are always free to criticise the government publicl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elect their leaders freel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People are able to protest if they believe a law is unfair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h) Political protest is never violen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i) Differences in income between poor and rich people are small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value beliefs of students regarding **democracy**.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E01 in the field trial. Both stem, items and category labels have been modified.*

Q25 How important are the following behaviours for being a good adult citizen?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Very important</i>	<i>Quite important</i>	<i>Not very important</i>	<i>Not important at all</i>
a) Voting in every electio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Joining a political part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Learning about the country's histor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Following political issues in the newspaper, on the radio, on TV or on the interne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Showing respect for government representativ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Engaging in political discussion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Participating in peaceful protests against laws believed to be unjus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h) Participating in activities to benefit people in the <local communit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i) Taking part in activities promoting human right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j) Taking part in activiti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value beliefs of students regarding **good citizenship**.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E02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Proposed Student Questionnaire for the Main Survey

<local community>: This term should refer to the local context of students and schools as found in villages or towns in non-metropolitan areas or in quarters or neighbourhoods in metropolitan areas. In some languages, there may not be a direct translation of <community> and other words describing the notion of <community> may have to be used.

YOU AND SOCIETY

Q26 How much are you interested in the following issues?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Very interested</i>	<i>Quite interested</i>	<i>Not very interested</i>	<i>Not interested at all</i>
a) Political issues within your <local communit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Political issues in your countr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Social issues in your countr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Politics in other countri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International politic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Environmental issu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European politic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interest in political events and social issues**. Item g) is optional for the European regional module.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F01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local community>: This term should refer to the local context and environment of students and schools as found in villages or towns in non-metropolitan areas or in quarters or neighbourhoods in metropolitan areas. In some languages, there may not be a direct translation of <community> and other words describing the notion of <community> may have to be used.

Q27 How much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you and politics?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Strongly Agree</i>	<i>Agree</i>	<i>Disagree</i>	<i>Strongly disagree</i>
a) I know more about politics than most people my ag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When political issues or problems are being discussed, I usually have something to sa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I am able to understand most political issues easil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I have political opinions worth listening to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As an adult I will be able to take part in politic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I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issues facing our countr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self-concept regarding political participation**.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F02 in the field tri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Q28 There are different views about the roles of women and men in society. **How much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Strongly Agree</i>	<i>Agree</i>	<i>Disagree</i>	<i>Strongly disagree</i>
a) Men and women should be equally able to take part in governmen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Men and women should have the same rights in every wa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Women should stay out of politic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When there are not many jobs available, men should have more right to a job than wome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Men and women should get equal pay when they are doing the same job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Men are better qualified to be political leaders than wome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Women's first priority should be raising childre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attitudes towards **equal rights for gender group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G01b in the field trial.*

Q29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different <ethnic/racial groups> in society. **How much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Strongly Agree</i>	<i>Agree</i>	<i>Disagree</i>	<i>Strongly disagree</i>
a) All <ethnic/racial groups> should have an equal chance to get a good education in <country of tes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All <ethnic/racial groups> should have an equal chance to get good jobs in <country of tes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Schools should teach students to respect <members of all ethnic/racial group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Members of all ethnic/racial groups> should be encouraged to run in elections for political offic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Members of all ethnic/racial groups> should have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attitudes towards **equal rights for ethnic and racial group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G02b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ethnic/racial groups>: This expression should be adapted in a way to reflect current ethnic differences in a country and may refer to any type of ethnic or racial sub-groups in a countr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xpression should not refer only to particular groups in society but refer to all possible ethnic/racial groups (for example, an adaptation of <ethnic/racial groups> as "minorities" is not appropriate).

<Members of all ethnic/racial groups>: This expression should refer to people belonging to the ethnic/racial groups (see guidelines for adaptation above) and may have to be translated differently.

<country of test>: This should be replaced with the official name of your country.

Q30 People are increasingly moving from one country to another. How much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immigrants>?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Strongly Agree</i>	<i>Agree</i>	<i>Disagree</i>	<i>Strongly disagree</i>
a) <Immigrant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continue speaking their own languag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Immigrant> children should have the same opportunities for education that other children in the country hav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Immigrants> who live in a country for several year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vote in election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Immigrant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continue their own customs and lifestyl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Immigrants> should have all the same rights that everyone else in a country ha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attitudes towards **equal rights for immigrant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G03b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Immigrants>: People who move permanentl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n some languages there may not be direct translation and this group may have to be described with another expression. It should be noted that <immigrants> should not only refer to those people coming to the country of test but to immigrants in general. It is recommended not to use terms like "foreigners" that may convey negative connotations.

INSTITUTIONS AND SOCIETY

Q31 How much do you trust each of the following groups or institutions?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Completely</i>	<i>Quite a lot</i>	<i>A little</i>	<i>Not at all</i>
a) The <national government> of <country of tes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The <local government> of your town or cit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Courts of justic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The polic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Political parti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National Parliamen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The media (television, newspapers, radio, the interne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h) <The Armed Forc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i) School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j) People in general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k) European Commissio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l) European Parliamen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m) <State/Province> governmen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trust in different institutions. Stem and item wording have been modified from CIVED and items have been added. Items k) to m) are optional for countries; for the European module items k and l should be used to measure trust in European Commission and European Parliament.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H01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national government>: This may have to be adapted and should refer to the government at the national level of the <country of test>. In federal systems it should refer to the federal government.

<country of test>: Official name of your country. If a sub-region is participant in ICCS, please use the name of the nation and not the sub-region.

<National Parliament>: This may have to be adapted and should refer to the legislative body at national level and in federal systems to the federal parliament. In bicameral parliaments an expression should be used that refers to both houses (for example, if both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called "Congress").

<The Armed Forces>: This expression may have to be adapted and should refer to the military in general, not to separate branches (such as Navy, Army or Air Force).

<State/Province> government: In federal systems, the names for elected legislative bodies of the regional entities (for example, "states" or "provinces") may be used. Note that the adaptations should refer to both houses in cases where there are bicameral parliaments at this level.

Q32 How much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country of test>?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Strongly Agree</i>	<i>Agree</i>	<i>Disagree</i>	<i>Strongly disagree</i>
a) The <flag of country of test> is important to m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I have great respect for <country of tes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In <country of test> we should be proud of what we have achieved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I would prefer to live permanently in another countr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I am proud to live in <country of test>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Generally speaking, <country of test> is a better country to live in than most other countri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country they live in.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H02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country of test>: Official name of your country. If a sub-region is participant in ICCS, please use the name of the nation and not the sub-region.

<flag of country of test>: Official flag of the country. In some cases, the flag may have a specific name which should be used if commonly known under this name (for example, the British "Union Jack").

<citizens of country of test>: This should be adapted to the name of the inhabitants of your country (for example: Australians in Australia).

Q33 There are different political parties in this country <optional: for example, [A], [B] or [C]>. **Is there any political party that you like more than others?**

Yes

₁

No

₂

If yes, how much are you in favour of this party?

(Please tick only one box)

A lot

₁

To some extent

₂

A little

₃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attitudes towards and support for political partie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H05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optional: for example, [A], [B] or [C]>: It is optional to include examples of parties that exist in your country. In some countries where there are only a few important parties it may help students to give a response. In other countries giving examples could be rather confusing (for example, in countries where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party at regional and national level) or even seen as some form of promoting certain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SOCIETY

Q34 How well do you think you would do the following activities?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Very well</i>	<i>Fairly well</i>	<i>Not very well</i>	<i>Not at all</i>
a) Discussing a newspaper article about a conflict between countri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Arguing your point of view about a controversial political or social issu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Standing as a candidate in a <school electio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Organising a group of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changes at school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Following a television debate about a controversial issu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Writing a letter to a newspaper giving your view on a current issu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Speaking in front of your class about a social or political issu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feelings of **self-efficacy** regarding citizenship participation.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I01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school election>: This should refer to any democratic poll at school that serves the purpose of electing representatives or deciding on an issue. The expression should not refer to mock elections.

Q35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how citizens may protest against things they believe are wrong. **Would you take part in any of the following forms of protest in the future?**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I would certainly do this</i>	<i>I would probably do this</i>	<i>I would probably <u>not</u> do this</i>	<i>I would certainly <u>not</u> do this</i>
a) Writing a letter to a newspaper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Wearing a badge expressing your opinio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Contacting an <elected representativ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Taking part in a non-violent march or rall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Collecting signatures for a petitio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Choosing not to buy certain product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Spray-painting protest slogans on wall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h) Blocking traffic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i) Occupying public building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expected participation in protest activitie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102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elected representative>: This may have to be adapted and should refer to a member of an elected legislative body at regional or national level (for example: "Member of Parliament").

Radio <talk back, phone-in> programme: Adaptations should refer to radio programmes where listeners call to state their opinion.

Q36 Listed below are different ways adults can take an active part in political life. **When you are an adult, what do you think you will do?**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I will certainly do this</i>	<i>I will probably do this</i>	<i>I will probably <u>not</u> do this</i>	<i>I will certainly <u>not</u> do this</i>
a) Vote in <local election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Vote in <national election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Get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before voting in an electio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Help a candidate or party during an election campaig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Join a political part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Join a trade union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Stand as a candidate for a local or city offic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h) Vote in <state, province election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i) Vote in European election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expected participation as adult citizen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103 in the field trial. Items h and i are optional for countries.*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local elections>: Adaptations should refer to elections at the level of local communities, municipalities, counties, etc. (for example, to elections of councils or mayors).

<national elections>: This should refer to elections at the national level. In cases where a sub-region is ICCS participant NRCs should use the elections at the national and not the regional level.

<state, province elections>: This is optional for those countries where there are elected legislative bodies for states or provinces (in particular in federal systems).

Q37 Listed below are different actions that you as a young person could take during the next few years. **What do you expect that you will do?**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I will certainly do this</i>	<i>I will probably do this</i>	<i>I will probably <u>not</u> do this</i>	<i>I will certainly <u>not</u> do this</i>
a) Volunteer time to help people in the <local communit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Collect money for a social caus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Talking to others about your views o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Try to get friends to agree with your political opinion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Write to a newspaper about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f) Contribute to an on-line discussion forum about social and political issue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 Join an organisation for a political or social cause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expected participation as a young person in the near future**.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I04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local community>: This term should refer to the local context of students and schools as found in villages or towns in non-metropolitan areas or in quarters or neighbourhoods in metropolitan areas. In some languages, there may not be a direct translation of <community> and other words describing the notion of <community> may have to be used.

YOU AND RELIGION

Note for NRCs:

This section is an international option and should not be included in countries where this information is either viewed as irrelevant or where these questions would be seen as not appropriate.

Q38 What is your <religion>?

(Please tick only one box)

- | | | |
|-------|--------------------------|---|
| None | <input type="checkbox"/> | 1 |
| <A> | <input type="checkbox"/> | 2 |
| | <input type="checkbox"/> | 3 |
| <C> | <input type="checkbox"/> | 4 |
| <D> | <input type="checkbox"/> | 5 |
| Other | <input type="checkbox"/> | 6 |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will be used to capture **the religious background** of students.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J01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religion>: NRCs may ask either about religions (Christian, Jew, Muslim, etc) or denominations (Catholic, Protestant, etc). This expression should match the categories as either referring to religions or denominations.

<A>, , <C>, <D>: NRCs should use adaptations that resemble existing religious beliefs in their country. An example for adapting categories could be: "Catholic", "Protestant", "Muslim" and "Not religious". It is important to include a category for students who do not belong to any religion or denomination.

Q39 How often do you attend <religious services> outside your home with a group of other people?

(Please tick only one box)

- | | | |
|-----------------------------|--------------------------|---|
| Never | <input type="checkbox"/> | 1 |
| Less often than once a year | <input type="checkbox"/> | 2 |
| At least once a year | <input type="checkbox"/> | 3 |
| At least once a month | <input type="checkbox"/> | 4 |
| At least once a week | <input type="checkbox"/> | 5 |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will be used to capture the **religious practices** of students and should be administered in combination with the previous question.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J02 in the field trial.*

Note for adaptation and translation:

<religious services>: This expression may have to be adapted and should refer to any kind of religious services that are in practice in the country. Please do not use expressions that refer only to services of particular religions or denominations.

Q40 How much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religion?

(Please tick only one box in each row)

	<i>Strongly agree</i>	<i>Agree</i>	<i>Disagree</i>	<i>Strongly disagree</i>
a) Religion is more important to me than what is happening in national politic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b) Religion helps me to decide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c) Religious leaders should have more power in society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d) Religion should influence people's behaviour towards other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e) Rules of life based on religion are more important than civil laws	<input type="checkbox"/> ₁	<input type="checkbox"/> ₂	<input type="checkbox"/> ₃	<input type="checkbox"/> ₄

General comment:

This question is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attitudes towards religion. The question was originally numbered J03 in the field trial.

Abstract

A Study on Civic Competencies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International Comparisons and Support Systems Design Focusing on Media Use and Social Capital within Family

Previous research on the lack of civic competencies of adolesc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sis of democracy is rare. This study as an academic attempt to fill the gap of previous studies tried to analyze the lack of civic competencies of Korean adolescents and its causes, and to propose support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To this, the present study tests the effects of youths' media use and social capital within family on their civic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at the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creational use of media had overall negative correlations with civic competencies, whereas informational media use had overall positive correlations with civic competencies. Social capital within family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civic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s proposed support systems for developing civic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of the Korean youth.

Key words: civic competen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youth, international comparisons, support system, democracy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원고집필 ◆

이동엽 고려대학교 박사

◆ 연구자문 (가나다 순) ◆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보고서 감수)

박재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연구위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우창빈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영일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

◆ 연구보조 ◆

이경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인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연구보고 12-R16-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미디어이용과 가족내부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인 쇄 2012년 12월 21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3. 9. 53 제 20-444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657-7 94330

978-89-7816-648-5 (세트)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9 788978 166577 94330
ISBN 978-89-7816-657-7
978-89-7816-648-5 (세트)